

건축사

1998 **01** vol. 345

신년사론 김제위기속의 건축계 과제

작품리뷰 등그라미 유치원

특진 97년 건축계를 돌아보다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10 - 배기형(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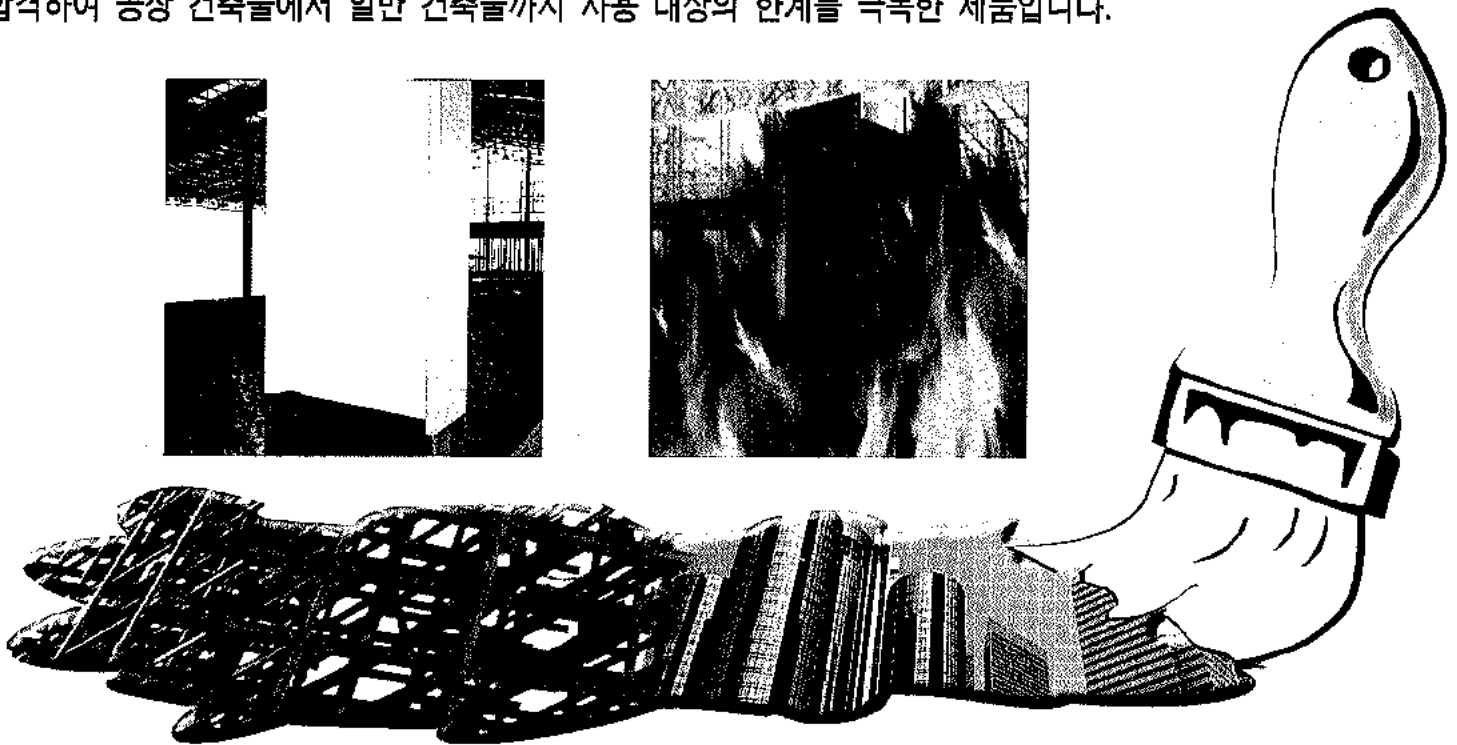


침단 철골내화 페인트

FIRE CONTROL 국립건설시험소 고시 제 1996-33호

공장 건축물에서 일반 건축물까지 ...

취급, 보관, 시공, 화재등 어떠한 단계에서도 냄새, 분진, 가스등의 유해 위험요소가 전혀 없는 청정내화제 FIRE CONTROL은 페인트 타입으로는 국내 최초로 일반 건축물용 시험에 합격하여 공장 건축물에서 일반 건축물까지 사용 대상의 한계를 극복한 제품입니다.



용도

철골 구조의 건축물 / 철골 구조의 공장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창고 물류센터 / 근린 생활시설 / 발전소 선박, 프랜트, 산업시설

특성

- 자체 독성이 전혀 없는 무해 재료이다.
- 화재시 유독한 연기를 방출하는 기존의 제품과 달리 발포성형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완전 불연재이다.
- 시공시 페인트 타입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안전상 문제점이 전혀없다.
- 시공후 깨끗하고 미려한 외관을 유지하며 자체강도, 부착강도가 강하여 변형, 변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성능

	대 상	내화시간	사용부위	도막두께
내 화 구 조 지 정	일반건축물 공장(2층이상) 창고, 물류센터 등	1시간	철골 (기둥,보)	하도:0.05mm 중도:2.95mm 상도:3.20mm
	공장(1층,중2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1시간	철골 (기둥,보)	하도:0.05mm 중도:1.95mm 상도:2.20mm

FIRE CONTROL은

건축법 제2조 제7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화성능을 갖춘것"으로써 내화구조 의무화 건축물의 준공검사시 필수적인 내화성능도로입니다.

H 하이템주식회사
HITEM CO., LTD.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92-4
남성 B/D 4F
TEL:(02)535-7230(대) · FAX:(02)535-6503
공장: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묵리 861
TEL:(0335)33-6074~5

신기술 혁신으로 안전을 생각합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
필

실용신안등록 제076984호
PUMA상표등록 제281348호
일본국(출) 평성4년 3718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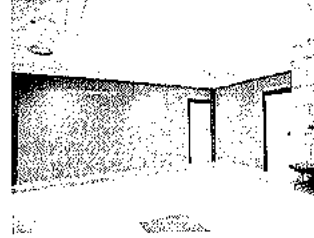
“푸마방화셔터는 별도 방화문이 필요 없습니다.”

?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래의 방화문, 방화셔터의 2중
구조를 하나의 방화셔터 시스템
으로 통합했습니다.

경제성 절대만족, 안전성, 편의성
등이 만족 시키며 세계최초로
방화셔터를 “푸마”의 신기술로
완성시켰습니다.



푸마 방화 셔터만이 당신에게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푸마셔터 설치업체

- 미도파 상계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 롯데쇼핑 본점, 청량리점
- 대구 동아쇼핑
- 신세계 영등점
- 경방빌 프리자
- 부산 리베라 쇼핑
- 명동 SS패션메장
- 대한투자신탁사옥
- 제일은행 구본점
- 하이마트호텔
- 조선호텔
- 워커힌호텔
- 숙초아남하이츠
- 세브란스빌딩
- 영도 구청사
- 아주대 부속병원
- 제주중앙병원
- 보령제약사옥
- 중앙대학교
- 이화여대
- 외 100여 업체 시공

세계전시회 출품

- '93동경 GOLD LIVING SHOW
- '93 서울 국제건축전시회
- '94 경향 하우징페어

- 푸마 방화셔터 국내 총판
- 전문건설업·참호·철물면허보유
- 국내유일 설계·제작·설치업체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東樂産業株式会社

본 사 : 서울特別市 九老區 九老3동 154-7

TEL : 838-4545(代)

FAX : 838-0474

공 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공단 156-14 B/L

제조원 : **아 주 셔 터 공 사**

년	월	일

정부시설공사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공문서형

이것은 사용용프로그램인 EMS-1234로 (국문형) 1995. 11. 10. (금요일)

공문서형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제 13160 호 1995. 11. 10. (금)

이제부터  정부시설공사 선정 프로그램인 EMS-1234로

- 내역작성을하여 발주처에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 수많은 발주처, 설계사무소, 시공회사들이 EMS-1234와 R.C, K-FIN를 찾는 이유를 아십니까?

고려전산이 견적/적산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전산내역 입찰시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 **아프터 서비스**

- 분기별로 일위대가와 자재코드 단가 관리를 해드립니다.
- 지속적인 Up-Grade
- 철저한 교육(매주 정기 교육 실시)
- 지속적인 사후관리

● **적용분야**

- 설계사무소, 감리사무소, 적산용역사무소, 관공서, 시공회사, 교육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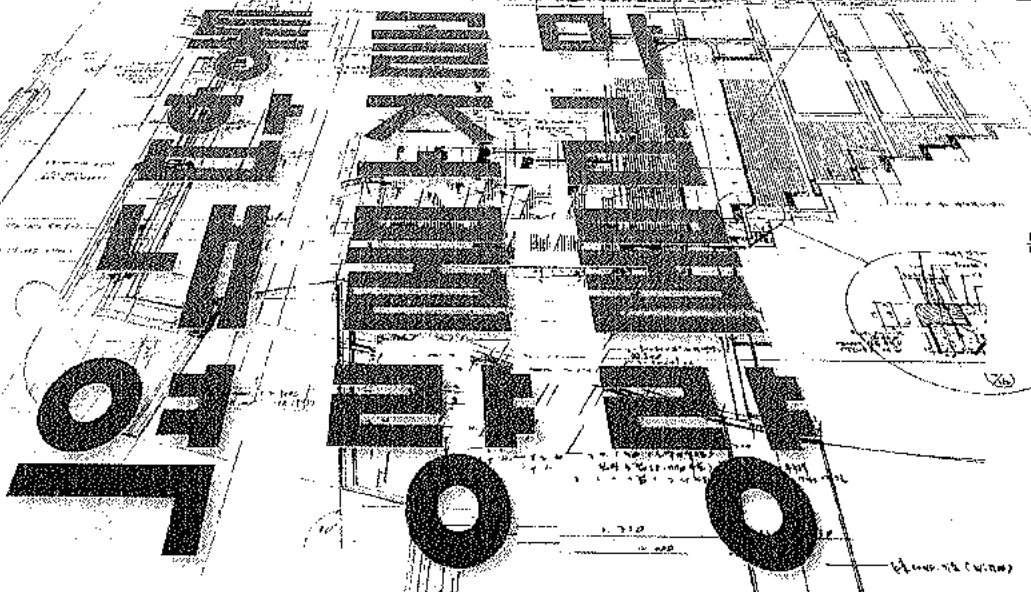
적산용역 업무문의
☎ (02)278-9095

본 사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59-5 현우빌딩 4층
TEL : (02) 529-6071~4
FAX : (02) 529-6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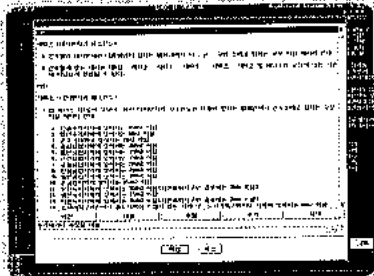
인터넷 홈페이지
<http://users.unitel.co.kr/~kkssbb>
E-MALL: kkssbb@user.unitel.co.kr

내역작성에서부터 내역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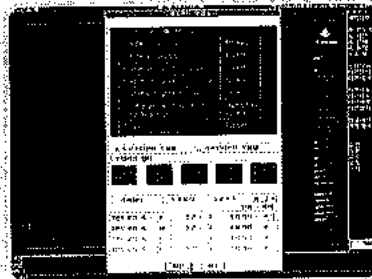


국내최초 법규적용 건축계획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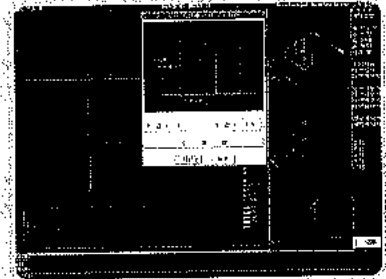
Auto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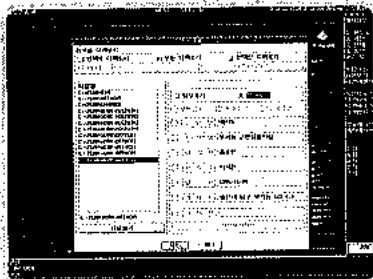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검토
- 지역과 지구에 의한 법규적용 건물용도와 용적률 설정
- 기타 각종 권화 및 원화규정 및 강화규정 검토
- 수정가능한 법규사전 도움말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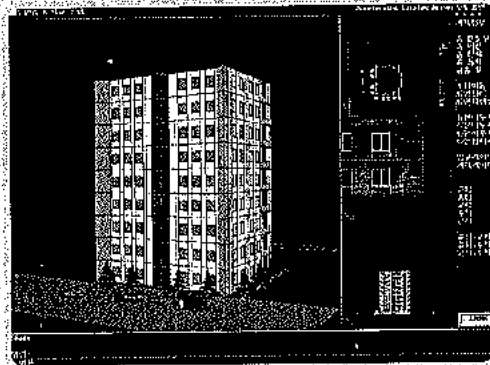
- 타블렛과 수치지적부를 이용한 지적도 확대
- 지적도 면적 보장기능 및 회전기능
- 도로부퇴 및 가각정리를 통한 제외면적 산출
- 제외면적을 근거로 실사용 대지면적 산출



- 대지안의 공지 설정
- 최대건축가능 면적 산출
- 도로사선과 일조권에 의한 3차원 모델생성
- 층고제약에 의한 각종비대면적 자동산출
- 중심선의 변경에 따른 리얼타임 건물용, 용적률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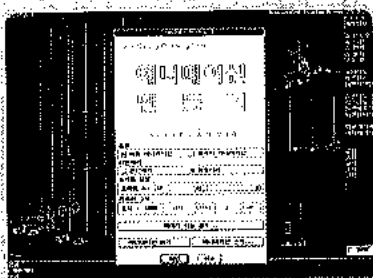
- 오토플랜에 포함된 도면관리 프로그램
- 프로젝트별, 도면별, 설계자, 건축주별로 검색
- 기타 필요한 주요정보 저장 및 검색기능
- 현도면에 다른 도면의 정보데이터 삽입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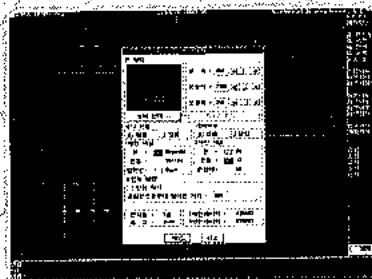
- 내부 투시도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 기능
- 외부투시도 조감도 기능
- 은선제거모드와 숨김처리모드 지원
- 건축에서 필요한 투시도를 가장 쉽게 완성



- 용도별 면적당 주차법규 설정
- 각 층별 용도설정으로 주차소요대수 선정
- 주차선 그리기 기능
- 조경면적 산출 및 검토기능



- 워킹 애니메이션 기능
- 팔라이 애니메이션 기능
- 카메라의 이동경로를 팔라이로 작도
- 애니메이션을 통한 프리젠테이션 효과 극대화



- 2차원과 3차원을 동시 및 분리 작도
- 내외벽 두께설정으로 벽체선 자동 작도
- 문과 창호의 종류와 크기설정으로 자동작도
- 각 부분을 2차원으로 작도하듯 편리하게 작도



- 토지대금, 건축공사비, 설계감리비 입력
- 제세공과금, 이자 등의 투자금액 입력
- 층별로 분양과 임대를 통한 예상수익금액 산출
- 총수입에서 총투자를 뺀 순익계산으로 사업타당성 검토

건축법규에서 실제 평면계획, 사업타당성 검토
그리고 3차원 투시도와 애니메이션까지

Since 1990...

부림시스템은 건축 CAD 전문회사입니다



부림시스템



AUTOCAD®
공인전문개발업체

본사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4-3 부림빌딩 2층 TEL. (02)571-2638(대) / FAX (02)573-7424

지사 :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5-1 21센츄리 오피스텔 1021호 TEL. (051)610-0527(대) / FAX (051)610-0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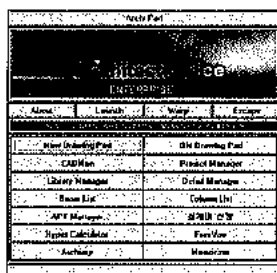
NEW

한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CIMCAD'98

국내 최초, 최초의 윈도우용 건축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국내 건축시장의 新 기술을 선도합니다



국내 건축설계 시장에서 가장 먼저 윈도우즈 버전을 발표
언제나 한발 앞선 기술력과 창의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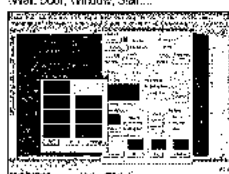
국내 건축 설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씨.아이.엠(주)

이번에도 업계 최초로 AutoCAD R.14를 위한 차세대 개발언어인
ObjectARX를 사용, 더욱 새롭고 향상된 기능의 CIMCAD'98을
선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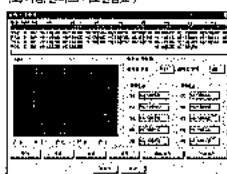
CIMCAD'98의 향상된 기능

- AutoCAD R13, R14지원 (Windows95, Windows NT 지원).
- ObjectARX로 개발된 빠른 명령어.
- 편리한 설치 및 사용하기 쉬운 도면 초기화 설정 기능.
- 사용자 정의의 도면요소 설정 및 관리기능.
- 쉽고 체계적인 Menu구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면작업 가능.
- 사용자 정의의 단축키 편집기능으로 다양한 명령어 활용.
- 기초일람표 및 슬라브 일람표 등의 손쉬운 구조 도면 작성.
- 1500여 개의 Library, Detail 제공 및 관리 기능.
- 자동단면 생성 기능.
- 도면관리 기능 내장으로 다양하고 빠른 파일검색.
- Architect Office와의 데이터 베이스연계로 확장된 기능 사용 가능.

강력한 설계 기능



구조 도면 작성



자동 실내재료 마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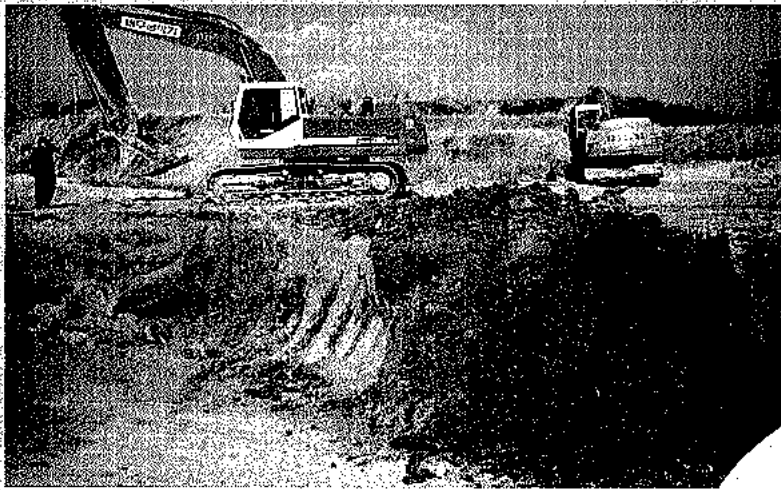


Detail Manager/Library Mana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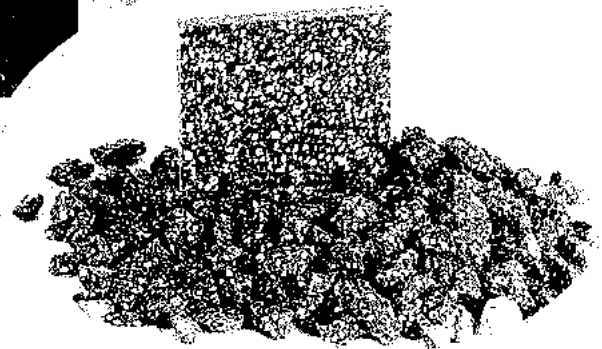
차세대 설계문화의 선두주자
KCM 한국씨아이엠(주)
본 사: 강남구 논현동 192-22 근동빌딩 3층
TEL: 515-3167 (대표) FAX: 515-3169
고객지원부: 강남구 논현동 175-4 해주빌딩2층
TEL: 512-2682 (대표) FAX: 511-1694

황토방



磁玉山 황토방

맥반석을 첨가합니다.
피부를 곱게합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17년 전통 자옥산 맥반석



자석에 붙은 자옥석

磁玉山 건강 온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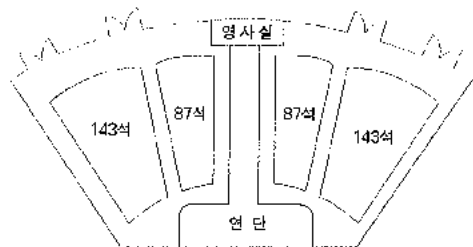
자석에 붙습니다.
수맥을 차단합니다.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수면시간이 단축됩니다.
건강에 최고입니다.



자옥산 세라믹스

경북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산 3-1 TEL : (0584) 52-8830, FAX : (0584) 52-8832, H. P : 011-533-8830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대관안내



대강당(460석)

대강당

- 기업 및 단체의 정기총회/세미나/강연회/교육·연수 등 대규모 회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면적 : 143평(계단식)
- 수용인원 : 460(좌석수)
- 부대시설 : 녹음/음악/영사실/무대/무대영사막/흑판/OHP/VPM/SP

회의실 임대료 및 기자재 사용료 기준

1. 회의실 임대료

(단위 : 원, VAT별도)

구분	좌석수	임 대 료	
		기본요금(3시간)	초과시간(시간당)
대강당	460석	300,000	60,000

- 사용시간 : 하절기(3월~10월)/09:00~18:00, 동절기(11월~2월)/09:00~17:00

※ 회원 및 관련단체와 장기사용(년10회 이상)의 경우 상가금액의 30% 할인.

2. 기자재 사용료

(단위 : 원, VAT별도)

장 비 명	사 용 료(1일 1회 기준)
비디오	30,000
OHP(오버헤드 프로젝트)	20,000
VPM(비디오 프로젝션모니터)	100,000(비디오 포함)
S/P(슬라이드 프로젝트)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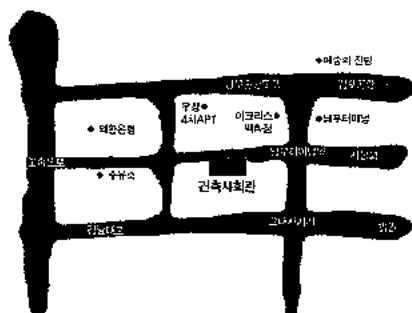
3.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시 예약금으로 임대료의 10% 이상을 납부

- 현수막 규격

- 대강당 : (가로) 900cm×(세로) 90cm

약도



대관 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건축사회관 대한건축사협회 총무부
상담·예약실(전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동쪽방향 150m 좌측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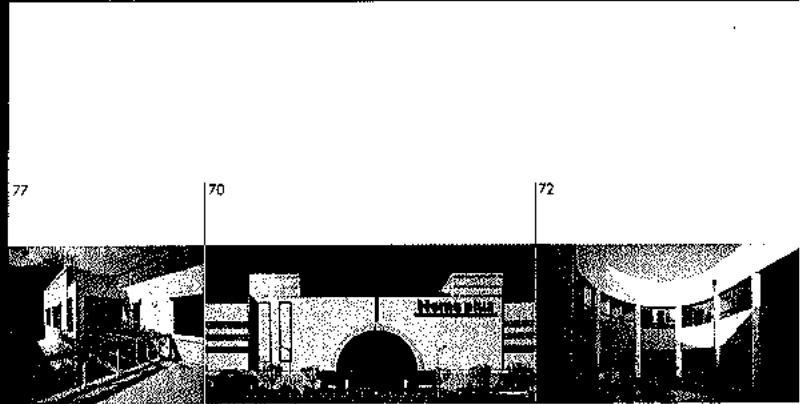
TEX : 581-5711~4 (교환 : 358 / 담당자 : 김지현)

FAX : 586-8823 / 585-4958

차례 1998 01 345호



동그라미 유치원(이종상작)



발행인: 김영수
 편집기획: 편찬위원회
 편찬위원: 방철린(위원장), 송호상(부위원장)
 동정근, 심영섭, 양남철
 편집·취재: 양원석, 정호상, 조한국, 윤태일, 진현경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U. D. C: 69/72(054-2) : 0612(519)
 인쇄인: 이봉수/정문사 (02)266-4565

Publisher: Kim Young-Soo
 Editor: Editorial Committee
 Editorial Member: Bang Chul-Lin, Seung Hchoh-Sang, Dong Jung-Geun,
 Shim Young-Sub, Yang Nam-Chul
 Assistant Editor: Business Expansion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 D. C: 69/72(054-2) :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신년사	우리 다같이 기대를 갖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김영수	12
신년시론 / 경제위기속의 건축계 과제	건축설계사무소의 현안과 진로 우습지 않은 우화 빈 곳을 채우자	최찬환 조성룡 부대진	14 18 20
작품리뷰 / 동그라미 유치원	대담: 육체적 시선의 임상건축학 비평: 살아있는 건물의 따뜻함	이종상 조권선 한민원	24 32 38
특집 / 97년 건축계를 돌아보며	총 평: 몇가지 중요한 논제들 국내건축: 공공·문화·교육시설부문 - 백가쟁명의 해 한국성과 정체성의 해결책 - 방어형 주택 97년의 업무·상업건축 해외건축: 서구건축 거꾸로 보기 설계경기: 설계자 선정을 위한 요식행위인가 건축이슈: 사회 문화적 이슈들의 허와 실 건축행정: 네가지의 짧은 생각 건축평론: 건축비평 - 음식과 의학과 건축이야기 전시·공모·출판: 나눔을 통한 건축문화의 진정성 찾기	윤승중 고성룡 박연식 손두호 김병운 김인철 김봉렬 윤혁경 이종건 이주연	42 45 48 50 52 56 58 60 62 64
회원작품	홈플러스 대구 칠성점 옥천 청소년 수련장 자하당 축협중앙회 강원도지회 청사 남강실크 빌딩 화순주택	삼우설계 이지훈 신언학 부대진+김무현 최삼영 한진수	68 72 76 80 84 88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10 - 배기형(완)	원정수	92
기고	건축직 공무원-그들의 생각과 오늘날의 위치 주한 프랑스 대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윤혁경 안상범	98 104
건축마당	협회소식 건축계소식 현상설계 해외잡지동향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신입회원 계시판		107 111 115 123 130 132 133

Newyear Address

We Must Get Through This Together	Kim Young-Soo	12
-----------------------------------	---------------	----

Focus / The Problem and Prospect of Architecture in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The Present and Future of Architecture Firms	Choi Chan-Hwan	14
To Get Over The Unamusing Farce	Joh Sung-Yong	18
Filling Up the Voids	Bou Dai-Jin	20

Review / Round kindergaten

Interview The Clinical Architecture of Bodily Gaze	Lee Jong-Sang	24
Critique The Warmth of a Breathing Architecture	Cho Kwon-Sup	32
	Han Man-Won	38

Special Issue / A Review on Architecture of 1997

General Review : Some Important Themes	Yoon Seung-Joong	42
Recent on Architecture of 1997	Go Sung-Yong	45
The Answer to the Korean and Its Identity		
- Defensive Housing	Park Yeon-Shim	48
Recent Trend of Commercial Offices	Shon Doo-Ho	50
An Alternative Look on Foreign Architecture	Kim Byung-Youn	52
The Design Competitions -Is It a Mere Formal Act?	Kim In-Cheol	56
The Truth and Falsehood of Social and Cultural Issues	Kim Bong-Ryol	58
4 Modest Thoughts	Youn Hyuk-Kyeong	60
Food, Medical Science and Architecture Criticism	Lee Jong-Keun	62
The Search for Truth in the Culture of Architecture through Communication	Lee Joo-Yeon	64

Works

Homeplus of Taegu Chilsung	Samoo Architects & Engineers	68
Okcheon Youth Center	Lee Chi-Hoon	72
Chahadang	Shin Eon-Hark	76
Kangwon-do Branch of NLCF. Bldg.	Bou Dai-Jin & Kim Moo-Hyun	80
Namkang Silk Bldg.	Choi Sam-Young	84
Hwasun Residence	Han Jin-Su	88

Serial

Korean Architect [E]: Bae Gi-Hyeong(E)	Won Jeong-Soo	92
--	---------------	----

Feature

Architecture Bureaucracy Its Current Stance and Status	Youn Hyuk-Kyeong	98
Dear Mr. Jean-Paul REAU, Ambassador	Ahn Sahng-Beom	104

Architects' Plaza

KIRA News	107
Archi-net	111
Competition	115
Overseas Journal	123
Statistics	130
New Members	132
Bulletin Board	133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4-6840 · 강북구건축사회/933-3425 · 강서구건축사회/604-7163 · 관악구건축사회/86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8-5244 · 구로구건축사회/862-2275 · 노원구건축사회/833-8076 · 동대문구건축사회/823-6213 · 동작구건축사회/615-3026 · 마포구건축사회/233-6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552-6468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6 · 양천구건축사회/853-2892 · 영등포구건축사회/8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6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송로구건축사회/735-0975 · 중구건축사회/231-5746 · 중랑구건축사회/437-7956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699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74-8836 · 66-5651, 7930

■ 경기도건축사회/(031)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4)63-3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2)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31)41-7987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84-4121 · 안산건축사회/(0345)80-0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2)49-2686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5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 포천지역건축사회/(033)857-6140 · 오산건축사회/(0336)875-8446 · 용인지역건축사회/(0325)36-0140

■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91)335-7371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31-3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2)33-5067 · 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6

옥천지역건축사회/(0475)33-350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43-62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847-308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6-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34-338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7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61-426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561 · 홍성지역건축사회/(0547-32-2755

■ 전라남도건축사회/(0652)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6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33-2000 · 익산지역건축사회/(0653)52-3796

■ 전라북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21)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6)742-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33-2000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6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51-1537 · 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6)63-6677 · 상주지역건축사회/(0562)535-83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57-746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34-5500 · 영천지역건축사회/(0536)34-8250 · 칠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6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635-3432 · 거창지역건축사회/(0598)43-8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5-5699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1323 · 상천지역건축사회/(0593)33-9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23)84-3050 · 울산지역건축사회/(0522)74-8836 · 진주지역건축사회/(0501)745-6403 · 함양지역건축사회/(0557)645-7420

■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82-2235

우리 다같이 기대를 갖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We Must Get Through This Together

김영수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Kim Young-Soo



회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허탈과 실의에 지친 丁丑年은 갔습니다.

기대속에 戊寅年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이 맞이하는 이 戊寅年이야말로 우리의 生業은 물론 우리민족의 장래를 위해 너무나 중요한 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대통령의 선출이라는 기쁨도 잊은 채 외환위기의 절망감 그리고 경제파탄의 허탈감속에서 「IMF 시대」라는 냉혹한 현실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제금융의 갈증, 성장을 하향조정, 금융 및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우리경제의 벼랑끝이 어디인지 그야말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실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경쟁부재상황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현재, 위기탈출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파누물리는 死鬪가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우리 건축사 또한 범국가적 대열에 적극 동참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그 선봉에서 적극적 협력자가 되고 능동적 견인차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국가의 장래를 위한 건축인이었고, 언제나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건축사였기에, 오늘 이 국난을 돌파하는 모든 힘과 지혜도 우리의 몫으로 끌어 안아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건축계도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기존의 관행과 의식 그리고 이기와 만일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모든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모든 고난을 함께 이겨 내야만 합니다. 진정 우리가 국민과 함께 할 때 우리의 生業도 지켜질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건축 또한 그 미래도 보장될 것입니다.

전국의 회원 여러분!

협회 또한 거듭나야 한다는 강인함과 비장함으로 재무장하겠습니다. 98년도의 통과 예산도 초간축예산으로 재편성 하고, 사무처의 분위기도 일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기업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인건비 동결을 넘어 가혹한 모든 조치도 이미 끝냈습니다. 또한 격주간 근무제도를 폐지하여 광열비 등 관리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연봉제를 도입하여 책임근로

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러나 위기극복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발전사업은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 위기의 수렁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힘은 들겠지만 회원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지난해 기반을 구축한 건축정보센터를 본격화하고, 건축문화 및 건축정책의 발전을 위한 건축연구소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공제조합설립도 면밀한 계획을 통해 구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모성 사업이 아닌 협회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향후에는 회원 회비에 의존하는 협회가 아니라 자체수익사업으로 협회가 운영되도록 그 기반을 확실히 다져 놓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餓死직전에 내몰린 건축설계시장이야말로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업무중단, 폐업속출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현실로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무기력함마저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버티지 않으면 쓰러지고 맙니다. 克己와 自救策만이 생존의 방법입니다. 고통받는 국민, 위기에 몰린 국가를 생각하면서 그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우리는 살아 남아야 합니다.

아제 혼자서는 안됩니다. 여러사람이 함께 모여 공동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소를 합치고 인원을 함께 활용하며 운영비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더욱 專門化하고 特化하여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대감각과 구조조정을 놓치면 이겨낼 수가 없는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건축계는 전문화·대형화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정책적으로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건축물 종류별로 사무소의 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업종별로 대형화를 이루어 건축설계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속한 전환을 꾀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무한 경쟁상황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입니다.

전국의 회원 여러분!

이럴 때 일수록 우리의 대고객 서비스는 더욱 더 철저해야 합니다. 업무의 창출과 지속은 위기관리 능력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존심을 잃을 때 우리 건축사 모두가 공멸하고 맙니다. 이런 일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건축주들의 심리적 안정회복과 건축활동의 조속재개에도 우리의 꾸준한 노력이 투자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협회의 노력 또한 절실하고 긴급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들의 건축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는 건축관련 규제와 불필요한 행정간섭을 대폭 완화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법규와 관련제도를 개정하고 개선하는데 전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서의 불합리한 주차규정, 인허가 과정의 절차간소화와 투명성 보장, 생활과 동떨어진 건축법규의 일체 정리, 행정편의가 아닌 국민편의위주의 제도 통합정비 등 그야말로 실질적인 민간건축물의 자율건축시대를 열어가는데 협회가 주도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신정부 출범과 때를 같이하여 합리적 건축활동과 합목적적 도시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회의 정책적 지원에도 관심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회원 여러분!

戊寅年 새해가 비록 우리들에게 고통과 아픔으로 시작되지만, 우리의 인내와 그 노력의 결과는 향후 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도전과 변화의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 시련과 극복의 궁극적 목표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겪어야 할 진통이라면 새로운 틀과 사고속에서 참다운 아픔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 건축사들의 숙명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은 바로 우리 건축사의 힘이고, 영광의 탈출 또한 우리 건축사의 보람입니다. 미래를 향한 민족의 비전 또한 건축문화와 더불어 영원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한해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협회의 건축사가 반드시 다시 일어서는 영원불멸의 해로 기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우리 회원님들에게 행운과 건강이 꼭 함께하면서 더없는 기대와 희망으로 충만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戊寅年 새해 아침에

경제위기속의 건축계 과제

The Prospect of Architecture in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외환부족에서 비롯된 작금의 경제위기는 국가부도사태가 우려될 만큼 심각한 지경에 놓여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다. 더욱이 2월이면 들어설 새정부의 경제운영지표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합리한 규제혁파와 시장경제원칙에 의한 경제개혁으로 IMF시대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은 그동안 국내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던 대다수 건축사무소의 경영에 많은 난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건축계 종진 몇분을 모셔 이 미증유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계기로 오늘의 시대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건축계의 활발한 논의와 실천적 노력들이 점증되기를 바란다. <편집자 주>

건축설계사무소의 현안과 진로	최찬환
우습지 않은 우화	조성룡
빈곳을 채우자	부대진

건축설계사무소의 현안과 진로

The Present and Future of Architecture Firms

최찬환 /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Choi Chan-Hwan

그간 지면을 통해 건축계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문제에 대해서 여러차례 의견을 밝힌 바 있으나 건축실무사회에서 직접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일을 학계에 몸담고 있는 필자가 언급한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지만 직접적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다는 참관자의 입장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최대의 위기와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논의하고자 한다.

현안문제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근년에 이르기까지 지난 30여년동안 근대화과정에서 경제의 고도성장과 발전, 도시화, 해외건설, 신도시건설, 주택건설의 확대, SOC 사업, 공공건설과 민간개발이 활기치게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건축계도 꾸준한 양적팽창과 함께 질적성장을 하게 되었다.

건설환경변화는 크게보면 건설물량의 증대, 사업의 대형화와 고도화, 고급인력의 양성과 배출, 기능인력의 수요증대와 공급부족, 지가상승과 부동산투기, 위법부실시공과 대형사고, WTO와 건설시장의 개방 등에 이르기까지 다종 다양하며 건축계 안에서 볼 때, 1, 2급 건축사의 건축사로의 제도개선, 합동사무소, 종합사무소와 단독사무소, 설계와 공사감리의 분리와 통합, 현장조사감사대행업무, 감리전문회사와 책임감리, 종합설계제도의 시도와 그 부당성에 몇 년 동안이나 있는 힘을 쓸데없이 낭비했는가 하면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건축계의 업역이나 기독권의 싸움으로 비쳐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이와 더불어 등록건축사의 양적증대로 인한 치열한 경쟁, 덤핑수주와 설계부실, 건축설계분야의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서 오는 기술인력의 확보난과 잦은 직장이동, 그리고 공사감리의 책임한계와 빈번한 처벌, 행정규제로 인한 각종심의, 승인, 인·허가의 복잡한 절차와 업무추진의 어려움, 건축주의 사업성과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 그리고 설계자의 작품성에 대한 애착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 상호마찰을 일으켜 갈등을 불러왔던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건축사의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활동이라는 전문직업의 특성으로 인한 집단적 단합의 어려움은 공동체적 성격이 약화되어 있으며, 건축사연금의 해체, 공동사업의 부진, 상호 긴밀한 정보교류와 유대의 결여, 일반 서민계층에 대한 건축서비스가 낮고, 국민의식속에 뚜렷한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논리에 밀려 문화참작예술로서의 정신적 활동이라는 측면이 아주 낮게 인식되는 등의 어려서래가 건축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여건이며 오늘날 건축사와 설계사무소가 처한 현실의 여러 당면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당면과제

국가적인 경제난국을 맞이하기 전부터 건축계는 현실경제의 어려움을 실무과정에서 느껴왔으며, 특히 민간부문에서 건설투자가 저조하여 설계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소규모 설계사무소부터 일찍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경제적 불황의 조짐이 있었다. 그러나 IMF시대로 대변하는 오

늘의 경제난국은 예외없이 건설부문에도 크나큰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고 해외건설의 호조에 힘입은 일부 대형 해외건설회사를 제외한 국내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건설회사와 설계사무소는 사활이 걸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는 98년도 건설부문의 투자를 85조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이를 하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신규투자사업의 중지 또는 축소는 물론 기존의 진행되고 있는 건설사업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공공공사가 주축이 되는 토목에 비해 민간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부문이 보다 침체될 것이며 신규투자사업에 전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설계업우는 보다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이 명운을 걸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투쟁의 방편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해고와 실직 등 대량실업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기업이나 개인의 신규투자는 무척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도 기 진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위주로 예산배정과 집행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며 이것도 전면 재검토 과정을 거쳐 조정할 것으로 보여져 설계시장의 한파는 경제난국이 해결될 때까지 때로는 그 이후라도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당면과제는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경쟁력의 확보이다.

설계사무소도 경제논리에 따라야 하므로 거품경제의 소산인 고비용 저효율을 극복하고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특히 국제개방화시대에서는 국제경쟁력확보가 필수적이다. 비슷한 설계용역비에서 우리나라의 실시설계의 수준이 외국에서의 기본설계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경쟁력은 떨어진다.

설계사무소와의 공동사업에 무관심하면서 경쟁적으로 개별사무소 위주로 운영하는 것은 중복투자와 함께 안해도 될 이중 삼중의 일을 반복하는 셈이 된다. 개별 설계사무소 단위로 하면 비효율의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에 기존지로의 활용, 정보교류, 기능인력의 양성, 교육훈련 등은 공동사업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양(量)보다는 질을 위주로 하는 시대로 디자인이나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전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만능적 직능인이 되기는 불가능하다. 개인의 소질과 취향에 따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특성 있는 전문가가 양성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터전으로의 전문화가 시급하다.

잘 달리는 사람이라고 단거리인 100m의 경주에서부터 장거리인 마라톤까지 모든 종목에서 선수로 뛸 수 없듯이 한 사람의 건축사가 모든 건축물을 모두 잘 설계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개인이 독주하는 사회는 경쟁이 많고 분규

와 불화가 많으나 협력의 사회는 더불어 사는 상호회합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전문성과 경쟁력은 불가분의 관계일 뿐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이므로 이제 설계사무소도 전문성을 가져야 할 시기로 보여진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한가지를 뛰어나게 잘 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전문인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이제 건축사도 전문분야의 설계자로 특성화하고 설계사무소도 전문업무영역을 가지고 전문화, 특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설계에 대한 위상정립과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우리사회에서는 사실 의사, 변호사에 비해 건축사가 전문직으로서의 국민적인 인식과 직업에 대한 위상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건축물을 만드는 직업으로서 공공성과 문화성, 개인의 재산권과 국가자산인 국토공간의 건설자로서 그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관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인·허가에 매달려 위법·불법의 책임을 지고 처벌의 대상이 되고 일반서민의 집수리는 외면하고 소수의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업무활동에 국한된 직업이라면 직종에 대한 인식과 그 위상을 높이는 것은 거의 어렵다.

어느 직업이고 국민가운데 인식되지 못한다면, 그 직업의 위상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만큼 활동의 폭은 좁아지고 직업관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건축설계도 국민가운데 그 인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그마한 주택의 설계와 증축, 개보수 공사가 설계용역비로 보면 경제적으로 큰 보탬이 되지 않는 반면 해야 할 일이 많고 번거로워 매우 힘든 일이지만 대형건물을 설계하는 것에 비해 헛된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많은 서민들에게는 자기와 무관한 큰 건물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것보다는 자기집의 손질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으며 대다수의 국민이 이러한 계층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설계라는 업무가 모든 이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며 건축사가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꼭 필요한 직업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소형건축물에 대한 건축서비스가 형편없는 수준인 것은 타성에 젖어 무심하게 해왔거나 아니면 상호 편의에 의해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거나 때로는 법령과 제도때문이라고 탓할 수 있겠지만 이제 새출발하는 마음으로 모든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철저한 직업관을 정립해야 할 것으로 본다.

몇가지 방안

건축사사무소가 처해있는 현실여건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비추어 다음의 몇가지 세부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업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생산성 제고

중복업무 등 고비용 저효율구조는 국가 사회적인 낭비일 뿐 아니라 개인사무소로서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설계경기에서 여러 사무소가 경쟁적으로 중복업무를 하는 것은 그 특성상 불가피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비용의 최소화과 낭비요인을 줄여야 한다. 설계의 기본구상을 가지고 우열을 판단하는 수준이므로 지나친 경비지출이 안되도록 도면분량의 제한과 계획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간단한 기본모형으로 하고 색채투시도 등을 배제한다.

특히 턴키설계는 실시설계에 해당되는 엄청난 도면작성을 하고 있으며 중복업무의 대표적 사례가 되므로 하루 속히 정부가 제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설계사무소에서 흔히들 회자되고 있는 사실로서 경기설계에 10개정도 출품하면 1개정도의 당선작도 뽑히기 어렵다고 한다면 떨어진 9개의 작품제작에 낭비적 비용지불을 한셈이므로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설계사무소가 1개의 설계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수주가 불확실한 가운데 여러개의 타당성조사와 가설제(아이디어설계) 또는 계획설계를 무료로 해야 된다면 분명히 낭비요소가 크고 생산성이 떨어진다.

계약도 하지않고 비용도 받지못하면서 같은 설계과제를 여러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맡기는 건축주가 있고 이들 때문에 대가없는 헛일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크다. 발주자가 설계용역을 미끼로 설계사무소간의 치열한 수주경쟁으로 덤핑을 유도하고 정보교류가 긴밀하지 못한 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지만 설계사무소의 입장에서선 결과적으로 고비용 저효율과 생산성저하의 큰 요인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과 결부하여 무료설계는 철저히 배제하도록 보수요율기준에 기획설계와 계획설계의 요율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설계사무소간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자기방어와 업계보호를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어떤 업종이든 무료로 업무를 해야하는 낭비요인이 있는 한 생산성 향상과 고비용의 극복은 어렵다.

이제 새해부터는 기쁨이나 어려운 형편이므로 모든 일은 적절한 비용을 받아야 한다. 경영의 기본은 밀지는 장사는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국민봉사와 자발적 헌신이 아닌 한 낭비적 헛일, 불필요한 일은 줄여야 한다.

그리고 설계사무소에서 시공회사가 그려야 할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을 작성하는 잘못된 일이나 낭비적 업무는 없어야 한다.

2) 유연성과 탄력성

가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융통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설계사무소 인력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필수적이다. 특히 수주에 의한 건축설계업무는 그 특성상 경기변화와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며 업무량의 기복이 심하다. 홍수처럼 업무가 몰릴 때는 인력이 모자라고 일이 끝나고 수주가 안되는 가뭄과 같은 시기에는 인력이 남아돈다. 이와같은 업무와 인력의 편재현상을 줄이는 것이 인건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설계사무소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외부조직과의 계약에 의한 상호협력설계(Joint Venture), 설계사무소간의 연합과 제휴, 직원의 계약직제와 연봉제 도입, 프로젝트별 계약, 성과급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설계사무소 조직의 대형화와 활성화, 그리고 책임경영을 위한 설계사무소의 연합화와 소그룹별 독립채산제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당장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면 우선 인력의 Full제 활용으로 유류인력을 줄이기 위해 설계사무소간의 전략적 제휴와 연합이 필요하다. 외부적으로는 사무소의 인지도를 높힐 수 있으며 PQ 등 실적 심사에서도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고 인력교류에 의한 일감의 편중현상에 대응하고 효율적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합동사무소, 종합사무소가 제도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외부환경변화에 따라 사무소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무소 연합제와 인력의 Full제, 협력설계의 강화 등이 새로운 형태로 자리잡는 것도 바람직하다.

3) 업역의 확대와 전문화

현재 국내 건축설계시장의 용역비 규모는 연간 약 2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여기에 6,300여 건축사와 5만여명의 종사직원, 그리고 여러 관련 협력회사 직원이 매달려 있다. 시장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전문화를 하면 업역이 좁아진다고 인식되기 쉬우나 시장이 넓어지는 효과와 함께 불필요한 경쟁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의료분야에서 전문의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내외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듯이 설계사무소의 전문화는 업역의 확대를 위해서나 업계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건설업체가 설계업을 겸업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그것이 부당함을 강변한 것도 전문화라는 대세의 흐름에

따르라는 논리이다. 스스로 조직의 전문화없이 자기 업역을 보호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설계와 공사감리·시공의 업역 구분과 함께 각 분야별 전문성 확보는 시급한 과제이다. 앞서 언급하였으나 건축사가 대형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 가운데에서 생활하려면 신고대상인 소규모 건물의 설계, 증개축, 기존건축물의 수리와 유지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업무영역을 넓혀 활동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한정된 좁은 설계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크게는 넓은 해외시장을 겨냥하고 좁게는 집수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설계·공사감리에서 컨설턴트까지 업무영역을 넓히고 전문화함으로써 살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현재는 거의 관심밖에 있는 신고대상인 건축물, 직영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한 설계·공사감리·시공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전문인의 참여와 서비스가 필요하다.

4) 공동화사업의 활성화

오늘날 개방화와 국제교류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설계사무소별 독립왕국의 운영시스템으로는 지탱하기 어렵다. 규모경제라는 것이 있고 투자의 효율성이 있는 한 공동사업의 활성화는 생존전략에 필수적이다. 정보교류, 자료활용, 시설과 기기의 공동이용, 전문인력의 교육과 훈련, 활발한 협력과 공존공생, 공익증대와 극기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

피동적으로 정부나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고 전에 자발적 능동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무엇을 해야하는 지를 알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끊임없이 노력하여야만 결실을 가질 수 있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설계사무소는 그 특성상 건축사 개인활동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소규모가 보편적이며 대형화에는 한계가 있다. 소규모 분산되어 질수록 공동화와 단합된 결집력이 중요하다.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공동화사업과 결집된 조직력을 가져야 하며,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정립한 후 효율적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5) 제도개선의 필요성

건축사가 잘못된 제도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고 업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을 수없이 지적해 왔다. 이와같은 점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소재를 파악하고 공익증대를 앞세워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건의하고 개선을 추진해 가야 한다고 본다.

토지이용계획과 정책의 잘못에 따른 마구잡이 식 난개발의 1차적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하겠지만 그렇다고 건축사도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업성을 앞세워 지나치게 높은 개발밀도(용적률)를 추구하는 발주자에게 도시환경의 질적저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사업성의 허용범위에서 문화예술성, 작품성을 충족시키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건축사의 책임도 크며, 부실공사가 저가입찰제도와 덩핑수주, 기능인력의 장인정신의 결여라고만 돌릴 수는 없다. 문화수준의 척도가 건축으로 표현된다고 볼 때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물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가 잘못된 일의 공범자요, 방관자이기

때문이다. 건축설계와 인허가, 공사감리와 처벌, 조사 검사업무의 대행과 책임추궁, 건축사의 무한책임 등은 잘못된 연결고리임에 틀림없고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다.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상호역할과 업무한계, 그리고 책임 등이 명확하게 가려지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어찌 21세기 첨단 선진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건설환경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하며 자기일에 책임을 지고 노력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용사회, 책임을 질 수 있는 선진사회가 건축계에도 찾아오길 기대한다.

우습지 않은 우화

The Unamusing Farce

조성룡 / 건축사사무소 조성룡도시건축
by Joh Sung-Yong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총체적 위기가 지난해에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위기를 막연하게 느끼기 시작한 것은 이미 5년전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건미준)'을 시작할 무렵부터였다. 사실 그 전까지 설계나 열심히 하는 건축사들에게 무슨 법이나 제도에 대한 식견이 있으며 그 옹고그름을 제대로 파악할 능력이 있었겠는가. 늘 바빠서 생각이나 할 겨를이 언제 제대로 있었는가. 지난 20여년간 우리는 그렇게 지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불편한 제도와 말도 안되는 법조항 준수에 무감각해지고 익숙해져 있었다. 사무소가 영세하다며 세 건축사 이상이 '함께 모여' 있어야 하는 종합사무소제도를 십여년간 잘 지켜오고 있었으며 자기가 설계한 주택이나 소규모빌딩에 대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부조리'를 미리 막는다는 구실로 감리권한을 빼앗기고도 그저 혀를 찰 뿐 조용하였다. 한 마디로 '양반'이지만 다른 말로는 '방관자'였다. 그저 일어나 많고 해외로 나가 골프나 즐길 수 있으면 좋았다. 오죽하면 협회 회원용 골프장을 만든다는 헛소문이 나돌기까지 했겠는가. 그러나 생각을 가지고 법과 제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덜컥 겁이 났다.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되는 법과 제도속에서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채 앞만 바라보고 달려오기만 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에 올라 탄 듯한 기분이었다(그때 발간한 1993건축백서의 서문에 '건축의 위기'라고 썼다).

1992년말 '소규모건물의 감리 범위 확대'에 반대하며 '새건설'이 조직되었고, 1993년에는 '건미준'으로 이름을 바꾸어 '새건축 운동'을 준비하였다. 건미준은 협회나 정부에 시비를 걸자고 벌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당연한 부조리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하려는 쪽이었다. 뿐만 아니라 '새건축 운동'을 통해 그 동안의 우리(건축사)의 소극적 자세를 반성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작업에 앞장서는 역할을 맡고 이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종합사무소제도, 설계·감리분리제도, 건축사시험제도, 설계경거제도, 도서신고제도, 심의와 인허가제도 등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노

토지이용계획과 정책의 잘못에 따른 마구잡이 식 난개발의 1차적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하겠지만 그렇다고 건축사도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업성을 앞세워 지나치게 높은 개발밀도(용적률)를 추구하는 발주자에게 도시환경의 질적저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사업성의 허용범위에서 문화예술성, 작품성을 충족시키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건축사의 책임도 크며, 부실공사가 저가입찰제도와 덩핑수주, 기능인력의 장인정신의 결여라고만 돌릴 수는 없다. 문화수준의 척도가 건축으로 표현된다고 볼 때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물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가 잘못된 일의 공범자요, 방관자이기

때문이다. 건축설계와 인허가, 공사감리와 처벌, 조사 검사업무의 대행과 책임추궁, 건축사의 무한책임 등은 잘못된 연결고리임에 틀림없고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다.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상호역할과 업무한계, 그리고 책임 등이 명확하게 가려지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어찌 21세기 첨단 선진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건설환경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하며 자기일에 책임을 지고 노력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용사회, 책임을 질 수 있는 선진사회가 건축계에도 찾아오길 기대한다.

우습지 않은 우화

The Unamusing Farce

조성룡 / 건축사사무소 조성룡도시건축
by Joh Sung-Yong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총체적 위기가 지난해에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위기를 막연하게 느끼기 시작한 것은 이미 5년전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건미준)'을 시작할 무렵부터였다. 사실 그 전까지 설계나 열심히 하는 건축사들에게 무슨 법이나 제도에 대한 식견이 있으며 그 옹고그름을 제대로 파악할 능력이 있었겠는가. 늘 바빠서 생각이나 할 겨를이 언제 제대로 있었는가. 지난 20여년간 우리는 그렇게 지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불편한 제도와 말도 안되는 법조항 준수에 무감각해지고 익숙해져 있었다. 사무소가 영세하다며 세 건축사 이상이 '함께 모여' 있어야 하는 종합사무소제도를 십여년간 잘 지켜오고 있었으며 자기가 설계한 주택이나 소규모빌딩에 대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부조리'를 미리 막는다는 구실로 감리권한을 빼앗기고도 그저 혀를 찰 뿐 조용하였다. 한 마디로 '양반'이지만 다른 말로는 '방관자'였다. 그저 일어나 많고 해외로 나가 골프나 즐길 수 있으면 좋았다. 오죽하면 협회 회원용 골프장을 만든다는 헛소문이 나돌기까지 했겠는가. 그러나 생각을 가지고 법과 제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덜컥 겁이 났다.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되는 법과 제도속에서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채 앞만 바라보고 달려오기만 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에 올라 탄 듯한 기분이었다(그때 발간한 1993건축백서의 서문에 '건축의 위기'라고 썼다).

1992년말 '소규모건물의 감리 범위 확대'에 반대하며 '새건설'이 조직되었고, 1993년에는 '건미준'으로 이름을 바꾸어 '새건축 운동'을 준비하였다. 건미준은 협회나 정부에 시비를 걸자고 벌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당연한 부조리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하려는 쪽이었다. 뿐만 아니라 '새건축 운동'을 통해 그 동안의 우리(건축사)의 소극적 자세를 반성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작업에 앞장서는 역할을 맡고 이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종합사무소제도, 설계·감리분리제도, 건축사시험제도, 설계경리제도, 도서신고제도, 심의와 인허가제도 등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노

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건축설 계교육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제도상의 대안을 정부에 개진 하였다.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이 검토되기 전 까지 우리는 원시적인 종합사무실제도를 십 몇 년간 준수(?) 하고 있었다는 것이 제대로 실감이 나지 않았고, 이 제도에 묶 인 건축사 연세제도의 책임은 처벌이 민사, 형사에 걸쳐 동일 하게 적용된다는 법 조문도 제대로 몰랐고, 또 알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 졌고 그에 관련된 동료들은 아직 감옥에 있다. 젊은 사람들은 보수가 월등한 건설회사와 감리회사로 수없이 떠났다. 직원들 은 어려운 자격시험에 노이로제가 되어, 해마다 봄부터 겨울까 지는 사무실마다 중견사원의 휴직사태가 벌어지다가 하면, 면 허를 따지마자 사무실을 독립하거나 일부는 재발회사나 대기 업 설계회사에서 넘쳐나는 거품프로젝트의 하청설계를 맡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총기를 잃어갔다. 집단이기주의로 눈앞 의 이익만 쳐다보다가 감리제도도 이상하게 변질되어버리고, 현장에서 시공도도 제대로 그리지 않는 건설회사가 설계업 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논란 끝에 일시 유보되기는 하였어 도)처럼 우습지 않은 우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건축학교로 찾아온 영국의 한 건축가는 품질관리와 안전 관리 책임까지 지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 건축사의 감리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연실색하며 우리의 무지함과 '간(肝) 켜'를 경탄했다.

우화1

1995년인가. 어느 날 건교부장관 명의로 된 공문이 모든 설계사무실에 전송되었다. 앞으로 국가기관이 발 주하는 프로젝트의 설계를 납품할 때에는 반드시 시공상세도 (Shop Drawing)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어리둥 절하여 협회 기술부에 전화를 걸었으나 그 사실은 커녕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상근 부회장에게 알려 건교부에 이의 부당성을 알리고 철회하도록 요청하였다. 얼마 후 이에 관련한 공문이 다시 날아왔다. "시공상세도 작성 은 모든 공사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계같은 가설공사는 포 함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의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상근 부회장과 함께 건교부로 달려가 공문을 기안한 토목주사를 만 나(설계자가, 그것도 설계를 완료하는 시점에 시공도를 그려 내라는 황당한 내용에) 두시간 넘게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다 행히(?) 조정되었다(그렇지만 한 나라의 건설에 관련한 모든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관청에서 시공도가 무엇이며 왜 작성해 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부실공사를 막는다 는 구실로 자행되니, 이러한 비합리적인 일이 그 동안 전혀 없 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관청

의 무지와 횡포만이 아니라 일선에서 일을 맡고 있는 건축사와 협회의 철저한 무관심이다).

우화2

종합사무소제도를 철폐하는 사안을 추진하고 있을 때였다. '건미준'에서 일체의 사무소구분을 없애야 한다 고 주장하고 나서자 대규모 설계회사에서 그 대신 '단독' 과 '법인' 사무실로 나누어야 한다는 대안을 들고 나왔다. 학회가 중재에 나섰다. 원로 건축사와 교수 몇 분이 마련한 협의 자리 에 김영섭 회원과 함께 불려갔다. 한때 협회회장까지 지냈던 대규모사무소의 사장은 큰 규모를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국가 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법인사무실로 구별되어야 된 다는 논리를 폈다. 이 어처구니없는 논리에 어이가 없어 "건축 사면허에 규모제한의 표시가 있느냐"고 대들었더니 도대체 (우리와 같은) 작은 사무실에서 만평 넘는 일을 어떻게 맡을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다고 머리를 가로 저었다.

우화3

지난해 말 주택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과 리조 트단지 프로젝트의 설계계약으로 옥신각신 하던 때였다. 굴이 건축주 쪽에서는 건축사가 '준공도'를 작성하여 사용검사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나는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공 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준공도(As-Built Drawing)를 어떻게 건축사가 해야 할 과업인지 따지고 있었다. 그러자 그것은 법 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을 내어놓는데 지난해 초에 시행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 리지침'에는 준공도는 '설계자와 시공자'가 작성해야 한다." 고 애매하게 되어 있다. 협회 기술부에 문의했더니 자세한 내 용을 모르겠다고 대답할 뿐이었다(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축 사는 과연 얼마나 될까? 아니면 현장에서 변경된 대강의 내용 만 고쳐놓으면 준공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우화4

'새건축운동'의 실천강령 중에는 업무와 관련 된 일체의 금품제공을 거부한다는 '비참하고 전시대적'인 내 용도 들어있었다. 그 표시로 모든 설계도서에 'a마크'를 삽입 하기도 하였다.

그로부터 4년간 이 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 썼다. 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거의 세배나 걸렸다. 일을 맡긴 건축주들은 허 가가 늦어지자 때로 불편해 하기도 하고 사무소의 무능력으로 몰아부치기도 하였다. 그 때문에 일도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그 리 편할 수가 없었다. 허가서류를 보완하느라 몇 번씩이고 관 청을 드나들어야 했던 직원들이 안쓰러웠다. 그러나 그들은 몇

몇해 보였다. 딱 한번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겼다. 계속 자잘한 내용을 수정시키며 시간을 끌던 관청 직원은 '눈치 없는 소장' 때문에 고생하던 직원 편으로 자기들이 쓰는 양식 몇 가지를 인쇄해오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였다.

장기 독재정권, 공무원의 부정부패, 모자라는 국민의 도덕성-이 세가지 중 한두가지 충족되어도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이 중 거의 모두를 갖고 있었다. 그러고도 우리는 망하기는 커녕, 올림픽을 유치하였고 월드컵 유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 세계 10대 무역교역국에 들었고 드디어 선진국의 문턱까지 바라보다가 지금과 같은 황당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에서 자라온 '부정부패', '부실공사', 이제 대량 '부도사태'로 이어지는 이 역현상은 해방이후 50여 년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온 질곡이다. 문화가 실종된 나라(문화와 스포츠를 혼동하여 문화체육부로 운영하는 나라),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는 그 동안 열심히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한 지식인으로 땀뻗을 수 있는가, 무슨 이슈만 있으면 이 나라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자고 태극기 앞에 손을 들고 선서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에 맞는 모습으로 세월을 살아왔는가 이제 다시 생각해 볼 때다.

이번의 위기는 엄청난 고통과 혼란을 가져오

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지난 고도 경제성장 시절의 방만하고 무절제했음을 돌아보게 하고 현재 우리의 초상을 그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로써 가치가 있다. 지난 세월의 무분별과 욕망을 이제 버리자. 건축사는 부동산가치나 생각하고 재벌기업이나 돈 가진 자들의 분수없는 거품 부풀리기에 놀아나는 비즈니스맨이 아니다.

이번의 위기는 이 시대, 이 땅의 문화와 사회의 가치관을 바르게 이끌고 나가는 참된 전문가로 거듭 태어나는 좋은 기회이다.

(원고를 마지막으로 교정하는 날 아침,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의 설계 감리 업무 분리제도를 다시 시행한다는 공문이 서울시건축사회로부터 도착하였다. 총회에서 다수 의견으로 결정된 것을 회원으로서 따라야 하겠지만, 법 규정도 없는 이 제도가 사비에 휘말릴 때 어떻게 견딜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여러가지 사회 기준이 불투명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라 전체가 당하고 있는 판에 땀뻗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는 무엇보다도 설계에서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자기 책임아래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우리의 전문적 영역을 스스로 국민앞에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어렵다해서 앞 뒤 재지 않고 분별없이 행동할 수도 없지 않은가.)

빈곳을 채우자 Filling Up the Voids

부대전 / 진이건축 · 도시 종합건축사사무소
by Bou Dai-Jin

급변하는 개발시대의 첨병으로 자처해온 우리 건축가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환경과 문화의 파괴를 간파하면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해온 경제정책의 하수인이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 대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비참하게도 사회적 지위의 하락과 그에 수반되는 저소득, 그리고 사회적인 냉대뿐이 아닌가?
돌아켜보면 속전속결이 미덕이었던 지난 세월 건축적 소양이

나 전문지식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행정편의주의에 편승하는 건축가군과 모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설픈 기형건축가 군만을 양산하였다.

세계에 유례없는 방대한 건설물량이 기술력없는 인해전술로 소화되어 고비용 저효율의 극치를 이루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Generalist의 등장과 병행하여 전문직의 퇴장이라는 이상현상을 가져왔다.

동그라미 유치원

작품리뷰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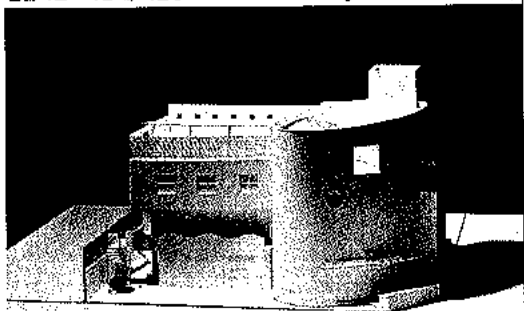
Round Kindergarten

이종상 / 토팩(엔)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Jong-Sang

건축개요

위치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71-30, 31
대지면적	388.40㎡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 주차장 정비지구
건축면적	231.49㎡
연면적	859.60㎡
건폐율	59.60%
용적률	172.90%
조경면적	24.26㎡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벽재료	외단열위 스티코
설계기간	93. 5. ~ 93. 10.
공사기간	94. 1. ~ 94. 12.
오브제제작 김형태	

본문사진 : 박영체, 이은성 Photo : Park Young-Che, Lee Eun-Sung



모형

8m와 6m 도로의 교차점에 있는 대지 주변에는 다가구주택들과 임시로 지은 듯한 단층창고 건물들이 일렬로 서 있고, 초등학교 운동장의 불럭담장이 2m높이로 시야를 가로 막고 있다. 대지 후면에 있는 쓰레기집하장 때문에 도로에는 휴지들이 날아다니고, 서울의 모든 골목길처럼 자동차들이 가득차 있다. 네거리 모퉁이에는 전기줄이 어지럽게 엉킨 전봇대가 여기저기 서 있다.

이상과 같이 서울의 일반적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컨텍스트를 갖는 이 대지의 특징으로는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다는 점과 모서리 대지가 갖는 잠재력을 찾는 일이다.

유치원을 루이스 칸식으로 말한다면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어린이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회적 공간이며 놀이를 통해서 상상력을 키우고 인성의 기본틀을 자신도 모르게 배우는 장소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치원 건물은 밝고 깨끗하여야 하며 아이들의 호기심과 생동감을 불러 일으키는 미지의 공간이어야 한다. 어릴적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렇게 크게 생각했던 골목길이나 놀이터가 어른이 되어 보면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는 장소였음을 알게 된다. 이 말은 유치원은 어린이의 시각으로 보아야 하며 건물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놀이터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120평 규모의 땅에 100명 이상의 아동들을 위해 이상적인 유치원 프로그램으로 설계하기에는 대지면적이 부족하다. 더구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나서 남은 면적에다 시도할 수 있는 평면구성의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 집에서 설계자가 한 일은 Box 깨뜨리기와 공간의 숨통퉁기였다. 즉 한층에 배분되는 2개의 교실을 어떻게 하면 개성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각 교실을 연결하는 공공 공간을 물리적 기능 이상의 건축화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계획의 실마리는 대지 모서리의 가각전제 부분에서 유추한 타원의 발견으로부터 풀리가 시작했다. 이집의 기본 구성틀은 대지의 모서리부분에 놓은 타원통과 대지후면에 치우친 기다란 Box와의 겹침으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공간의 겹침과 상호침투가 일어나고 디자인의 이외성과 즉흥성을 자유롭게 시도하고 조작할 수 있는 설계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었다.

부드러운 빛이 내려오는 무척 촉각적인 느낌을 주는 타원통의 벽면을 따라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조잘대며 계단을 오르고, 계단 옆에 둘러앉은 공간에는 오브제들이 매달려 있고 그 너머에는 아이들의 교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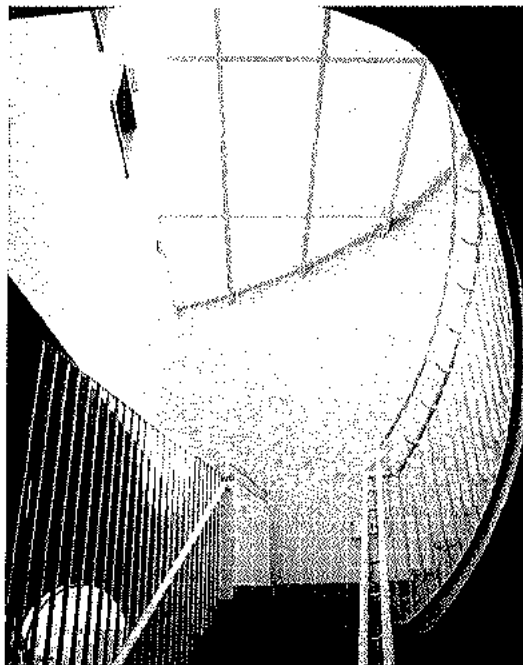
조금은 힘이 들겠지만 계단 끝까지 오르면 파란하늘과 관악산이 가까이 보이는 공중놀이터가 있다. 점심때는 미로와 같이 휘어진 계단을 내려가 밥을 먹고 뛰놀 수 있는 넓은 식당이 있다. 이러한 아이들의 움직임을 1층현관 옆에 안내 카운터에 앉아 있는 자상한 할아버지가 바라본다. (할아버지는 유치원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유치원 원장의 은퇴한 아버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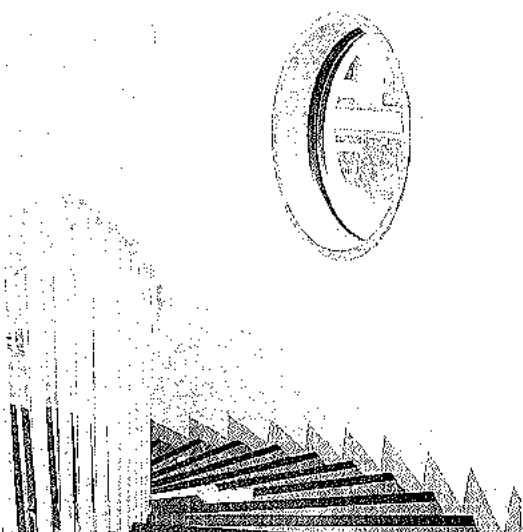
2층 교실 P.

계단실에서 내려다 본 모습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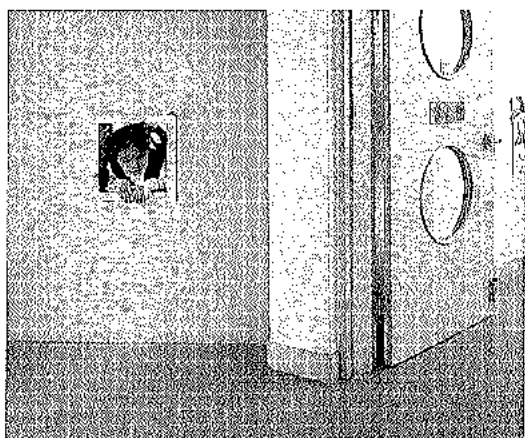




천장 L



계단실 L



2층 놀이방 P

교실 사이통로 P



Everyone loves children. The pure innocence of children often make us escape from the burdens of ordinary life. In this respect, it is not only a rare case, but also very fortunate for me to be working on a project that concerns children. But it was a project that was simultaneously rooted in harsh reality: on a site just large enough to place a single housing, it required to house nearly 100 children.

The following is an excerpt from my design note from 4 years ago:

'Along an oval wall, emanating smoothness as a warm light hits its surface, a brood of little children walk up the stairs. On a space next to the stairs hangs objects of various shapes. Climbing up the stairs may be a little exhausting for the young ones but well worth the effort: At its end you reach a roof playground that looks out on the blue sky and Mount Kwanak. At lunch, children walk down the labyrinth-like stairway to a spacious cafeteria, where they can play around after their meal. The whole scene is looked upon by an aging man, sitting on a desk next to the entrance, who is the director of this facility.'

Site Seoul Dongjak-Ku Sadang-Dong 1071-30, 31

Site Area 388.40m²

Building Area 231.49m²

Total Floor Area 859.60m²

Building Coverage Ratio 59.60%

Gross Floor Ratio 172.0%

Total Floors 4 Stories, 1 Bas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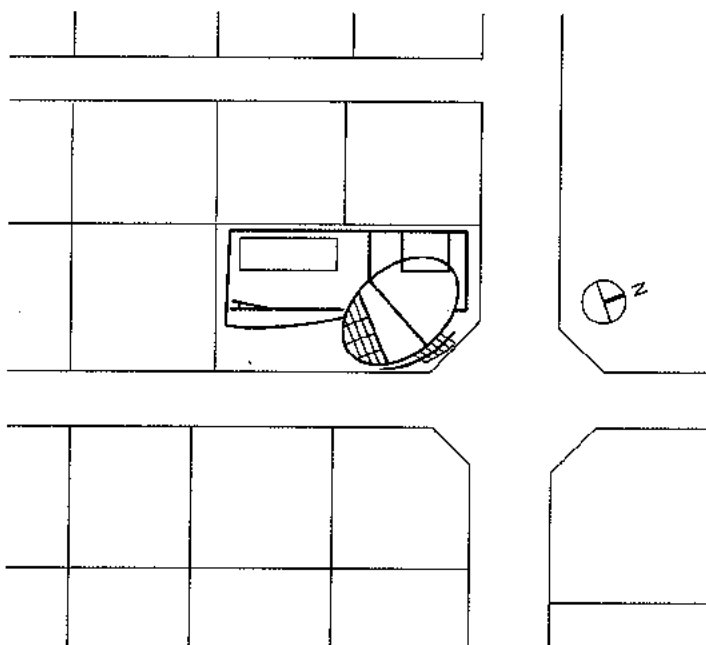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ings Stucco

Designing Period May 1993 - Oct.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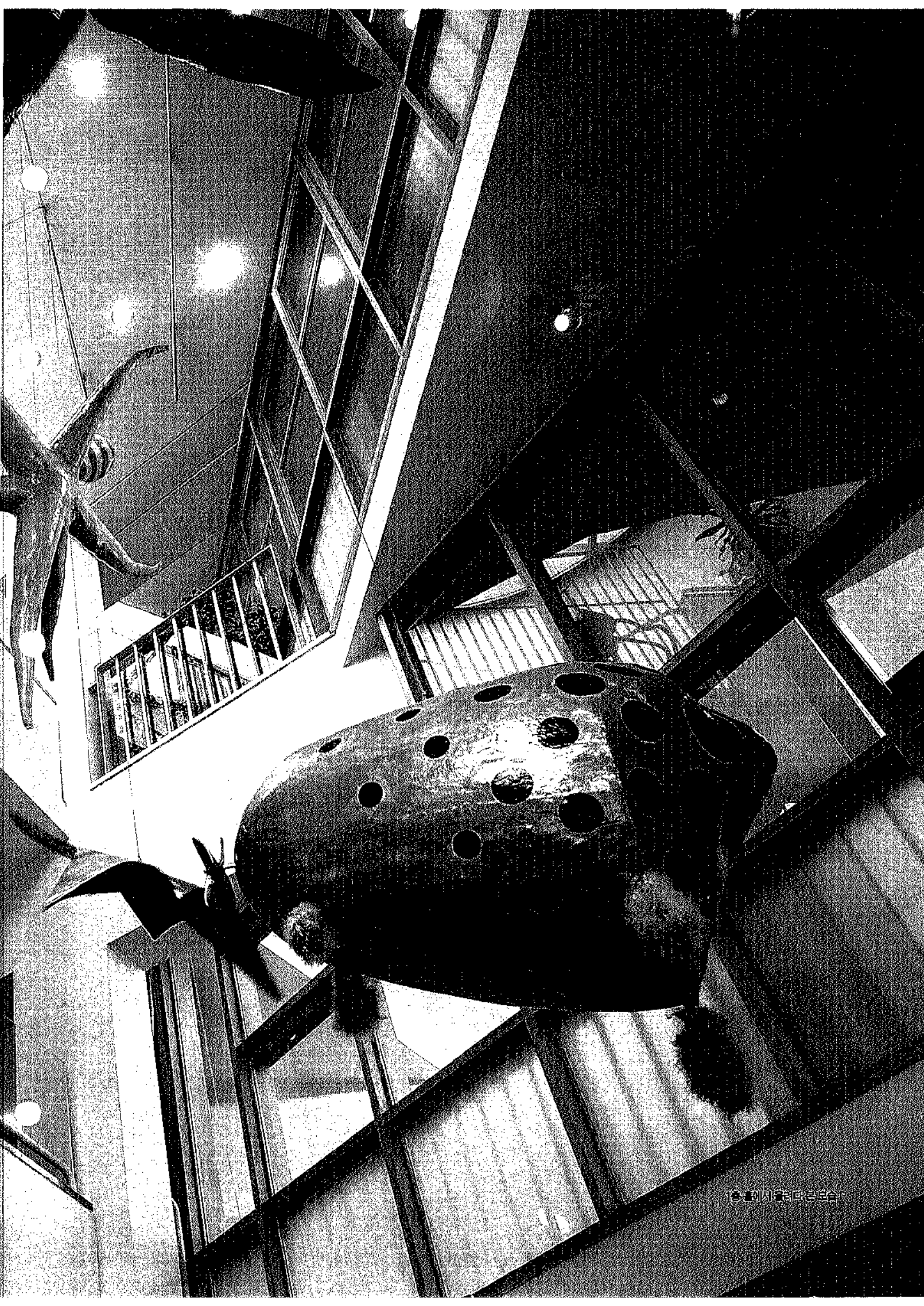
Construction Period Jan. 1994 - Dec.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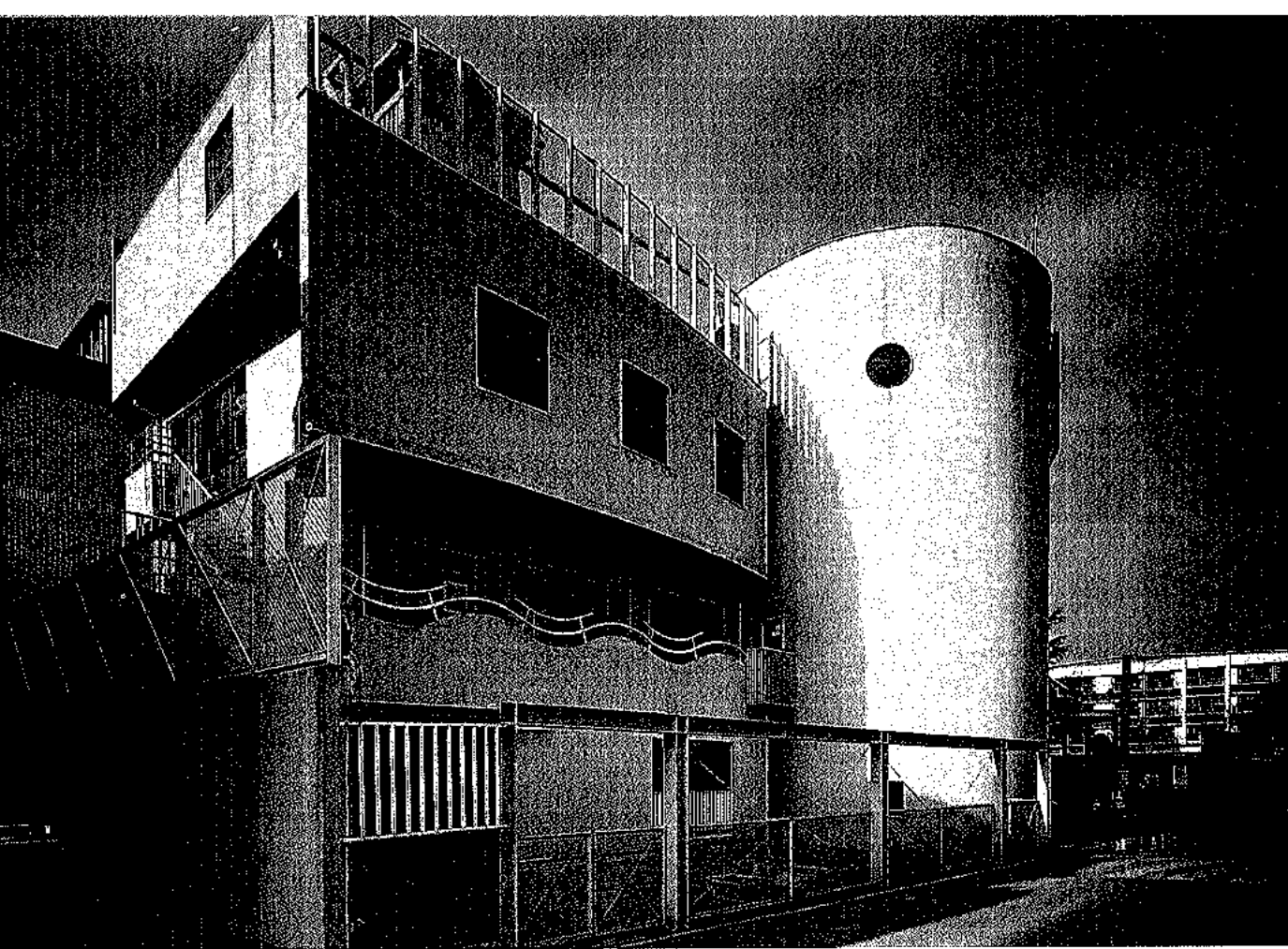
Object Artist Kim Hyung-T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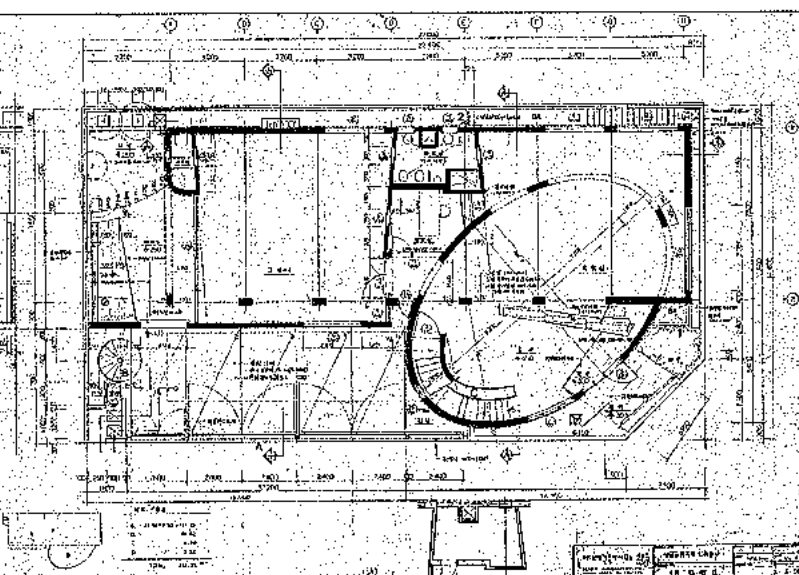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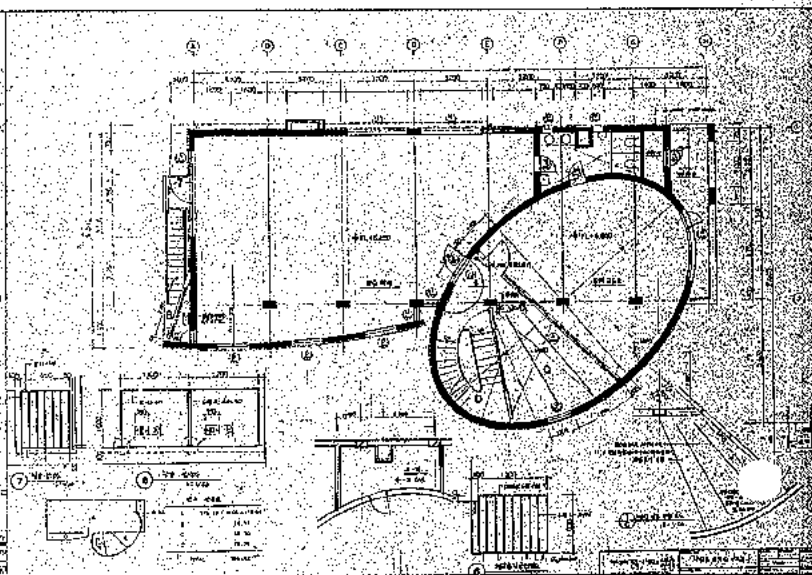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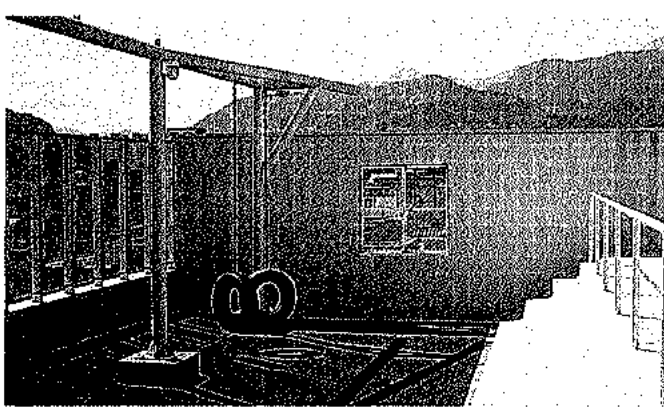
6m도로에서 본 전경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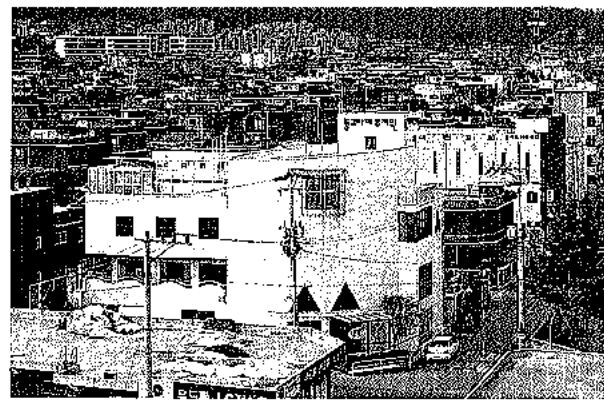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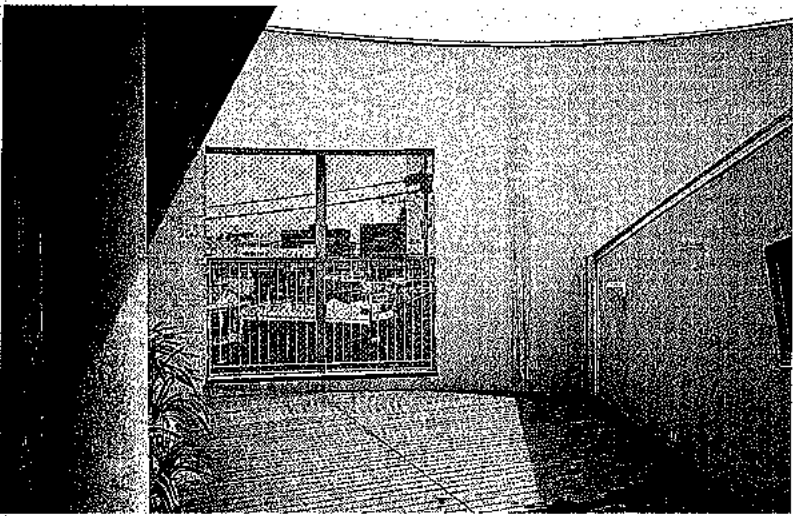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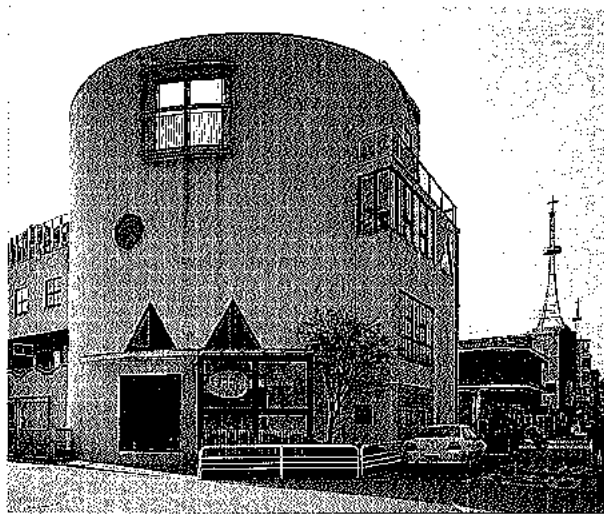
옥상 놀이터 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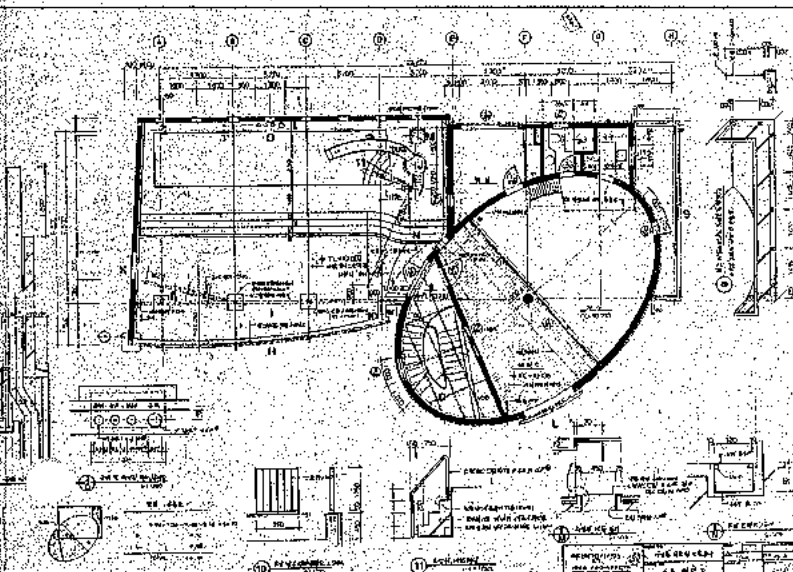
원경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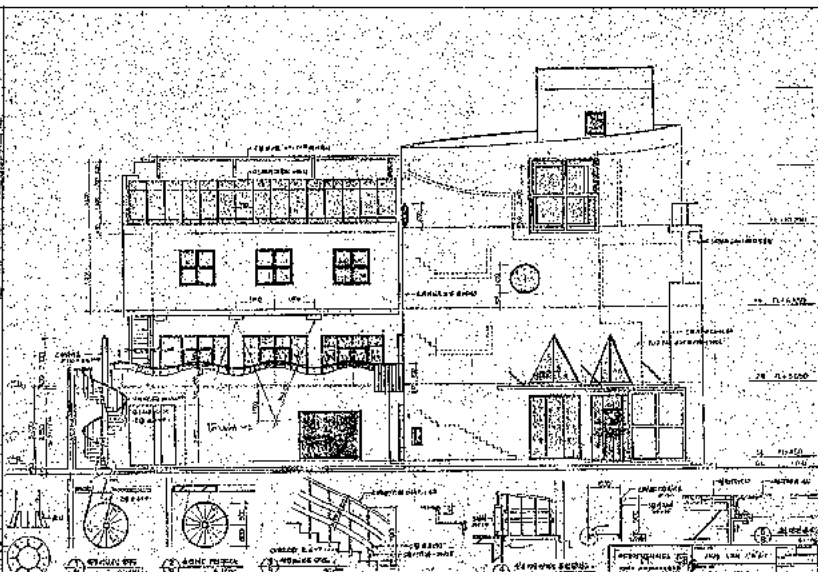
4층 코트 L



모서리에서 바라본 전경 P



4층 평면도



동측 입면도

육체적 시선의 임상건축학 : 자기 동일성과 차이

The Clinical Architecture of Bodily Gaze :
Self-Identification and Difference

대담자 / 조권섭(현실비평연구소 대표, 건축비평가)

설계자 / 이종상(토펙(엔) 건축사사무소)

Cho Kwon-Sup & Lee Jong-Sang

일 시 / 1997. 12. 19(금) 오후 2시

장 소 / 토펙(엔) 건축사사무소



대담광경(좌 : 조권섭, 우 : 이종상)

다음과 같이 풀이하려 한다.

어떤 정신적 대상, 즉 어떤 의미심장한 대상은 대상 자체만의 표현을 넘어서서 정신적이고 좀 더 보편적인 것들의 표현이고 노출이기 때문에 의미심장해지는 것이고 이 대상 속에서 다스란에 완벽한 상장을 발견한 전체 감정세계의 표현이고 노출이기 때문에 의미심장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표현과 노출의 정도에 따라 의미심장함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조권섭 _____ 생활의 변화에 따라 육아의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밝게 자라난 어린이가 사회를 바르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어린이 시설'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가 신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설계의 주된 역할이겠고 잘 지어진 어린이집은 아이들 뿐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도, 아이들의 부모도 모두 신나는 일이지요.

유치원이란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회적 공간이며 놀이를 통해서 상상력을 키우고 인성의 기본틀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유치원 건물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건물색이 흰색인 이유 또한 이와 무슨 연관이? 아무튼 이러한 중요성으로 미뤄볼 때 무엇보다도 건축주인 원장의 역할이나 성격은 거의 절대적일 만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만나 본 건축주는 매우 화사한 분으로 원래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고 유아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갖는 분이셨습니다. 설계자가 본 건축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건물색을 흰색으로 쓰신 것은 어느 분의 생각이 크게 작용했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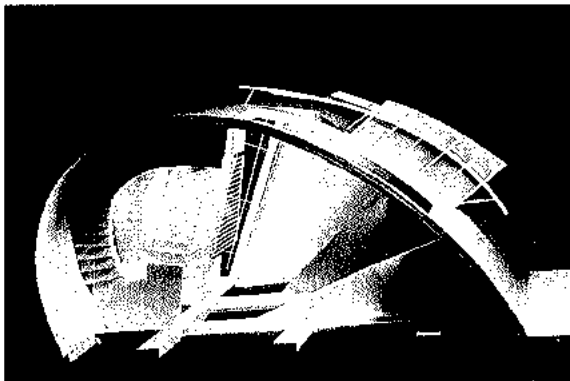
이종상 _____ 잘 보셨습니다. 건축주는 모성 본능이 무척 강한 분입니다. 그러한 건축주의 성향이 저의 작업의 시작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건물색이 흰색인 이유는 주변의 어두운 벽돌 색과의 대비효과를 의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건물 옥상 놀이터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철망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그 철망을 흰색으로 칠하면 흰색의 망사같은 느낌을 줄 것 같았습니다.

조권섭 _____ 어린이시설은 입지의 선정에서부터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대로변에 위치하지 않으면서 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한 골목에 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기본적인 입지조건으로는 아동의 거주지역과 가까우면서 안전한 문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이용이 편리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유치원이 놓여 있는 대지상황을 보자면 8m와 6m 도로의 교차점으로 주변에는 다가구 주택들과 단층창고 건물들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블록담장이 2m높이로 시야를 가리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취약점으로는 대지 후면에 있는 쓰레기 집하장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다는 점과 모서리 대지가 갖는 특징 등이 이번 프로젝트의 매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처음 대지를 보고 받으신 느낌은 어떠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종상 _____ 현장을 처음 보러 갔을 때 우연히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사십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을 만났습니다. 자기 어렸을 땐 이 부근이 논이었고 대지에는 웅덩이가



계단실과 Void부분을 쳐다본 모형



건축주를 모델로 한 판화 밑그림



모태속의 아이

있어서 물고기를 잡았던 기억이 난다고 하더군요.

서울, 아니 우리나라 모든 도시들의 서민들이 사는 주택가에서 만나는 풍경이지만 골목길들은 자동차들로 꽂차 있고 대지에 비해 너무 크게 지어진 3층 높이의 다가구 주택들이 만들어내는 모습은 삭막하다는 표현보다는 허망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이 시대 우리들의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유치원부지를 초등학교 옆에 잡은 것은 건축주의 안목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집을 짓고 난 후 실제로 아이들에게 부족한 옥외놀이교육은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조권섭 _____ 2. 3년 전으로 기억합니다만 언젠가 선생님이 건물 구경 가져다 했을 때, 처음으로 이 유치원을 둘러보고 생맥주 한잔씩을 기울이면서 감상을 물으셨을 때 제가 '임신한 여자의 평면인데요.' 라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그 래서인지 저에게도 참으로 각별한 인연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호프집에서 임신한 여자를 그린 몇 장의 스케치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때 참 여러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스케치가 보여준 이 육체들은 뭔가 영향을 미치는 공간과 이것이 영향을 주는 공간 사이에 놓인 행동의 중추처럼 보였습니다. 수용된 인상이 수행된 운동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현명하게 길을 선택하는 장소를 찾고 있는 것 같았고 작가의 직관 속에서 형성되는 출발선을 말해주는 단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지요. 글썄, 제가 보기에 이 그림들은 생성의 연속성 가운데 있는 현재라는 순간의 청사진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봤던 '동그라미 유치

원'이라는 건축의 공간적인 세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그 흐름을 느끼도록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지에서 설계의 실마리를 찾았던 것과 여러 장의 스케치는 일정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종상 _____ 건축의 메타포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 그림들은 모태공간의 직설적 표현이었고, 저는 설계작업을 할 때 그런 작업들을 가끔 하지요.

명동성당 설계경기때 설계설명서에서다 팔을 벌리고 있는 예수 모습을 인용했더니 심사위원들이 많은 오해를 하더군요.

건축은 그림과 직접적 상관관계는 없지만 이차원적인 그림에서 촉발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의 경우는 그림들이 건물의 랜드마크가 된 거대한 타원통 속 공간이 갖는 촉각적 요소의 탐구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권섭 _____ 온전한 어린이집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공간확보가 있어야 합니다.

보사부 아동복지법이나 영유아보육법 그리고 행동과학연구소 등이 연구하여 제시한 데이터를 보면 유아는 1인당 1.98㎡, 영아는 1인당 2.64㎡ 이상으로 하여 각실은 규모에 따라 조정하도록 되어있더군요. 하지만 현행 기준면적은 적정한 소요면적도 아니고 최소 확보면적이므로 기준면적 이상으로 하여 실정에 맞는 적정면적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적 요건에 맞는 최소한의 공간으로는 어린이에게 필요한 양질의 공간제공이 어렵기 때문이지요.

이번 동그라미 유치원의 경우, 120평 규모의

명에 120명 이상의 아동들을 위한 대지로는 그 면적이 턱도없이 부족했으리라 판단됩니다. 더구나 주차장 면적을 빼고나면 더욱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들로 인해 수직으로 각실을 배치한 것은 아닙니까? 물론, 이에 대해서 건축가 스스로가 '상자 깨뜨리기와 공간의 숨통퉁우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시설의 일반적인 기능분석으로는 교실이나 양호실을 비롯한 관리부분과 식당, 화장실 등 서비스 부분, 그리고 놀이실과 교육실로 대변되는 교육부분까지 3가지로 크게 나누는 것이 보통이고 기능적 공간을 위한 주안점으로 각 부분간의 동선은 가능한 짧게 하며 교육시설은 가능한 복도나 계단을 피하고 서비스부분과 관리부분은 안정하여 배치하더군요. 물론 주현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동시에 신발을 갈아 신고 부모는 어린이를 맡기고 잠시 대기 가능하도록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지침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요공간의 특성 및 면적 등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중상 _____ 턱없이 부족한 옥외놀이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붕위에 공중놀이터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자 깨뜨리기란 지붕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 3층 특별교실을 건물 전면방향에 배부른 모양으로 확대하거나 1층 유아교실의 벽체를 수평으로 이동시킨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말한 것입니다. 소규모 건축에서 공간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은 목적공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공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그라미 유치원에서는 이러한 곳이 동그란 타원속에 붙어있는 계단과 그 옆의 뿔린 공간입니다. 이 뿔린 공간이 물리적으로는 건물의 환기통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간의 숨통퉁우기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집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군요. 저는 건물을 설계할 때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따져 봅니다. 집의 주인인 아이들의 방을 빛과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자리잡고 나머지 시설들은 서비스 공간으로 부차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시설이나 공공건물에서 다수의 이용자보다 소수의 사용자가 더 좋은 공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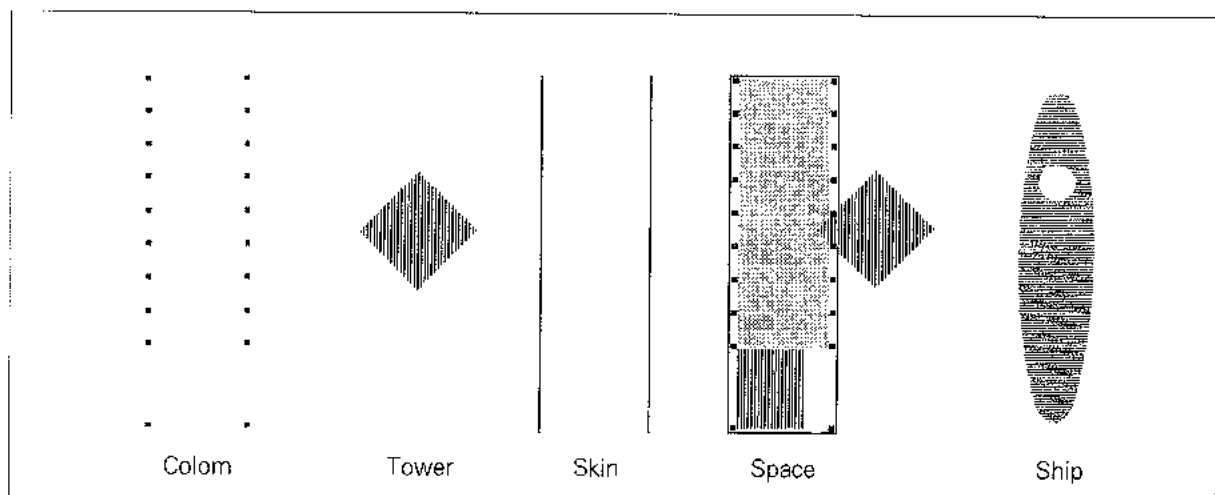
조권섭 _____ 건축가 본인이 슬회한 바 있던 애기처럼 부드러운 빛이 내려오는 무척 촉각적인 느낌을 주는 타원통의 벽면을 따라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조잘대며 계단을 오르고, 계단 옆에 뿔려 있는 공간에는 오브제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조금은 힘이 들겠지만 계단 끝까지 오르면 파란 하늘과 관악산이 가까이 보이는 공중놀이터에 이르게 됩니다. 점심때는

미로와 같이 휘어진 계단을 내려가 밥을 먹고 뛰놀 수 있는 넓은 식당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움직임을 1층 현관 옆에 안내 카운터에 앉아 있는 관리인 할아버지가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상은 처음 엄마 손을 잡고 이 집을 구경온 아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움과 호기심을 주어야 한다는 건축가 자신의 설계목표를 보여주는 이 건물의 랜드마크입니다. 이 집에서 건축적으로 가장 중요한 계단 옆의 뿔린 공간은 각실의 친구들을 건너다 볼 수 있는 매개공간으로 계단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수록 1층의 시각형 축창이나 2층의 세모창 그리고 3층의 원형축창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는 특정화되어 갑니다. 저는 이것을 지향시선에 따라서 '신체가 방위지어지는 체계' 속에서 지향적 대상에 대해 수행하는 지각양상의 운동감각(Kinesthesia)라고 봅니다. 이것은 지향시선에 따라서 지향적 대상의 이면저면을 굴리면서 관찰하는 지각양상이나 혹은 신체의 방위지어짐의 체계의 이곳저곳을 훑아다니면서 관찰하는 지각양상이지요. 이는 아동들에게 신체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경험의 바탕으로써 육체를 매개한 공간의 운동장을 만든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물론 부가적인 효과로는 천창을 통한 통풍 효과로 인하여 여름에는 시원한 수직 공간량을 확보하게 되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효과로 인하여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다고 교사들이 입을 모으더군요.

그리고 이곳에서의 커리큘럼은 타 유치원과 달리 동작교육 중심이었는데 '계단밟기'라는 프로그램이 특이하게 있었습니다. 아마, 건물 때문에 생긴 프로그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듯 계단을 통해 양쪽의 교육실을 드나들며 위, 아래의 각실을 건너다 볼 수 있고 또한 그 역도 가능합니다. 이는 통념적으로 교육실 간의 연결동선에 계단을 무지 않는 보통의 유치원과 는 사뭇 다른 조건이죠. 물론 이것은 앞서 논의된 바 있지만 필요공간 확보라는 현실적 문제를 푸는데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단순하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의 풍경을 보러 한 번쯤은 그 유치원에 들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사된 방법은 한마디로 '분리병치(Separation)'로 설명 될 수 있습니다.

한사람이 때로는 계단과 일정 교육실에서, 때로는 그 역으로 관계하는 이같은 분리병치는 이렇듯 이러한 관계망으로 인해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고 이를 지켜보는 시선이 등장하곤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은 점점 더 이러한 재미를 깨달을 것이고 이는 다른 유치원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겠지요. 이렇듯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적 공간을 필요공간 확보라는 현실적 문제속에서 결국 발견해냈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말죽거리 빌딩 개념도

다. 저는 여기에서 보여주는 현상들에 대해 이것을 '입상공간적 시선'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또 분리범치에서 중요한 것은 '리듬(Sense)'이라고 보는데 제가 말하는 리듬이란 일정공간들이 연출하는 장면들을 운율적으로 배열하는 의미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 보다는 단위 공간내에서의 '시간의 압박'으로 구성되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리듬'이아말로 건축 형식을 빚는 결정적인 개념이라고 확신합니다. 보편적으로 건축에 있어 사람들이 가정하듯이 Scene이 결정적 요소가 아니고 바로 리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이 시설의 피상적인 기능분석으로 관리부분과 서비스부분, 그리고 교육부분 3가지로 공간 다이어그램을 논한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하물며 이러한 3가지 기능의 통합교육 공간을 평면상의 각실명에 대유최실 일명, 대근육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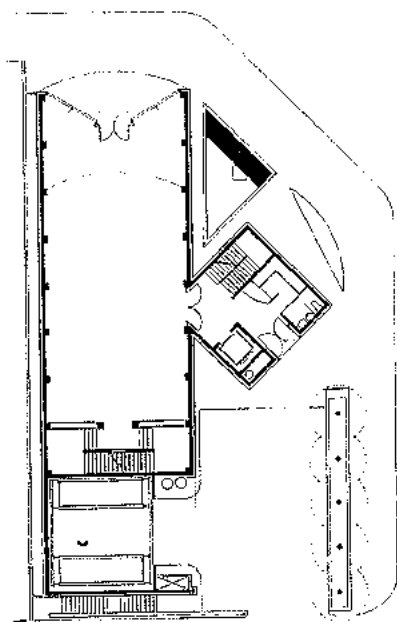
조권섭 좋은 어린이집의 또다른 요건은 어린이 위주의 공간구성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간구성이아말로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요. 아무리 기능이 뛰어난 설계라고 해도 사용자와의 스케일이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해집니다. 창문의 높이, 계단의 높이와 폭, 가구의 치수, 문의 위치 등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차밀하게 계산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좋은 어린이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가구의 크기 뿐만 아니라 색채와 재질, 용도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설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외관이나 눈요기의 시설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편안함을 제공해 주지는 않는

다고 봅니다.

내부마감으로 바닥에는 목재 플로링을 했고 벽에는 몰탈 위 아크릴 페인트를 했구요. 교실의 색채 또한 총마다 파스텔톤으로 달리했더군요. 근대건축에서 가구는 보다 높은 단계에서 막연하게 의도되었던 공간의 본질이, 가구는 우리 신변의 그 어떤 기능과 결부된 구체적인 것의 배열을 통해 명확해지고 세세하게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들면 주위 벽을 따라 놓인 창 밑 수납장소의 방향이 방의 수평방향으로 안정된 비례를 연출하는 장치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번 계획의 실마리가 되었다면 대지 모서리의 가각부분에서 유추한 타원으로부터 대지 후면에 치우친 기다란 상자와의 겹침으로 하여 공간상호간의 겹침과 상호침투가 일어나도록 만들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시각적으로는 각종 오른쪽의 실 배치 상에서 타원형의 일정부위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1층 실내 놀이터에서는 2개의 기둥으로, 2층의 교실에서는 1개의 기둥으로, 3층에서는 통근벽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각종에서 타원이 만드는 곡선은 눈에 직접 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폐쇄하여 장소를 만들어내기 보다는 흐름을 생기게 하여 자유로운 움직임을 유도하고 있는 듯합니다. 폐쇄된 볼륨을 육면체 안으로 밀어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볼륨운동이 상호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대건축에서 구획된 각실들이 건축의 본질이라는 사고방식은 이미 파기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이 공간을 분절하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것은 아닙니다. 외관상 경질되어 보이는 미스의 건축에서조차도 바닥, 기둥, 벽, 천장의 배열에 있



말죽거리빌딩 1층 평면도

어서 죽어나 대청성을 통해 많은 분절의 가능성을 잃어 낼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 층에 배분된 두 개의 교실을 어떻게 하여 개성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는지 이에 대해 가구체계와 연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종상 _____ 두 개의 교실은 가운데 있는 화장실과 아이들이 숨바꼭질같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두 층으로 나눈 작은 공간을 경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실이란 아이들의 놀이터이며 또래들과 자연스럽게 모여사는 지혜를 익히는 장소이기에 2개의 교실이 똑같은 박스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깊게 보셨겠지만 이 집의 창문은 대부분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다 창문틀의 깊이를 이용해 장난감들을 얹어 놓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유치원에 있어서 가구체계는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영역구분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하지 못했고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만을 조언했을 뿐입니다.

조권섭 _____ 유치원하면 일명 '백설공주' 스타일로 동화 등에서 나오는 성의 형태를 본따 뾰족탑이 많은 외관으로 만들고들 있더군요. '동일시'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자기보다 연령이 낮은 아이들 앞에서 5세의 아이는 항상 자기가 어머니로부터 들고 있던 말에 액센트까지 판에 박은 듯 닮고, 노

래를 좋아하는 소녀는 모습 뿐 아니라 표정까지 텔레비전의 가수를 닮아 가는 그런 현상 말입니다. 이와 같이 유아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의 긴 생육과정에서 동화나 영화의 주인공 등에 대한 동일시의 심리기제(Mechanism)를 읽을 수 있습니다. 동일시 현상에서 나타나는 단계는 아직 비현실적이고 유희적이며 일시적이죠. 어쩌면 '백설공주' 식의 유치원들은 우리들의 아이들을 우리들의 아이가 아닌 아이로 만들려고 혈안이 된 사회구조의 한 단면을 반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사회는 '동일시' 라는 하나의 질병을 '유치원' 이라는 용도로 '공간화' 하여 '배치'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유치원은 두 매스의 관입으로 변화된 외형을 부여주고 있으며 용도가 어린이시설이기도 하고 해서인지 이번 건물의 입면을 형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로는 원과 삼각형, 그리고 사각형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달리서 이같은 도형을 보고 등원하도록 마치 길 안내를 하는 것 같아 이런 것이 바로 '눈높이 설계'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건축가는 형태의 배열에 의해 질서를 실현한다고 봅니다. 또한 형태에 의해 우리들의 감각에 강력히 호소하기도 하지요. 동그라미 유치원이 형태와 입면에서 본래의 기능을 충족시키는데 성공했다고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입면구성은 주변 다른 유치원의 화려한 '백설공주' 식의 입면이나 색채 내지는 장식과는 사뭇 다르다는 데에서 오는 평가이기도 할텐데, 우리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백설공주' 식의 유치원에 대해서 평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종상 _____ 이 집의 건축주께서 한때 왕자 유치원이란 이름의 유치원을 운영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양키치문화에 대한 경도는 동양인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지요. 말씀하신 백설공주 현상은 아동용 TV프로그램부터 동화책이나 아동용품 모두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동그라미 유치원에서 키치적 요소가 적게 보이는 것은 설계자에 대한 건축주의 신뢰감 때문이라고 하든지요.

조권섭 _____ 건축가는 설계의뢰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문제점과 접하게 됩니다. 자신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작품을 만들려고 했었던가를 의심할 정도로 거의 해결하기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문제들과 때때로 만날 수도 있지요. 계획과정상에서 돌출된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또한 다음번 유치원 프로젝트가 생긴다면 풀어야 할 앞전의 못다푼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번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배운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니다. 설계에서 시공 감리까지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으나 어린이집 개원 이후에 다시 둘러보니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이종상 솔직히 말씀드려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넓지 않은 외부 놀이공간의 마무리를 치밀하게 처리하지 못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놀이기구와 가구들을 손대지 못한 점입니다. 언젠가 건축주와 의견을 나눈 적도 있는데 기회가 있으면 창의력있는 유아교육 전문가와 같이 이 집의 놀이기구와 가구들을 직접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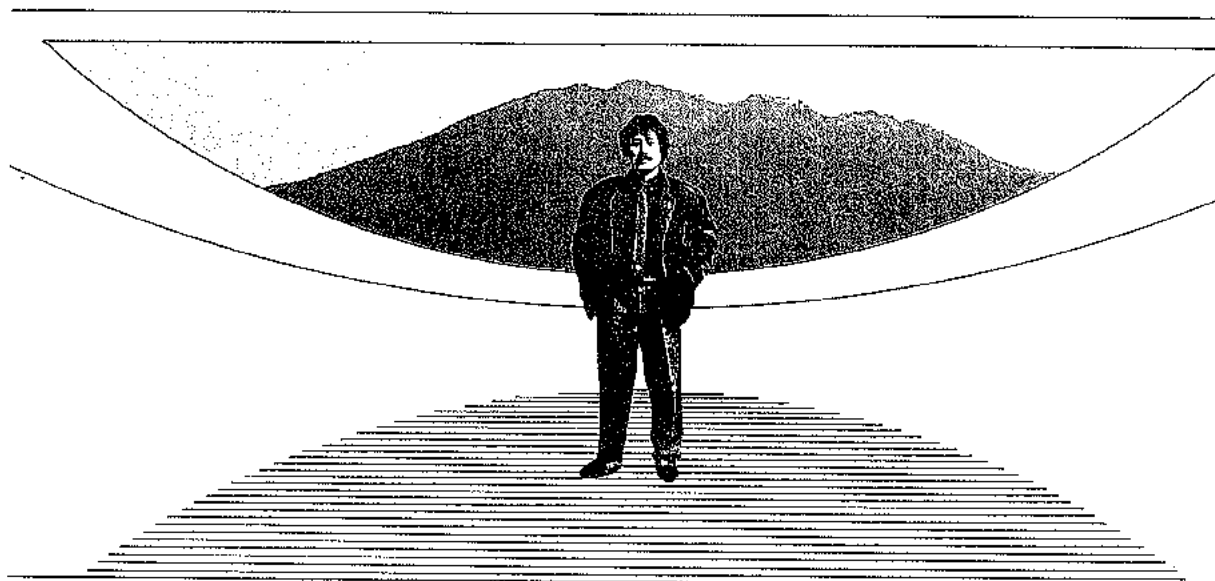
조권섭 어린이에게 좋은 공간이란 과연 어떠한 공간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어린이집이란 어린이가 즐겁고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을 창조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즐겁고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을 설계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만은 아닙니다.

턱없이 부족한 주변의 어린이시설들. 어린이집은 단순히 아이들을 수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바탕을 형성하는 제2의 가정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양적인 팽창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의 질적인 향상은 더욱 더 중요한 일입니다. 어린이집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좋은 어린이집의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보통들

그렇다고들 합니다만 저에게도 유치원을 3년간이나 다니고 있는 꼬마가 있고 해서 이러한 생각들로 분주할 때 동그라미 유치원을 구경하게 된 것은 적어도 저에게는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임상의학자들은 질병을 볼 때 증상을 알파벳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증상들은 그것 자체만으로는 알파벳 순서대로 공간을 배열하는 구조로 건축요소들을 펼쳐 놓고 있습니다. 이번 유치원에서 보여주는 앞서 논의한 바 있는 태도와 현상들을 '임상공간적 시선(Regard)' 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시각이란 결코 변하지 않는 순수 형태를 현상케 하여 대지의 콘텍스트와 무관하게 동일시 현상으로 빠져드는 자기기만의 논리 구조체로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감수성을 가진 시선이며, 모든 움직임이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시각입니다. '건축어휘' 운운하며 그것을 독재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여 대상의 깊이를 수렴하고 있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렇듯 현실에 바탕하고 이를 반영하여 특수해로 풀어 보려는 '임상건축', 그것은 새로운 공간, 즉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적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유치원 원장님을 두번째 만났을 때 "다른 유치원들에서는 영어교육이다, 한글교육이다 하는 일명 '학습지 공부'를 주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유치원은 학습지 공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다들 건물이 너무 좋다면서 이러한 저희 유치원의 교육의지에 동참하시는 이유가 바로 건물이에요." 하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럼, 이만 수고하셨습니다.



말죽거리빌딩의 옥상

살아있는 건물의 따뜻함 The Warmth of a Breathing Architecture

한만원 / 환경건축
by Han Man-Won



동그라미 유치원 내부

건물은 사용되기 위해 지어진다. 건축가는 그 건물이 사용되는 모습을 추론하면서 설계를 진행시키게 된다. 그 사용에 대한 설정이 빚나갔을 때 건물은 서서히 변형을 겪게 되거나 또 그 물리적 수명이 다하기전에 건축적 수명을 다하고 사라져 버리게도 된다. 우리가 하나의 건축물을 주목하고 또 비평하게 되는 것은 대개는 그 건물이 완공된 직후이다. 사용자의 손길이 가기 전인 이때가 소위 건축가의 의도가 때문지 않고 잘 드러나고 있을 때이며 혹자는 이때에 서둘러 사진을 찍어 발표 하기도 한다. 그러나 건축물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적어도 몇 년의 사용기간을 거친 후 그곳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손길이 닿은 건축물을 보면서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종상의 동그라미 유치원은 이미 1994년에 완공되어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며 이 건물을 지금에 다시 돌아 본다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실제 건축가 이종상과 이곳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 건물이 아무런 변형 없이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또한 학부모와 원생들의 자랑이자 사랑받는 장소인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건축물의 형태와 공간을 논하기에 앞서 그것은 사용자들의 손길이 구석구석 스며들어있는 따뜻하게 살아있는 건물이었다.

도시성의 문제

대지는 사당동 지역의 전형적 특성을 이루는 2~3층의 연립주택 및 다가구들로 가득 채워진 동네 속의 8m 와 6m 도로로 이루어진 네거리의 모서리에 위치한다. 주변의 대지들의 형상을 보면 이 대지 역시 주거를 위한 택지로서 분할 되었던 2개의 필지를 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120평 정도의 좁은 대지에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을 지어야한다는 것과 또한 모서리 대지가 가지는 잠재력을 수용하면서 주변의 도시적 상황에 건축가가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건축가는 이를 대지의 긴 형상을 따르는 직사각형과 가각에 대응하는 긴 타원형의 두 기하학적 요소를

오버랩시키는 매우 명쾌한 설정으로서 접근하였다. 그리고 이 두 요소가 겹쳐지는 부분에서 공간의 상호 관입이나 수직 동선에 따른 공간변화를 통하여 4층에 이르는 유치원 전체의 내부 공간을 다양하게 구성해 내었다. 대지의 형상에 따른 기하학적 개념의 설정은 직사각형과 타원이 그대로 Extrude 되어 두 개의 매스가 상호 관입되는 매우 단순한 형태가 생성되었다. 여기에 발코니, 외부계단, 창 등의 요소들을 변형적으로 작용시켜 건축가는 단순한 개념설정속에서도 작고 또 매우 변화가 풍부한 자유로운 건물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내었다. 대지안의 모든 공간의 흐름은 모서리에 설정된 원통으로부터 비롯되어 직사각형 대지의 방향을 따라 진행된다. 이 원통은 좁은 대지위에 세워진 이 유치원에서의 모든 공간적인 흐름, 1층의 출입구, 3층까지 그 안을 돌면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4층의 옥상공간까지 다양한 공간적 전개를 수용하며 그 모습을 외부에서 예감하게한다. 또한 그것은 좁고 긴 대지의 형상에도 불구하고 도시 내에서의 모서리 대지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백색의 드라이비트로 마감된 이와같은 원통형 매스의 설정은 붉은벽돌이나 기와로 가득찬 주변에서 의외적인 성격을 부여하며 상대적으로 지역적 상징성마저도 지니게 되며, 동그라미 유치원이라는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유치원의 중요한 이미지를 담당한다. 이 유치원의 독특한 이미지는 이러한 주변과의 대비에서 생기는 비일상성과 그것이 가지는 지역적 상징성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며, 유치원 원장님의 정성어린 교육과 함께 학부모들에게 좋은 호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유치원 : 어린이들의 공간

유치원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유치원을 설계할 때 건축가가 부딪히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어린이적'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다. 어린이들이 가지는 미적 감각은 과연 어른들의 그것과 다른 것일까. '동심의 세계'란 과

연 알록달록한 원색과 동화 속의 성과 같은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어린이들은 어른과는 다른 스케일감을 지니며 이는 기능적인 것들 뿐 아니라 공간의 크기나 높이에 대해서도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또한 유치원 자체의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전혀 다른 내부적 구성이 요구되기도 하며 결국 어떤 보편적인 해법보다도 각 유치원의 특색에 따른 매우 개별적인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이종상의 이에대한 대답은 유치원 전체를 어린이들을 위한 하나의 놀이터로 설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우선 이 건물에서는 그것이 유치원이라는 아무런 직접적인 아이덴티티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것은 매우 비유형적인 건물이지만 일단 그것이 유치원임을 알게되면 손쉽게 그 당위성을 받아들이게 되며, 나아가서 그 다양한 모습들 뒤에 숨어있을 내부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내부에서 역시 어떤 직접적인 인용에 의한 장식들은 일체 배제되었고, 천정과 바닥의 단순한 설정 속에서 창과 문, 그리고 가구들이 가지는 색채만이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내부공간의 중요한 특색은 원통 내에서의 여러 가지 변형을 통하여 다양하게 전개되는 공간의 변화와 3층까지의 열려진 공간을 채우고 있는 부드러운 빛의 흐름이다.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발견하게 되는 이 공간은 이 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을 상징해 낸다. 그러나 외부에서의 진입에 따른 공간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져 있어 진입과정에서의 시퀀스나 완충공간의 설정 등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한다. 또한 직사각형과 타원의 중첩을 통한 공간적 변형은 구석구석 놀랍게 많은 작은 공간들을 형성하고 있으며 교실들 역시 각각 다른 모습들을 지니고 있다. 이와같은 다양한

공간의 설정은 유치원 내부를 돌아다니며 매 위치마다 새로운 공간체험을 가능하게 하며 그것이 바로 건물전체를 하나의 놀이터로서, 혹은 놀이기구로서 인식하도록 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의 스케일 역시 매우 섬세하게 고려되어 있어서 화장실 위에 다락방을 만들어 2개층으로 나누어서 쓰고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내부를 움직이는 좁은 골목길 같은 통로들 역시 매우 아담하게 고려되어 있다.

옥상공간은 멀지않은 곳에 위치한 관악산과의 시각적인 연결을 통해 길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매우 수려하고 햇빛이 따뜻한 공간을 제공한다. 좁은 대지 때문에 불가능했을 지상에서의 놀이공간이 이곳에 설정이 되었고, 건축가는 높은 담장을 이용하여 이곳을 아늑하고 아기자기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옥상의 중정을 통하여 접근되는 건축주의 개인공간 역시 이러한 공간적 특색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

동그라미 유치원은 바로 그 이름이 시사하듯이 매우 기하학적인 작업에 의해 구성되었으면서도 '어린이적'인 분위기와 그 재미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것은 이종상의 최근 작업에서 보듯이 기하학적으로 매우 절제되고 세련된 것은 아니지만, 건축이 그 외부적인 조형이나 어떤 현학적인 개념 전개보다도 그 내부공간을 통하여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일치하고 또 그 존재의 이유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 유치원이 우리에게 소중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건축적인 담론보다도 그 건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자부하는 살아있는 건물의 따뜻한 생명력일 것이다.

The purpose of architecture is to be used. The architect designs with its presumed use in his head. When this assumption proves to be incorrect, the architecture goes through extensive deformation, or worse, becomes abandoned even before its physical deterioration. It is quite interesting that most of the attention or criticism on a work of architecture is given right after its completion. This phase is usually acknowledged as a state of purity, when the architect's intentions are most clearly presented. Some people rush to preserve the uncontaminated on photographs. I, however, must assert that the real evaluation of an architecture can only be made after at least a few years of use.

A criticism on Lee Jong-Sang's Round Kindergarten, in use since 1994, is meaningful in this respect. A visit to the kindergarten with the architect has ensured me that the work was being used as intended, and that it has become a proud and loving place among the kids and their parents. Even before any investigation into forms and spaces, I apparently noticed that it was a breathing, warm architecture where the touches of its users could be felt in every inch.

The Problem of Urbanism

The site of the Round Kindergarten is at a typical Sadang-dong region; in the midst of low-rise multi housings, at

the corner of a 8m- and 6m-road cross. It is likely that the site is a consolidation of two housing lots. The challenge for the architect was to build a kindergarten for 120 children into a small site of 360 m², and fully develop the potentials of a cornered land in an urban context. The architect approached the problem by overlapping two clear geometrical forms; a rectangle that follows the shape of the site, and an oval that corresponds to the intersection. The junction of two elements features the mutual interpenetration and variations of spaces with vertical circulation that consists the whole 4 stories of the kindergarten. The application of two geometrical forms to the shape of the site is directly extruded to the facade, where the intrusion is clearly visible. The attachment of balconies, stairways, and windows to the form of a rather simple concept adds to the richness of the building's overall image. All circulations within starts from the oval at the corner towards the direction of the rectangular site. The oval is literally the container of every spatial circulation in this small site; the entrance on the first floor, the stairway that leads up to the third floor, and the roof garden on the fourth floor. It also projects this organization to the outside. The architect fully understood and developed, within the urban situation, the use of a corner and overcomes the long and narrow form of the given site. The exterior finishing, contrary to the red bricks and traditional roof tiles of the neighbors, is done by white drivit, that ironically plays a symbolic role at the region, and emphasizes the very name of the kindergarten. The unique image of this building stems from the extraordinary contradiction of forms and its symbolic effect. It is, along with the heartfelt education of the principal, the main reason behind the kindergarten's popularity among the attending children's parents.

The Kindergarten: A Space for Children

The kindergarten is a children's space. The biggest issue that the architect faces in designing this facility is to interpret what it is to be a child. Are the senses of the children different from those of the adults? Does the juvenile world exist, as in bedtime stories, only in the castle with primary colors? It is clearly apparent that their sense of scale differs from those of the grown-ups, and this applies in approaching not only the functional aspects but the volume and height of each spaces. Internal compositions often vary in response to the unique educational program of each kindergarten, so the usual

outcome of a kindergarten design results in an individual, not universal solution. Architect Lee Jong-Sang's answer to this issue was to assume the whole kindergarten as a big playgroun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building itself does not present any direct sign of its functional identity. It is rather a work totally against any archetypes, but you can somehow easily confirm, as you experience, that it is a kindergarten. It catalyzes the curiosity to seek, behind the diverse volumes, the indoor spaces, where the decorations are also deprived of any direct figurative associations. In the humble presence of simple floors and ceilings, the windows, the doors and the color of furnitures dominate the space. The variations on the spaces in the oval and the flow of a warm light that fills the void space extending to the third floor are the main characters of the kindergarten. The latter area, which welcomes the visitor as he enters the building, presents its overall character. The shift of outdoor space to this entrance with height is so sudden, that a more gradual sequence or a buffer zone would have been preferred. The interpenetration of the oval and the rectangle creates, to one's surprise, small spaces with great multiformity. Along with the diversity in the shaping of classrooms, this enables the user, as he proceeds through the kindergarten, to enjoy the discovery of new spaces. Thus, the whole building can be recognized as one big playground.

The arrangement of scale is subtly controlled for its infant users. The height of the restroom is divided into 2, where the upper level is used as another space, and the street-like hallways share the coziness of a reduced scale. The roof garden is visually connected to the adjacent Mount Kwanak, and creates a grand and warm atmosphere which cannot be found on the approaching road. As the area of the site denied the luxury of any gardens on the ground level, it had to be lifted to the roof, and the use of high fences has made the space secure and comfortable. The private area of the owner, which is connected through this roof garden, shares its features.

The Round Kindergarten, as its name suggests, is composed of hard geometrical forms. It nevertheless delivers a childlike and enjoyable environment. It is not as geometrical and refined as Lee's recent works, but it proves that the *raison d'être* of architecture lies not in the pedantry analysis or the form of the envelope, but in the indoor spaces that lives and breathes with its users. The kindergarten certainly does, and its importance is found in the love and affection the teacher, the children and their parents have on this work.

몇가지 중요한 논제들...

Some Important Themes

윤승중 / (주)원도시건축
by Yoon Seung-Joong

서 / 1997년의 상황

1997년은 불안과 혼란 가운데 시작되었다.

OECD 가입과 월드컵 주최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서의 지위가 약속되고 빛나는 21세기를 맞게 되리라는 기대는 96년말에 이르러 급격한 외채증가와 200억불이 넘는 국제수지적자로 크게 반전되었고 이어 새 노동법 파문으로 확산되면서 큰 혼란과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노동법 파동으로 시작된 1997년은 한보 부도사건을 필두로 거대재벌기업들의 잇따른 도산으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국가부도의 위기를 몰고 왔으며, 결국 IMF에 대한 긴급구조 요청으로 한국경제는 국제관리하에 놓이게 되는 최악의 국면에 직면한다.

그동안 고속성장을 지속하며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국제적 신용을 지켜오던 한국경제가 이처럼 급속히 파국을 맞게 된 것은 기아 등 대기업의 부도처리과정에서 정부가 위기관리 대응에 실패한 것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어 국가에 대한 국제신용이 급격히 하락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나, 거시적으로는 WTO체제 상황 아래서 선진 경제대국들이 요구하는 산업구조 조정에 미숙하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수직적자의 누적과 과다한 외채를 안게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시 새해가 시작되는 지금의 시점에 우리는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매우 긴급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우선은 급속한 국제신용추락으로 국제금융의 유통이 차단되면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이의 여파로 국내 모든 경제활동이 급격히 냉각되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진전될 전망이다. 당장 IMF가 조건으로 요구하는 저성장 체제는 모든 생산과 고용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하며, 특히 건설투자가 급격히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건축의 모든 분야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됨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런 경제난국 속에서 지난 일년동안 지겹게 계속되어온 대선을 목표로한 정치논쟁이 마침내 끝나고 새로운

지도체제를 갖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정신을 가다듬어 경제국면의 대 전환을 위한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때이며,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갈 정치지도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국가가 신용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와 국민간의 그리고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신뢰가 확보되고, 큰 이상을 공유할 때 가능할 것이다.

국내건축 개관

이처럼 총체적 사회불안과 경제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국내건축 상황은 최근 IMF등장 이전까지는 이런 위기에 직접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제까지의 타성에 따른 경향을 보여준다.

년초에 한보사태를 시작으로 위기상황이 구체적으로 예감되었으면서도, 이처럼 사회전반에 여력을 준 것은 년전에 결정된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로 88올림픽으로 인한 총체적 발전을 다시 기억하게 하였고, OECD가입 등으로 선진국으로의 가능성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건축계는 전반적으로 특별한 새로운 이슈의 제기 보다는 수년래의 현안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몇가지 중요한 논제들을 통하여 1997년을 개관해 본다.

- 현정부가 슬로건으로 삼고 추진한 개혁드라이브로 인해 정치, 사회의 왜곡에도 불구하고 건축관련의 여러 행정제도의 간소화, 합리화라는 원칙적 합리에 따라 진행된 결과들이 하위법예까지 현실화되는 진전을 보게 되지만, 그것의 본질적 요구를 만족시키기는 아직도 거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행정제도의 간소화, 자율화라는 대원칙으로 많은 제도의 전환이 절차의 축소, 이관 등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이전에 있던 심의내용의 실질적 변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내규의 차이로 오히려 일관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특히 건축의 특수성이 무시되고 건축가의 역할까지도 일반 건설과정에 통합되는 한 부분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 이와 관련하여 수년래 지속되어온 건설회사의 설계검검문제는 아직도 핫 이슈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당초 당국이 WTO 체제하에서 설계분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에 편승하여 대형 건설회사들이 주장하여 제기되고, 자본, 경영능력의 우위, 그리고 시공에서 축

적된 기술과 경험이 설계에서부터 피드백 된다는 명분으로 일단 설득력이 있어 보였으나, 설계분야의 강한 반발로 현재는 자사투자건물에 한한다는 조건으로 제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은 실용적, 기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 가는 매우 창의적인 작업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논리와는 충돌될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이 두 주체는 서로 대위적으로 존재해 왔다. 즉 설계조직의 최종 결정권자는 건축가이며, 독립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형 건설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독립적인 대형설계조직들의 실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의 텍스트가 되고있는 일본에서도 오히려 설계조직의 독립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다.

- UR제도에 의한 건축 모든 분야에서의 전면적 개방은 이미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런 상황이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1997년에 일정 규모이상의 관공공사 개방을 시작하여서 2000년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민간공사에 까지 전면적 개방이 진행되며 WTO각서에 따라 정부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경기가 입찰공고문에 영문이 이미 병용되고 있다.

건축분야는 UR제도에 의해서 세계화가 촉진되고, 국제교류가 증대하며, 건축가의 직업적 신임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입장도 있으나, 세계 여러나라들 간에는 커다란 이해의 차이를 보인다. 유럽국가들이 주도하는 세계건축가연맹은 건축의 문화적, 지역적 종속성을 강조하여 미국이 이끄는 WTO와 견해차이를 보이며, 건축이 일반적인 자유시장경쟁체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문화적, 인간적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이해시키려 하는 것이다.

1997년에도 많은 설계경기 등의 프로젝트에서,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건축가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외국건축가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다만 세계적으로 저명한 건축가가 초대되거나,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특수대형 프로젝트의 기술협력 등의 경우는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나, 많은 경우 내용보다는 외국의 브랜드나 디자인 취향, 표현기술 등이 선호되는 경향이었던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더구나 지방공공청사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건축까지도 외국 설계회사에 맡겨지는 일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보여진다.

- 올지로 재개발 프로젝트를 필두로 수십개의 크고작은 설계경기가 행해졌다.

설계경기를 통하여 새 얼굴의 건축가팀이 다수 등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대다수의 설계경기에서 시간과 비용이 더 들더라도 보다 창의적이고 또 훌륭한 설계안을

찾기위한 본래 설계경기의 목적보다는 잠음없이 설계자를 선택하기 위한 형식과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설계경기는 다수에게 기회가 개방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런 기회에 도전하는 많은 응모자에게 큰 희생이 요구되므로 모든 설계경기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최근 시행되는 설계경기들이 형식상으로 매우 공정하게 진행되며, 또 심사에서 결정된 당선자에게 설계권이 주어지는 등 우선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정실개입을 차단할 명분하에 심사 하루전에 심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등의 운영방식은, 미리 그 프로젝트를 깊이 이해할 기회가 배제될 뿐 아니라,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대형프로젝트의 경우는 심사의 형식상의 공정성보다도 전문적인 안목과 올바른 가치 평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삼단체 '설계경기 운용규준'이나 건교부의 '설계경기 지침'에서 요구하는 심사위원의 사전발표는 정실 개입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의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연구와 평가방향등이 설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 시행될 모든 설계경기에서 응모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과 더욱 정당하고 진지한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 수년내 대학입시에서 건축관련학과가 인기 도에서나 지원자의 수준에서 최고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곧 건축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성고가 향상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과정에서 자율성과 선택성의 확장이라는 명분으로 계열별 통합이나, 복수전공제 등을 도입하면서 전공 필수학점을 절반 수준인 40학점으로 낮춘 것은 건축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전문성의 확보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각 대학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차별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자 각기 대학별로 생존전략을 세우고 체질개선을 위해 자생적 노력을 경주하며, 그 성과 또한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기대되는 일이다. 다만, 건축의 경우 그 차별화 전략의 향위가 한결같이 디자인에 오리엔트되고 있고 그 디자인 전략이 이미 정해진 제한된 커리큘럼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는 그 본래의 성과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학교마다 전략이 마련되어지고 그 완성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이며, 가시적 효과로 몇몇 대학은 외국대학과 교수교환뿐 아니라 학점까지도 공유하는 진전을 보인 것을 들 수 있겠다.

또한 건축가교육이라는 관점에 볼 때 스튜디오를 통한 설계교육 중심으로 건축학 석사를 수여하는 건축대학원의 개설과 설계교육을 담당할 실무건축가가 초빙되는 객원교수, 겸임교수제도의 도입 등이 확산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예술종합학교와 중견건축가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서울건축학교 등 다양한 건축가교육프로그램 등의 출현은 매우 환영할만 하다.

- 21세기를 향한 국제화, 세계화라는 화두와 관련하여 90년까지 꾸준히 추구되어온 전통성의 논의가 근래에 이르러 그 가치의 모색이 항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히려 건축의 분야에서 세계화에 대응하여 전통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은 일간지에서 전통건축의 담사가 행하여지고 있는가 하면 순수예술 뿐만 아니라 응용미술 쪽에서의 한국성의 모색 등은 건축계의 70년대의 열기와 흡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경향은 건축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며 97년 한해동안 출판된 건축관련 도서가 150여종에 이르고 건축교양과 문화관련이 50%를 상회하는 결과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건축기행도서가 베스트셀러안에 거론되기도 하고 건축관련 저널이 이제 50여종에 이르고 보면 그 열기의 근간이 건축의 대중화에도 일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방후 5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 다시 이 전통의 모색을 거론하고자 함은 6, 70년대는 전통으로, 80년대는 한국성으로, 9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서울성으로 그 이름이 변화하였지만 그 모색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독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그 모색의 흔적이 과거와 같지 않으며 세계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으로도 거론되지 않은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당장에 물리적 결과로 보여지길 바라기보다는 그에 관한 논의가 축적되어 그간의 결과였던 양식론이나 공간론적 해결과 같은 시대적인 해석이 꾸준히 제기되어 검증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 97년 세계건축의 향위는 빌프린의 문화진보 사이클에 어느 에포크로도 설명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문화진보의 속성이 그러하듯 근본적으로 진보와 리얼리즘이 양립, 공존하면서 양상의 본질은 내비치지 않는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표출의 결과로써 진보는 하이테크로 리얼리즘은 네오모던으로 탐색되지만 유형학적으로 나타나는 수준으로 표현된다.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징후는 그간 건축계에서 탐색해온 경구조(Light Construction)화 조형적 가치들의 하이브리드한 형태(Hybrid Form) 구조로 대분하여 꼽을 수 있다.

건축의 경구조화의 경우는 뉴욕현대미술관에

서 1932년 International Style전, 1988년 해체주의 건축전으로 개최되었던 연을 같이하여 1995년에 경구조전에 개최되어 그 가능성을 보여 주었고, 근년에 이르러 세계적으로 몇몇 선진적 건축가들의 건축들에서 결과를 보이면서 본격적 이슈로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경구조화의 논리적 근거가 때론 리얼리즘으로, 때론 진보적 의사를 수용할 수 있는 논리의 신축성을 보이는 것이 그 이유가 되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디 콘스트럭션의 연속선상에서 하이브리드한 형태 구조를 주목할 만한 징후의 하나로 보는 것은 현재에는 모더니즘과 같이 세계건축을 지배할 만한 어떤 조형적 트렌드를 기대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특질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건축의 흐름과 견주면서 근년에 많은 젊은 건축가들이 활발하게 이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며, 더욱 자신의 언어들로 구사되기를 기대해 본다.

결 / 1998년에 거는 기대

1998년을 우리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극도의 불안한 상황을 맞는다.

국제신용의 추락으로 외환 순환 경로가 막힘으로 시작된 위기가 총체적인 경제활동의 경색으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위기국면의 탈출을 위한 긴급처방이 우선 시급하지만 거시적으로 미래에 대응하는 균형감각이 간파될 것이 우려된다.

전술한 대로 IMF시대의 저성장 정책과 산업구조의 조정과정에서 건축분야는 크게 압박을 받고 위축될 것이다. 88올림픽 특수 이후 크게 위축될 것이 예상되던 건축계는 오히려 이후 10년간 매우 호황을 누렸으며, 이런 호황이 오히려 건축작업을 통한 고뇌의 기회를 상실케 했다는 견해도 성립된다. 저성장의 시대는 사회전분야에서 이제까지 모든 과정을 검증하고 미래를 향한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건축의 속성은 세계대전을 두 번 치르며, 또 세계적인 공황을 겪으면서 건축의 논리가 성숙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그 시대적 의미를 잘 소화해 왔음을 본다. 이런 관점에서 앞날의 건축을 준비하면서 그간 유보해 두었던 건축적 사고들이 새롭게 검증되는 한해가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방과 국제화 전략을 위한 제도의 정비, 세계화와 정체성 확보, 정보 인프라의 구축, 통일국토를 대비하는 구상 등 미래를 열어가는 기초를 만드는 일, 지구환경 회복에 동참하는 일들이 이 불확시대에 우리 건축계 모두에게 주어지는 숙제가 될 것이다.

공공 · 문화 · 교육시설부문 - 백가쟁명(百家爭鳴)의 해

Recent Trend of Public, Culture and
Education Facilities

고성룡 / 경상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Go Sung-Yong

현대를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시대라 하였는가? 지난 한해동안 건축전문지를 장식한 국내 건축들을 살펴보면 아예 걸맞게 다양성을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다. 외국 건축을 직수입하여 외국건축의 포장지에 싸여 있던 자생적이건 간에 수많은 건축개념과 건축어휘들이 국내 건축계에 제시되고 시도되는 한해였다. 이는 열심히 건축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도 되겠고 우리 건축의 작업 역량이나 저변이 그만큼 넓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다. 생태학적으로 볼 때 어느 군락에서 개체의 다양성은 바로 건강한 사회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 건축설계분야는 최근의 우려되는 건축 경기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내부적으로 발전한 한 해였을까 음미해볼 일이다.

우선 지난해의 국내 건축설계의 움직임을 보자. 대형프로젝트는 그 속성상 대개 기업화한 대형설계사무소가 담당하였다. 여러 이유에서 외국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합작하거나 건축주의 바람에 편승하여 외국에 외주를 주는 설계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 그 결과로 외국 설계사무소의 세련된 표현과 함께 외국디자인 경향을 그대로 수용, 표현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과연 이러한 수입과 합작을 통해 우리의 대형사무소들이 한 수 배운 것인지는 되물어보아야 한다. 아니면 대형사무소에서 실제 일을 담당하는 소위 실장급들의 낯뜨림처럼 그저 남 좋은 일만을 한 것인지 되짚어 볼 일이다. 더욱이 한 수 배우기 위해 건축하는 이의 기금이나 혼을 저당 잡히지는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철저한 되새김을 해야 한다. 반면에 규모 작은 프로젝트를 주로 담당하게 되는 소규모 사무소 또는 아틀리에 건축가들은 어떠한가? 건축과 이를 둘러싼 컨텍스트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회답을 통해 그토록 갈망하던 한국 현대건축의 정체성이나 건축의 본질에 접근하였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잡지와 각종 발표회를 통해 치열하게 화두에 답하였는가를 역시 되물어보아야 한다.

한 해의 건축을 뒤돌아보는 일이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다. 우선 국내 건축을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 요컨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이슈들을 우선 살펴야 하겠

고, 건축이 자리매김하는 한국이라는 또는 도시라는 장소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야 국내건축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예술이나 건축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심도 있는 되돌아봄은 차후에 전문가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지난 한해 국내에서 출판되는 건축전문 월간지에 게재되고 논의된 국내 건축들과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1997년 한 해의 건축을 어렵게 보기로 한다. 워낙 건축월간지들이 보다 제시적이고 전위적인 건축에 손을 들어주긴 하지만 문제를 인식하여 건축을 걸러내는 소임도 다하고 있으므로 지난 한해 주요 건축 월간지에 오르내린 국내 건축들 중에서 필자에게 요구된 공공, 문화,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동향을 살펴보고 필자 나름대로 한해를 대표할 건물들을 열거해 보기로 한다.

지난해 국내건축의 설계 동향을 개관하면 크게 다섯 가지를 우선 떠올릴 수 있다.

첫째는 건축외관의 중시 경향이다. 특히 프로그래밍이 대규모가 될수록 외관과 외피 처리에만 치중하여 내부 공간의 감흥은 뒷전이다. 최신 해체주의나 네오모던의 영향 탓도 있었으나 별다른 고민없이 자유곡선과 사선이 건물 곳곳에 무신경하게 채택되고 이것이 마치 새로운 경향으로 오도되어 국내건축에 풍마하고 있다.

둘째, 형태언어상 타원형이나 타원기둥이 두드러지며 이에 많은 형태적 해결을 맡기고 있다. 그 기능이 회의장 이건 식당이건 민원실이건 상관없이, 또는 유리상자건 콘크리트 상자건 개의치 않고, 남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습관적으로 특수 해를 애용하는 듯하다.

셋째, 건물 최상부의 다양한 형태 출현이다. 이는 몇 해전부터 두드러진 경향이긴 하지만 건축물의 최상부가 평편한 슬라브로 남겨지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다. 따라서 물결모양의 지붕이나 둥근 배럴볼트 또는 한쪽으로 경사진 형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하늘에 자주 등장한 한해였다.

넷째, 외장재료의 개성적 사용이다. 이 중에서 특히 아틀리에 건축가들이 그들의 건축적 의지를 관철하려는 듯 노출콘크리트의 표현이 주류를 이룬 한 해였다. 또한 새로이 등장하여 눈에 띄어 각광을 받은 외장재는 인도산 사암이다. 다양한 색깔과(그 중에서도 붉은 사암) 재질감 때문에 많은 건축가들의 사랑을 받았다. 또한 아이소코트나 드라이비트도 시공성과 표현 용이성 때문에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여러 외장재를 대비적으로 사용하는 등 재료의 다양한 선택과 적용이 두드러진 한해였다.

다섯째, 과감한 원색들의 등장이다. 기존 관념을 깨고 외장재의 물성에 힘입어 과감하게 원색들이 건축 여러 유형에 시도된 한 해여서 무채색 위주의 건축풍경이 다채색적이고 매우 개성 있는 연출로 표현되는해이기도 하였다. 그밖에 국내건축 동향으로는 신진건축가들이 대거 진출하여 열심히 자

신의 생각과 주장을 펼쳤으며 간간히 비전공 건축인(?)이 건축계에 새로운 활력을 던져주기도 하여 국내건축설계분야의 저변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공공시설의 경우는 계속되는 건축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체 또는 공공단체들의 프로젝트들이 계속 발주되어 그 어느 해 보다도 그 규모나 성격에 관계없이 현상설계가 풍년을 이루었던 한 해였다. 그러나 무분별한 현상설계의 남발과 발주주체의 무책임한 설계지침의 작성 그리고 고질적인 짧은 제작기간으로는 우수한 작품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었다. 여러 건축적 상황 속에서도 1997년에 기억할만한 건축작품과 건축가를 나름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필자의 자의적인 선택이 대부분이었지만 주요 작품을 살펴봄으로서 1997년 한 해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

공공문화시설 / 전시시설

주변 아틀리에 건축가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각기 나름대로의 건축개념을 추구하며 건축의 본질을 애써 추구한 흔적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건축 내부의 질서나 성격을 규정하는 공간의 추구, 재료의 물성 파악과 적극적 표현 또는 주변 컨텍스트와의 관계 규정 등 다양한 시도가 보인다.

그 중 주요한 작품은 다음과 같다.

· 동송동 문화공간 (송효상, 이로재 건축연구소)

주변의 잡다한 표정에 대해 다소 냉소적인 콘크리트 패널들로 대비시키고 있다. 그러나 건물 여러 레벨로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오픈된 계단의 역할과 이에 따른 공간의 전이가 훌륭하다.

· 금호미술관 (김태수, TSK건축)

14m 고도제한규정의 한계를 극복하며 경복궁이 주는 장소성과 한껏 조화를 꾀하고 있다. 경복궁 돌담이 주는 인상을 간직하듯 화강석 외장 벽과 짙은 색 동판 창의 질서가 돋보인다. 단순한 구조와 전시실 천장의 극대화는 현대건축의 이미지를 더욱 강조한다.

· 독도박물관(유건+김혜정, 사상건축)

역사적 의미 때문에 자칫 오도될 건축언어를 정제된 조형언어와 공간구성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여러 의미를 부여하며 질서 지워진 조형성 못지 않게 공간의 시련스가 훌륭하다.

· 박영덕 화랑(조성렬, 큐빅디자인연구소)

주택을 가벽을 이용해 리노베이션한 작품이다. 내부공간의 백색에서 흑색에 이르는 무채색과 대비되는, 회색의 외벽과 붉은색 캐노피의 색채계획이 돋보인다. 외장재로 쓰인 굴곡면의 철판, 건물 정상부의 티공판 사용이 눈길을 끈다.

· 샘터화랑(최두남, 최두남건축)

대지나 건물의 기능이 가지는 이중성을 그대로

건물의 매스와 표피로 표현하고 있다.

· 소리문화예술센터 (이배화, 한라공대 건축과)

예각으로 튀어나온 유리의 반원모양과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극장 전면 파사드가 백제의 옛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신흥공업도시 익산시의 현 좌표를 대변한다.

교육 연구시설

특히 교육시설의 기존 관념을 깨드리는 새로운 유형의 제시가 많았다. 학교 표준설계도에 따라 무감각하게 지어지는 기존 학교에 중점을 지닌 중교교가 제안되었으며, 건축가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유치원 계획도 제안되었다. 장애자시설에도 새로운 이미지와 색채계획이 시도되어 교육시설의 다양한 접근과 시도가 있었다. 또한 학교시설의 리노베이션으로 김준성의 작업은 건축재료의 물성을 이해하는 좋은 시도였다. 주요 작품은 다음과 같다.

· LG화학 대덕연구소 (김태수, TSK건축)

건축문화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 단순하고 명료한 건축언어와 질서 위에 자연과 건물, 인간의 관계를 단순한 조형미로 설정하고 있다. 자연이라는 주변환경과 어우러진 정갈한 외부공간을 만들고 있어 연구소 건축의 새 장을 열고 있다.

· 동아방송전문대학 (윤승중+변용, 원도시건축)

아카데미 플랜과 마스터플랜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수사화적인 접근을 통해 전통건축공간을 표현하려고 시도한 합리적인 건축군이다.

· 순천향대 향설기념도서관 (송효상, 이로재 건축연구소)

건축가의 온갖 재주가 어우러져 현대건축이 보여주는 화열을 느끼게 한다. 알루미늄 패널과 착색유리의 세련된 어울림은 물론 건물 곳곳에 나타나는 건축가의 유희가 보여지는 건물이다.

· 경기대 학생회관 및 제1강의동 리노베이션 (김준성, 스튜디오 아이)

기존 건물위로 경량철골조를 이용하여 2개층을 증축하였다. 기존 건물의 리노베이션에 새로운 도전과 재료의 물성을 이해하는 설계가 돋보인다.

· 계원예술대 우경예술관 (정기용, 기용건축)

적절한 배치와 형식언어를 통해 자연과 건축의 상호침투로 조장과 공존을 도모하고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를 얻어내었다. 기존건물과의 심한 레벨차이를 공간적 배치와 여러 커의 조형언어로 해결하고 있다.

· 동명중고등학교 (정기용, 기용건축)

막사와 연병장을 연상시키는 기존의 중고등학교

교 건축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학교건축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한 작품이다. 반복과 차이라는 건축가의 의도를 외부공간과 외관에서 잘 살려내고 있다.

· 행웅어린이집 (김인철, 아르키움건축)

교실사이마다 좁고 긴 마당들을 마련한 공간구성이 특출하다. 노출콘크리트의 단순한 외관만큼이나 단순한 공간구성이 오히려 유아들의 자유스런 행동을 보장하며, 건축가의 의도대로 공간의 실제 숨결을 체득하게 한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정말 잘 해결한 유아원의 새로운 유형이다.

· 말알학교 (유결, 건원건축)

장애자시설의 기존관념을 깨는 밝은 색채계획과 대공간 아트리움의 다목적공간이 주목된다. 건축적 질서도 이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역시 장애자 시설의 새로운 개념의 접근이 주목된다.

종교건축

종교건축은 여전히 그 상징성 때문에 형태적인 추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일부 건축가를 중심으로 종교적 상징에서 건축물 내외부 공간에 의미를 두려는 개념 전환의 시도가 있었으며 본당 내부의 새로운 평면의 제시도 있었다.

· 의정부 성약교회 (민현식, 기오현 건축)

마당과 비워둠의 추구가 교회건축으로 확산되었다. 본당 내부의 T자형 화중석과 강단의 구성은 새로운 교회 공간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 원주 만종감리교회 (백문기, 인토건축)

선적인 공간구성체계를 통해 자연과의 관계 설정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에 내부공간에서는 모더니즘의 언어가 압혀진다.

· 심곡부활성당 (김영섭, 건축문화)

비대칭적 알의 형상을 한 본당의 공간이 종교 공간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며 무분별하게 개발된 부천시의 스카이라인에 생명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구조적 도전과 모자익타일 마감의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떠올리게 한다.

· 성도교회 (최동규, 서인건축)

인도사마이 주는 대비가 인상적이다. 교회내부의 좁은 로비를 대신하는 진입공간의 갈라진 실자에게 경계와 진입이라는 새로운 건축적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 밖에도 능인선원 종합사회복지관 (황일인, 일건)도 시선을 끌었던 작품이었다.

주목받은 국내 건축가

1997년 한 해도 많은 건축가들이 등장하고 있다. 기성건축가들은 자신의 건축역량을 한껏 발휘하며 건축전문잡지를 장식하고 일반인들의 건축이해를 북돋우고 있다. 이에 만만치 않게 신진 건축가들의 작품 또한 국내 건축계를 다양

하게 하는 견인차가 되었다.

지난 한해 공공, 교육, 문화시설 분야의 국내 건축에 두각을 나타낸 건축가는 다음과 같다.

중견 건축가 중에서는 대규모 건축에서 소규모 미술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명료한 건축언어를 표현한 김태수가 대가다운 면모를 보였다. 또한 간삼건축과 정립건축, 일건 C&C, 삼우설계를 이끄는 건축가들의 학교건축과 연구소 건물은 고품위의 건축적 질을 유지하며 국내건축을 여전히 이끌었다. 또한 건축의 본질과 건축공간의 의미를 중심으로 아틀리에 건축가들은 때로는 전위적으로 때로는 자기 반성적 태도로 치열하게 문제제를 제시하였다. 김인철과 백문기, 이일훈, 조병수가 그들이며 또한 김영섭과 정기웅의 행보가 그 중 두드러졌다. 또한 현대건축의 조형성과 건축미를 작업 속에서 추구한 송효상, 유건이 역시 국내 건축계를 주도하였다. 신진건축가들의 도전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데 김준성, 한만원이 거론된다. 물론 신진건축가들의 활약은 주거나 상업건축물에서 더욱 빛난다.

뜻이 크다면 한 칸의 방도 넓다 (意廣者 斗室寬若兩間)

1997년의 국내 건축분야를 뒤돌아보면 앞서 언급한대로 다양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느낄 수 있었다. 무인년 벽두부터 대면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성은 건축개념, 표현, 재료, 구조로 더욱 확산되어, 우리 국내건축의 발전 가능성이 높게 되리라 생각된다.

다양성을 화두로 다음의 일들이 새로운 한 해에 벌어졌으면 한다.

큰 것과 작은 것을 다 잘하는 건축가의 출현을 보았으면 한다. 중견 건축가가 설계한 자그마한 미술관에서 한 국건축의 맥을 보고, 아틀리에 건축가들이 내놓은 대단위 아파트 계획에서 건축의 본질을 보았으면 한다. 또한 다양한 배경의 건축가가 등장하였으면 한다. 건축가들과 조각가나 디자이너와 같은 비전공 건축가가 영역의 구분없이 공동작업하여 건축의 한계와 가능성을 더욱 넓혔으면 한다.

그리고 변신하는 건물을 보았으면 한다. 신규 프로젝트 못지 않게 건축의 리노베이션에 관심을 고조시켜 이를 건축적 표현으로 완성시키는 시도가 많아야 한다. 아울러 자생적 재료를 적극 이용하고 적용하는 시도도 뒤따라야 한다.

끝으로, 경제의 침체로 줄어든 건축설계 기회는 역설적으로 건축가가 건축설계에 투자하는 시간을 연장시키며, 프로젝트에 대한 건축가의 열정을 더욱 이끌어 오히려 국내 건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호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 한 해의 성숙처럼 올 무인년도 신진 건축가들의 도전과 기성 건축가들의 매진이 어우러져 손바람 좋은 한국건축이 되었으면 한다.

한국성과 정체성의 해결책 - 방어형주택

The Answer to the Korean and its Identity
- Defensive Housing박연심 / 건축사사무소 장원
by Park Yeon-Sh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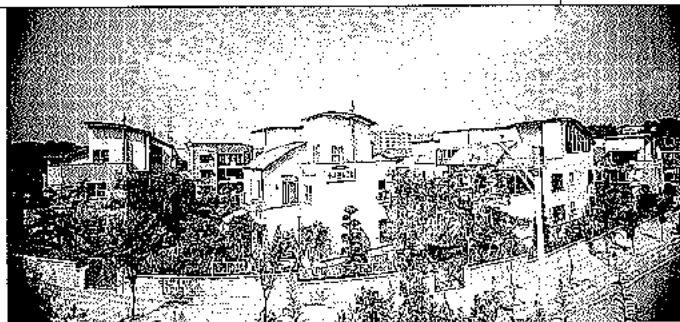
우리나라 정치, 경제에서 전환점이었던 97년을 마감하면서 올 한 해 건축분야의 경향을 되돌아 본다. 건축적으로 풍부하게 구사된 작품들이 해가 다르게 많아지고 있다. 하이테크한 기술에서나 새롭게 쓰여진 재료의 디테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순한 형태가 아닌 공간들의 활발한 액티비티를 보여주는 구성 등, 우리 건축이 나날이 발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해가 거듭되도 항상 코앞에 닥친 일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른사람들의 작품을 총괄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에 이렇게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은 건축실무를 위해서도 좋은 것 같다.

최근 몇 년간은 해외에서 활동하던 건축가들이 한국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졌던 때여서 그들의 작품은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국내작가들에게 신선한 자극제가 되었다. 특히 서양식 교육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이론적 배경과 부분적이 아닌 총체적인 개념을 보여주는 점과 재료의 자유로운 구사와 디테일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런 활동이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것이어서 그 뿌리를 서양의 것이 아닌 한국건축의 토양에 내려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었으면 한다. 현상설계도 단순히 당선작에만 시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로 여러사람의 다양한 해결책을 볼 수 있고 낙선된 작품에서도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표현을 읽을 수 있어서 좋으므로 되도록 잡지나 전시를 통해 발표하였으면 한다. 건축사협회가 주관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이나 건축가협회상, 서울시건축상 등 각종 상을 받은 작품들을 보면서 올해의 경향을 요약해 볼 수 있다. 자치제이후 서울의 경우는 각구마다 이러한 상제도를 두어 우수건축물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을 받은 작품들과 몇몇 잡지에 소개되었던 작품들을 공공시설, 상업시설, 주거부분 등으로 나누어 정리 해 볼 수

도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주거부분을 중심으로 97년의 건축계를 돌아보려 한다.

우리나라의 아파트주거는 전체주거 형식의 거의 80%를 차지한다고 하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요즘은 지방 어디를 가도 고층아파트가 논밭을 배경으로 우뚝우뚝 솟아있으므로 그 숫자는 놀랄만한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형식이 전혀 주거문화를 선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고 그런, 늘 보아온 평면형식과 배치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소규모 주택의 분양의무율을 없앴다. 분양가 연동주거를 단축한다 등등 자구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 분양가가 자유화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각 건설회사에서는 나름대로 메리트를 주어 차별화를 위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철골조 아파트의 경우 이미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의 주거문화를 선도할 정도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방법이나 방재부분에서, 조경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해마다 주최하는 살기좋은 아파트로 97년도에 최우수상을 받은 대우의 부산 해운대아파트나 현대산업개발 해운대아파트의 경우 타 아파트와의 차이로 제시된 환경친화라는 것이 아파트 동간의 빈 땅에 대나무 등으로 조경을 한 것과 주민휴게시설을 추가한 것, 음벽의 최소화로 마운딩과 조경시설을 추가한 점도였다. 그렇게 작은 곳의 세심한 배려가 상을 타게된 동기이고 또 그런 것이 많이 모아져서 좋은 단지가 되기도 할 것이다.

97년 1월에 들어와서 다가구 및 다세대대의 건축법이 강화되어 시행되기 시작했다. 주차장이 강화된 이 법은 완전히 다세대 죽이기로 법대로 따지다 보면 도저히 다세대로 짓는 것은 승산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주택가의 주거환경을 망치던 주변이 지난 일년간은 많이 축소되었다. 연립주택의 경우도 서울지역의 경우 예외가 아니어서 극히 보기 힘들다. 예외의 경우는 동호인들끼리 모여 한정되게 집을 지은 경우로 서초동의 MESOTRON(김인철, PLUS誌 97년 12월호)을 들 수 있다. 도시주거의 새로움을 탐색하는 작가는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가회동 주택가에 거대한 규모로 지어진 기화동빌라(송광섭, PLUS誌 97년 12월호)는 대지의 약 조건을 네 개의 중정을 두고 해결한 예이다. 평면의 해결은 작가 특유의 재치가 엿보이는데 분양면적이 100여평이나 되는 호화



분당집합주택(안영재)



노매드(김인철)

빌라의 전형을 보는듯하고 중정을 두느라고 건물의 물체가 커져서 주변과 조화가 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연립주택의 경우는 용적율이나 건폐율의 법적 제한 때문에 서울지역에서보다는 신도시에서 아이디어가 풍부한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서울의 경우는 법적 최대용적율이 400%인 반면 신도시는 90%를 넘길수 없기 때문이다. 94년도에 시작된 분당주택전람회단지중 건형이 많은 구획을 뺀 나머지 택지에 건설된 것들이 준공을 한 것도 올해의 일이다. 이들 단지들은 넉넉한 공차율과 낮은 용적율로 특별설계구역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아름다운 마을, 견고 싶은 동네의 기치를 걸고 설계되어진 것들이다. 또 97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상을 받은 분당집합주택(동서개발/안명제)이 있다. 이들 작품들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개념은 역시 마당, 길, 중정 등이 테마이다(시대건설/강석원 박연실, 동서개발/안명제). 그리고 몇몇개는 분당이라는 위치를 정의하여 각자가 자기의 마당을 갖고 지상권과 지하권을 갖게되는 타운하우스의 개념(쌍용건설/윤승중, 시대건설/장세양),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 평면에 계단실형을 복합한 것(한일개발/류춘수, 삼성건설/김원) 등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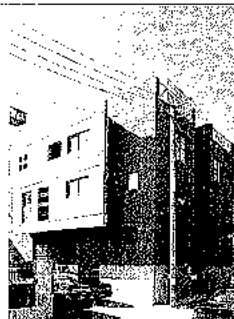
다가구주택은 흔히 주변환경을 망치고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한다는 기존관념을 떨치고 역삼동다가구주택인 하늘마당(방철린/건축세계誌 97년 10월호)은 건축가의 끝없는 노력과 상상력을 보여준다. 세대마다 어떻게 하면 빛과 공기를 통하게 할까하는 생각들과 특히 환경이 좋지못한 지하공간에 마당을 두게하는 아이디어를 발휘하였다. 또 독립주택에 살던 주인세대를 고려하여 3층에 마당을 두어 이 집의 이름을 하늘마당이라고 칭하였다 한다. 나는 평소애 주거의 설계에는 100점이란 없다고 생각했는데-건축가와 건축주 상호간에 만족스러운 점수로써-이주택의 경우는 정말 100점을 주고싶다. 또 하나 다가구주택 노메드(서울시건축상 동상 수상/김인철)는 다가구형식을 가진 원물오피스텔이다. 길로 설정된 복도는 비합리적이고 비기능적인 동선이 아니라 늘릴 수 있을만큼 늘린 기다란 길(추위와 더위를 동시에 느끼며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하는 길)의 개념이다.

일정규모의 설계사무실에서 일년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설계하면 그회사 망한다는 농담아닌 농담이 있다. 그만큼 주택설계는 시간과 공을 많이 들인다는 뜻일 것이다. 또 주택은 한 건축가의 건축관내지는 삶의 철학을 강하게 표현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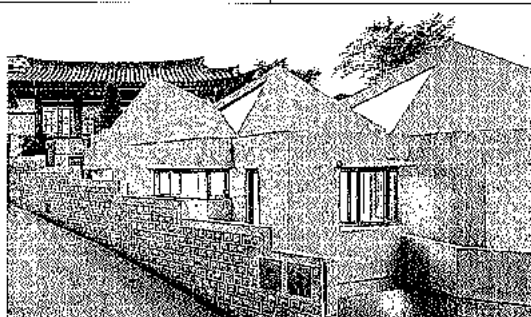
것이기도 개인의 건축위상에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97년의 주택작품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일산주택(조병수/건축기誌 97년 11월호)이 될 것이다. 분당의 주택단지가 주거전용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이어서 무차별의 근린생활시설과 공존하고 있는데 반해 일산의 이 주거단지는 한가구만을 허가하는 독립주택단지이어서 일단 주택단지로서 성공한 지역이다. 그러나 우후죽순의 다양한 스타일의 주택들이 들어서서 마치 주택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이주택의 L자형의 배치는 최근 몇몇 우리나라 주택에서 시도하는 마당을 도입하고 있다. 과천K씨주택(유원재, PLUS誌97년 12월호), 채한경(김병윤, 건축과환경誌 97년 2월호) 등이 이런 중정형주택에 속한다. 도시의 주거환경은 이웃 빌딩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방범 등의 요인으로 외부로는 폐쇄적이고 안으로 열리는 중정을 갖는 방어형주택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97건축문화대상을 받은 삼청동주택 익청각(김영섭)은 기존의 한옥과의 공존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기존의 한옥의 외형을 살리고 증축부분의 주택은 최대한 볼륨을 작게 보이도록 지하로 실들을 보내어 단순하고 심플한 외관을 갖도록 한 점이 좋았다.

휴일에 차를 몰아 서울의 외곽지역인 용인, 광주, 기평 등지를 돌아보면 곳곳에 생겨난 전원주택단지에 놀란다. 그리고 한 단지임에도 통일되고 조화되지 못하는 제 각각의 스타일이 단지를 혼란스럽게 보이게 한다. 또 그곳에 통나무주택이나 목조주택이 많은 것을 볼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스컴의 영향인지 목조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목조주택들은 하나의 택지의 땅이 넓은 캐나다나 미국의 환경에 맞는 평면형으로 우리나라 같이 100평 내지 200평정도 되는 전원주택단지에는 그 목조주택이 하나 들어치면 여유공간이 없어져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국이 되고 만다. 또 그 평면을 분석하자면 순 구식의 아메리칸스타일 이어서 우리형편에 맞는 평면형의 개발이 요구된다.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추세인 전원주택을 잠시 생각해 보았다.

IMF사태는 국민소득중대와 함께 나날이 발전해 왔던 건축계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후 몇 년 동안은 사회 문화 전반에서 퇴보와 정체를 예감하면서 97년의 리뷰는 하나의 위안과 추억거리를 제공한다.



하늘마당(방철린)



익청각(김영섭)



채한경(김병윤)

97년의 업무·상업건축

Recent Trend of Commercial Offices

손두호 / 건축사사무소 모람
by Shon Doo-Ho

글머리에

근본적으로 건축은 현실에 근거하며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상업건축은 상업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업건축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건축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 전반에 안고 있는 문제와 그다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상업건축이 우리의 경제처럼 전반적으로 과대포장되고 겉만 화려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상업건축은 교육문화시설보다 소위 건축잡지에 선호되지 않으며, 몇 개 안되는 작품을 가지고 한해를 리뷰를 한다는 것도, 구조적인 취약점을 밝히고, 작품성을 따지는 것도 사실은 과대포장된 우스운 일일지도 모른다.

1년전에 우리의 건축계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경제적 불황의 조짐을 느끼며 한해를 시작하였다. 1997년도 새해 머리에 건축사지 칼럼에서 윤승중선생은 '1997년을 우리는 매우 불안하고 우울한 상황으로 맞고 있다'고 하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우리는 국가 부도라는 말을 쉽게 하며, IMF 경제체제 아래 내일을 짐작하지 못하는 더욱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다. 몇몇 대기업의 부도로 시작되어 별로 밝지 못할 것 같이 보였던 한해는 아주 암울하게 지나갔다. 건축경기는 이러한 경제의 여파로 많은 건설회사들의 부도와 함께 얼마나 많은 설계사무실이 규모를 축소하고 문을 닫아야 할 지를 모를 정도가 되었다. 의식의 전환은 우리가 의식도 하기 전에 이미 강요되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1997년의 업무상업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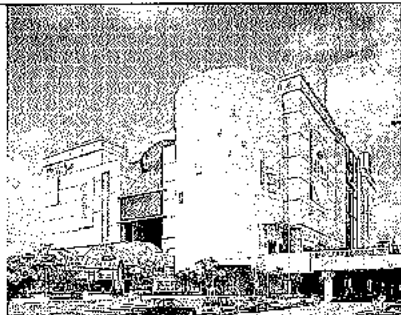
1997년의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그다지 활발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테헤란로나 보라매 공원이 이미 지어진 건물들로 채워졌고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신규 프로젝트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부터 진행되었던 비교적 대형 프로젝트들이 준공되어 97년의 건축을 초라하지 않게 하였다. 그런 중에서도 대표할 만한 상업건물로는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을 수상한 코오롱 과천사옥과 블루힐 백화점 등이 있으며, 건축사지 등 기타 잡지에 발표된 기타 상업건물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잠실 시그마타워, 알리안스예식장, 전주 리베라호텔, 광주은행사옥, 한국경제신문사옥 등이 있다. 코오롱 과천사옥은 전체적인 형태나 그 완결도에 있어 무덤덤한 포스코센터보다 과감하고도 발전된 사무소 건축을 보여준다. 실제 평당 공사비가 포스코센터 보다 적게 들었을 자는 의문이 가지만 한 기업을 대표하는 충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거품이 걷힌 뒤에도 이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우리의 건축문화는 좀더 성숙할 수 있을 것 같다. 주상복합건물인 잠실 시그마타워나 광주은행사옥, 한국경제신문사옥 들도 1997년에 지어진 나름대로 충실한 건축으로서 우리나라 상업건축의 한 부분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건물들은 우리나라에 지어지는 웬만한 외국설계의 건물 보다 우수하며 우리가 처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개성있는 소규모 상업건물이 많이 지어졌으나 대형건물의 축소판과 거의 다름이 없다. 아쉬운 것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을 심각하게 설계에 반영한 작품보다는 유행처럼 커튼 월로, 화강석으로 또는 노출콘크리트로 치장한 건물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이제는 좀더 경제적이고 본질적으로 합리적인 상업건물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공공/업무시설 현상설계

비람직 하지 않은 예로서는 공공부문의 몇 개 현상공모를 들 수 있다. 먼저 1997년의 가장 큰 프로젝트는 을지로 2가 도심재개발 현상설계이다. 현상에 참가하지 않은 입장



코오롱과천사옥(원정수+지순)



블루힐백화점(윤승중+변용)



잠실시그마타워(강기세)

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으나 약 60,000평의 주거+업무시설로 원양건축안이 최우수작, 건원건축안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을지로 재개발현상의 문제점은 어떤 잡지에 난 비평에서도 보듯이 대부분의 현상 참여자들이 전적으로 외국의 건축가들에게 의존하여, 마치 외국회사의 용병으로 치른 대리전을 방불케하였다는 데에 있다. 국제화인지 세계화인지에 발맞추어 경쟁력을 키운다는 명분아래 그러한 필요성을 은근히 장려한 현상지침도 문제이지만, 외국의 완제품을 자기 이름으로 제출하는 것은 경쟁력을 키우기 보다 스스로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을지로 현상에서는 그나마 Leonard Parker, HOK, KMD 등의 협력사들이 공개되어 최소한 누가 기본계획을 했는지 알 수 있으나, 어떤 공공청사의 현상 설계에 당선된 모도 설계회사처럼 그러한 최소한의 설계 디자인크레딧조차 밝히지 않는 경우도 흔히 있다. 그것은 기본계획안만을 사오기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경비절약을 위해서는 애국인지도 모르겠지만 실시설계 중간과정까지 설계자가 관여하여야 완성도가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으며 그러한 공동작업 과정에서 뭔가 배우는 것도 있을 것이다. 바로 1년전에 1997년 1월호 건축사지의 특집기획으로 외국사와의 공동설계를 다루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그사이에 개선된 점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어떻게 되든 프로젝트를 주주하려고 외국의 디자인을 소용하려는 모습은 최근까지 흔히 볼 수 있었다.

공공업무시설 현상설계가 붓물을 이루었던 것도 1997년의 특징중의 하나이다. 강릉시청사(11000평), 진주시청사(17,000평), 진해시청사(19,000평), 전북도청사(24,000평), 경기도청사(15,000평), 인천계양구청사(13,500평), 성동종합행정마을(15,800평) 등 도청이건 시청이건 구청이건 하나같이 만평이 넘는 대형 건물들이다. 우리의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업무환경이 좀더 좋아지고 친절해지는 것은 바람직하나 아무래도 거품이 있는 규모가 아닌가 싶다. 이제는 잘못된 행정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하니 감사원에서는 이러한 공공업무시설이 적정한 프로그램아래 발주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상설계 참가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심사의 투명성 확보도 필요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대형 현상설계의 양산은 좀더 치열한 로비와

외화의 낭비를 불러 일으켰으며, 전체 건축계를 보면 국력의 낭비와 빈약한 부익부 현상을 좀더 가속화 하였다고 볼 수 있다.

IMF시대의 대안

IMF와 함께 붙어닥친 경제위기와 개방을 버티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설계사무실의 체질 강화가 필요할 것 이나 빈약한 중소형 설계사무실의 구조조정은 한계가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체질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교묘한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정책을 개발하여 제시를 해야 하는 것이 건축사협회의 할 일이 되어야 한다. 대형의 설계사무실 위주, 실적 위주의 PQ시스템 보다 중소형 사무실을 육성할 수 있도록 큰소기업 형태의 협업을 장려하여야 하며, 현상설계의 경우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이 아닌 도시의 컨텍스트가 있는 건축을 강조하는 설계지침을 만들어 국제현상이 되더라도 협업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외국의 설계를 사을 능력이 있는 대형 설계사무실 들은 스스로 내부의 디자인 능력을 키워 가능한 외화의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의 기술과 자본의 축적을 바탕으로 오히려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원화의 평가절하로 달러베이스의 설계비가 거의 배가 되어, 해외로 유출되는 설계비는 자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의 설계비와 인건비가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해외 경쟁력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제 IMF시대 이전부터 줄어들던 민간부분의 신규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며, 공공부분에서도 건축예산은 신규 공공사업의 규모를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97년만큼 각종 공공기관의 대형 현상설계가 많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며 새해에는 숫자도 규모도 줄고 경쟁은 더욱 심해지질 것이다. 경제의 한파는 상업건축에는 거의 치명적이다. 그러나, 이런 기회가 우리의 상업건축의 거품을 걷어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할 일이 줄어들다는 것은 반대로 신중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며, 경제적인 고통만 없다면 우리는 이를 좋은 건축을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광주은행(공간건축)



전북도청사 현상설계 당선작(우양근)



한국경제신문사옥(참조건축)

서구건축 거꾸로 보기

An Alternative Look on Foreign Architecture

김병윤 / 백제예술전문대 교수
by Kim Byung-Youn

변화의 계절

유달리 깊은 어둠과 우울이 다가와 한해를 마감하면서 많은 일들을 돌이켜 보게 했으며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새벽을 기다리게 된다.

서양이거나 동양이거나 할 것 없이 속알이는 다 있었을 것이나 애석하게 생각되는 일은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가로 우리시대의 합리주의 건축을 대표했다고 생각되는 건축가 Aldo Rossi를 잃은 것이다. 그의 죽음은 일상적인 아쉬움에 앞서 시대의 변동과 자리가 전환되는 바깥의 역사, 즉 변화의 계절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가 남긴 건축도 건축이지만 이 시대의 특히, 유럽의 합리주의 사고를 기반으로 다진 유럽의 건축관이 바로 그의 건축이 아니었나 싶다. Le Corbusier와 James Stirling의 죽음 이후 찾아온 Aldo Rossi의 죽음은 많은 합리주의 건축의 지지자들에게 거장을 잃은 아쉬움을 갖게 하였다. 이제 건축가 알도 로시는 갔지만 먼먼히 흐르는 그의 빛나는 정신을 통해 새로운 건축들 속에서 계속 피어나게 되리라 믿으며 그의 훌륭한 건축적 업적에 다시한번 감사하며 애도해 한다.

'플라톤의 긴 주석', '무의미에 가까운 묘한 웅얼거림', '백색신화' 등의 이 말들은 서양의 철학 역사를 두고 화이트 헤드, 비트겐슈타인, 그리고 데리다가 내린 간결한 정의들이다. 신학과 철학은 물론 다양한 체계의 학문적 방법론으로 그들의 견고한 인간지성체계를 옹위하고 있는 서구의 의식은 그 윤곽을 해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며 많은 분야로 확산 비대해져감을 느낀다. 서구의 건축은 이처럼 비대한 구성을 지닌 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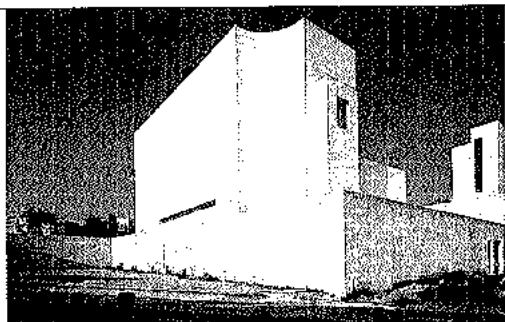
체계와 병합하여 다양한 건축가 개별적 실험과 함께 공통적으로 고민해 오던 많은 과제들을 젊은 건축가들에게 던지며 새로운 담론을 구축하고 신구의 환경속에서 변화의 실행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른바 변화를 추구하되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는 지혜를 결코 잊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PALIMPSEST의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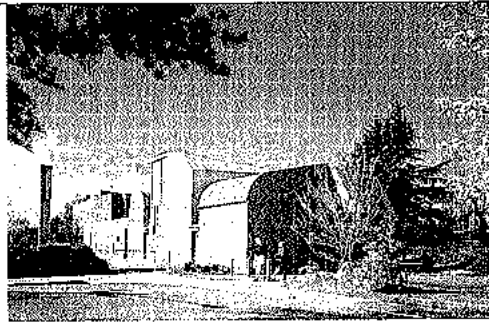
건축에서의 진지함은 주로 미니멀리스트의 건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법하다. 생각하기 쉬운 발상으로 최소한의 제한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의 진지함이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극도로 절제된 형식미학을 바탕으로 내용을 담지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는 좀다른 태도로 형식성과 수사력이 강한 건축을 들여다보면 쉽게 미국의 Frank Gehry 작품을 떠올릴 수 있다. 건축의 형태 자체가 매우 프로그램적이면서 전체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게 임해진다. 이 얘기는 그의 건축에선 건축의 전체 형태가 가지는 표현성과 묘사적 인상이 매우 중요하게 보여야 하는 것이다. 앞서는 매우 무표정하고 외형상 인상을 수식하고 있지 않는 재주없어 보이는 합리주의 건축에 대해서 말했는데 아주 다른 현상이 거꾸로 서로를 보고 있다.

거리의 최근작인 체코의 국립네덜란드관이 바로 이야기의 대상이다. 체코 프라하 볼타바강변에 들어선 이 건물은 매우 인상적이다. 이유는 두명의 헐리웃 뮤지컬 배우(프레드와 진저)의 외형을 건축으로 구현한 발상에서 이미 극적이며 유머스런 풍자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오래 전에 영국의 건축가 Terry Farrell이 TV AM 스튜디오에서 아침 식사에 오르는 계리와 받침그릇(Egg Cup)을 건축에 사용한 적이 있었다. 물론 거리의 피쉬 레스토랑 앞에선 요동치는 물고기가, 또한 그의 우주항공박물관에선 우주선이 사용되어져 있지만 이번에 체코의 국립네덜란드관은 매우 지성적인 균형과 모던의 합류가 이루어 낸 기본적 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원형이 춤추듯 동적인 순간의 정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잡지의 표지에선 프레드와 진저의 모습에 건물의 입면을 겹쳐서 보여주는데 그들의 포즈가 다른 것이었다



마르코드 카나베제의 교회와 교구센터(알바로 시자 작)



시예틀대학 성 이그나티우스 에베드(위싱턴주 시애틀, 1994~97)

면 건축의 형태가 달라져야 하는 프로그램상의 보편성을 벗어나는 유희적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체코의 전통적인 맥락이나 지역의 기억 등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그 표피적 유희는 대담하게 인상적 은유를 지닌 채 상징화되고 있는 것이다. 표피라고 얘기함에서 우리는 또하나의 주제로 포장디자인의 문제를 건축에 관련하여 상기한다.

프라하의 블타바강에서 다시 예전의 타운을 보게되면 프래드와 진자의 웃음을 잊게 해주는 무력한 지나간 궤적이 가득한 것이 그들의 건축이라면 건축은 자체의 문제와 도시라는 간격의 문제를 안고 곤혹스럽게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도시를 기반으로한 '재생'이란 주제는 이미 상당한 위상을 지닌 실천어로 자리하지 않았나 싶다. 기본개념은 역사적 건축의 재인식과 무분별한 재개발로 인한 건축행위를 지향하고자 하는 태도에서인데 옹도면에서 능력을 잃고 무기력해진 많은 옛건축들을 회상하고 재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에게 다시 쓰여지는 생명력을 부여함에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백년된 주택을 개수하면서 Elizabeth Diller & Ricardo Scofidio라는 건축가들이 내부에 여러 번 덧칠로 재생의 흔적을 지닌 모습을 두고 거듭 쓰는 의미로 사용한 데에서 인용한 용어 '펠렙세스트'는 거듭되는 재생과 행위의 의미를 지닌다. 이미 파리의 오르세미술관 등 많은 재건축의 경험과 실행력을 자랑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한 회사는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옛 초코렛공장을 개조하여 새 본부건물로 사용하고 있어 화제다. 바로 잘 알려진 네슬레사의 새 본부건물은 철제의 유기적인 사용에서 보이는 옛 건축의 흔적을 바탕으로 유리나 철제의 기하학적 종축부분과 대조를 이루면서 새로운 사무공간의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미국의 Eric Owen Moss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래된 가스저장소의 내부에다 새로운 요소 삽입으로 가스저장소를 재활용하는 실험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분명 건축은 물론이거니와 도시에 활력을 주게될 것이다. 프랑스의 한 옛 요새는 수족관으로 탈바꿈했고, 이외에도 많은 지난 시절의 건축물들이 새롭게 바뀌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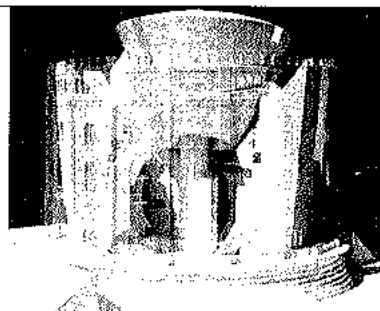
좀 알려진 예들은 Claus와Kaen의 암스테르담 주거개축, Louis Kloister의 노르웨이 에르솔라교회 재계획, 프

랑스 국립도서관 현상설계당선자로 잘 알려진 도미니크 페로의 의회 개축, Christian de portzamparc 의 place Nationale공동주거 등은 도시적 맥락을 탐구하여 새로운 형식미학을 구현함으로써 시대적으로 나약해지고 무기력해진 지난날 특히 산업사회에서 파급된 여러 공공시설들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없애지 않고 옛 모습을 기념하면서 용도를 재구축 하는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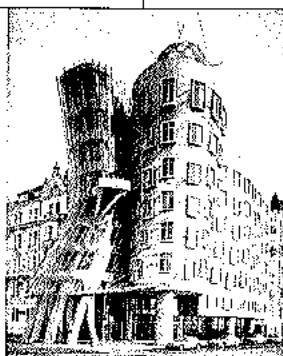
이성과 유기적 합류

이제 고인이 된 이태리의 건축가 알도 로시와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건축가가 또 있다면, 그보다는 훨씬 조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숨겨진 강성을 지닌 건축가로 포르투갈의 거장 알바로 시자(Alvaro Siza)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건축은 한마디로 매우 합리적인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알도 로시와 같은 영웅사를 찾을 수 없고 유기적이면서도 표현적이지 않은 순연함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차분한 농부의 따듯함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성과 유기적 합류하는 공존의 체계 속에서 그의 건축은 항상 단순하며 변화가 있다.

'Thinking by means of drawing'- 많은 드로잉을 통해서 일상적 사고의 언저리로부터 점점으로 다가가는 작가의 진지한 작업형성과정을 지면에서 가까이서 보게 되었다. 지난해 일본의 어느 건축잡지('건축문화' 97년 5월호)를 통해 소개된 알바로 시자의 4편의 수상과 최신작인 마르코 드 카나베제스 교회와 교구센터에서 이러한 그의 작품에 대한 열정과 작품과 드로잉의 관계 및 해석을 확인할 기회를 갖는다. 지구의 반대편쯤에서 파급되어 오는 진진하고 명확한 건축의 정수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바로 포르투갈의 건축가 알바로 시자의 작품과 그의 작업과정을 통해서 전 생애를 걸쳐 변함없이 작업에 진독이 몰두하는 건축인의 참다운 모습 하나를 더욱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화려함과 혁신 이런 어휘들은 어딘지 그의 건축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지역의 기억에 몰두하고 있는 건축가에 대해 세계는 거꾸로 그 건축가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아무래도 우리 시대에 잘 어울리는 교훈을 그는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영웅적이지 않은 매우 평이한 문체가 지



오스트리아 빈 가스저장소 재사용 계획안(Eric Owen Moss작)



체코 프라하의 국립
네셔널드관(프랑크
게리작)



포르투갈 현대미술
관 설계경기 당선작
(안도타다오 작)

난 감동을 그의 건축에서 보게 된다.

지역문화와 건축의 개방성

「Towards a new MoMA」, 이 제목은 일찍이 1929년 문을 연 뉴욕의 현대미술이 지금 뭔가 변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음 아난 미술관 증개축을 위한 설계경기의 타이틀이다. 68년의 역사를 지닌 뉴욕의 현대미술관은 서측의 53번가로 점진적 증축이 되어 왔으며 지난 84년에도 시저 펠리에 의해 체계화가 이루어졌었고 그후 45번가의 도셋호텔과 두체의 갈색 타운하우스를 확보함으로써 한블럭 폭을 지닌 증축을 하게 이른 것이다. 이를 위해 미술관측에선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10명의 건축가를 선임, 우선 샤렛트(Charrette)라고 하는 전문집단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토의하고 뮤지엄이 지닌 재구축을 위한 제반 전략을 토로하여 가능한 기준과 설계의 바탕이 이루어 지도록 했다.

초대된 건축가 10인은 일정한 설계경기의 결과물로 11×17인치 크기의 상자안에 제안의 모든 것을 담아 제출하였다. 일본의 이토 도요, 유럽의 뢰 콜하스등 잘 알려진 건축가 10인중에서 결선 선발은 Bernard Tschumi, Herzog & De Meuron, Yosio Taniguchi 등 3팀이 선정되었다. 역사적인 유적이긴 하지만 증축을 놓고 건축의 이슈를 만들어 가는 미술관의 배려와 세심한 운영으로 세계의 관심을 끌어내는 지혜가 아채롭다.

영국의 국립현대미술관증축 이후 버금가는 건축계의 이슈라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서 보면 MoMA는 역사적으로 건축을 잘 이용해서 그들의 증개축을 세계적 관심사로 만들었고 다른 모든 예비 크라이언트(Client)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대중이 건축에 친화력을 갖고 또한 건축하는 일이 결코 건조하지 않은 문화적 행사가 됨을 깨닫게 해준 예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또 하나의 진중한 미술관 설계경기가 있었는데, 텍사스의 Fortworth의 현대미술관 설계경기이다. 이 미술관의 대지는 거장 루이스 칸의 대표작중 하나인 킴벌 미술관과 갈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중압감이 무거운 대지였다. 당선자는 많은 미국의 건축가를 뒤로하고 의외로 일본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로 선정되었다. 최근에는 다소 쇠잔한 느낌을 갖게 했는데 다시 그의 건축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당선안은 '예술의 숲'이라는 마치 그의 작품들이 '물의 교회'처럼 이름이 있듯이 주제를 가지고 있다. 제안은 매우 단순한 6열의 긴 장축구조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접한 Kahn의 미술관과 사이에 물과 녹지로 그 간극을 조절하고 있다. 지역과 시대에 따른 매우 감각적인 축조방식의 건축과 실험성을 동반한 해체의 동류 위선상의 건축들을 제치고 근대성을 바탕으로 완고함이 승리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동시에 건축의 해석에 있어 지역문화에 건축이 직설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점, 개방적 현실성을 보여준 예로서도 크게 기억해야 할 일이었다고 본다.

간과한 문제의 치유

유럽의 젊은 건축가가 거의 동시에 주목하는 현상공모전이 있는데 1970년에 시작된 'EUROPA-N(EURO+PAN)Competition'이 그것이다. 프랑스의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현상공모전으로 출발해서 새로운 건축과 재건축을 제시토록 해서 실행으로 옮기는 매우 현실적인 현상공모전이 확대된 것이다. 유러피안을 상징하는 Euro를 접두어로 파생된 공모전이 네번째 행사를 가졌다. 지난 3회의 주제는 'At Home in the City'라는 도시주거의 문제를 다뤘고 4회에서는 좀더 미분화된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Urban Sites'라는 도시 스케일의, 그러나 작게는 도시의 틈과 같은 스케일도 고려한 주제가 선정되어 전 유럽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유럽의 65개 도시(Town)가 선정되었으며 18개국에서 총 4천5백명이 등록했고, 이중 2천4백32개팀이라는 경이적인 숫자의 참가인이 출품되었다. 참여한 팀은 다른 국가를 포함하여 각팀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 제안하게 되는데 London 등 신청자가 없는 4개 지역을 제외한 61개지역에서 총 우승(Winner) 51개팀, 준우승(Runner Up) 59개팀의 젊은 건축가팀이 탄생되었다. 결과를 평가하는데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공모전인 만큼 7명의 비평가가 초대되었으며 지역간의 상이한 문화적 특성을 해독함에 실험을 기울였다.

몇 해전 분당에 주택전람회를 위해 40대 이상의 건축가들을 위주로 선정한 것이 기억이 난다. 대조적으로 European은 젊은 건축가들 위주로 진행되며 기존의 건축에 대해, 새로운 공공장소에 대해, 또한 소형의 문화적 중심체와 상업지역의 창출에 대해서 제안토록 요구되었으며 세밀하게 주어진 주제는 'To Position, To Transform, To Inherit, To Bind' 등의 전통 지방도시와 그 주변에 달라진 현대의 모습 사이에서 달라진 새로운 제안을 기대하는 것이다.

핀란드에서 키프로스까지 실로 유럽의 전지역을 대상으로 전개된 설계공모전은 도심지 외곽에서 비자의적으로 생성된 간격들에 대해서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안고 공공공간의 여백과 독립적이며 독자적인 건축들 도시 기반 시설 구축 등의 전반적인 수정안을 제시토록 요구한 것이다. 주된 목표는 현대성을 부여한 새로운 주거환경(Residential Landscape)을 확장 제안하는 것이다.

대단위의 표현적인 주거개발이 금세기의 전 후반에 폭발적으로 급증해서 평균적인 삶의 질과 형태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나 미세하나마 간과한 많은 사안들이 발생되었기에 그들의 치유에 나섰다는 것이 이번 설계공모전이 갖는 의의인

것이다. 주거와 일상생활, 자연과 식생, 일직지역과 주거지역의 격리감, 번두리 지역의 주거지역 현대화 등이 참여한 건축가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던 주제로 결과는 매우 치밀한 형태에 대한 제안보다는 도시과정상의 제안이 주요하게 등장하였다. 개별적인 건축가가 더는 도시계획자로 매직핸드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계획안은 비록 이상이지만 그 이상은 현실을 바탕으로 풀 수 있는 최소한의 게임의 법칙이나 문화적 숙성을 지녀야 함이 기대된 것이다.

이와 같은 공모전의 성격상 사실 매우 겨냥하기 어렵고 진행하기도 어려운 공모전이데 전 유럽을 대상으로 하는 European의 기본개념은 젊은 건축가들의 사고를 통해서 유럽인 모두의 생활상을 다시 재고 해보는 기회와 새로운 제안으로 현실성을 바탕으로 실제 실무차원의 연계실행 과정에서 실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담론의 장을 만든다는 데에 커다란 의미를 둔다. 훌륭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당선안은 수년 내로 절반 정도가 어떠한 형태로든 현실적인 결과가 돌아오고 있음이 이 공모전이 다른 공모전과 다른 점이기도 하다. 이와 비교하여 국내에도 건축공모전이 많은데 모두가 건축훈련과정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국한되는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섬세하고 혁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의견이 진지하게 교환되는 현실적 체계를 지닌 아이디어 공모전이 보여준 예에서 유럽에만 그치지 않고 전지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열정, 규율

해외의 저널을 통해 소개된 많은 작품중에서 유달리 관심을 끌었던 한 작품을 선정해 보았다.

스티븐 홀(Steven Hall)이 설계한 '빛의 聖省'이라 제목의 워싱턴주 시애틀대학의 예수회 예배당(St. Ignatius Chapel)은 스티븐 홀의 근작 종교건축 가운데 하나다. 이 예배당은 종교건축의 고정관념을 떨쳐버린 예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그의 개념스케치에서 보여주듯이 빛의 문제가 전체상 매우 중요한 주제로 강한 내재적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각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빛의 천창들은 하나 하나가 다소 알토의 건축에서 보인 요소와도 같은 모습을 지닌 채 다양하게 숨결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마치 여러 개의 관이 약기처럼 외기를 호흡이라도 하듯 하늘에 뻗어 있고 그들은 생김과 색깔을 달리하는 생명체처럼 특이한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이 땅으로 뻗어 육신을 지탱한다면 이 예배당의 생명은 하늘로 뻗은 그 생명체와 같은 그 관들로 인해 살아 있고자 함을 보여주는 듯하다. 좀더 현실적으로 내부공간을 보면 단아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신비에 대해서도, 강론에 대해서도 사실 아랑곳 아니할 고종위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무료함도, 없어서 좋을 장식도 없는 내부공간은 외부로부터 뿜어 나오는 빛의 호흡을 만끽하고 있다. 그 빛의 색깔은 강렬하지 않아 건축이 미술

적 느낌에 지배되지 않는 숭엄함을 보여준다. 부드러움과 축조적(Tectonic)인 규율 - 이는 미술적감성이 건축의 조합적 규칙에 넘치지 않는 - 인내와 숙련의 도가 몸에 밴 건축가의 재능이 곳곳에 가득히 담겨져 있다. 평면과 단면을 번갈아 보다 보면 스케치에서 사람의 모습이 다가와 겹쳐지는 일바로 시자의 것처럼 매우 경직된 직육면체의 체적이 완벽하게 건축이 되는 그래서 그 공간들을 읽어 내는 것이 종내 쉽지 않은 그러한 면모를 보게도 된다. 평면은 마치 원통의 공간안에 여러가지의 기능들을 수용하고 있거라도 하듯 복잡하지도 매끄럽지도 않아 보인다. 규율이 살아 있어 열정에 함유했다는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를 일이나 이 엄정한 질서와 건축의 체험적 실현이 이루어 낸 결정은 이를 합법적으로 증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늘에는 오직 하늘빛이 있을 뿐이나 성이나 시오의 하늘은 여러가지의 색으로 변한다. 이 영탄이 언어적 영탄이 아닌 것이 또한 아니시오 예배당의 진실이자 현실이기 때문이다. 빛을 호흡하는 관(管)들이 밤에는 빛을, 그것도 색을 담은 빛을 외부로 토해 낸다. 그래서 이나시오의 밤하늘은 한가지 색이 아니다.

모처럼 좋은 건축을 볼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감히 더불어 떠오른 생각은 어떠한 이념과 기(技)·예(藝)도 건축을 넘어서 건축에 결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관용과 수용의 역사인식

외지의 것을 보고 거꾸로 나를 보게 될때의 생각은 사실하고 싶지 않다. 초라해서도 무지해서도 가난해서도 아니다. 요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미국, 미국하면서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하는 얘기를 할 때마다 혼을 내면서도 속으로 끓어 오르는 불덩이 같은 것을 느낀다. 크게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란 것을 깨우칠만한 나이가기도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뭔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아닌 남이 가지고 있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지 않은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이미 우리의 생활 자체가 지배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들의 말을 일찍이 배우고 습성을 익혀 차별을 두고자 함에서 더욱 열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성이나 정체성의 논의도 차별의 폭을 키우는 편제의 과정이라면 무조건 가르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도 아울러 밝혀 두고 싶다. 나를 알고자 함에서 였지 결코 그것을 크게 보고자 함이 아니었던 것임을 거꾸로 깨닫는다면 관용과 수용의 우리건축역사는 이제 다시 쓰면서 점진적 면모를 지니리라 여긴다.

얘기를 마치면서 비판적으로 보려 한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읽혀졌는지 의문이다. 비늘구멍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이 아니었으면 싶다.

설계자 선정을 위한 요식행위인가

The Design Competitions - Is It a Mere Formal Act?

김인철 / (주)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by Kim In-Che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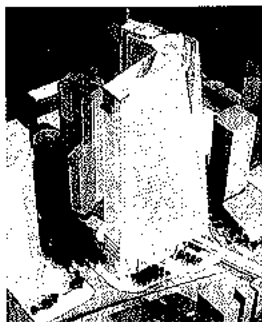
지난해에 치루어진 설계경기들을 되짚어 보는 글을 맡았다. 당선작들에 대한 평가 또는 그것들에서 보여지는 경향들을 정리해 보자는 것이 편집 의도인 듯 하다. 그러나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은 나에게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올해의 설계경기를 지켜보며 느낀 점들을 말하려고 한다. 공모자와 심사자의 경우를 왔다갔다하는 어중간한 입장에서 완전히 객관적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달관의 경지에 오른 원로의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이 지극히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글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 혹시 저질러 질지 모르는 실수에 대하여 그런 맥락에서 양해를 미리 얻으려 한다. 아직도 익숙지 않은 용어「현상설계」 아닌 「설계경기」에 대한 원론적인 풀이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다만 개념만이라도 정리해 둘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필요로 하는 좋은 건축의 안을 널리 모아 바르게 뽑는 것이 설계경기의 이유라고 우선 정리한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올해에도 많은 설계경기가 치루어졌다. 궁적, 사적 구분이나 규모, 용도 등에 대한 통계적 수치는 어느 곳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절차와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풍토에서 결과의 미확인 수치는 당연한 것이다. 공공연한 설계경기를 비롯하여 은밀한 프로포즈까지를 총망라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수치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설계경기에 관한 정보가 매우 폐쇄적이고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미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었음인지 온갖 미디어를 살살이 뒤지지 않고서는 공모자가 자신에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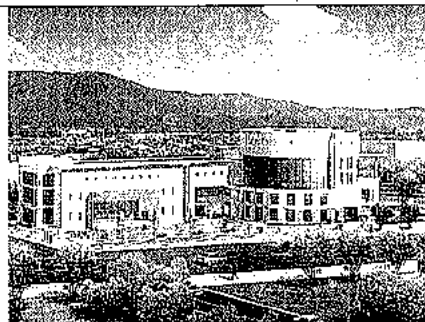
합한, 또는 시도해 볼만한 설계경기건을 사냥할 수 없다. 구하려는 자만 얻을 수 있는 것이겠지만 정보수집 능력에서 이미 판가름이 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정보의 공유와 선택의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면 협회의 존재이유중 큰 몫이 사라지게 된다. 뒷정리나 하려고 회관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삼풍사고이후 황망중에 속죄양이 되어 버린 「설계·감리」를 위해 온갖 보완장치들이 만들어져 있다.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벅찬 조항들 속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것은 매우 구체적이다. 공공건축물의 설계경기인 경우조차 발주자인 관청은 응모자에게 온갖 서류들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인정한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은 접어 두더라도 설계경기를 부실담보를 경매처라하듯 치르고 있다. 어렵게 정보에 접근하였다 하더라도 입장불가의 미성년자 처지가 되고 만다.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즐겁겠지만 그런 조건들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입장에서 본다면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 협회비의 징수기준이 사무소의 규모에 따라 차별되어 있지 않을진대 이를 방임하는 것은 분명히 협회의 직무유기에 해당되어야 하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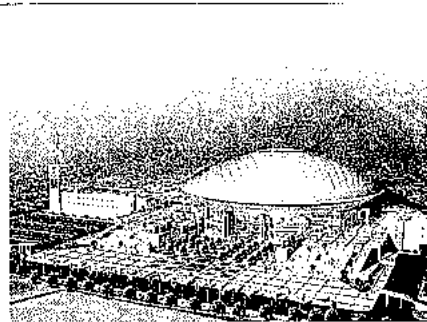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목적을 둔우어 얻어낸것 중에 설계경기에 관한 내용은 특별하였다. 심사위원수의 절반을 설계실무자로하며 그 명단을 사전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응모자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부담은 시간과 노력에 대한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안이 어떻게 읽히며, 어떻게 해석되어질 것인가를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다 현실적이며 좀더 투명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심사자의 구성과 사전공개가 제도화되었음에도 올해의 경우 대부분 그것은 지켜지지 않았다. 심사자의 구성은 쉽게 적용되고 있지만 사전공개는 눈 가림에 지나지 않아 형식적일 뿐이다. 공개일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을 이용해 공모 발표 당시가 아닌 점수마감일이라던가, 심사 직전에야 명단이 발표되고 있다. 결국 원래의 의도는 실증되고 형식만 남아 오해를 만드는 또다른 이유가 되었다. 비밀이 완벽히 지켜질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비밀이 공정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장치라고 믿는 어려움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어쩔 수 없이 반쯤은 공개적



울지로 2가 도심재개발(원양건축)



순천대 향림학술회관(유정건축+대경건축)



대구실내체육관(합동건축+원도시건축)

이어야 하는 제도 아래에서도 여전히 비밀주의가 가능할 것이라 고집하고 있다. 이러이러한 성격의 심사로 진행될 예정이니 뜻있는 작가의 참여를 기대한다는 당당한 공모요강의 발표를 기대한다. 응모자와 심사자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사사로운 관계보다 공개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으로 발전되지 않으면 설계경기는 하나마나한 요식행위에 머물고 만다. 협회가 매년 치루고있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준공건축물부문 심사위원조차 사전공고를 하지 못하는 마당에 남을 탓할 수 만도 없어서 답답하기만 하다.

사무소의 작업방식이 제도판에서 CAD로 바뀌게 되었을 때 가장 큰 기대는 설계경기의 참여를 위한 부담이가 버워질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판필의 제작이 기계적인 기법으로 해결된다면 아이디어와 내용을 다듬을 수 있는 과정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수백만원씩 따로 들여야 하는 투시도 제작까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알고보니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결과의 완성도는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장비의 용량과 동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외주 거래처가 투시도제작실에서 총무로 바뀌었을 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졌다. 백지에 흑색으로 제작하리던가 청사진으로 제출하라는 규정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말았다. 당선만이 지상목표가 되었을 때 그에 동원되는 수단을 통제할 수 있는 규약은 만들어져 있지 않다. 바다 건너의 첨단기법을 동원하는 것이 응모자의 능력으로 평가되는 것이라면 할말이 없다. CAD로 설계하고 있는 보조사들의 고민이 건축사시험은 여전히 제도판으로 치루고 있다는 절망인 것처럼 작업환경의 변화를 팔짱끼 체 내버려두고 있는 어른들은 무엇을 어찌자는 것일까? 현란한 기법의 프레젠테이션을 걸어내고 내용의 알맹이에 다가갈 수 있는 심사를 과연 얼마나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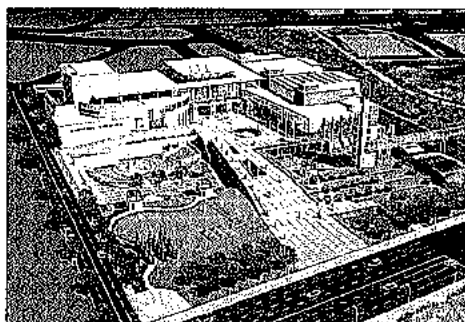
시장개방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이런저런 회의들이 수없이 열렸던 적이 있었다. 사무소 대형화, 법안화 등으로 대안만 무성하다가 건설회사의 설계허용까지 들먹여지고 난 다음 지금의 모습은 참으로 씁쓸한 것이 되고 있다. 합작을 조건으로 내세워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설계경기때마다 나도는 유언바어들은 흘러버릴수만 없는 앙금을 남긴다. 외국의 설계조직에 있는 한국연고자들이 상종가를 치달리고 있다던가, 한국의 일을 연결하지 못하는 한국인은 얼굴을 들지 못한다던가 하는 소문은 소문이 소문이 아님을 알게 한다. 계획안을 세일즈하는 외국인의 전화를 받았다는 주변의 이야기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공방에서 심사장으로 곧장 반입되는 판필과 모형의 임자가 이곳 사람이더라는 풍문까지 떠돌고 있다. 나라살림이 바닥났다고 들쭉이는 원인중에 우리도 한몫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외국의 디자인을 내밀고 대리전을 벌이는 설계경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다. 이제 고품질이 되어 버린 환율로 그 일이 쉽지 않게 되었다면 오히려 IMF가 전화위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건축사의 윤리를 따짐에 있어서 남의 것을 제것인양 하는 염치없음은 어떤 항목에 속하는 것일까?

처음으로 돌아가 좋은 건축의 안을 널리 모아 바르게 뽑는 것이 설계경기의 목적이라고 다시 확인하자. 올해의 결과들이 과연 그러하였는지를 알기알부하기보다 그것들이 어떤 메시지를 만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너무도 합리적이고 너무도 타당한 결과들이 아닌가를 확인하자. 지극히 당연하게도 결과는 그러하여야 하지만 누가 하였더라도 그리될 수 밖에 없는 그렇고 그런 모양으로 결론이 난다면 올해의 설계경기는 하나마나 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보편타당한 논리와 그것에 부가된 약간의 감각만으로 건축이 결정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수준이 기본기수련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창의성과 건축적성으로 인해 우리를 감탄하게 하는 결과를 어찌서 만날 수 없는가? 만들어 제시하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면 뽑아 주지 않았기 때문인가? 처음부터 그러한 기대가 없었던 설계경기라면 무엇 때문에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가?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요식행위인가? 그렇다면 제비뽑기가 더욱 쉬운 방법이지 않은가? 아니면 지난해의 실적을 기준으로 나누어 주어도 누가 뭐랄할 것인가? 새로움이 보이지 않는 일상의 반복은 결국 매너리즘이며 그것은 정체가 아니라 퇴보일 뿐이다. 오늘의 이 땅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어쩔 수 없다. 그리 따라가는 수 밖에는.



고양노인복지회관(주영정)



김해문화예술회관(신동재+강남홍)

사회 문화적 이슈들의 허와 실

The Truth and Falsehood of Social and Cultural Issues

김봉렬 /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by Kim Bong-Ryol

97년의 문화계 전반에서 건축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급상승한 부문도 드물다. 대학입시에서는 최상급의 인기학과로 건축과가 부각됐으며, 건축계 인사들이 펴낸 대중적 출판물들이 연일 신문의 광고란을 달구더니 금기야 일반도서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주요 일간지들은 건축칼럼을 경쟁적으로 게재하고, 건축전문지들은 올해만도 3종이 더 창간되어 14여종에 이르는 최다 전문지를 가진 분야가 됐다. 그렇다고 기존 전문잡지들이 죽을 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판매부수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아마도 건축계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부수의 잡지들이 매월 인쇄소를 나서고 있을 것이다.

언론의 관심은 TV 드라마 작가들이 첨병 역할을 했다. 그전에도 간간히 건축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가 종종 있었지만, 금년의 TV계는 연속극 단막극 할 것 없이 가장 선망받는 직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건축가만의 등장은 진부했는지,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물론 아직은 생소한 조경환경 디자이너까지 등장시켜, 한국 건축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친절까지 베풀었다. 건축 디자인계와 가장 가까운 동네인 미술계에서도 드디어 어수룩한 이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제2회 광주 비엔날레에는 5개 주요테마 중 하나를 공간·건축에 할애했다. 올해초 개원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건축과도 당당히 미술원의 한 일원으로 창설했다.

미술계와 건축계가 가장 열렬히 맞닥뜨린 장면은 한편의 사회 코메디였다. 이른바 '환경조형물' 설치를 두고 건축계의 부정적 시각을 미술계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고, 결국 아직은 사회적 파위가 센 미술계의 판정승으로 유보 상태다.

건축계 내부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았다. 건축과의 인기에 힘입어 10개 대학에 육박하는 건축관련학과들이

신설됐고, 기존대학의 신규채용과 함께 50여명에 가까운 신입 교수들이 채용되어 교수 지망자들은 유래없는 호황을 구가했다. 무엇보다 비제도권 학교인 서울건축학교가 정식으로 개교하여 첫 입학생을 받아 건축교육계의 새장을 열었다. 또한 건축계 최초의 웹진 Archforum이 인터넷에 올라 건축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참여와 관심이 고조됐다.

자발적인 건축전시회도 활발하여 현실과 비평전, SA 작가전, 북한강 이야기전 등이 인상적이었다.

비제도권의 활발한 활동에 비한다면, 제도권의 건축 3단체 활동은 그다지 기억나는 것이 없다. 공동화된 대한건축학회에 반발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가칭)한국건축학회를 결성하려던 움직임이 미수에 그친 일, 건설회사의 설계참여 기도에 맞서 건축사협회의 저지 노력이 일단 효과승을 거둔 일 정도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 뜨거운 관심과 활발한 움직임들의 다른 면을 들여다 보면, 우려할만한 역기능이 산적해 있다. 대학입시에서 건축관련학과들이 전통의 외과과마저 물리치고 자연계 최고의 학과로 떠오른 인기는 건축계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준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국가적인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볼 때, 기초과학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천재적 두뇌들이 문재들이 할 수 있는 건축을 전공하는 건축에 과도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교수진의 수와 실력, 낙후된 설비와 좁은 교육공간 등 교육인프라는 답보상태인 반면, 부전공 복수전공 등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우수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고, 부실교육의 운상이라는 비난만 면해도 다행일 지경이다.

한두권의 건축서적들이 서점가의 화제가 되자, 너나 없이 베스트셀러의 꿈을 꾸는 필자들은 상업적 성공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제목 자체부터 '건축'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어느 분야의 서적인지 모호하게 하는 출판사의 기획에 따르다보니, 깊이있는 전문서적들의 출판은 외곡마저 사라져 버렸다. 대중적인 책은 쏟아지지만 정작 건축인을 위한 학술서적, 전문서적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올해의 학술서적 가운데는 김동욱 교수의 '한국건축의 역사' 정도가 꼽힐 뿐이다. 지식의 저널리화, 학문의 상업화 현상이 건축계에도 찾아든 것일까.

TV드라마와 언론이 심어주는 왜곡된 건축가상은 이제 비판거리도 못된다. 잘생기고 젊고 돈 많고 시간 많은 건축가들이 대낮 강변의 우아한 카페에서 아름다운 여인들 - 그

것도 3각 내지 4각관계로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들은 단지 가상의 현실인 줄만 알았다. 그러나 실제로도 대다수의 학생들이나 신참 건축사들이 실제 향유하는 낭만이며 꿈꾸는 이상이라는 것이다. 왜곡된 건축가상은 결국 건축행위 자체를 가볍게 만들고 속물화시킨다. 건축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회화화시키면서, 수많은 아키텍처 키드를 양산해내고 있다.

한국만큼 미술계와 건축계가 단절된 사회도 드물다. 서로 상대계에서 누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현대예술과 문화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교류는 커녕, 관심조차 없다. 기껏 환경조형물 문제를 놓고 서로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예총 회의에서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는 것이 고작이다. 우리의 현대 건축이 새로운 비전을 찾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현대미술과 예술의 움직임에 무관심한 현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올 11월 전까지만 해도 건축계의 인력수급은 심각한 공급과소 현상을 빚었다. 쓸만한 경력사원 하나 구하기가 천연기념물 찾기보다 어려웠으니, 그 많은 건축과 졸업생들은 다 어디 갔냐는 하소연이 생길만 했다. 그들의 높은 이상을 현실이 수용해 주지 못하니, 일부는 건축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고시촌으로 잠적했고, 일부는 장기 해외연수나 유학을 떠났으며, 일부는 독립해서 무엇인가 자신의 일을 꾸리고 있었다. 너무 우수한 인력들이 건축계에 입문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대량의 신입교수 자리가 생겼니, 지방대학의 채용공고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 초유의 교수미달 사태까지 빚어졌다.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어디에 있느냐"를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이 시대 건축지성인들의 가치관이 됐다.

그러나,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이 모든 열기와 움직임과 시도들은 연말 찾아온 국가부도의 위기 앞에서는 한낱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 시중의 예상대로라면, 3년 안에 설계사무소의 2/3 이상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비극적인 전망이다. 벌써 대부분의 건설업체와 설계사무소에서는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인원감축이나, 임금삭감이나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98년도 대학졸업생들은 유례없는 취업난으로 평균 취업예정율 20%를 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열풍같이 불었던 세계화 국제화의 기치아래 너도나도 한두번씩은 다녀왔던 해외여행이 이제는 머나먼 소망이 되고 말았다. 이미 예약됐던 단체해외답사가 모두 취소되고, 건축계의 세계화 바람을 주도했던 대량유학의 가능성도 봉쇄됐다. 시장개방과 건축문화의 예측화 폐해를 우려했던 지난 아슈

들은 오히려 행복한 고민이었다. 이제는 건축계 자체의 생존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대로 주저앉고 마는가.

그렇지 않다. 건축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다. 인류의 출현과 동시에 건축은 나타났고, 자본주의적 기업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외환시장과 IMF가 형성되기 훨씬 이전부터 건축은 있어왔다.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건축은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시장도, 건축가도, 건축교육도, 설계사무소도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하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낙관적으로 생각해 보자. 건축계의 어려움은 거품인기가 제거되어 정상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책이 팔리지 않으니 지성들은 더 깊이있는 사색과 저술이 가능할 것이다. 자신들의 이상에 못미치는 현실 때문에 한때 현장을 떠났던 우수인력들은 어디를 가도 살아남기 어려워 다시 건축현장에 복귀할 것이다. 떠나기 전보다 훨씬 진지하고 치열한 자세를 가지고, 해체위협에 직면한 재벌들은 자체 공사마저 거둬들이는 판이니, 대기업의 설계업 진출은 하라고 해도 불가능할 것이다. 한국시장이 별볼일 없으니 외국의 유명 건축조직이 국내에 들어와 싸움이랄 우려도 없어진다.

일단의 건축인들은 이 위기가 오히려 해묵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경제적 고통과 화려한 동경을 조금만 견뎌내고, 자신의 내부로 침잠하여 더 깊은 사색과 근본적인 노력을 딱 1년만 한다면, 1999년의 건축계는 훨씬 밝은 모습으로 새해를 맞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노력보다 더욱 시급한 일이 있다. 건축계의 명목적인 지도단체들, 3단체들이 이제야말로 실질적인 지도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다. 회원의 권익보호나 회장단의 권위만으로 자족하는 소극적 목표를 훨씬 뛰어넘어, 이 난국에 건축인들이 해야할 일을 제시하고 우리의 건축이 나아갈 바에 대한 비전을 던져주는 일을 해야 한다. 새로운 지도자상은 대통령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건축계의 지도자는 과연 있을까?

네가지의 짧은 생각

4 Modest Thoughts

윤혁경 / 서울시 주택국 경관지도계장

by Youn Hyuk-Kyung

세부설계에 의하여 관리되어지는 도시

지방자치제가 마치 선심을 베풀기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지역민들에게 선거공약의 선심을 베푸는 식으로 도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체장이나 의원 등이 있다면 도시는 어떻게 되겠는가? 대표적으로 도시계획적인 안목없이 지역을 상향(Up Zoning)시킨 일을 들 수 있다. 적어도 지역의 조성은 도시기본시설과 향후 발전전망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선행된 후 결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95년 이후 상향 조정된 지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으로 2단계 내지 3단계 상승 조정된 경우가 26%이며 1단계 상승 조정된 경우도 74%나 되었다.

지역이 상승되면 우선 용적률이 증가되고 용도 또한 완화되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도시가 바뀔 것이다. 토지주의 개발욕구는 법이 허용하는 상한까지 이르게 될 때 기존의 부족한 도시기본시설이나 교통, 공공시설 등에 무리한 부담을 지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근지역과 상대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갑자기 증가된 용적률이나 완화된 용도로 인한 일조, 통풍, 경관, 주거환경 등이 악화되어 주변지역에 악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설계지구나 상세계획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하게 함으로써 다소나마 문제점을 줄이고자 하였다. 도시관리기법을 동원하여 충격을 완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그 외에도 기본계획을 수립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해당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재개발구역이나 아파트 지구 등을 들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과는 무관하지만 재건축의 경우는 건축심의를 통하여 지역에 생기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도 도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한다면 소홀히 검토할 것이 아니라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에서는 향후 도시설계지구나 상세계획구역의 지정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한강변이나 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별도의 지구를 정하여 관

리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역별 콘트롤(Zoning Control)을 통해 도시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Code화를 향한 건축기준의 제정

건축법 제59조의 3규정은 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 등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건축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이다.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법규에서 다루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법규의 골레로 묶어둘 필요도 없으며, 지금까지 이에 대한 기준도 일부만 제정되었을 뿐 다양하게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위해 95년 1월 5일자로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에너지부문에 관해서는 「건축물의 용도별(사무소, 판매시설, 숙박시설, 목욕장 및 수영장, 병원, 관공립회시설, 학교)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이 제정된 바 있고, 「에너지의 합리화 이용기준」(86.10.26),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92.7.25) 등이 제정되어 사용중에 있으며, 구조부문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96.2.13)만 제정된 상태이었다.

97년 11월 25일 대한건축학회에서 제정한 「강구조 한계상태 설계기준」(건교부 고시 1997-375호),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건교부 고시 1997-376호),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구조 설계기준」(건교부 고시 1997-377호)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새로이 고시 되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건축재료나 시공분야에서는 날로 첨단재료와 신기술, 신공법 등이 발전 개발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마땅한 기준이 없어 제 때에 반영되지 못한 점이 없잖아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현행 건축법의 개체기준을 법규에서 묶어 둘 것이 아니라 미국의 UBC (Uniform Building Code) 처럼 별도 기준으로 관리하자는 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었다. 법규의 한계가 신소재, 신기술, 신공법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체기준이나 기술기준 등을 법규로 묶어둘 경우 전문기술이 없는 행정공무원들이 다름으로 규제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건축사의 설계도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건설업체가 설계를 해야 한다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건축사의 자질이나 양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공을 뒷받침할 설계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디자인은 설계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세부적인 시공설계는 기술의 집약이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다. 시공분야는 설계자를 탓하고 설계분야에선 시공자를 나무라고 있는데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옳은 것은 아니다. 설계기준이나 기술기준 등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과 시간 그리고 경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천을 위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고 건축 3단체가 협력

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기타 건설관련 연구소와 시험소 등과 연계 협조를 한다면 2002년까지는 불가능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현재의 각종 기준들을 재검토하고 K.S기준과 ISO기준 등을 총망라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종합적인 건축기술기준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추진해야 한다. 국제화와 WTO체제의 출범으로 건축설계시장도 곧 개방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다. 더구나 IMF 체제하에서는 시장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경쟁에서 이기는 길은 그에 걸맞는 기준과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건축심의 대상의 축소

건축심의 폐지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되어 논란을 거듭하다가 '97년 9월 9일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심의대상 일부가 축소되었다. 도시설계지구나 아파트지구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의 폐지하고 에너지 절약심의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시행하던 건축심의 대상도 폐지하였다.

건축심의가 과연 필요없는 것인가?

건축심의에 대한 불만을 들여다보면 대략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현행 건축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기준들을 과다하게 규제한다는 것이다. 사업주는 사업성만을 고려하여 최대 규모를 요구하는데 설계자는 건축주의 의사에 반하여 설계할 수 없는 입장이다. 건축심의의 빨리 처리하지 못하거나 부결될 경우 무능한 건축사로 인정되어 설계업에 차질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건축설계업의 운명이 영업성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판에 건축주에게 무능한 건축사로 낙인찍히게 된다는 것은 설계업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는 법이나 제도를 정비하지 못한 행정부의 책임이다. 도시의 개발균형이 깨어진다면 법과 규정을 정비해야 된다. 예측가능한 행정은 법과 규정에 의한 행정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안으로 들여다보면 쉽지가 않다. 의회라는 시민의 이익집단을 대표하는 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운 행정부의 고인이 있는 것이다. 그 고민을 건축심의의 통해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법에서 400%의 용적을 허용하면서 건축심의에서 300%이하로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현실을 무시하고 너무 이상만을 집착하는 심의위원들의 행태에 대한 불만이다. 건축가의 창작품을 단 몇 분만에 난도질한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젊은 건축가들의 실험성이 강한 작품들이 많이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다.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경미한 변경까지 변경심의를 요구하거나 건축심의에서 건축사 자신의 견해를 밝힐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데에도 불만이 있다.

주관적인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선정되는 인적·자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공개된 건

축심의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표적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심의위원을 지명도나 원로 위주로만 선정하는 것보다 다양한 연령층과 관·학·산업계를 망라하여 구성함으로써 폭넓은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

세번째는, 심의기간이 길어서 사업계획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대도시의 경우는 매주 1회씩 심의를 운영하고 있고 강남구의 경우는 2개의 건축위원회를 두어 매주 2회씩 심의를 하고있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에서는 2주에 한번 또는 1달에 한번의 심의를 개최하는데 그것도 보완이나 재심으로 결정될 경우 통과되기까지 무려 2~3개월을 넘기게됨으로써 분양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의 신청서류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것이다. 일부 지방도시에서는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서류를 모두 갖춘 후에 건축심의의 하게 하는데 건축심의에서 그 내용이 조정될 경우 이에 부수된 설비설계, 소방설계, 구조설계, 토목설계는 물론 교통영향평가 등을 전부 다시 변경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건축심의의 건축허가와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불만사항들이 건축심의가 갖는 순기능을 덮을만큼 컸다는데는 행정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건축심의의 폐지한다는 것은 반대 한 마리 잡기 위하여 초가삼간 태우는 우(愚)를 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강변을 따라서 병풍처럼 둘러싼 아파트와 동소문동 재개발아파트처럼 계속적으로 자연경관이나 도심경관을 훼손하면서 건축물이 들어서도 좋다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소 또는 최대 기준만으로 되어진 현행 건축관련 법규와 세부적인 지역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현실에서 그나마 건축심의의 폐지한다면 대지 소유자의 과다한 개발욕구를 제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건축심의의 폐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몇가지 사항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해당지역의 입지여건을 감안한 적절한 밀도기준 등 적정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건축법에 반영하여 적정기준 이내의 건축물은 신고만으로 처리하고 그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심의의 통한 조정을 거쳐 건축허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지도 하다.

바람직하기는 조닝 코드(Zoning Code)와 빌딩 코드(Building Code)를 제정, 완벽한 설계기준을 마련한다면 건축심의의 폐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이는 결코 가까운 사일내 쉽게 마련하기가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쉽지만은 그래도 건축심의의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화되는 재건축 기준

최근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도시기반시설에 부담을 초래함은 물론 주거환경의 파괴, 자연경관과 도시경관을 망친다는 여론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건축물의 수명도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승인권자는 사업자가 신청하여 작성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무분별하게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았다.

97년 12월 13일자 주택건설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기준 일부를 강화하였다. 개정 내용에 의하면 종래 주택조합에서 임의로 안전진단을 하던것을 시장 등(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안전진단이 필요없는 노후불량주택을 제외하고는 전문기관을 선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 여부를 판단 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안전진단의 객관성을 얻게 되었으며, 어느 정도는 재건축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붕괴 등으로 긴급히 재건축을 추진해야할 경우는 시장 등이 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로 하여금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장 등은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그 특징이다.

서울시에서는 '97년 3월 재건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 현행의 재건축기준으로는 고층 고밀 재건축을 막을 방법이 없고 일조·통풍·조망권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공공시설과 기존 인프라의 부족에 따른 지역적인 문제점과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이 훼손에 따른 적절한 보완대책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업승인된 76.2%가 20년 미만의 건축물로서 국가재원의 낭비는 물론 철거로 인한 건축폐자재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일부 아파트단지는 재건축을 목적으로 개보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가 제시한 대책으로는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대상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안전진단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400%인 용적률을 300%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존의 공동주택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특별수선충당금 제도를 정비하고 재건축 전에 레노베이션(Renovation)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주택초과 주택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와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 문제, 재건축사업의 도시계획사업화, 고밀 아파트의 재건축기금적립제도 문제 등도 검토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재건축문제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건축평론

Architecture Criticism

97년 건축계를 돌아보며

119. 건축비평 - 음식과 의학과 건축 이야기

Food, Medical Science and Architecture Criticism

이종건 / 동명정보대 건축학부 교수

by Lee Jong-Keun

음식 이야기

음식은 간이 맞아야 하는 법이다. 사람마다 또 지역에 따라 입맛이 다르다고들 한다. 간은 그만큼 땅에 붙어사는 사람들과 엉겨 있는 것일까? 그런데 요즈음 세월 돌아가는 것을 보면 딱히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다. 소위 말하는 총알음식(Fast Food) 앞에는 지역도 문화도 역사도 짝을 못쓴다. 빅맥, 와퍼, 프렌치 프라이, 콜라 등의 제국주의 문화는 문만 열면 저항군 하나 거치지 않고 남의 땅을 바로 정복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햄버거와 콜라는 왜 소련, 한국, 중국, 프랑스, 아프리카 할 것 없이 거침없이 파고드는가? 인종과 지역을 뛰어 넘는 보편적인 미각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사람은 자기 피부에 잘 넘어간다. 우선 유리한 것으로 나중 손해 볼 때가 한두 번 아니다. 그래도 여전히 돼지처럼 어리석은 문화를 거듭한다. 실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을 들었다. "맛있는 돼지고기 마련법 : 돼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두면, 돼지는 애오라지 그것 때문에 꿀꿀거리며 와서 음식을 먹는다. 그 때 앞이 구부러진 쇠꼬챙이로 돼지의 머리를 때린다. 돼지는 놀라서 도망가지만, 아내 또 음식 생각에 또 나타난다. 같은 방식으로 쇠꼬챙이로 돼지의 머리를 수없이 때려 결국은 맛있는 고기를 장만한다." 돼지만 그럴까? 우리는 권력 때문에 벌어지는 부질없는 처신머리 역사를 거듭 목격하고 있다. 돈 욕망에 갇혀 무엇이든 팔아먹는 꼴들을 어디 서든 본다.

얕은 맛과 깊은 맛이란 게 있다. 이미 까마득한 옛날, 플라톤(혹은 소크라테스)은 세 가지 음식을 논하고 있다. 입, 몸, 그리고 영혼에 좋은 음식. 아이들은 입이 원하는 음식을 찾는다. 철이 좀 들면, 맛은 쓰더라도 몸에 좋은 것을 원한다. 미디어를 통해 가끔 보는 소위 문도가네식 식사법은 극단적인 경우다. 사람은 형이상학적 동물이라 그 다음은 영혼(혹은 정신)을 걱정한다. 육식을 먹으면 포악해지고 채식 식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한다는 소위 유추식 사고 덕분인가? 심지어 어느 종교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 먹었던 과일을 통해 순수한 본래상태로 회복할 수 있음을 믿고 있다. 이론의 적실성에 대한 시비는 그만두자. 분명 맛은 여러 차원에 걸쳐 있음을 일단 점수해 보자. 집박의 음식들이 대개 그렇지만, 맛을 조미료에 기대는 경우가 있다. 반면, 음식재료 자체로부터 오는 맛이 있다. 인공의 맛에 길들여

강화되는 재건축 기준

최근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도시기반시설에 부담을 초래함은 물론 주거환경의 파괴, 자연경관과 도시경관을 망친다는 여론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건축물의 수명도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승인권자는 사업자가 신청하여 작성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무분별하게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았다.

97년 12월 13일자 주택건설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기준 일부를 강화하였다. 개정 내용에 의하면 종래 주택조합에서 임의로 안전진단을 하던것을 시장 등(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안전진단이 필요없는 노후불량주택을 제외하고는 전문기관을 선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 여부를 판단 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안전진단의 객관성을 얻게 되었으며, 어느 정도는 재건축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붕괴 등으로 긴급히 재건축을 추진해야할 경우는 시장 등이 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로 하여금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장 등은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그 특징이다.

서울시에서는 '97년 3월 재건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 현행의 재건축기준으로는 고층 고밀 재건축을 막을 방법이 없고 일조·통풍·조망권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공공시설과 기존 인프라의 부족에 따른 지역적인 문제점과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이 훼손에 따른 적절한 보완대책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업승인된 76.2%가 20년 미만의 건축물로서 국가재원의 낭비는 물론 철거로 인한 건축폐자재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일부 아파트단지는 재건축을 목적으로 개보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가 제시한 대책으로는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대상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안전진단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400%인 용적률을 300%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존의 공동주택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특별수선충당금 제도를 정비하고 재건축 전에 레노베이션(Renovation)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주택초과 주택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와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 문제, 재건축사업의 도시계획사업화, 고밀 아파트의 재건축기금적립제도 문제 등도 검토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재건축문제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건축평론

Architecture Criticism

97년 건축계를 돌아보며

119. 건축비평 - 음식과 의학과 건축 이야기

Food, Medical Science and Architecture Criticism

이종건 / 동명정보대 건축학부 교수

by Lee Jong-Keun

음식 이야기

음식은 간이 맞아야 하는 법이다. 사람마다 또 지역에 따라 입맛이 다르다고들 한다. 간은 그만큼 땅에 붙어사는 사람들과 엉겨 있는 것일까? 그런데 요즈음 세월 돌아가는 것을 보면 딱히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다. 소위 말하는 총알음식(Fast Food) 앞에는 지역도 문화도 역사도 쪽을 못쓴다. 빅맥, 와퍼, 프렌치 프라이, 콜라 등의 제국주의 문화는 문만 열면 저항군 하나 거치지 않고 남의 땅을 바로 정복한다. 아상하지 않은가? 햄버거와 콜라는 왜 소련, 한국, 중국, 프랑스, 아프리카 할 것 없이 거침없이 파고드는가? 인종과 지역을 뛰어 넘는 보편적인 미각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사람은 자기 껍데에 잘 넘어간다. 우선 유리한 것으로 나중 손해 볼 때가 한두 번 아니다. 그래도 여전히 돼지처럼 어리석은 문화를 거듭한다. 실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을 들었다. '맛있는 돼지고기 마련법 : 돼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두면, 돼지는 애오라지 그것 때문에 꿀꿀거리며 와서 음식을 먹는다. 그 때 앞이 구부러진 쇠꼬챙이로 돼지의 머리를 때린다. 돼지는 놀라서 도망가지만, 아내 또 음식 생각에 또 나타난다. 같은 방식으로 쇠꼬챙이로 돼지의 머리를 수없이 때려 결국은 맛있는 고기를 장만한다.' 돼지만 그럴까? 우리는 권력 때문에 벌어지는 부질없는 처신머리 역사를 거듭 목격하고 있다. 돈 욕망에 갇혀 무엇이든 팔아먹는 꼴들을 어디 서든 본다.

얕은 맛과 깊은 맛이란 게 있다. 이미 까마득한 옛날, 플라톤(혹은 소크라테스)은 세 가지 음식을 논하고 있다. 입, 몸, 그리고 영혼에 좋은 음식. 아이들은 입이 원하는 음식을 찾는다. 철이 좀 들면, 맛은 쓰더라도 몸에 좋은 것을 원한다. 미디어를 통해 가끔 보는 소위 문도가네식 식사법은 극단적인 경우다. 사람은 형이상학적 동물이라 그 다음은 영혼(혹은 정신)을 걱정한다. 육식을 먹으면 포악해지고 채식 식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한다는 소위 유추식 사고 덕분인가? 심지어 어느 종교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 먹었던 과일을 통해 순수한 본래상태로 회복할 수 있음을 믿고 있다. 이론의 적실성에 대한 시비는 그만두자. 분명 맛은 여러 차원에 걸쳐 있음을 일단 점수해 보자. 집박의 음식들이 대개 그렇지만, 맛을 조미료에 기대는 경우가 있다. 반면, 음식재료 자체로부터 오는 맛이 있다. 인공의 맛에 길들여

저 자연의 맛이 거북한 사람이 여럿, 아니 대다수 아닐까? 앞서 말한 햄버거와 콜라가 활개를 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알은 맛이라는 욕망과 어우러진 결과가 아닐까?

의학 이야기

의학은 폐니실린 발견 이후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소위 근대(혹은 현대) 의학의 시발이다. 어떤 국부적 질병이라도 전 신체에 관심을 두고 접근했던 고전방식과 달리, 이제는 환부를 직접 치료하는 방식으로 탈바꿈했다. 주지하다시피, 근대의학은 그 방식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요즘, 심각한 도전과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예전과 다르게 소인(素因)이 불명료하거나 직접 처리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각종 종양과 신경증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한 예다. 그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대체의학은 말 그대로 근대의학에 대한 의미있는 대안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가시적인 성과 또한 거두고 있다.

대체의학은 근대의학이 포기한 많은 경우들을 희생시켜 일종의 신비함마저 띤다. 환부에 대한 직접치료에서 간접치료로 기본 틀을 바꾸고 있는 대체의학은 비교적 간단한 원리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몸 전체를 복돋우어 스스로 질병을 이기게 하는데, 진단은 대개 넘침과 부족함의 견지에서 이루어지며, 신체적 균형을 회복시켜 활기를 찾게 하는 것이 기본원리다. 치료방식은 철저히 자연주의에 입각한다. 인공음식을 배제하고 자연식을 따른다. 햄버거나 콜라, 조미료나 통조림 류는 독약이다. 가급적 맑은 공기, 충분한 운동, 햇빛, 바람 등에 전신을 조율한다. 평안하고 사랑스러운 마음가짐이 수반된다. 몸과 마음의 합일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입의 음식에서, 육(肉)의 음식, 그리고 그것을 넘어 영(靈)의 음식단계라고 할까? 어쨌든, 알은 맛은 생명의 적인 셈이다.

건축 이야기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경제부도를 맞았다. 부도로 인한 자주성의 상실, 우리 문명을 우리가 어찌지 못하는 이 기막힌 상황을 무엇으로 표현하랴! 기업부도의 주원인은 낮은 자기자본율에 있다. 운영을 남의 돈에 심하게 의존한 결과다. 지금 우리의 건축문화는 어떠한가? 건축문화의 우리 자본율은 얼마나 될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자. 과연 진실로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이 있는가? 쓰는 어휘 중 얼마가 우리 것인가? 개념은 또 어떠한가? 우리 땅에서 자생한 것이 몇이나 있는가? 실천은 어떤가?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진실로 창조적인 건축적 성과를 얼마나 거두었는가? 우리 건축이 지금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음을 전제하고, 신토불이 대체의학의 관점에서 다음의 실천을 상상해 본다.

더 이상의 서구건축은 일체 중단하자. 광장 또는 금식의 기법으로 몸의 독소를 배출하듯, 가급적 서구의 언어

와 의식을 비율수록 줄을 것이다. 이제 우리 풍토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자. 그곳을 보살피며 우리 건축이 자생하기까지 일체의 보살핌을 아끼지 말자. 우리의 낱말 하나라도 찾고 삶의 방식 하나라도 회복하자. 그것은 우리의 전 활동 특히 인문학으로 건축의 활동을 확장함을 포함한다. 건축이라는 부위에서 우리의 삶의 역동적 전체로 관심을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신토불이 건축'은 살과 땅, 그리고 풍토와 삶의 석임을 전제로 한다. 풍토를 삶과 유리시켜 자칫 보수 전통주의나 국수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아름다운 전통마저 죽이는 짓이다. 건축가 고주석의 경우처럼 "자연과의 조화," "지형의 순응," "무(無)와 공(空)," "마당," "기(氣)철학" 등의 정태적(靜態的) 관점으로 전통건축을 읽는 태도는 위험하다. 기(氣)의 역동성과 생명의 꿈틀거림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생명의 기는 응당 유교사회의 조선시대와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 다른 체(體)로 나타나야 한다. 설령 우리의 전통색이 흰색일망정, 그것은 삶의 현장에 대응하여 때로는 텅텅한 삼베의 색으로, 때로는 눈부신 눈의 색으로, 때로는 고운 모시의 색으로, 때로는 역설적인 검정색으로 그 양태가 역동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법이다. 전통건축의 본질이 무엇이든, 그것은 오늘날의 삶과 섞여 역동적인 창조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단지 구속이요 껍질일 뿐이다.

동시에, 해독기능을 담당하는 간(肝)에 해당하는 건축비평을 살려야 한다. 비평없는 건강한 문화란 가능이나 한 것일까? 지금처럼 실무건축가와 건축계획을 전공하는 학자라면 비평이 기본이 되는 풍토를 바꾸어야 한다. 건축가처럼 비평가도 문화적으로 걸려 생산해야 한다. 문학비평이나 예술비평이 아닌 한, 문단에 등단하는 것과 건축비평 행위는 별개다. 마치 주석처럼 비평이 작품 뒤에 따라붙는 기생성도 탈피해야 한다. 비평의 수반으로 작품성을 높이듯 하는 우매함도 금물이다. 우리 건축계에는 주례비평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전공적인 안목을 결여한 잡문 비평도 널려 있다. 알은 맛과 깊은 맛, 육의 음식과 영혼의 음식을 구별하지 못하는 우매한 비평이 무성하다.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혼미하고 답답한 형국일수록 비평이 절실하다. 사태를 직시하여 문제를 드러내고 또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비평, 그 뜨거운 창조적 활동없이 도대체 무엇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신토불이 대체의학이란, 대체의학이되 통을 우리의 풍토에 맞추어 보살피는 것을 뜻한다. 박연암(朴演巖)이 이르기론, "신천왕경 땅이 중국과 다르고, 언어요속(言語俗) 사대(寒暑)이 다르다. 우리가 권일 중국의 법을 좇아 내어 원형(源形)의 체(體)를 답습이나 한다면, 같은 그릇에 찼는 자 오르나 실은 산통치 못한 거짓일 뿐이다. 우리 나라가 코지는 못하니 몇몇한 국기요 옛날부터 겸박한 패성이 여러 가지 미숙(美術)을 이루며 살아 왔다. 우리의 아름다움이 상리질 때 왕작이 되는 것이요, 진기(眞機)가 나타나는 것이니 남의 것을 흉내내어 꾸어올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중동, 한국사상의 방향, 한국철학회편, 한국철학연구 상권, 1982, 동명사, pp.18-19) 또한 세종 대왕은 "한국인은 중국인과 상기(象氣)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중국어 글자를 사용하는 것은 마치 사자형의 물건을 원의 그릇에 넣는 것처럼 부자연스럽다."고 했다. (김용운, 원형의 유복, 1996, 한림사, p.47) 모두 신토불이를 지지하는 말이다.

나눔(Communication)을 통한 건축문화의 진정성 찾기

The Search for Truth in the Culture of Architecture
through Communication

이주연 / 월간「건축인Poa」주진
by Lee Joo-Yeon

사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이란 모두 사람으로부터 생기고 사람을 위해 벌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는 신문이나 방송 또는 잡지를 보며 자기에게 재미를 주는 일을 찾는 것도 여럿 속의 나를 확인하는 절차에 필요한 작업이다. 재미에 대한 관심은 사회와 함께 하려는 원초적인 관념이 저변에 깔려 있다. 사람이 일을 도모하여 무엇을 생성시킨다는 것이 바로 스스로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수단인 하나이다. 훌쩍 뛰어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러하지만 그 세상 살이의 울타리에서 대중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그들과 밀착되어 있는 건축을 주제로 한 커뮤니케이션은 언제나 쌍방의 관계 설정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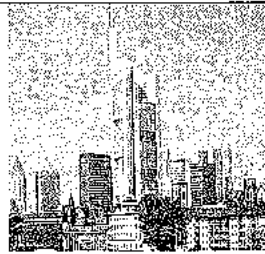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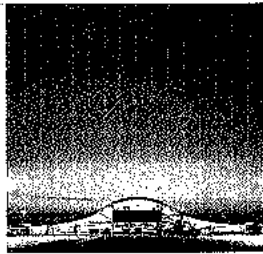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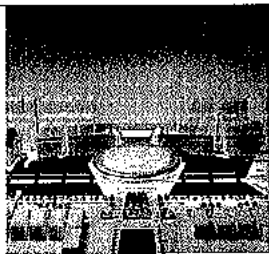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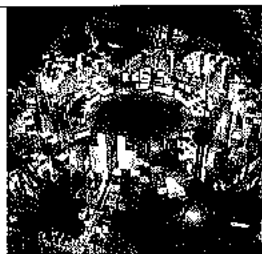
건축 사회의 의사소통의 논리는 현장성이 주요한 관심일 수밖에 없다. 건축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 가지의 형과 틀로 묶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일상이 공동의 관심을 확보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광장으로 상징될 수 있어야 설득력을 얻을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벌어진 건축사회의 동정을 일갈하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일은 단순히 연대기적 사실의 줄세우기는 아닐 것이다. 요즘의 상황은 이전의 그것과 큰 변별성이 찾아지지 않는다. 세상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태 속에서도 건축을 통해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일들은 제각각 따로 놓고

있음을 본다. 특히 공공성을 갖는 건축 대중을 상대로 한 행사 등 이벤트성 '사건'들은 늘 존재하는 연례적 흔적으로만 남는다. 물론 그 성과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더 우선으로 쳐주어야 하지만 뚜렷한 화두를 건져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한 해도 여전히 있을 것은 있었고 없을 것은 없었다는 무책임한 결과론을 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아니 오히려 국내외의 복잡한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른 장르에 비해 무던 감각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말았다. 진정 이 시대의 우리 건축에서 우선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때문이라는 것을 결론으로 먼저 상정하고 건축세상을 다시 들여다보아야겠다.

건축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모두가 건축행위요, 이벤트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이 분야는 건축의 진정성을 가능케 하는 자연발생적 건축문화 행태의 한 단편이 된다. 그래서 공모전, 전시회 등은 건축 대중의 관심의 대상일 수 있으며, 따라서 사고의 공유와 나눔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축문화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경제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구 건축가들의 아시아에 대한 '동경'은 여전한 듯하다. 이들은 대부분 설계일의 수주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한번쯤은 전시회나 강연회를 열어 인기도를 과시하곤 한다. 그것도 우리네 돈을 들여서. 그래도 지난 한 해는 그전에 비해 찾지는 않았다. 한국에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있는 마리오 보타, 마이클 그레이브스 등 '오래된' 건축가들이 여러 해 동안 몇 차례 들어와 전시회나 강연회를 열곤 한다. 그네들은 올 때마다 비슷한 레퍼토로 자기 얘기를 재탕 삼탕하는 식상함을 보여주었다. 이들을 찾는 국내건축인들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으려는지 잘 모르겠다. 건축과 관련한 일이 경제활동의 일단이니만큼 그네들의 한국활동에 대해 우리가 제동을 걸 일은 아니지만 사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그들 전시회나 강연을 지켜보면서 갖는 느낌이다. 어쨌거나 비싼 돈 들여 치르는 일에 무엇이든 남는 것이 있어야 명분도 서고, 그런 행사가 생산적인 문화활



한·영만남 200주년을 기념해 열린 「미래도시 건축디자인전」 전시작품들

동으로 인식할 것 아닌가 말이다.

외국 건축가들의 전시는 국가 단체 등의 주관에 의해 열리기도 했다. 근대 초기 유럽의 건축 역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건축예술운동의 하나인 비엔나 세션 운동이 100주년을 맞은 것과 함께 오스트리아 건축전이 열려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를 기대했던 국내 건축인들은 한스 홀라인으로 대표되는 오스트리아의 건축가들을 선정한 이 전시회에서 최근 건축경향을 정교로 얻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 역시 프로젝트와 관련한 비즈니스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전시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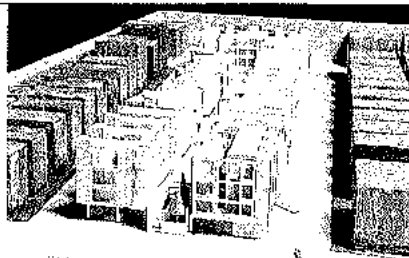
몇 명의 건축가들이 한국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는 영국도 양국 외교 채널이 주관하는 전시회를 국내에서 열었다. 한, 영 수교 2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 전시는 산업혁명 이후 테크놀러지에 관한 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영국 건축계의 실상을 반영하듯 '미래도시 건축디자인'을 주제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영국 건축가들의 설계로 진행되고 있는 미래 건축 디자인의 사례를 선보였다. 핀란드 건축가로 근대 서구 건축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알바 알토, 바르셀로나의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 등 오래 전 작고한 유럽 근대 건축가들의 작품전시회는 우리가 쉽게 접해 보지 못한 뜻밖의 기회를 얻은 전시회이다. 이들의 작품전을 통해 건축가의 문화 인식, 사회적 역할, 예술혼과 장인정신 등을 부분적으로나마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다행한 일이다. 다만 전시 기획력의 부족으로 거장 건축가들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외국 관련 건축전들이 대부분 형식적 구색 갖추기로 열리거나 선전장으로 일관한 반면, 국내 건축가들의 전시는 점차 건축의 전문성과 사회성을 대중에게 전달하려는 목소리를 갖추는 추세가 엿보인다. 그리 많이 열리지 않은 국내 건축전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젊은 건축가들의 참여로 이뤄진 전시들이 주목된다. 21세기, 첨단, 미래 환경 등의 용어가 문화 기류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물리학자 제임스 러브록 교수의 지구 초유기체, 즉 가이아(Gaia)이론을 건축에 도입해 미래 지구의 환경과 건축의 관계를 짚어 본 건축가 조택연의 가이아 프로젝트전(월간 건축인POAR)이 열려 화제를

모았다. 현대 과학의 미래적 가능성과 젊은 건축가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동원된 이 전시회는 실현성 여부를 떠나 건축이나 지구에 대한 일반적 고정관념을 다른 차원으로 돌려놓는 계기를 제공했다. 전시를 연 건축가는 "미래의 지구가 지금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같은 지구희생장치로서의 건축의 가능성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구상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결국 죽어가는 지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살려내자는 인류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 전시의 여러 의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다.

지구의 생명에 대한 거시적 미래적 제안과 대비되는 지역의 환경을 주제로 한 전시회도 열려 관심을 끌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이 휴양과 레저를 즐기는 장소가 되고 있는 경기도 양수리 북한강 일대의 무질서하고 상업적으로 '도가 지나친' 건축물들이 더 이상 양산되는 것을 막자는 젊은 건축가들의 선언을 담은 워크숍전 전시회가 북한강 이야기가 '자연과 커뮤니티'라는 주제로 양수리에 있는 두물워크샵에서 열렸다. 외국활동 경험이 있는 건축가들이 이제는 중견의 대열에 접어들고 있는 두 건축가의 기획에 동참해 현장성있는 이야기를 작품으로 보여 준 이 전시회는 젊은 건축가들의 실제 설계 작업을 상품화함으로써 이들의 제안으로 이어지는 시설들이 기존의 '나쁜 건축물'들을 하나, 둘 몰아내어 수려한 자연환경을 되찾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들의 소리없는 외침은 반드시 대중의 정서, 특히 대상지역의 주민들과의 진지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함에도 현장성을 강조한 현실참여의 선언을 전체 기획의 프로그램에 끌어들이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건축가의 사회참여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일단 구축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자숙적인 작업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지 주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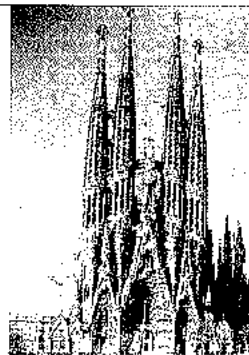
개인이건 집단이건 전시회는 그 전시의 주체가 노리는 의도와 결과물을 앞뒤를 재면서 파악할 수 있지만, 주체의 요구를 반영해 경쟁을 벌이는 공모전은 특별한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한 명료한 의미찾기를 제대로 이뤄낼 수 없다. 그러나 이 둘은 건축적 구상을 드러내 놓고 일반에게 제시하는 형식에



대한민국건축대전 대상 수상작인 이현창씨의
「도시 단독주택지 개발안」



안토니오 가우디 작품 「구엘공원의 벤치」(위)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우)



있어서는 크게 다른 것이 아니다. 기존에 있어 왔던 공모전들은 해를 거듭하면서 수상자만 새로운 이름으로 교체될 뿐 흔히 있는 연례행사로 비춰진지 오래다. 아직 사회에 명함을 내밀기 힘든 학생이나 신진들에게는 공개적인 경쟁에서 어느 정도의 통념적인 인정을 받고, 이것이 이력에 한 줄 올라가서 출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등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웬만한 공모전에는 으레 한 번쯤 도전해보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아무리 대중적 관심을 끌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공모전은 학생들에게는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능하다. 그것은 점차 응모숫자가 늘고 있는 각종 공모전의 시행 현황을 보더라도 익히 알만 하다.

기성 건축가나 학생은 물론 일반인들도 참여의 문이 열려 있는 대한민국건축대전은 해마다 시행의 개선책이 나왔다가 들어갈 만큼 손질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으나 개선의 기미도 없이 연례행사로 잘 치러지고 있다. 응모자들이 공동의 관심사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객관적 평가의 틀마저 갖추지 않고, 극히 짧은 시간에 응모작들을 훑어보고 수상작을 정해야 하는 막연함이 국내 공모전의 대표주자 격인 건축대전이 여전히 끌고 가고 있는 형식을 가늠한다. 이같은 논쟁 부재의 공모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 목소리는 행사 주관자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는 것 같다. 공모전에 대해 비판을 가한 이들의 입장이 더 무색해지는 것은 아직도 우리네 건축세상은 소통의 필요성이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차라리 잡지사 등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은 뚜렷한 주제와 계획 구상의 대상이 주어져 일단 설계 창작작업에 대한 목적의식을 유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추고 있다. 이것이 젊은 학생들의 건축적 창의력을 제한하는 것이 될 지 모르지만 프로그램이 없는 자의적 건축행위는 현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모전에 대한 인식의 명확한 선긋기는 다소의 진통이 따르더라도 보편적 가치로 끌어 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기성들도 참여해 작품성을 평가받고 있는 미술 등 다른 장르의 공모전과 달리 학생들의 잔치로 전락한 건축대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표현도 과도하게 요란해지고 있고, 참가하는 응모자 숫자도 매년 늘어

나고 있어 주관하는 단체에게도 참가비 수입증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러한 소모적 잔치를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인가. 주제없이 제멋대로 하라는 이 행사에서도 간혹 의미있는 작업들을 찾아보는 즐거움은 있다. 그것은 건축적 상상력과 창의력이 우리네 현실과 시대정신 등과 만나 이 시대를 보는 젊은이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로 표현되는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다. 사회현상에 대한 자기해석과 이의 건축화 작업은 장차 전문가로 성장해 갈 예비 건축가에게 걸 기대의 폭을 점치는 잣대가 된다. 이러한 기대는 몇몇 건축잡지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에서도 얻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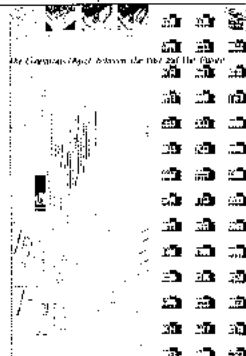
건축대전 다음으로 오랜 역사를 잇고 있는 공간학생건축상은 최근 이미 공간의 수장들이 대를 이어 자어놓은 공간사육을 주제로 내 놓는 '모험'을 시도 해 화제가 되었다. 비록 학생의 제안이긴 하지만 수상작품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공간의 두 수장의 건축적 성과는 물론 기성 건축가들도 관심을 가질만한 소박한 개념을 일정 부분 담고 있다.

최근에는 대구의 한국건축이라는 설계회사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이 기금을 내어 지역성을 살린 건축적 실험의 장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공모전의 폭을 넓히고 있다. 아직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잡지같은 홍보수단이나 건축관련단체의 프리미엄도 없이 학생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주관하는 재단이 이 프로그램을 설계회사의 운영에 지나치게 연관시키려들지만 않는다면 앞으로 월간 이상건축의 공모전과 함께 지방의 독특한 건축문화의 형성에도 토양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신문이나 방송에 건축관련 소식이 자주 등장하더니 이제 건축가들의 이야기도 여러 문화현상의 주요 소재가 되고 있다. 대중매체의 지면이 경쟁적으로 늘어나 기사채우기의 덕을 본 것일 수도 있고 이들의 시각이 이제는 건축을 보편적 문화행위의 하나로 보아 줄만큼 성숙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일반 대중과 함께 하는 건축은 우리가 지향을 할지언정 나아서 막을 일은 절대로 아니다. 이같은 대



'건축가 조택연의 가이아 프로젝트' 전시작품중 하나인 '수직 선형도시'



공간학생건축상 최우수작
『The Continuous Object
between the Past and
the Future』
(최창학 / 경희대학교학원)

두물 워크숍 『북한강이야기
- 자연과 커뮤니티』행사 포스터

중매체의 건축다루기는 건축가들의 작품활동으로부터 나오기 보다 글쓰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건축가로서 출세하려면 책을 쓰라'고 하는 이야기가 회자되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교수를 포함한 건축가들이 쓴 책들이 쏟아져나와 일반 대중에게 건축이나 건축가의 입지를 알리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그 종류도 다양해서 일반 대중이 읽어도 좋을 교양서로부터 극히 적은 수요일 수밖에 없는 전문서에 이르는 폭넓은 내용과 형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에 나온 책들의 면면을 보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쓴 이른바 베스트셀러는 책들 - <김석철의 세계건축기행>(창작과 비평사), 김진애의 <우리는 호기심이 많지요>(김영사), <건축가 김기석의 집 이야기>(살림) 시리즈 등 - 은 모두 사회적인 통념상으로 아름다움이 상당 수준인 내로라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다. 애당초 글쓰기의 방향을 건축전문가들만 읽으라고 정해 놓지는 않았을 터이고, 건축이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책들이 열어주는 공을 세웠을 것이니 반갑게 받아들일 일이다. 향간에는 이들의 책 쓰기 작업이 더러는 건축을 지나치게 가벼운 존재로 취급해 일반 대중에게 오독의 여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의 일침을 가하는 소리도 들린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일수록 건축이 사회에 미치는 진정성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이 책들을 제대로 읽은 건축인들이 우선 가려볼 일이다. 이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책의 저자들이 문학전문가가 아니라 건축가임을 전제하는 선에서 말이다.

건축의 대중성을 겨냥한 글쓰기는 자연스레 여행을 소재로 한 저작물의 양산을 불러왔다. <건축가 원대연의 여행 넘어서기>(플러스문화사) 시리즈, <세계의 건축과 도시환경>(현영조, 빌딩문화), <유럽건축순례>(박호재, 문학동네) 등은 단순한 기행집의 틀에서 벗어나 저자 각자의 여행을 통한 독특한 건축 읽기가 글쓰기 작업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게 꾸며진 가운데 건축의 전문성과 역사인식을 음미하고 있는 저작도 눈에 띈다. <일본을 걷는다>(김정동, 한양출판)는 '일본 속의 한국근대사를 찾아서'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저자의 지속적인 우리 근대건축에 대한 탐구 열정을 현장 감 있고 역사성 있게 학술적인 감각을 등원해 펼쳐 보였다.

소장 학자 임석재의 서양 근대건축사 연구 시리즈 <불어권 아르누보건축>(발언)은 저자의 아심에 찬 25권 원간 대장정의 초입에 해당해 아직 구체적인 평가를 유보한 채 지켜 볼 대상이다. 이 작업이 우리네 건축문화의 성장에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건축전문 출판사들의 저작물은 예년에 비해 뚜렷한 특징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들의 출판활동이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건축인들은 책을 잘 읽지 않는다'는 통념의 벽을 넘어야 한다. 이른바 잘 나가는 책이 모두 일반 대중 출판사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그 베스트셀러도 여전히 건축인들에게는 멀리 있는 것이다. 기실 건축가의 역할과 그 성과는 설계작품을 통해 가늠할 수밖에 없지만, 건축이 단순히 도면으로 표기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건축가의 사고와 문화의식의 표현이 더 절실한 만큼 건축인들의 글쓰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건축의 진정성을 제대로 담고 있는 시대정신이고, 그것은 건축 대중이 고르게 의사소통을 이루는 가운데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는 사회를 구성하는 대중이 서로의 의사를 나눔으로써 생겨날 수 있다. 이 나눔이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이 사회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공동체 의식이 함께 해야 한다. 최근 우리네 건축계의 동향이 무기력해 있고, 서로의 건축사고를 교류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문화를 '즐기는' 재미를 찾을 수 없는 것은 국가가 부도위기를 해매도록 만든 IMF한파 때문만은 아니다. 이에 앞서 우리 건축계는 일찍이 자생력을 위협하는 외국회사의 도전에 시달려 왔고, 이제는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상태로 어떤 일든 받아들여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 어려운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질서와 시장논리가 압박을 가하더라도 우리의 설 자리를 지탱하는 힘은 버릴 수 없다. 그 힘은 시대정신의 인식에서 나온다. 걸치레를 떨치고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솔직함이 이 시대의 한파를 견딜 수 있는 가장 일차적인 관건이다. 그 속에서 우리네 건축세상에 필요한 의사소통의 나눔이 싹틀 것이다.



건축가 김석철의
'김석철의 세계
건축기행'



건축가 김진애씨의
'우리는 호기심이
많지요'



김정동 교수의 '일
본을 걷는다'

홈플러스 대구 칠성점

Home Plus of Taegu Chilsung

삼우설계

Designed by Samoo Architects & Engineers

위치는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면에 35m 통일로와 측면에 30m도로가 접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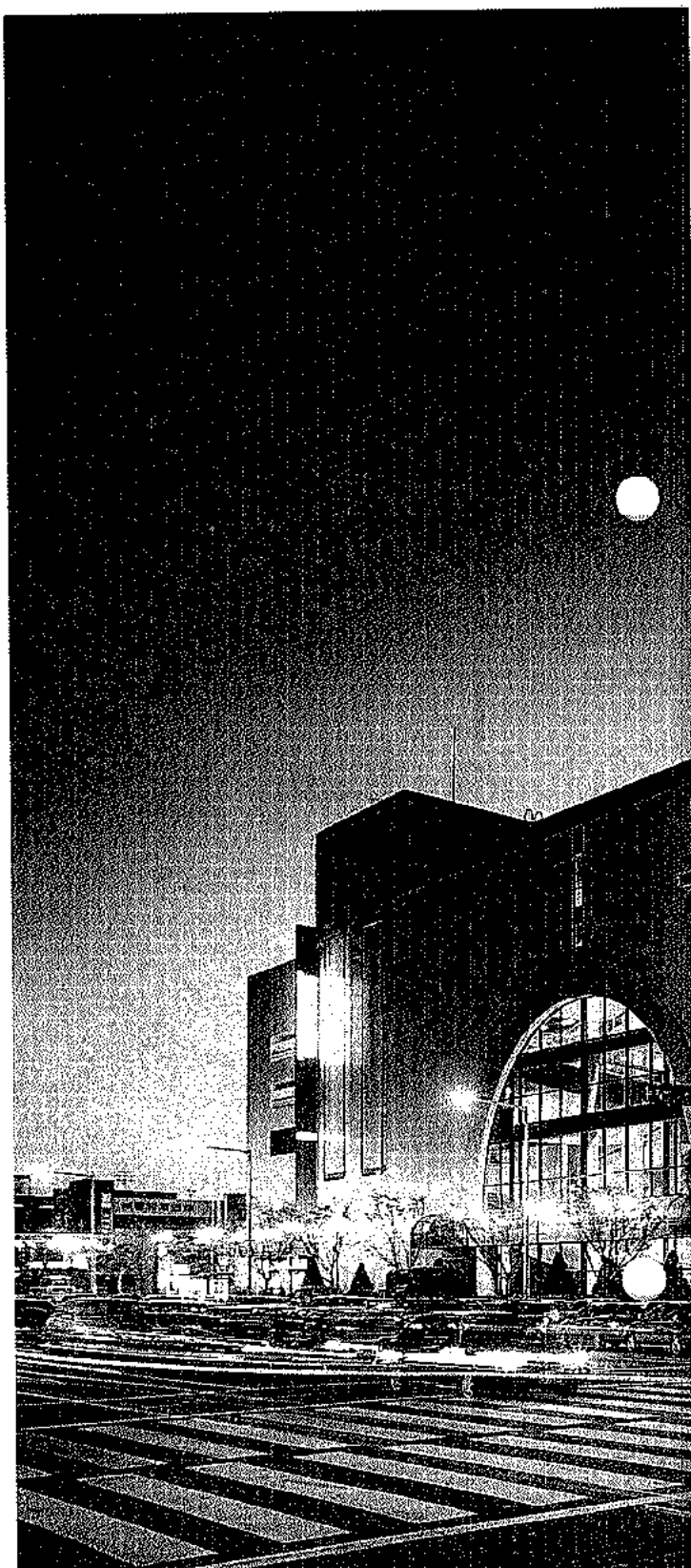
규모는 대지면적이 약3,100평이고 총수는 지하2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이 약10,130평으로 순매장면적은 약3,500평이다. 지하2층은 기계전기실, 지하1층과 지상1층 2층은 매장이고, 3층일부는 직원사무실 경정비코너, 3층부터 옥상층까지는 주차장으로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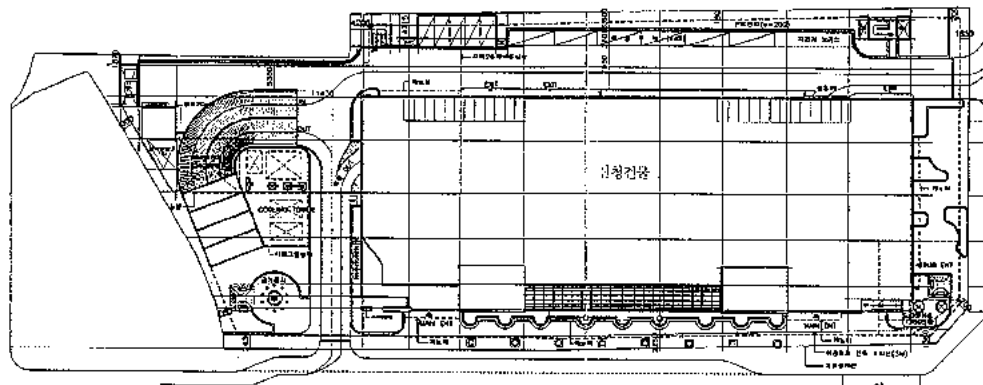
업태는 슈퍼센터로서 디스카운트스토어에 식품류를 강화한 지역 밀착형 One Step Shopping점이다. 고객동선을 보면 주차장에서 매장진입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쇼핑이 끝난 후는 Moving Work를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외관은 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 전면에 곡선을 도입하고 Moving Work의 움직임을 보이게 하므로써 동적인 면과 정적인 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고 색상은 따뜻하고 온화한 옅은 베이지색을 도입하였다.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 378-21, 23번지, 칠성동 105-63번지
대지면적	10,265.00㎡
지역지구	일반주거, 중심상업지역
규모	지하2층, 지상5층
건축면적	4,590.15㎡
연면적	33,374.725㎡
건폐율	44.71%
용적률	92.738%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35M ROAD (동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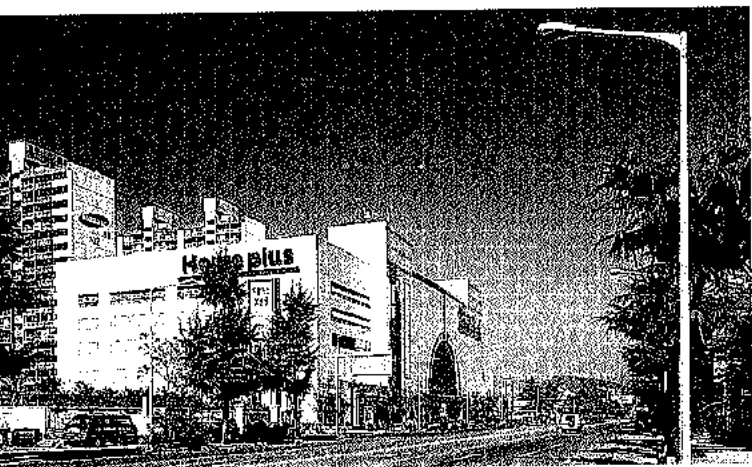
상
단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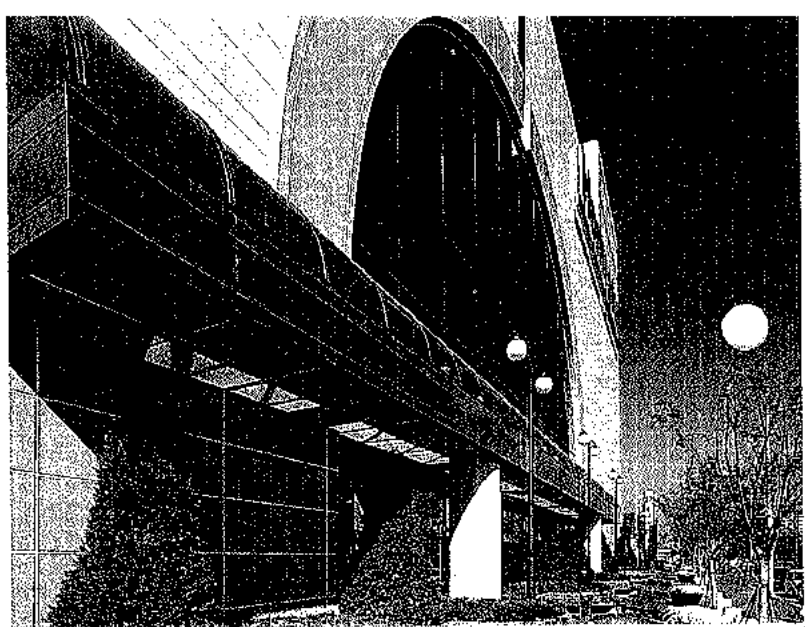
동측 아경

배치도





남측 전경



동측 벽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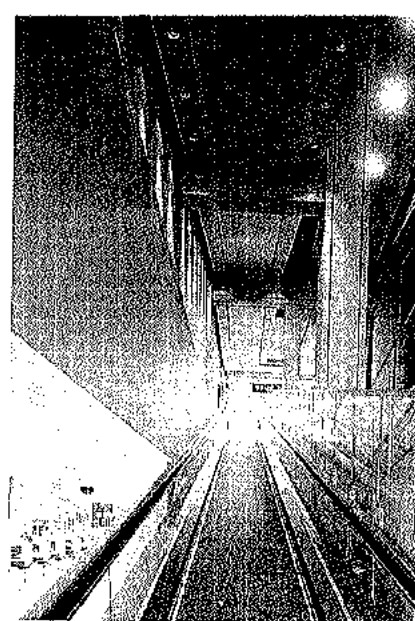
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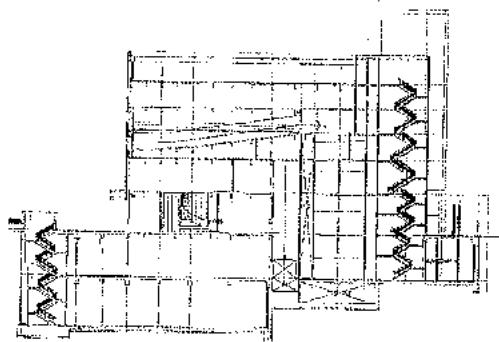
1층 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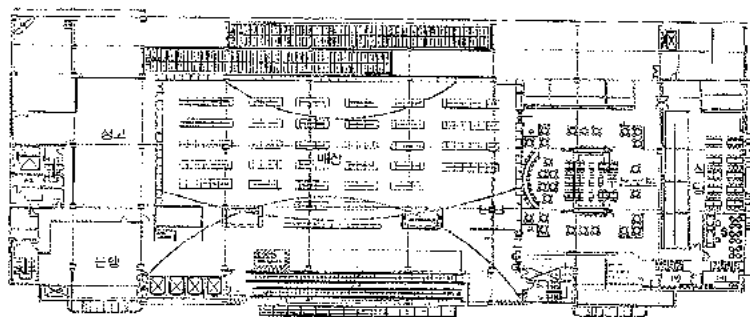
2층 푸드 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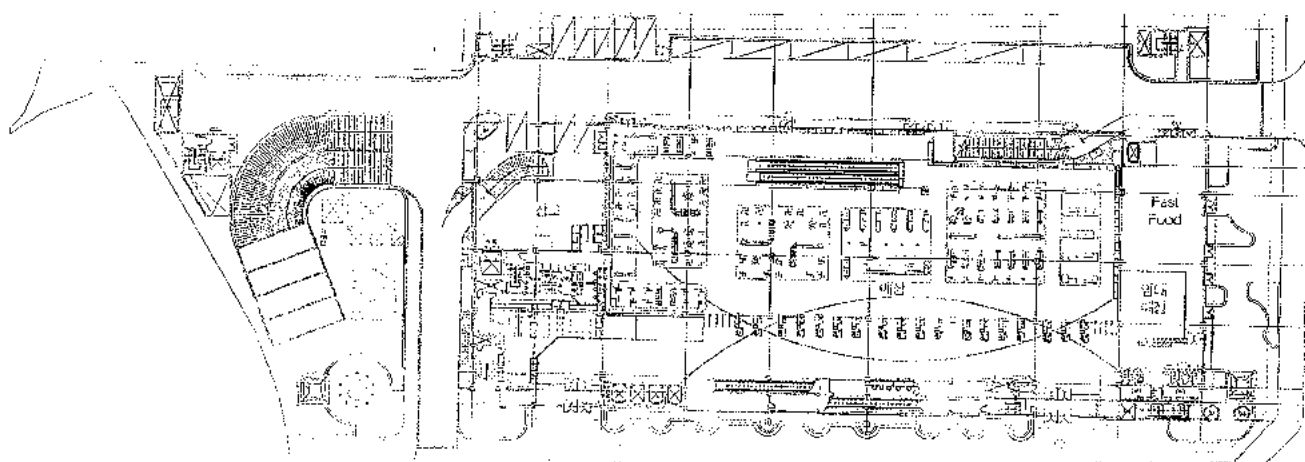
에스컬레이트



중단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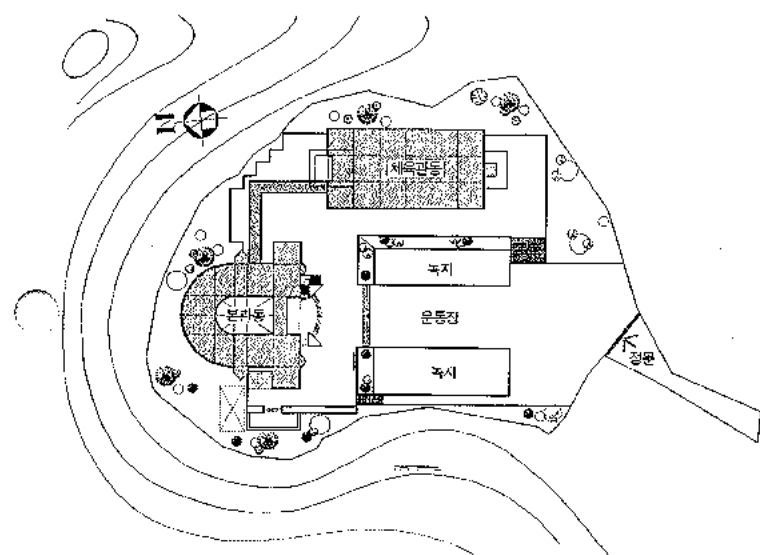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옥천 청소년 수련관

Okcheon Yout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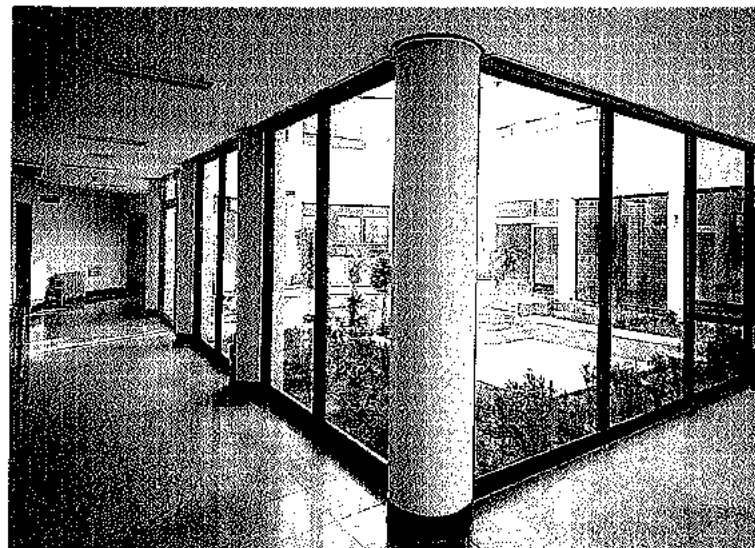
이지훈 / 이치훈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Chi-H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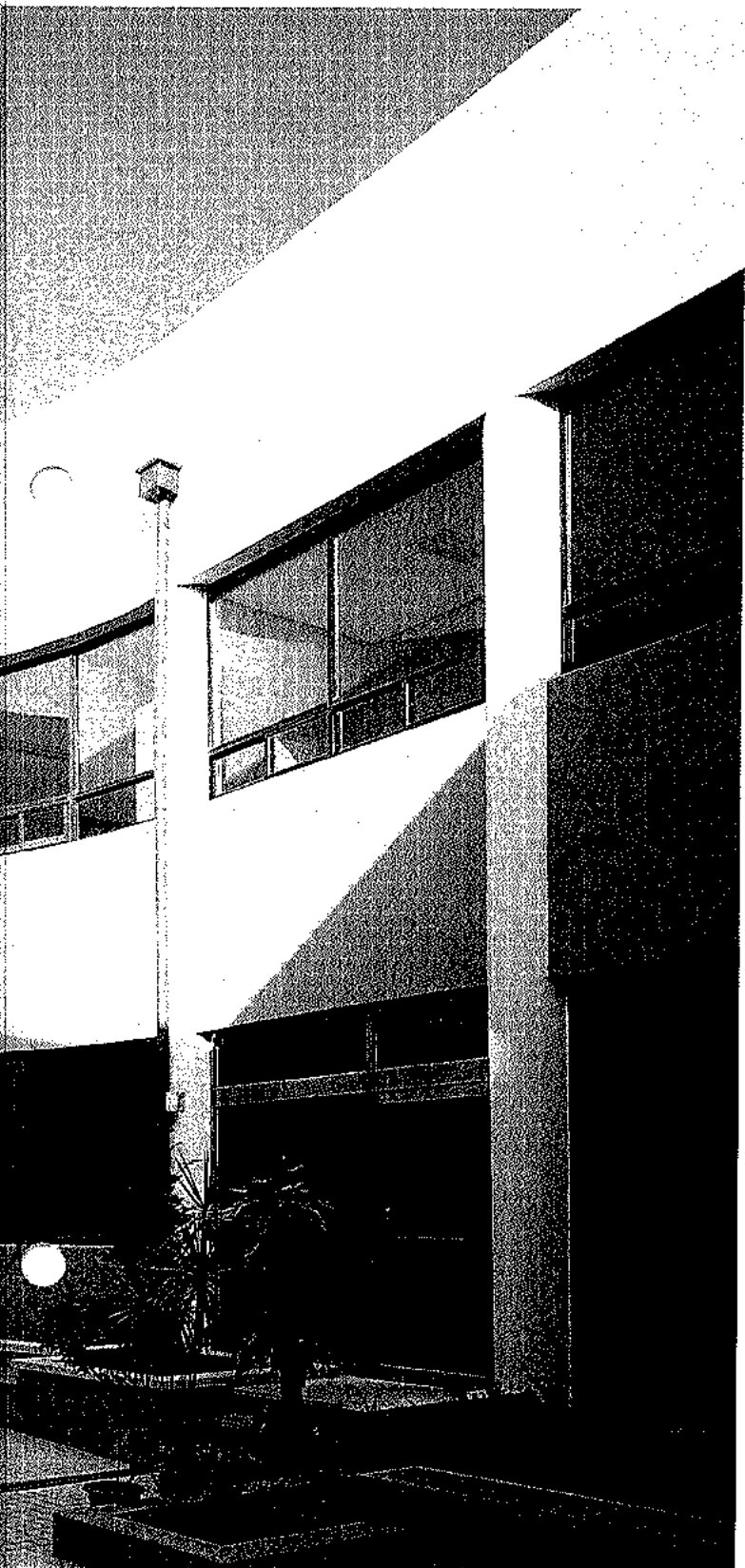


본관동 중정

배치도



본관동 복도에서 본 중정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향토 시인 정지용의 “향수”가 어우러진 옥천읍 인근에 청소년 수련관을 계획하면서 앞이 훤히 트여진 건물의 정면에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 정직과 성실을 상징하여 차분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도록 유도하였고, 내부 중앙에는 원형의 중정을 두어 부드러운 감각을 표출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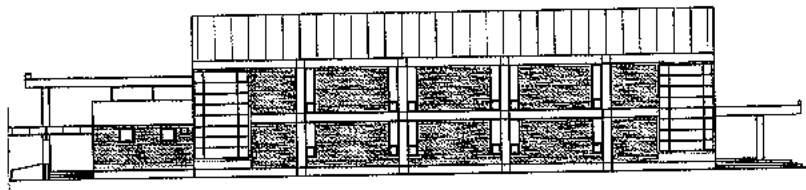
외관은 직선과 원형을 변화시켜 움직임이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함과 체육관동을 분리시켜 배치하되 연결통로로 접근시켜 소음 차단과 연결을 동시에 연출되도록 하였다.

인구 삼만 오천의 소도읍에 위치한 작은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가득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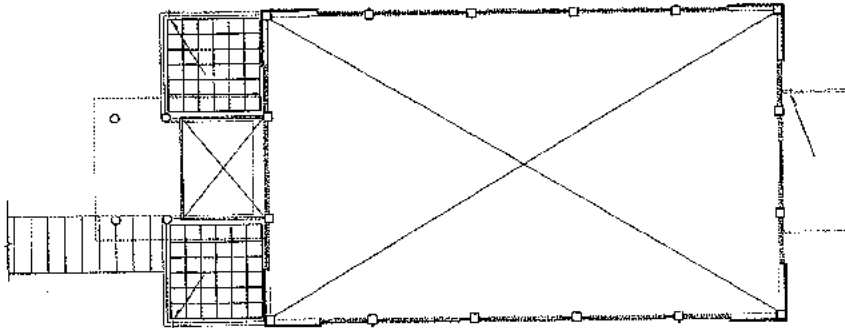
본관 양쪽에 커다란 감나무 한그루씩을 심어 세월이 지난 이맘때쯤 가을에 풍성하게 매달린 감나무와 건물의 조화를 기대해 본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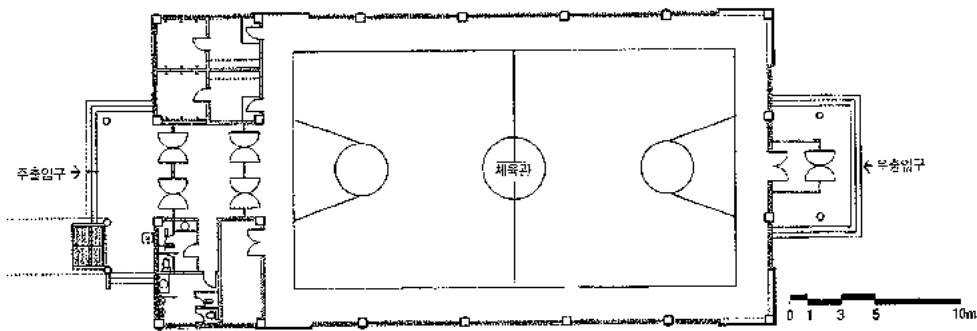
대지위치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24-1와 6필지
대지면적	7,742.0㎡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1,253.78㎡
연면적	1,719.23㎡
건폐율	16.24%
용적률	2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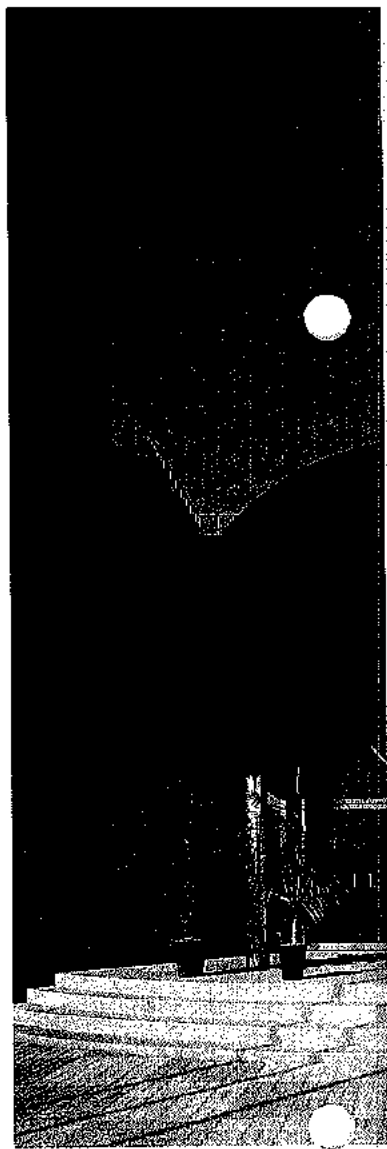
체육관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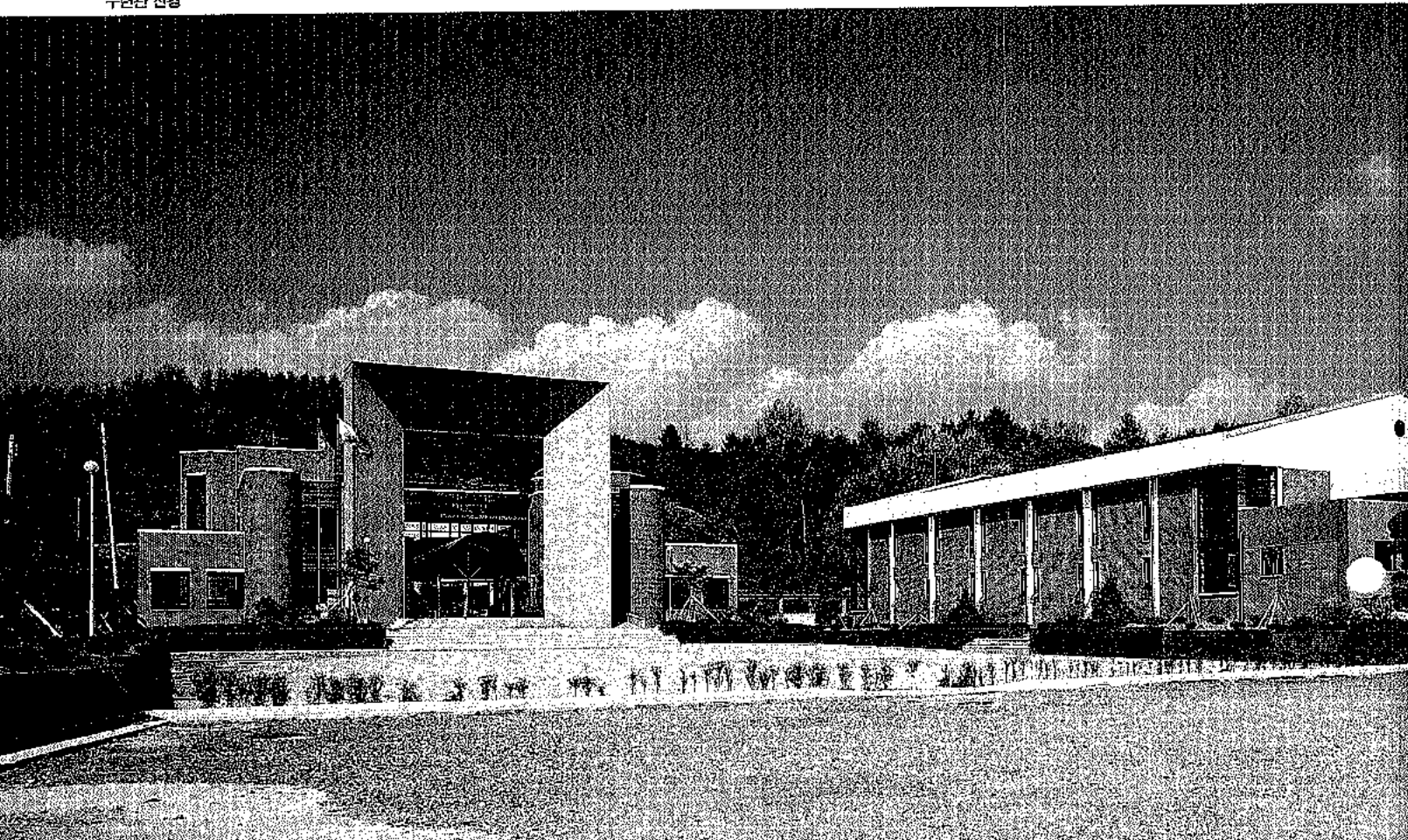
체육관 상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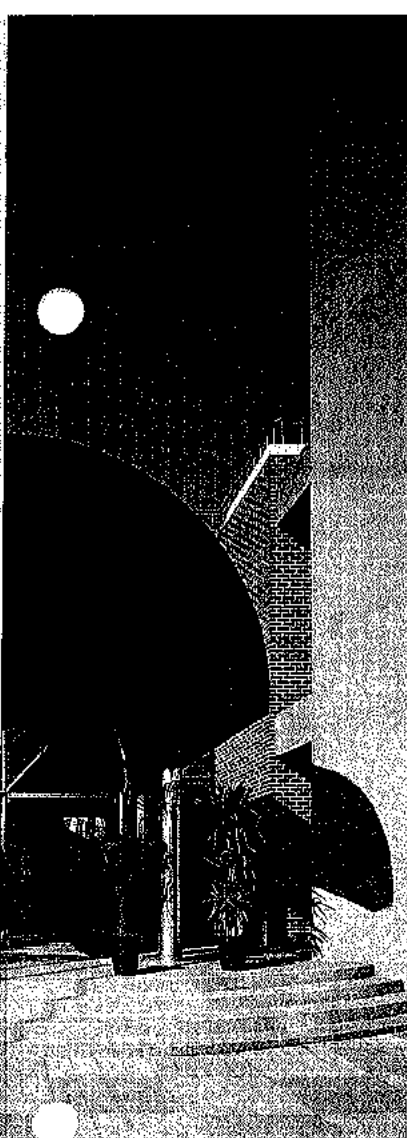


체육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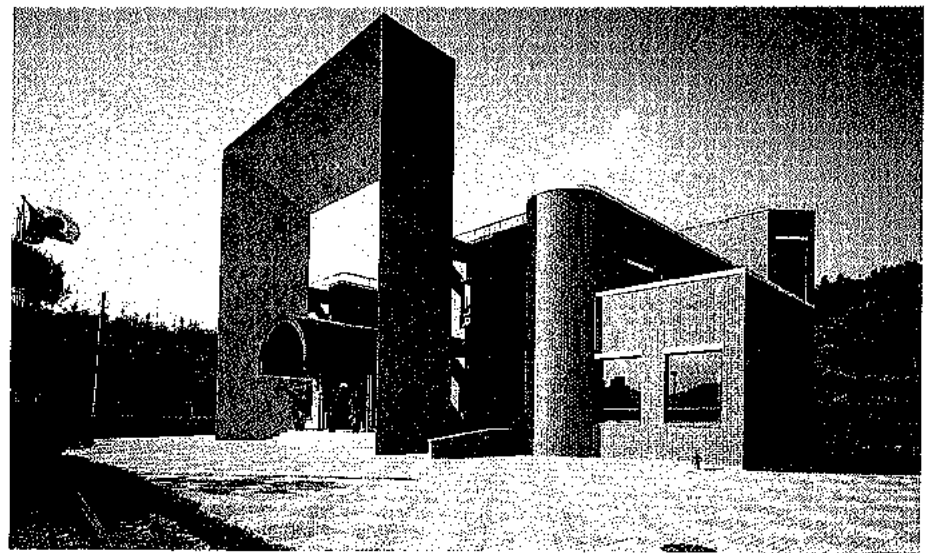


수련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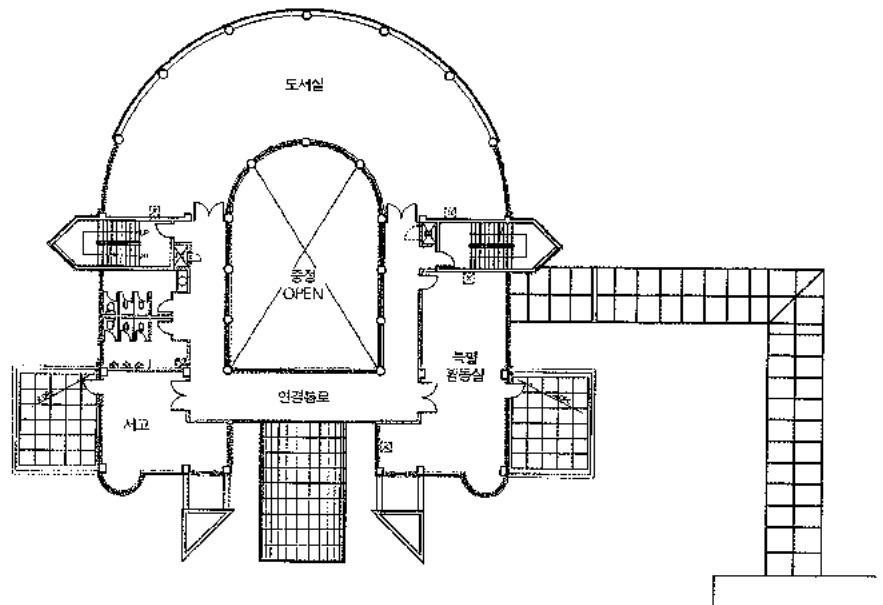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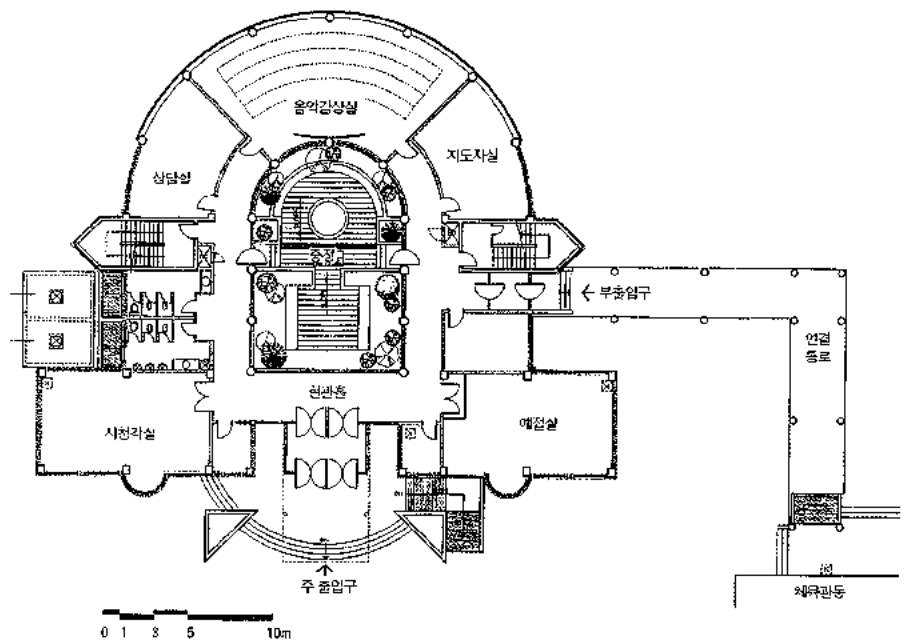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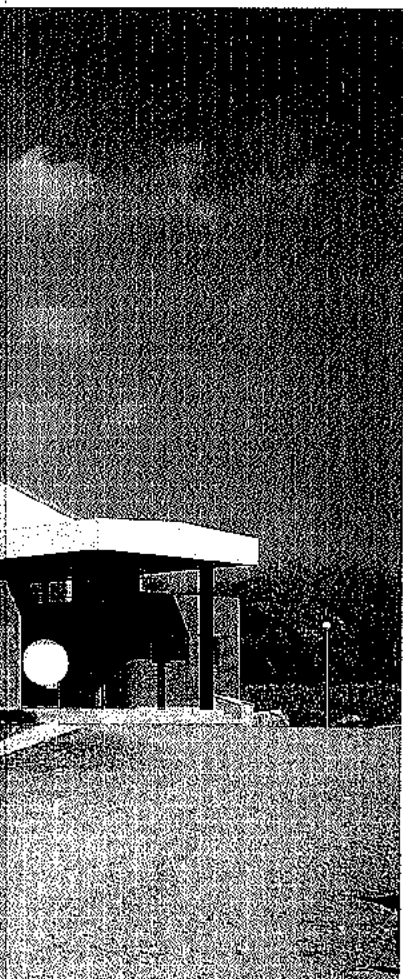
본관동 주출입구 상세



본관동 전경



본관동 2층 평면도



본관동 1층 평면도

자하당(紫霞堂)

Chahadang

신언학 / 종합건축사사무소 토우건축

Designed by Shin Eon-Hark

자하당의 건축주는 단란한 가정을 이룬 중년으로 과천의 주택단지에 89평의 대지를 마련하고 60평 규모의 주택을 짓기 위하여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였다.

설계기간을 4개월, 공사기간은 6개월로 보자는 스케줄에는 다소 길다는 의미함을 보였으나, 그동안 조사하여 계획한 공사비가 우리의 예측과 다른점이 문제가 되었다.

그간의 꿈이 담긴 독자적인 집을 짓고자하니 보편화된 형식의 집보다는 공사기간과 비용이 다소 상승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건축주들은 '이부분만은 좀 더 좋은 재료로' 하는 계획변경이 몇차례 일어나게 되니 그를 대비하는 여유자금이 없음도 셀러리맨으로 저축에 의존하는 예산인지라 걱정이 되었다. 몇차례의 재검토후 건축주는 신축을하기로 결심을 하였고, 우리는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야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설계를 시작하였다.

건축주와 후에 시공자도 가세한 긴 대화, 집을 설계하는 일은 그 집에 살 사람들의 이상을 전문가로서 조화롭게 구현시켜주는 일이다. 단란한 가족의 꿈들을 들어보며, 대개는 어느편에 치우친 구상들이지만 전문가로서의 우리는 모두 듣고 종합을 해야한다.

그러던중 주부의 의견은 설계의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지난번에 살던 집이 마당이 넓어 아이들은

여름방학이면 오래 야영을 한차례 했으며, 가을에는 친구들과 모닥불을 피우며 구수한 파티들을 많이 하였다는, 그리고 매년 새로운 계절의 그러한 일들은 가족의 삶에 소중한 추억이며 앞으로 새집에서도 유지 되어야겠다는 의견으로 옥외공간을 즐기는 생활임을 알 수가 있었다. 설계결과, 마당과 작은정원, 테라스, 전망이 좋은 옥상 등의 옥외공간이 풍부하게 구성되었다. 거실과 서재를 가르며 사이에 배치된 작은 정원은 양측의 방에서 모두 즐길 수 있으며, 서재에서 정원의 나무들을 통하여 거실의 내부로 시선을 깊게한다. 작은 집이지만 공간적인 여유를 주며 방들이 서로 풍부한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건축재료는 수수한 것들로 벽지, 한지, 페인트 등 비교적 밝은 흰색을 주조로 결정하였다. 예산에도 도움이 되었으나, 집은 담백하고 수수해야 편안한 안식처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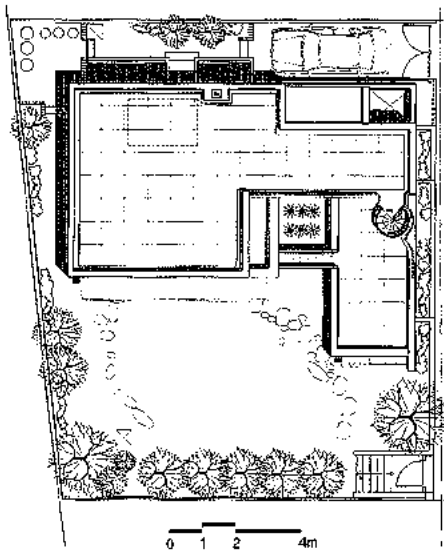
일상의 공간에서는 화려함이 때로는 번잡하며 편치않음을 느끼게도 하나, 담백한 공간은 정든가구와 사나이들의 표정을 늘 살아나게하며, 조용한 침묵으로 가끔은 우리를 깊은 상념속으로 이끌어 들이기도 한다.

집이 거의 완성될 즈음에는 집짓는 즐거움이 끝나감을 아쉬워하던 건축주, 가족의 오랜 구상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변화되나 그속에 또 다른 좋은점이 있음을 잘 이해하고 만족해하는 그들에게서 보람을 느낀다.

건축개요

위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7-1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규제	3층 이하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290.9㎡
연면적	190.06㎡
건폐율	32.34%
용적률	53.21%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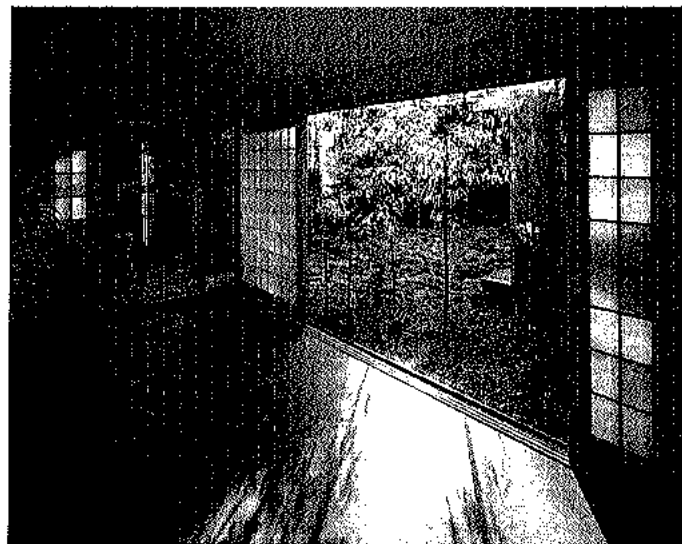
마감	외벽 - 외단열시스템 창호 - 알루미늄 샷시, 물수수지 도장 내부 - 벽지마감
건축주	맹중호(필립스코리아 전무)
시공사	치주복((주)코아 인테리어)
구조	전우코텍
조경	동영조경
기계	차림기술사사무소
전기	우림전기건설턴트
설계팀	임종욱, 노유택, 김성영, 백옥, 차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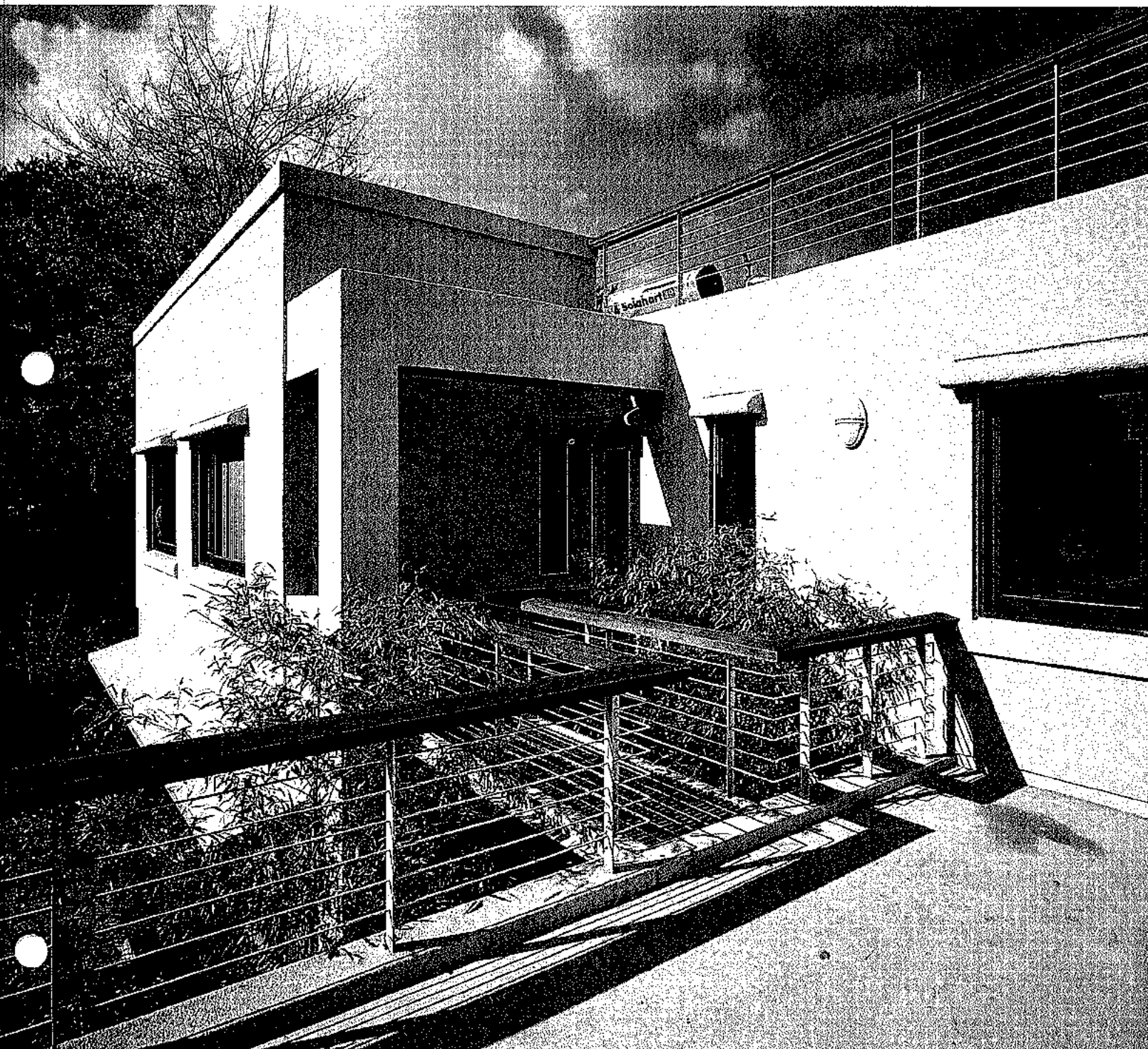
6m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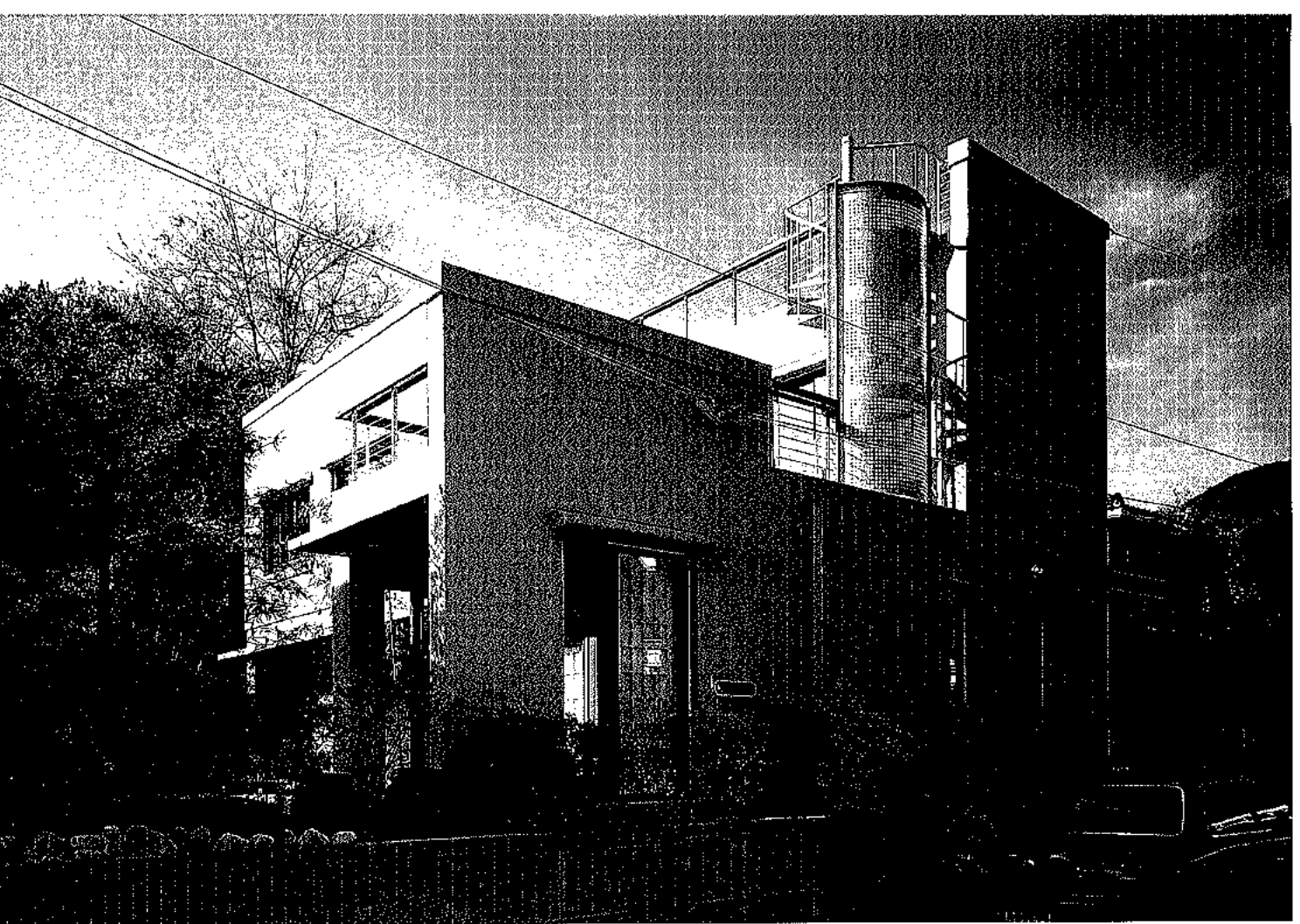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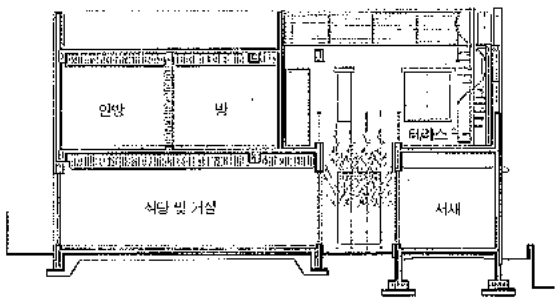
서재



2층 연결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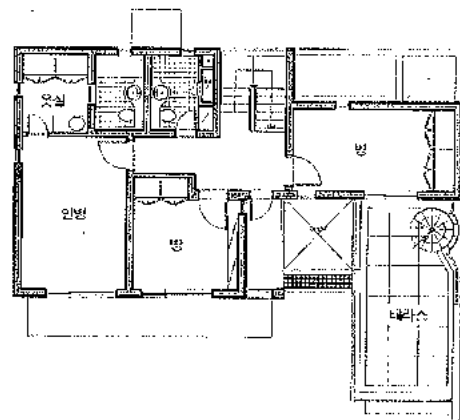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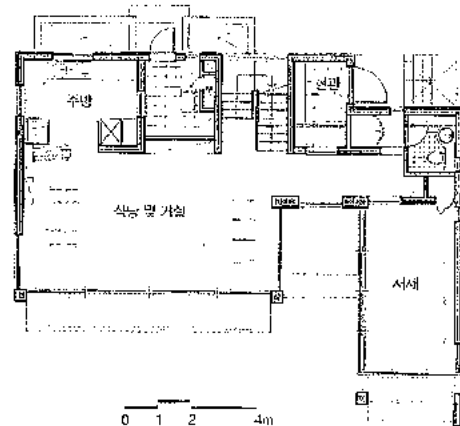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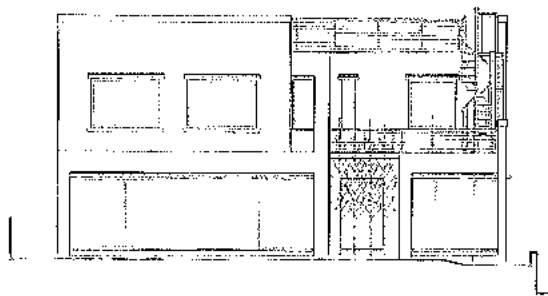
거실 빛마루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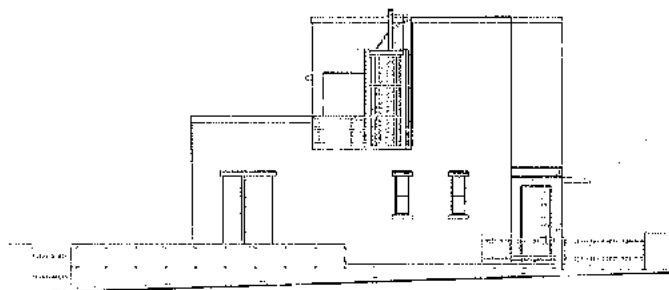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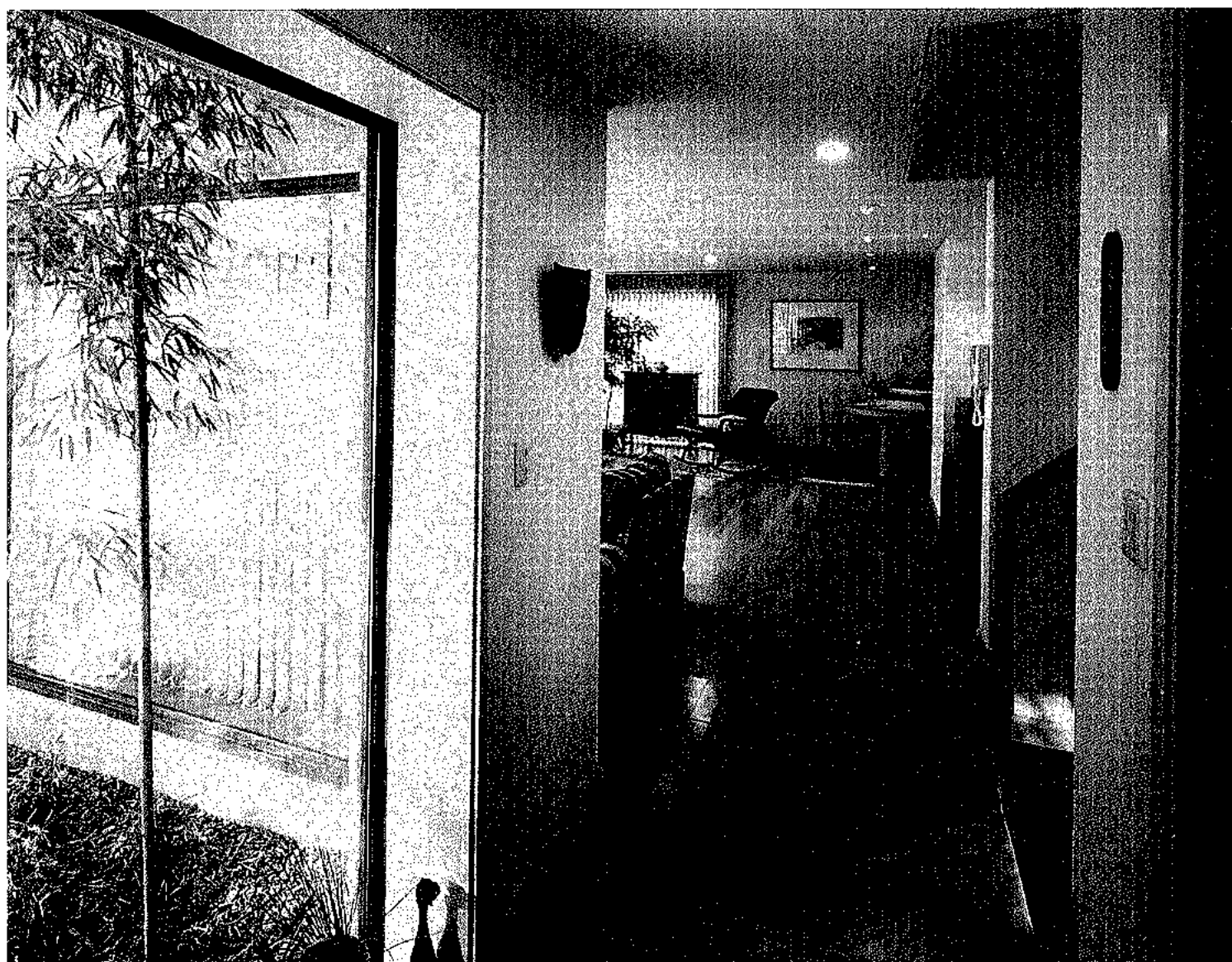
남측면도



주출입구



동측면도



축협중앙회 강원도지회 청사

Kangwon-do Branch of NLCF. Bldg.

부대진 · 김무현 / (주)진아건축 · 도시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Bou Dai-Jin & Kim Moo-Hyun

춘천시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지구의 끝자락 한켠에 위치한 계획부지는 계획에 반영되는 다양한 입지적인 요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계획기간내내 머리속을 맴도는 화두였다.

시험판매장(축협 생산물 직판장)과 신용사업장(축협 은행) 및 사무실로 대별되는 세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이 건물은 각자의 영역성을 확보하면서 상호 조화가 요구되었다.

주택가로 통하는 - 인구의 유동이 빈번한 - 서측 20m도로변에 면하여 시험판매장을, 주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와 면한 곳에 은행을 배치하고 두 공간사이에 주·부출 입구를 두어 건물 이용자가 목적공간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면도로는 Node(결절점)가 아닌 Path(통과)개념이 강하여 보행자 및 차량 이용자의 시선을 잡아두기 위하여 전면가로에 면한 주축(Axis)을 유지하면서 도심쪽으로 개방되는 보조축을 설정하여 여러 방향에서 다양한 형태를 조망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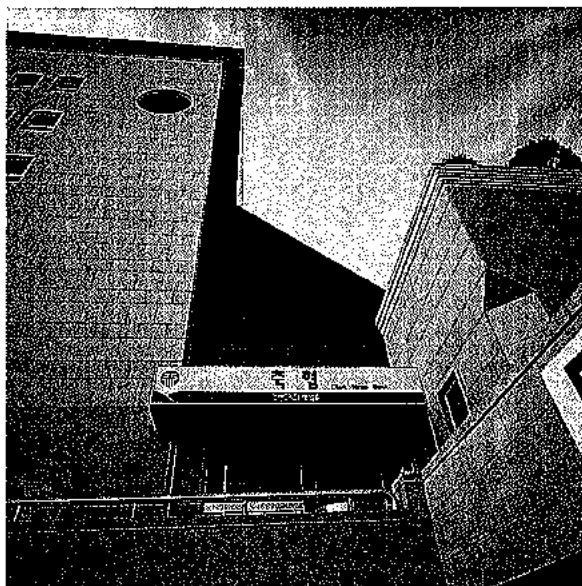
동측의 보행자 전용도로는 축협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기능을 부여하는데 안정맞춤으로 Pocket Park(공개공지)를 계획하여 도심지 내에서의 휴식을 위한 작은 배려를 가 능케하고 이러한 Pocket Park는 건물내에도 스며들어 신용 사업장의 옥상 및 배면의 Deck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전면도로의 고저차는 각 기능공간의 위계(Hierarchy)를 자연스럽게 부여하며 주차계획에도 적용하여 지하주차장을 지상주차화하는 효과를 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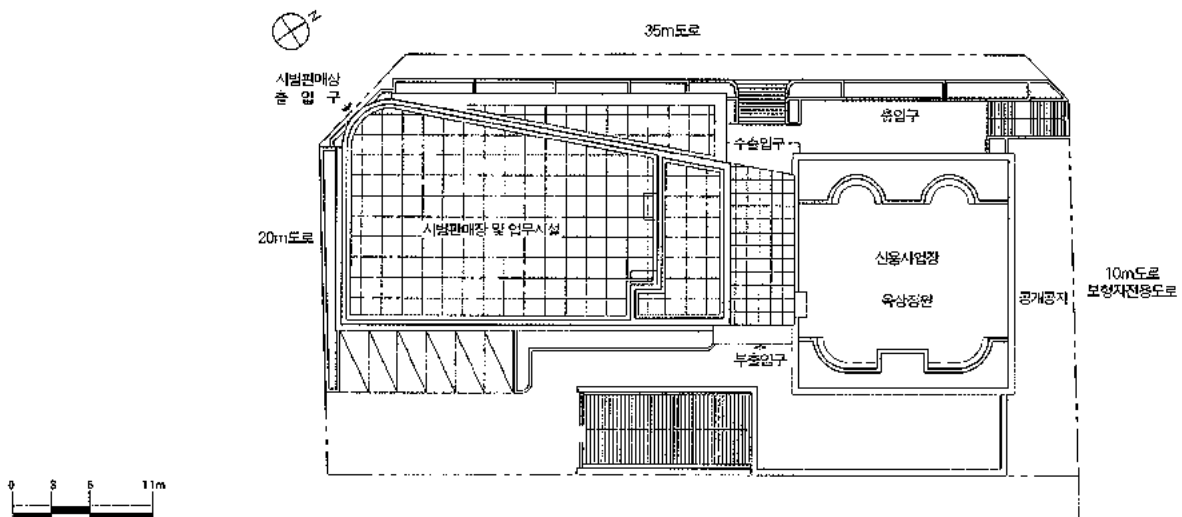
공개공지쪽의 배기 Tower를 Bench와 어울리도록 하는 계획은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을 헤람하는 것 같아 짓고 또 부수기를 거듭한 끝에 나온 것이라 보는 이의 다양한 평가에 귀가 기울여지는 부분이다.

건축개요

위치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5번지 외 1필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3종 미관지구, 고도지구
대지면적	1,945.50㎡
건축면적	1,166.91㎡
연면적	5,378.17%
건폐율	59.98%
용적률	249.57%
설계담당	박명원, 이동률
규모	지하1층, 지상7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주요용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최고높이	30.90m
설비방식	F.C.U+DUCT
외부마감	벽 - ㉠30 포천석 버너구이 + ㉠18 복층유리
내부마감	바닥 - 바닥비닐 타일 마감 벽 - 마스터 패널(S.G.P) 천장 - ㉠15 암면텍스
주차대수	48대
건축주	축협중앙회 회장 송찬원
시공자	(주)성일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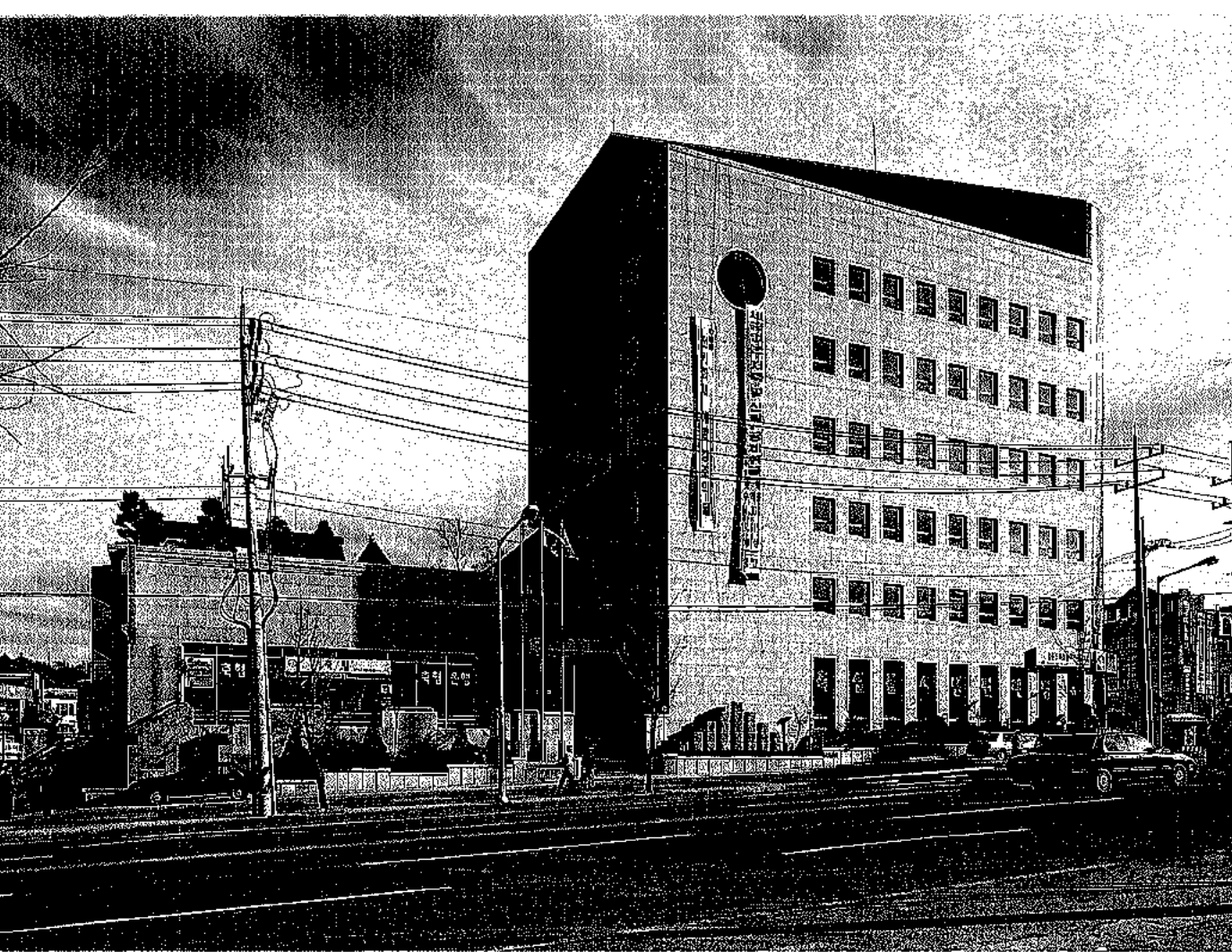
주차장입구에서 올려다 본 부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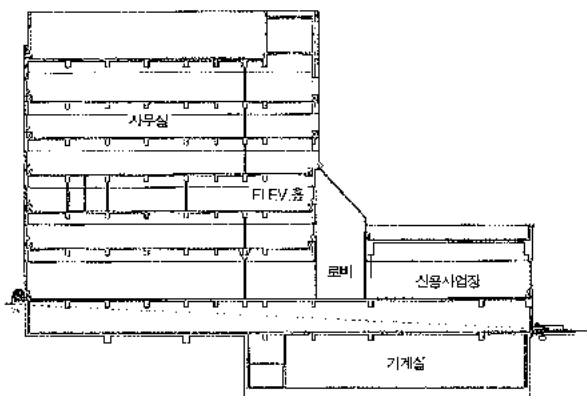
서측전경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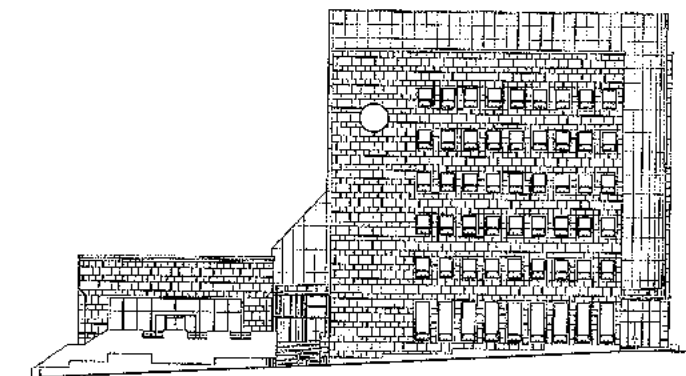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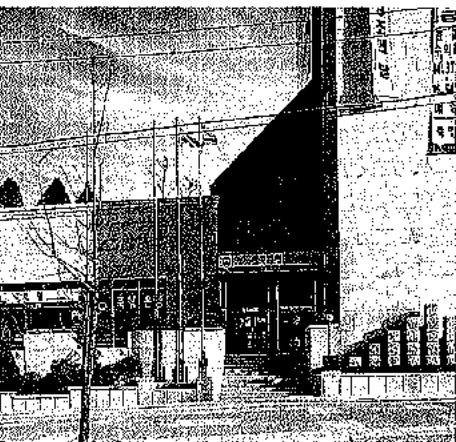
북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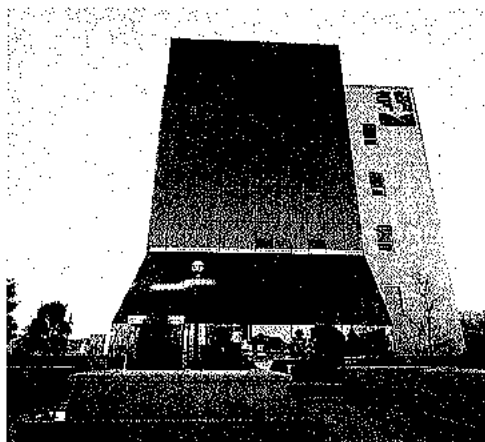
단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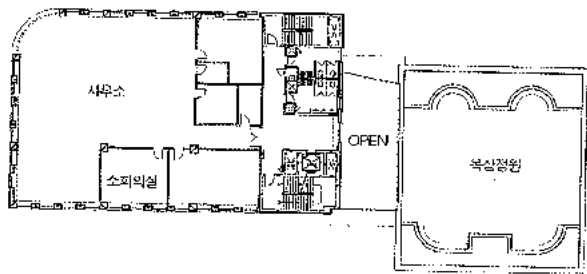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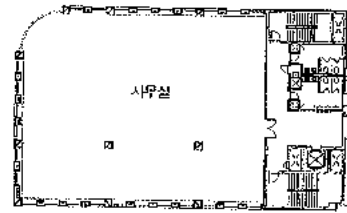
옥상정원에서 본 북동측 락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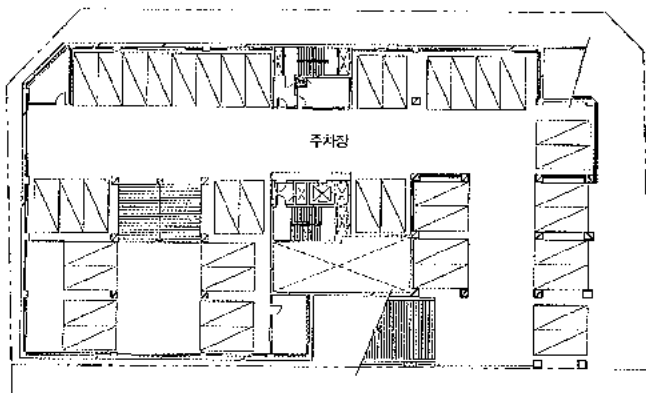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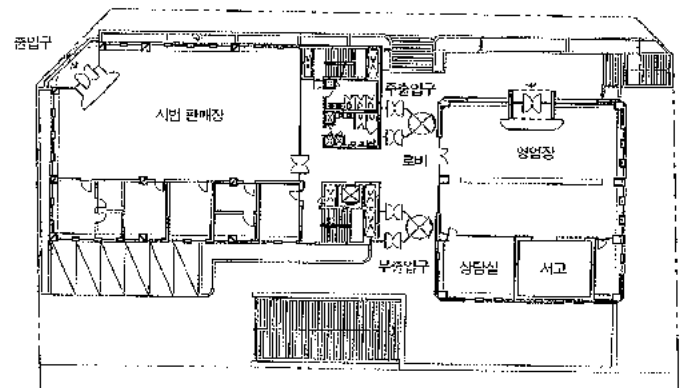
3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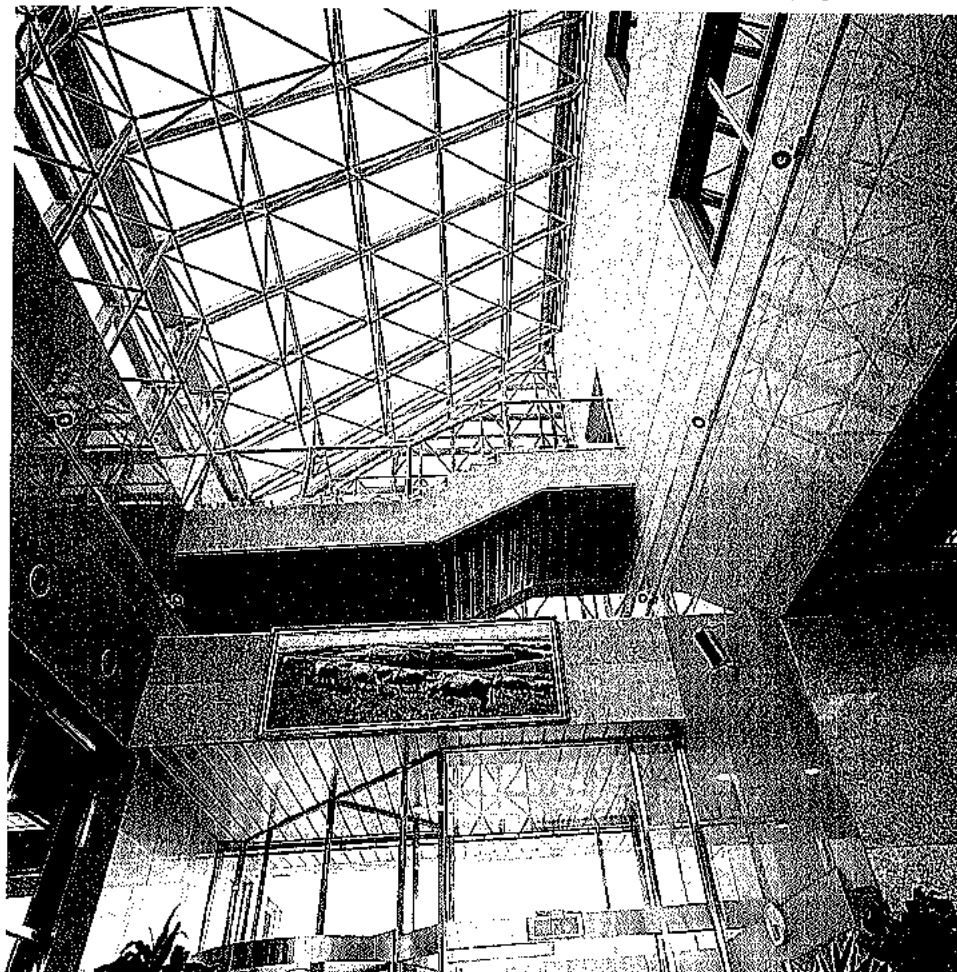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 2층 오픈된 로비와 천창



남강실크 빌딩 Namkang Silk Bldg.

최삼영 / (주)가와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Sam-Young

58m 대로변에 접한 좁고 긴 장방형의 반듯한 대지에 최대한의 용적 확보라는 욕구충족은 주변건물에 비해 다소 높은 10층으로 계획되었으며, 주로 결혼에 관련된 업체가 입주되는 준전용 빌딩이다.

전면진입과 주차후 접근의 후면집입을 관통시켜 좌우측에 코어와 사무공간으로 분리시키고 후면으로는 36대의 주차타워가 붙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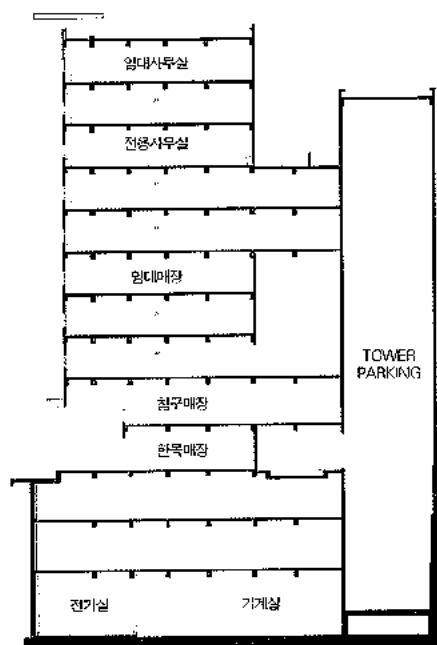
매스가 주는 폐쇄적이고 둔한 비례를 코어, 사무실, 주차타워로 나눈뒤 투명한 그라스 커튼월로 연결시켜 리듬감있는 비례가 되도록 의도했다.

조망과 채광을 고려한 연결부 투명 커튼월은 폐쇄적인 측면을 관통시켜 시각적인 답답함을 덜어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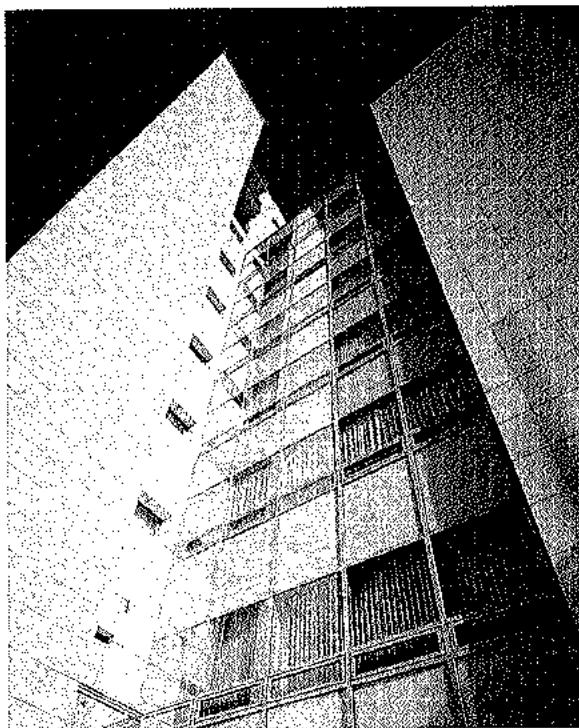
도로에서 느낄 수 있는 준거의 틀이 되는 장방형매스의 코너를 비집고 깎여나온 투명한 쇼케이스는 입주업체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역지다.

재료는 전체적으로 가벼운 알루미늄과 그라스 커튼월이 주가되어 순백과 청결의 결혼 이미지와 맞추려 하였으며, 슬리드한 매스의 코어와 주차타워는 화강석으로 마감하여 안정감을 주며, 리듬감있고 적절한 비례의 외부조형을 의도하였다.

준공이 된 지금 늦게서야 건물사진을 찍어보려 했으나 흰옷위에 온통 명찰을 달아놓아 탄곳에 시집간 옛애인이 처녀때 모습을 잃어버린것 같아 카메라 뚜껑을 닫고 그냥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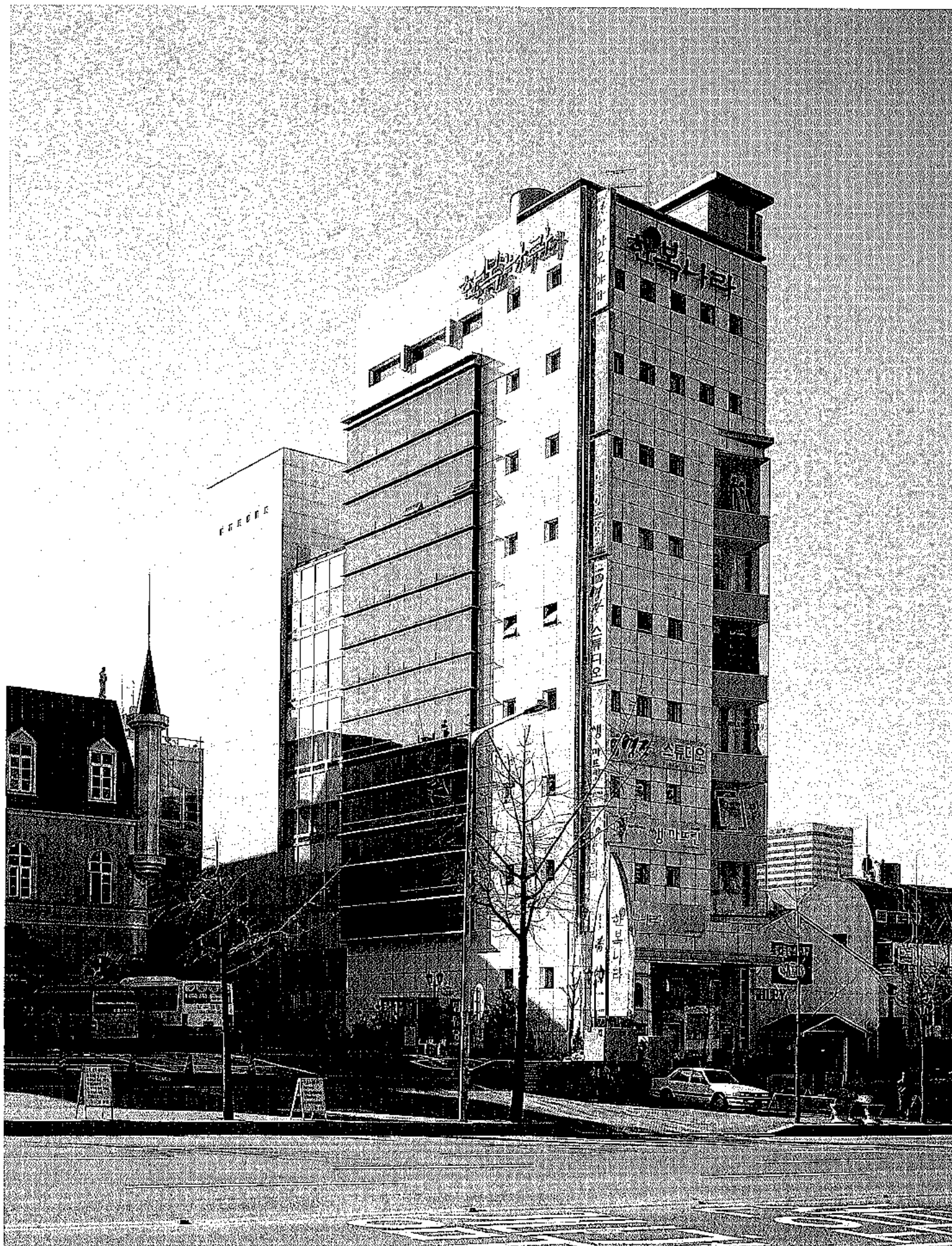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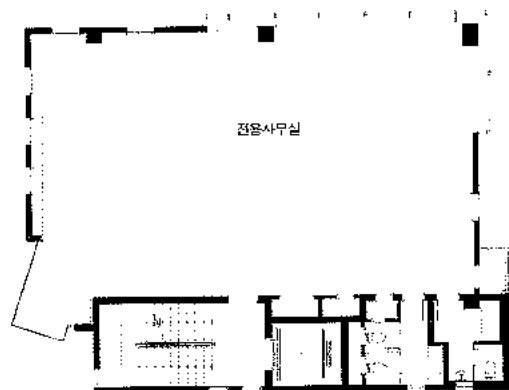
올려다 본 배면 벽면 상세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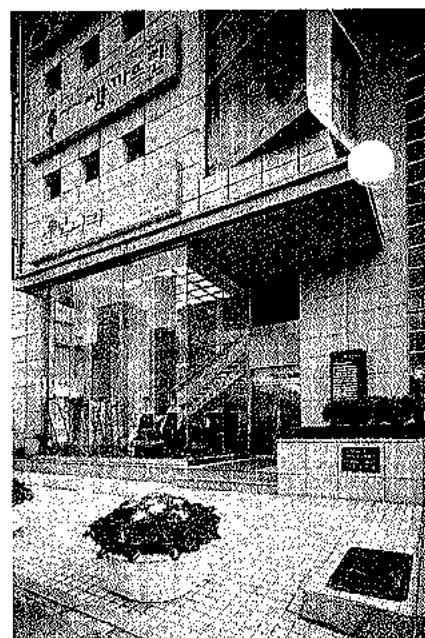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2-10
대지면적	505.90㎡
건축면적	238.65㎡
건폐율	56.07%
지상충연면적	2,022.98㎡
용적률	399.88%
연면적	2,969.31%
규모	지하3층, 지상10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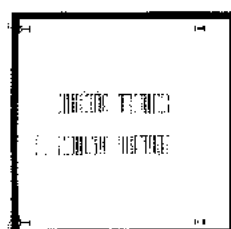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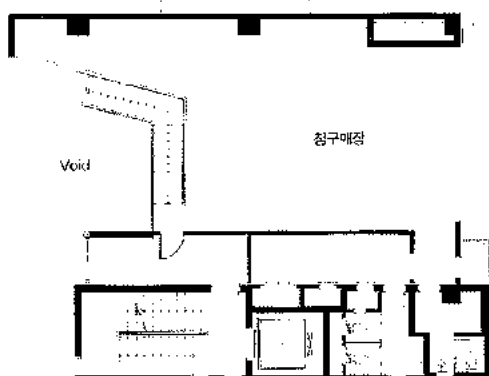
전경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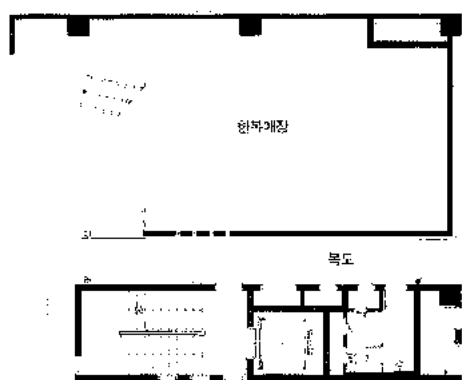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2층 평면도



1층 매장



Turr Table



신촌

대기주차

대기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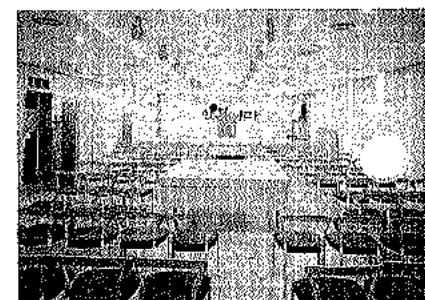
4m도로

0.5 2.5 5m

1층 평면도



2층 연결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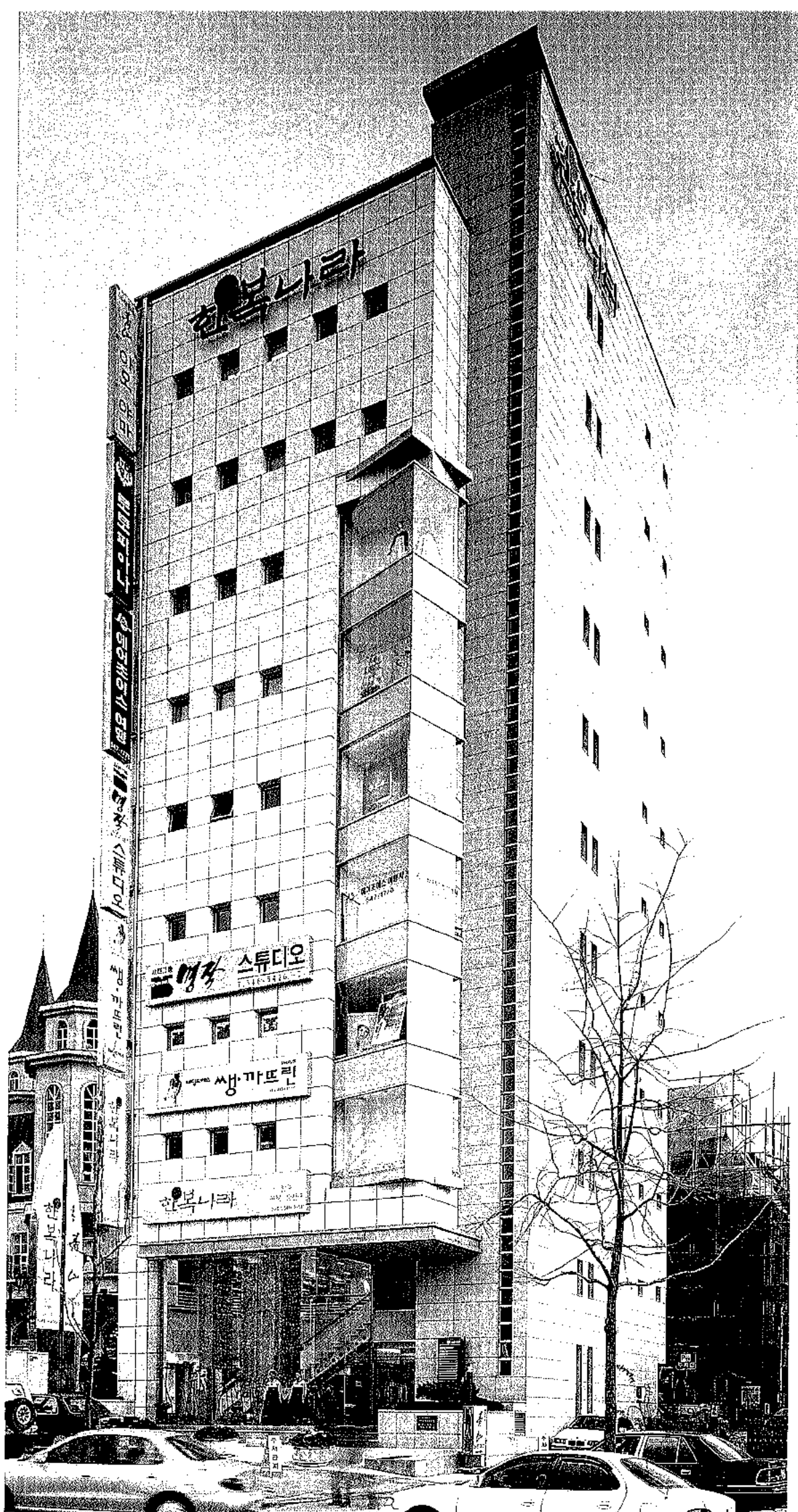


지하2층 강당

58m도로

주출입구





화순주택

Hwasun Residence

한진수 / 건축사무소 토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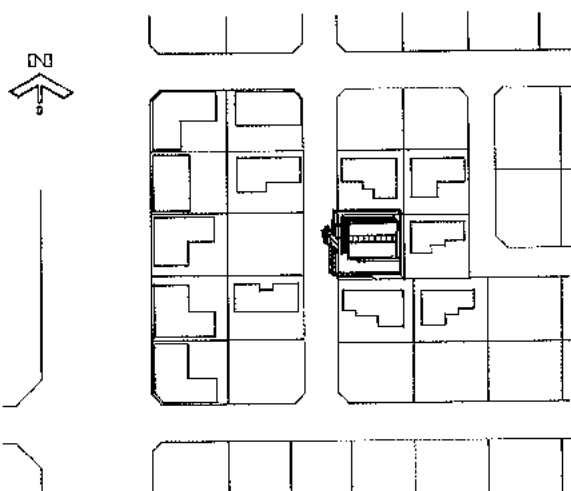
Designed by Han Jin-Su

이 주택은 광주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남 화순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에 의해 규칙적으로 분할된 대지에 설계 당시에는 인접대지들이 건축되지 않았다. 이 주택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층 조적조 건물을 상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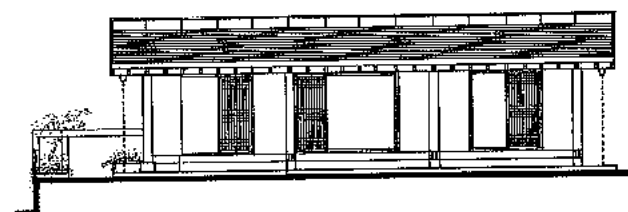
주택은 생활의 편리함을 주어야 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무거운 재료보다는 목조로 하여 시각적으로 친숙함과 자연미가 있었으면 하였고 건축주는 공무원으로 부인과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편안한 생활속에 오래 살 수 있는 집이 되었으면 하였다. 대지가 우측보다 좌측도로가 낮으므로 인하여 마당을 약간 올리고 주택의 처마를 낮추어 인접가옥과의 관계를 생각하였으며 목조 전면 세간의 일자집으로 배치하였다.

대문으로부터 몇 개의 계단을 올라 현관에 이르게 되면 현관에서부터 거실에 이르는 선상에 천창을 두어 빛을 내부공간에 유입하였으며, 거실과 서재를 가변성 있는 공간으로 구획하고 아동실을 약간 올려 하부에 차고를 두었으며 중정을 두어 거실 및 주방에서 자연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고 자연공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모태적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전통주택에서의 가구기법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구조를 노출시키고 외단열공법에 의한 드라이비트로 마감을 하였으며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의 실의 상부는 투명유리로 하여 공간의 개방감과 목재의 구조미를 높여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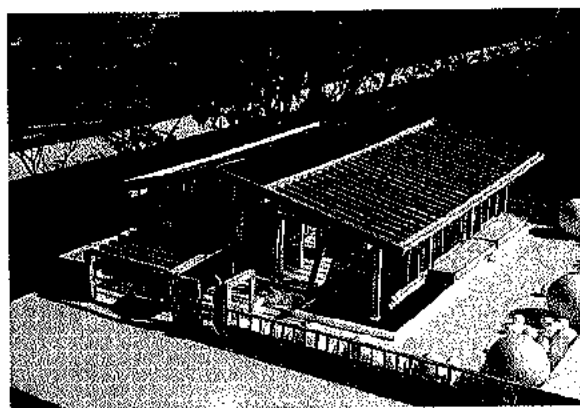
위치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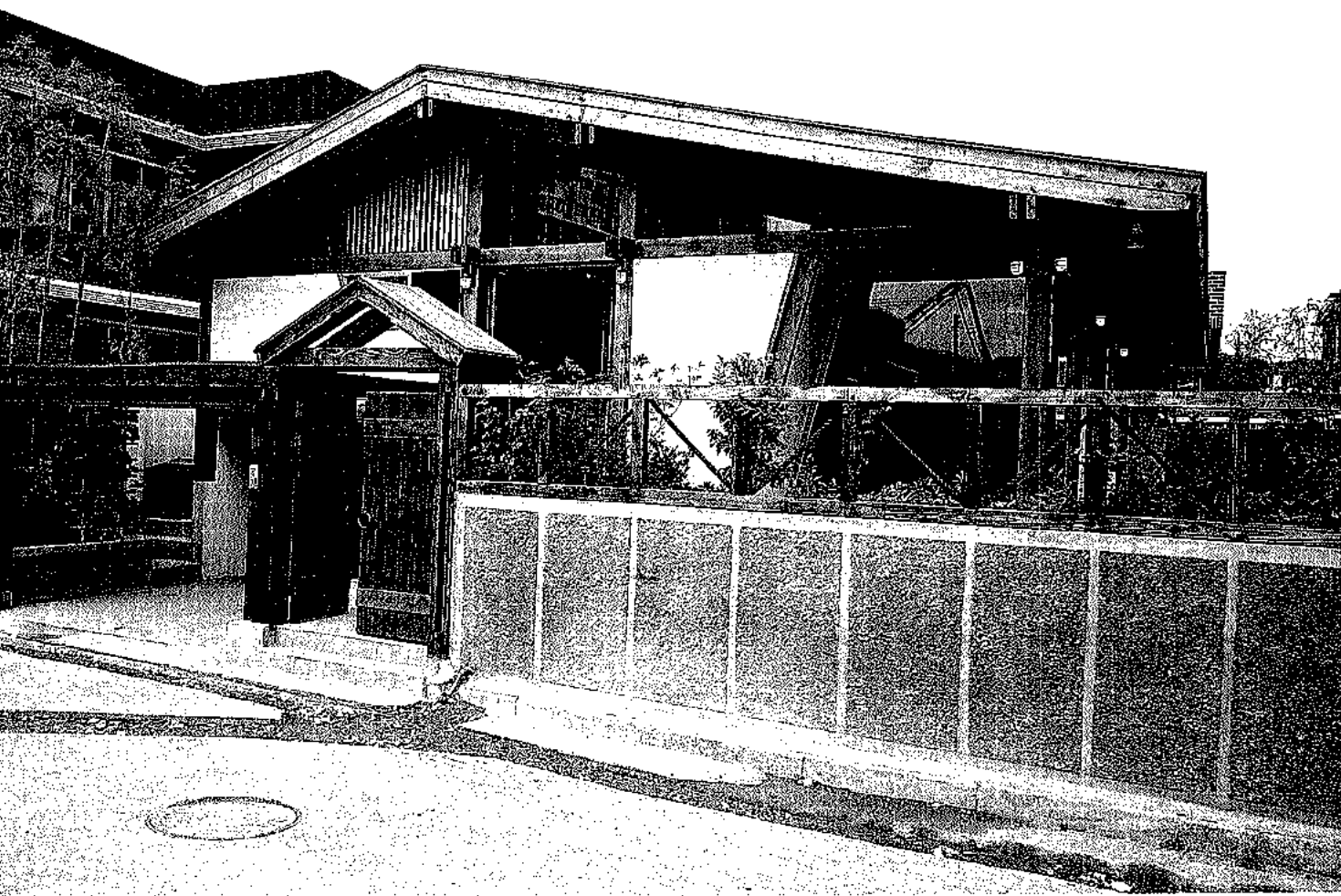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지면적	225.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연면적	93.55㎡
건축면적	98.72㎡	용적률	41.56%
건폐율	43.86%	구조	목조
규모	지상1층		
마감	외벽 - 드라이비트 단열시스템 지붕 - 컬러 아스팔트 싱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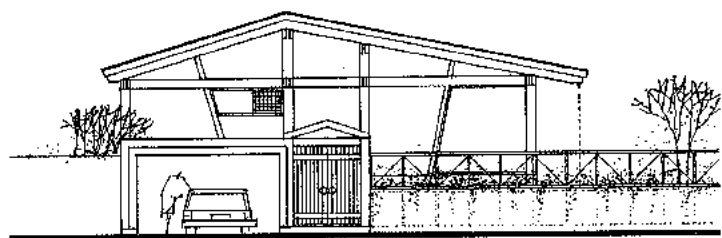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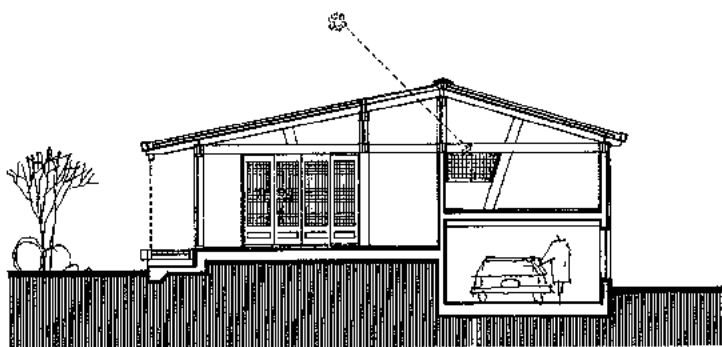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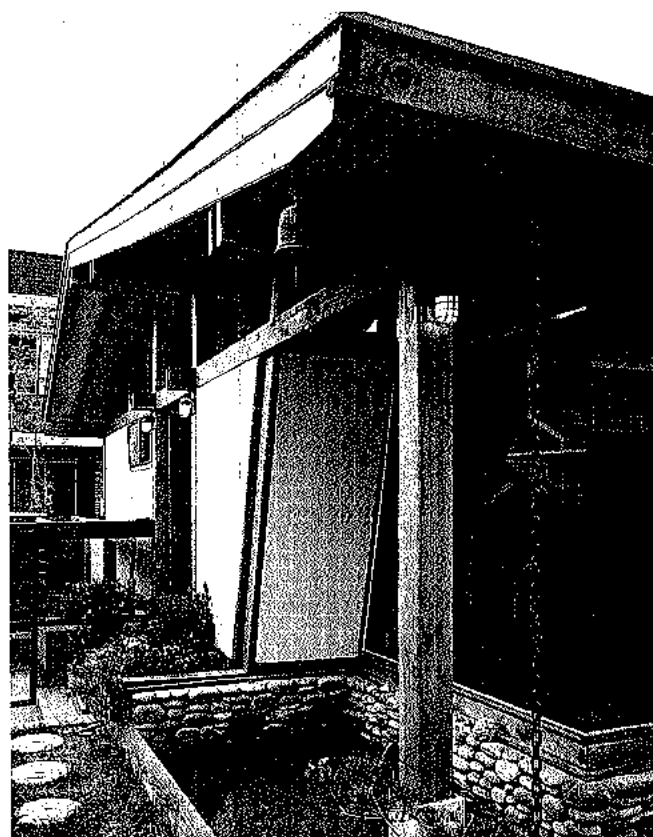
처마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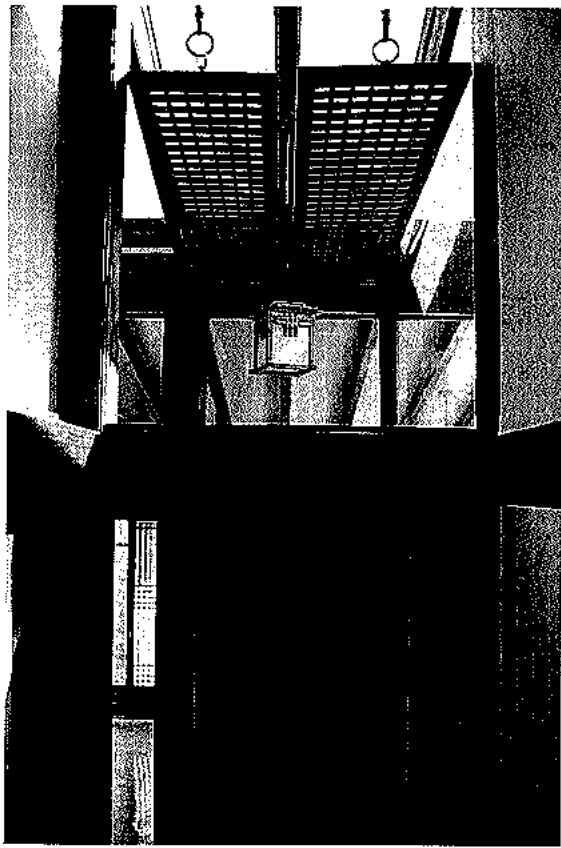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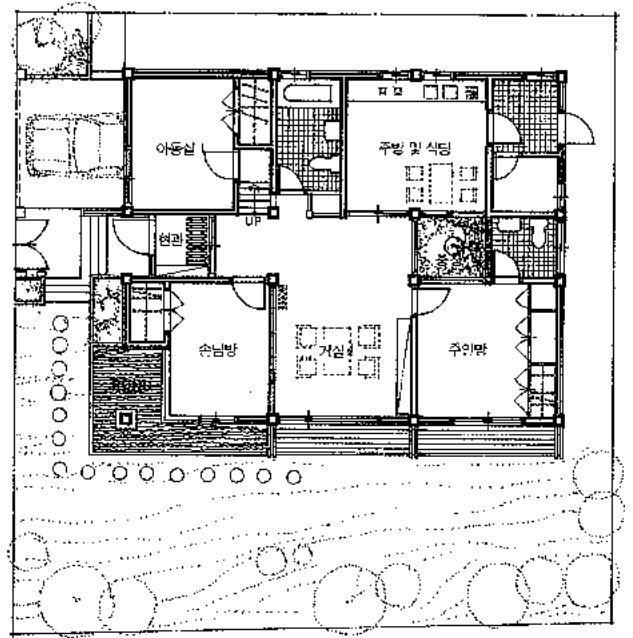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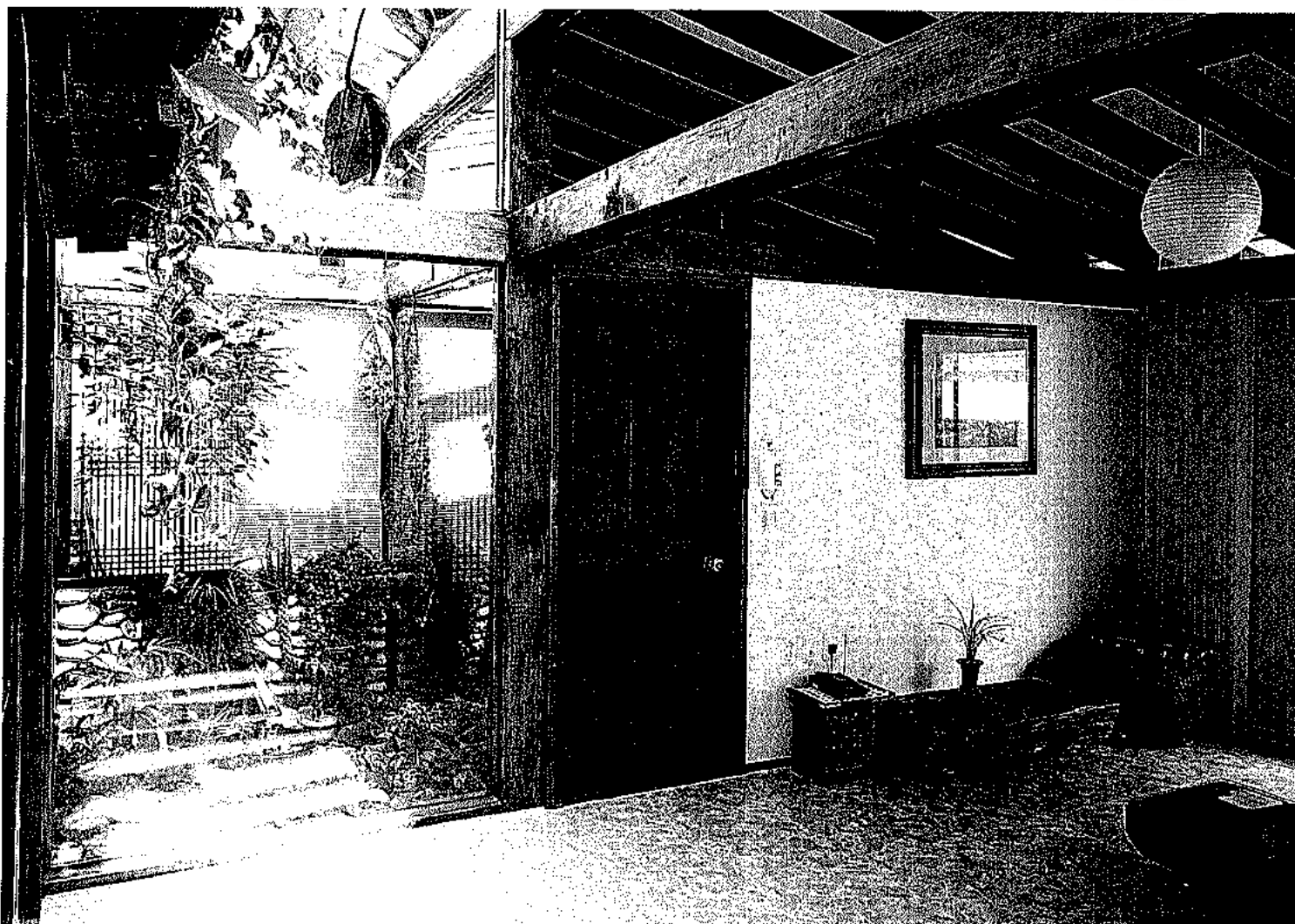


천장 장식문



1층 평면도

거실에서 본 중정과 천창



한국의 건축가 10 - 배기형(완)

Korean Architect, Bae Gi-Hyeong

그의 작품세계(3), 증인들의 증언

원정수 / 인하대 건축학과 교수

by Won Jeong-Soo

일반적으로 건축가의 명성은 시각적인 감동을 느끼는 외관 또는 내부공간에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철골구조물의 특수 부분에 있어 명설계자로 알려져 있는 건축가에게는 어떻게 극장설계가 해석되어지는가 하는 점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초기에 단성사와 중앙극장을 소유하였던 벽산그룹의 김인득 회장은 일제시대 건물 구조인 단성사극장 증축설계를 배기형에게 맡기게 된다.

◇ 연 재 목 차 ◇

(계재될)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종업 (9703~9707)
10. 배기형 (9710~9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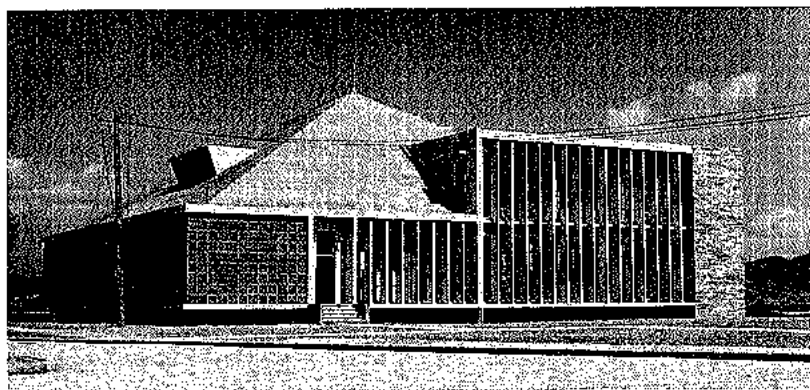
단성사 증개축 (1955년)

무대 부분을 철거하여 그 부분에 좌석을 증설하고 영사막과 무대의 거리가 더 멀어지게 증축됐다. 영화 스크린이 시네마스코프로 대형화되고 관람자의 시선 각도에 따라 바닥의 경사각도가 무대 쪽으로 역경사로 올라가는 물매를 갖는 특이한 극장 단면이 됐다. 실내공간은 현대건축의 국제적 추세인 음향다감치리로 국내 최초로 목재 수직 음향재인 코펜하겐 리브가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천장은 그물모양의 음향처리의 단순한 구성으로 명쾌한 공간을 연출했다. 서울의 개봉관으로서 오랫동안 명맥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설계였다. 이와 어울리는 전면 외관을 계획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피카디리극장 (1958년)

극장 계획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좁은 공간에 시네마스코프의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스크린과 영사실 거리가 짧은 곳에서 관람석을 2개 층으로 배치하여 좌석 수를 많이 두는 것이다. 이때 영사실 위치를 2층 발코니 밑에 두므로써 영화 투사 각도에 따라서 2층 발코니 좌석 바닥 스탠드의 경사는 대단히 높아진다. 항상 극장 기능의 단면 구성, 평면계획 분석에 몰두해 온 배기형의 공간구성 상상력이 더욱 높아졌다.

1. 건축가 배기형에 관한 기록과 자료
2. 그의 작품세계(1)
3. 그의 작품세계(2)
4. 그의 작품세계(3), 증인들의 증언



구 공군사관학교 도서관(서울 대방동 현 보라매공원 자리에 위치)

을지극장 (1958년)

단성사와 피카디리극장은 서로 마주 보면서 종로 3가에 극장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반해 을지극장은 일반 건물로 형성된 가로에 위치해 있어 외관 정면을 통해 극장인지를 높여려는 시도가 보인다. 전면 수직 기둥을 독립되게 앞세워 놓고 벽면을 후퇴시킨 입구 공간의 처리는 극장 관람객을 흡입하는 공간 형성의 의도가 강하게 보인다. 이 극장은 판코리아란 이름으로 식당 극장으로 개조되었다가 현재는 휴관되었다(※전편에서 동양염직 진주공장과 을지극장의 건축주를 동일인으로 기술하였으나 각각 건축주가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정정함).

공군사관학교 도서관 (1958년)

윤일주 교수의 한국 근대건축에 관한 논문에 의하면 대방동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현 보라매 공원) 교사는 수직적 평활한 교사군을 형성하는 캠퍼스 속에 표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물론 도서관이라는 특수 목적에 따른 권위에서 오는 차이는 하지만 본체를 피라미드형의 대형지붕으로 덮고 그 내부 일부는 막 뚫림의 반2층으로 돼있어 밝고 시원한감을 주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삼각형의 피라미드와 장방형의 사각형을 관통시킨 조형구성을 창출한 건축가 배기형의 의도를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당시 배기형은 구조설계자로서 한국 건축가의 위치를 굳히며 건축가 현역들과 교분을 나누면서 자신의 건축디자인 능력과 야심을 검증하면서 건축창작설계를 풀어 나갈 때 발상되어진 것이다. 피라미드 지붕 처리에 있어 계단형 슬라브로 방수를 해결한 점은 대구 제일모직 공장의 콘크리트 셸구조에 도전하는 예고라고도 느껴진다. 외벽의 스크린 처리의 부록벽처리와 열람실의 유리 커튼월은 정교한 디테일로 구성되어 정돈된 세련미를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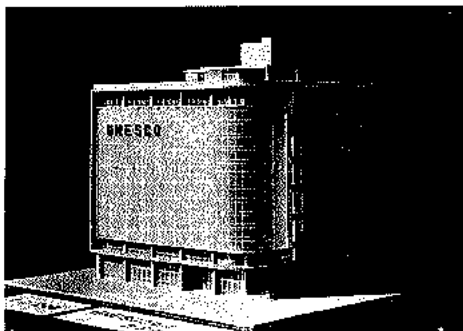
조흥은행 남대문지점 (1959년)

대구 제일모직 공장, 부산 제일제당 공장 설계가 성공을 거두고 삼성계열인 한일은행의 모든 지점을 설계하게 된다. 조흥은행 남대문지점 설계도 이 때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흥은행 남대문지점은 일반은행의 정형을 벗어난 특수한 해결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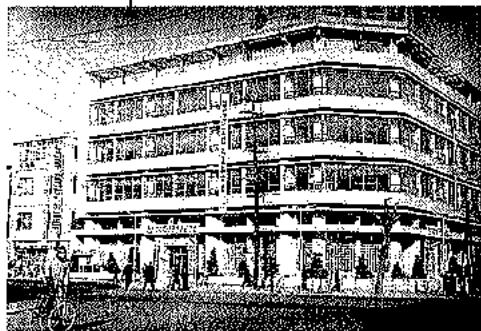
여주고 있다. 은행의 영업장은 입면을 수직적으로 표현하는 저층 상부에 기준층으로 구성되는 유리 외벽 커튼월의 입면을 올려 놓고 유리부록의 계단실, 그리고 옥상 파라펫트를 1개층 파장시킨 입면의 세요소로 구성시킨 건물매스와 옥상 돌출부에 수직과 수평 매스로 구성된 기생건물을 모아 놓은 무리한 외관을 보여준다. 이는 당시 모더니즘의 심미관으로서 매듭지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배기형이 이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후에 밀려든 포스트모더니즘의 암시를 느끼게 하지만 그가 확실적이고 단순한 구성의 모더니즘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때 주류를 이루던 국내 모더니즘 디자인 건축물들의 미감과 디테일이 수공업적 모조 처리로 그 품위가 떨어지는 예들에 대한 비웃는 마음이 짙게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는 자연석 외장재를 현대감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테라조로 대역마감하여, 자기질 타일 면이 외장의 주조를 이룰 때였다. 여기에 수공업제품의 유리새시의 커튼월을 디테일로 그릴 때 건축가의 상세설계 저력에 의해 건물세련도를 가늠했다. 또 유리부록과 콘크리트 유공부록으로 스크린 벽처리 하는 것 또한 모듈과 입면구성의 다양성을 첨가한다. 이를 설계에서 그려나가는 작가의 흥미와 열의를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유네스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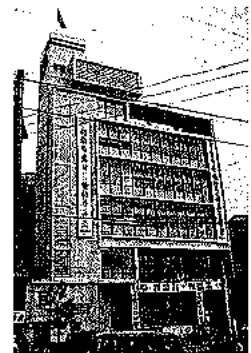
윤일주 교수 논문의 한국근대건축에 의하면 1961년대, 규모가 크고 문제성이 있던 건물의 하나로 유네스코회관을 들었다. 당시 규모가 크고 새로움을 보여준다는 뜻이다. 1955년 3월에 착공하여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완성되자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스럽게 명동 변화가의 경관을 어지럽혔다가 1965년에 다시 시공되어 1966년 12월에 준공된다. 총 4,116평에 지상 11층 높이로 극장과 백화점을 수용하는 사무 빌딩 규모는 당시 한국에서는 대형건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고밀도 도심지인 명동거리의 경관을 주도하는 건물스케일로 변화가의 보행자들에게 다양한 위치에서 상대하는 입면으로 해결되어진 점에서 설계자의 치밀함을 엿볼 수 있다. 구조사 배기형, 이천승의 협력체제와 화려한 인력들의 조직으로 절정기를 보여주는 시기이다. 현상설계 당선(오웅석 소장의 증언란 참조)에 이어 실시설계 또한 김



유네스코 회관(서울명동) 모형



한일은행 을지로지점(현재는 유리전면을 커튼월로 개조하여 원형을 볼 수 없음)



조흥은행 남대문지점

창서, 이최영(작고), 김진균(재캐나다), 최영규(현 인하대 교수)등
환상적인 실무진이 단시일내 만들어내 저력을 보여준 작품으로
건축계 등 구조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한일은행 을지로지점 (1960년)

당시 은행지점 건축은 영업장 기능을 중심으로
단층규모가 일반적이었으나, 을지로지점은 오피스빌딩 규모의 은행지점이다. 1층은 영업객장 천정고가 높은 공간이므로 층고가 높은
입면을 구성하되 수직기둥의 높이가 상부 사무층의 3개층 높이
와 입면구성이 불안정하므로 1층 외관에 교차의 수평띠를 두르면서
수평선의 입면 흐름을 강조하고 있다. 창대의 수평띠를 강조하
기 위해서 입체감의 음영효과를 높이고, 옥상 파넬트에 파고라를
설치하여 건물의 단순성을 피하면서, 도로 가로경관의 지루함을
없애는 시도가 역력하다. 특히 이 건물의 특징은 구조계획에 있으
며 무량판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이며 천정 높이를 낮추고 천정 속
의 기계 duct를 위한 효율적 공간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구조이다.
이때 마침 세종로에 위치한 미국대사관이 미국 건축가에 의해 무
량판 구조로 설계된 것을 겨냥하였고, 한국적 구조해석으로는 처
음으로 시도된 성공한 건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때
구조를 담당하였던 최영규(현 인하대) 교수는 시공자의 콘크리트
배합과 타설이 부실시공되던 타성에서 벗어나 위험한 과정을 극
복하는 설계, 감리에 충실하여 만든 작품으로서, 지금도 을지로지
점 건물을 보면 구조가 꿰뚫어 보인다고 회상한다.

중앙일보사(서소문 구간, 1964년)

삼성그룹의 발전사는 건축가 배기형의 성장과정
과 맥을 함께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건물은 신문사, 방송국의 두가
지 기능을 수용하는 소위 매스컴 센터이다. 배기형은 공장건축설
계에서 공장생산설비의 새로운 기능을 위해서 건물설계를 해결하
였으므로 매스컴 기능을 갖는 건물 역시 그에게는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신문 인쇄 운전기의 진동과 소음방지, 여기에 밀
폐 음향공간의 스튜디오, 첨단방송기자재의 기능을 건축과 결합
시키는 설계를 완성함으로써 구조사 설계조직에 저력이 높아졌고
이를 경험한 멤버들은 경제성장으로 생겨나는 첨단 전자 통신 방

송 기능의 설계를 해결할 수 있는 건축가가 된다. 건물의 입면과
외장의 구성은 삼성그룹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빈번하
며, 이 경우도 그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카톨릭대학 (1971년)

배기형은 천주교 신도가 되면서, 카톨릭 성당의
설계에 관여하게 된다. 혜화동의 대학 캠퍼스 플랜을 계획하게 되
고, 여기에 각 건물을 설계하게 된다. 특히 도서관 건물은 배기형
이 심혈을 쏟은 작품으로 전해지는데, 이때 관여했던 박행일, 박은
영의 증언으로 건물의 내용을 밝혀 볼 수는 있으나 다음 기회로 미
루기로 하고, 다만 노출표면의 콘크리트 조형 건축을 다루는 건축
가는 불란서의 르코르뷔제와 일본의 단게 겐조의 경향속에 크게
영향받은 김중업, 김수근의 열풍속에서도 건축가 배기형이 세밀한
디테일로 마감되는 조형구성에 열중하던 모습을 바꾸어 노출표면
콘크리트를 다루는 것을 보게 된 시기라는 점을 들고 싶다.

서울농협본소 (1973년)

종로 대로에 세워진 단순한 입면을 보여주는 기
능적인 오피스빌딩이다. 단스판의 콘크리트 구조로 사무공간을
해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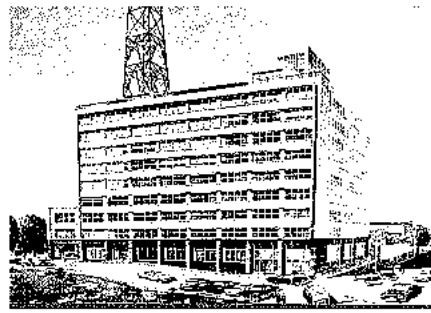
평소 배기형의 조형의지로 설계하던 모습과 비교
하여 생각하면 설계과정에서 제작되어지는 진행과정을 철저히 따
지며 간섭하던 끈기가 바뀌어지면서 단순조형은 즉 모더니즘으로
흐르도록 방임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주택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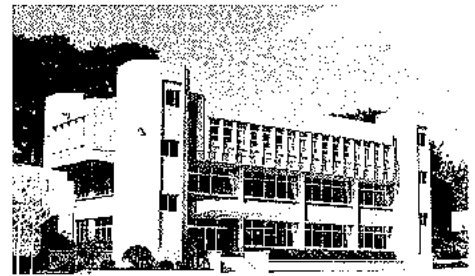
철골구조설계의 달인으로 평가되는 배기형에게
주택설계가 많이 다루어졌다. 삼성그룹의 이병철회장의 장충동주
택, 부산 동래주택 등 공장 또는 대형 프로젝트에 곁들여서 주택
설계가 언제나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주택계획 설계에 많은 흥미
를 쏟으며 오랜 시간 몰두한다. 평면은 공간구성의 개념보다 각실
의 연결을 중요시하는 재래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경향이 짙다. 또
한 입면계획에서 새롭고 참신함을 구하고자 젊은 건축입문자를
지도하며 재능을 발굴하는 과정으로 삼고 이를 통해 젊은 건축 수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서울 종로1
가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10층, 지하2
층 연면적 5,540㎡ 규모로 건축됐다.)



중앙일보사(중앙일보·동양방송은 구명형으로 서울 서소문
에 위치해 있다 / 지상9층 지하2층)



카톨릭대학 도서관(서울 혜화동 /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330㎡)

런지들과 즐거움을 나눴다. 그러나 마감처리와 세부적인 건축요소만은 반드시 그가 완성하려 했다. 청운동 자택이 대표적인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증인들의 증언

· 장기수, 현재 동인건축사사무소 소장(부산) - 배선생이 가장 가까이한 사제 관계이며, 해방 전 후의 활동상을 증언할 수 있는 분이다. 필자가 소속했던 공군본부 기술과의 선임자이며 배선생에게서 전수 받은 설계경험을 바탕으로 공군 시설의 기틀을 닦는데 공헌한 선배이다. 배선생의 전기를 정리하기 위해 수차례 걸쳐 전화 통화를 나누어 담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선생은 일제시대 부산공업고등학교(당시 부산 직업학교, 건축과) 1회 졸업생이다. 동기생으로는 유광택씨가 있다. 졸업후 부산시청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뒤 일본의 아와다 제철소의 니시지마 설계사무소로 옮겼다. 만주의 안산제철소에 증설할 광석 싸이로 설계를 위해서 출장하는 활약상을 들었고, 일본에서 설계한 청사진을 관람하였는데 배선생의 설계 실력에 감탄하였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해방후 귀국하여 모교 부산공업의 강사로 출강하면서 설계사무소 활동을 하였으나 당시 정치적 사회적 불안으로 설계분야가 부진하자 친우와 협력하여 건설회사에서 부사장으로도 활동하였다. 전무는 김중근(?)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윤인구 부산대학교 총장의 의뢰로 부산대학 교사건물을, 현 자갈치시장 근처에 설계하였는데 배선생의 원만한 교우관계로 활동이 넓었다고 한다. 설계활동무대가 서울로 옮겨지면서 배선생의 동향인 중앙건설 조희장의 권유로 부사장을 역임하고 동화부동산의 부사장직으로 관여하며 전철사업을 구상하는 경험도 쌓게 된다. 그 뒤 본격적인 설계활동은 인천제철 관계 설계로부터 전개되었다. 가족관계는 사업으로 유복한 형님과 가정이 불안정한 동생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 이동진, 현재 한민건축사사무소 대표 - 배선생의 친우이며 그의 작품활동을 가장 가까이서 협력하며 비평도 나누던 교분이 두터운 이로 나란히 건축가협회 부회장도 역임했다. 필자는 신건축문화연구소 시절(1955, 6년)에 볼 수 있었던 선배 건축가 활동상 가운데 멋지고 세련된 건축가였으며 배선생과 함께 활동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다음의 글은 이동진 선생 친필 회고록을 정리한 것임.

- 전 략 - 그의 성격은 의리를 존중하며 표면상은 쾌활하게 잘 웃고 남을 잘 웃기지만 마음을 열어주는 편은 아니었다. 그의 고향은 경상남도 김해이고 나는 경상북도 상주이다. 그리고 서로 양반집안의 옛조상의 가계족보를 모신 가문이지만 지금은 평범한 가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어던지 그에게서 는 가문의 기골이 풍겨짐을 느낄 때가 있었다.

그의 결혼생활은 불행하였는데 아마 서너번 재혼

을 해야만 했고 그 내막은 가까운 친우들만 알고 있다. 그러한 내면세계가 있었기에, 명량한 성격임에도 어딘가 우수가 스며 있었다. 그를 작고하기 한달 전에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의 결혼생활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도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고 토로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건축가로서 자신이 설계한 집에서 살았던 행운을 누렸다. 청운동에 있는 70평 규모의 자택이었으며 만년에는 욕안동에 있는 공동 목욕탕을 구입하여 아담한 안채를 곁들여 크게 개조한 뒤 이곳으로 옮겨 정양을 하게 되었으나 끝내 이곳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당시 친우들은 “후로야는 오아지(일어로 목욕탕 주인이란 뜻)”라고 놀렸으나 “결결”하며 유쾌하게 웃던 얼굴이 기억에 떠오른다.

- 중 략 - 그러나 그가 작고할 때까지 15~16년 동안, 어떤 때는 바로 옆에서 또 어떤 때는 어깨너머로 그가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었기에 감히 평야인 평을 한다면, 첫째, 그는 철저히 현실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건축가였다고 본다. 따라서 심한 기교를 부리거나 장식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둘째, 화려한 예술성보다 실용성을 중시했다. 셋째, 그는 언제나 진지하게 작품을 대했으며 바쁘다고 불성실한 작품을 생각하지 않았다. 넷째, 구조역학적면을 대단히 중요하게 쳤었다. 다섯째, 설계도면은 기술적 요구의 표현이지만 도면자체가 아름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미건조하게 보이는 철골구조 도면이라 할지라도 윤택한 느낌이 흘러야 한다고 주장한 일이 있었다. 등등이 그의 작품에 대한 소신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는 실용성, 합리성을 중시하는 작품 취향과 인간적 매력 때문인지 그의 고객은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 삼호그룹의 조봉구 회장, 벽산그룹의 김인득 회장 등 재계의 거물들이 많았고 따라서 우리들은 건축설계계의 재벌이라고 농담을 건넬 만큼 부러워했으며 실제로 우리사이에 술을 사는 빈도도 제일 많았다. 그가 술을 살 때에는 반드시 한 번은 술값을 못 내겠다는 시늉을 했고 계산서를 받지 못해 받으면 “왜 이렇게 비싸” 하는 것이 말버릇이었다. 그때를 회고해 보면 1960년대 초기였으며, 년배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건축가협회 간부들의 모임만큼 즐겁고 재미있었던 시절은 다시는 없었다고 기억된다. 金在哲, 金熙春, 鄭寅國, 姜明求, 金昌集, 宋昉求, 咸性權, 裴基滢, 嚴德紋, 그리고 나(李東鎭)와 어울렸다. 그는 성실한 성격이었음에도, 친우들과 어울릴 때는 좀 야유적 태도와 표현이 특이하여 그것이 매력적이었고 언제나 중심인물의 한사람이었다. 그래서 함께 지내기가 재미있었다. 그러나 남을 돕기를 좋아했고 나도 큰 도움을 받았던 일이 있었다.

그가 작고한 지도 어언 18년이 흘렀고 요즘의 감각으로 젊은 나이라고 보는 62세에 가버린 그의 인생이 안타깝기만 하다. 더욱이 나는 그가 떠나기 2,3일전에 간경화증 말기의 고통을 하소연하던 모습. 또한 그와 맞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고열과 고통의 고동소리를 잊을 수가 없다. “차라리 빨리 가고 싶다” 고

말하던 그의 표정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를 돌보는 사람은 조카딸이라는 낯선 젊은 청년이 있을 뿐이어서 더욱 쓸쓸해 보이는 병실이었다. 그가 남긴 건축설계계의 공적에 비하면 너무나 적적하였고 그의 장례식은 많은 사람이 모여 성대했지만 나에게서는 역시 쓸쓸한 하루였다.

· 김창서. 현재 협화건축사사무소 명예대표 - 1955년부터 10년간 배선생의 건축과 동반한 그의 분신과 같은 중인이다. 본론을 집필할 자료를 몸소 체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에게 의뢰한 자료는 대부분 대화로 나누었고 이를 본 시리즈에 일부 반영되었으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학계에서 그와 연대하여 연구가 이어져 더욱 충실한 역사자료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 다음은 그가 관여하였던 설계 프로젝트의 메모자료이다.

제일모직 대구공장 (면방공장, 방적공장, 염색공장, 기숙사 등), 동양염직사 전주공장, 삼풍제지 창동공장, 영월화학 (본관, 저탄장, 입체트러스 구조(저탄장)), 대구 육군군의학고 (JCA), 동신화학 안양공장 (도금공장 (전기분해공장)), 호남비료 나주공장 (기숙사, 저탄장), 공군사관학교 (체육관, 3Hinged Structure, 도서관, Pyramid Type), 대구 항공창 (격납고, 자재창고, 100,120,160 feet Span), 석굴암 이중 Dome (습기제거를 위한 이중 Dome), 단성사 개수, 피카디리극장, 중앙극장 개수 (2층 관람석 목조), 흥업은행(현 한일은행, 신촌, 을지로, 대구서, 영도, 제주, 광주, 창신, 부산서지점), 조흥은행 (남대문지점), UNESCO회관, 충주비료 (기숙사), 장안빌딩 화재사건(2회), 인천제철 (평로, 분괴공장,기타), 일신제강 영등포공장 (Pipe 구조), 중앙 일보사 건물(구), 제일제당

· 오웅석. 현재 신조건축사사무소 소장 - 공군에서 예편하고 이천승씨의 권유로 1959년 구조사에 합류한다. 유네스코 현상설계와 남산 국회의사당 현상설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배선생을 회고한다. 다음 글은 대화내용을 필자가 정리한 것임.

1958년 종합건축에서 분리된 이천승선생이 배기형씨와 합류하면서 그의 수행 멤버도 대거 구조사로 이적하게 된다. 이때 이선생의 권유로 구조사에 입사하자 현상팀에 가담한 것이 유네스코회관 현상설계였다. 현상팀으로 구성된 멤버는 이동진, 오웅석, 윤도근, 오윤환(작고)이며 약 3,4개월 동안 작업에 몰두하였다. 이동진씨의 스마트하고 세련된 건축적기량으로 팀을 이끌어 나갔으며 각자 열심히 몰두했다고 회고하며 당시 본인은 투시도를 그렸다. 입면도의 기본개념은 좁은 명동골목 가로환경 조건에서 만들었으며 우수한 입면은 이동진씨의 세련된 안목으로 완성된 파장이었다고 말했다.

유네스코회관 현상설계안이 당선되어 구조사의 명성을 높이자 곧 이어서 남산 국회의사당 현상설계팀이 구성되었고, 약 3개월 동안 계획작업에 몰두된다. 이때 배선생이 지도하던 열의는 뜨거웠으며 건축가적 자질이 뛰어나다는 점을 깊이 느끼게 하였다. 계획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경우는 칼질하듯이 단

호하며 주로 기능적인 문제에 철저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낙선되었고 본인은 배선생에게서 떠났다. 표현상의 효과위주의 건축설계보다 건축적 내면적 내용의 충실성을 더 중시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정도를 지키는 건축을 주장하였다. 배선생에 대한 존경심이 깊이 새겨진다.

· 최영규. 현 인하대 교수 - 신건축문화연구소 시절과 1958년부터 62년까지 구조사에 근무하는 동안 배기형 선생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당시 설계했던 중요한 프로젝트는 공군 대구기지 격납고, 유네스코회관, 한일은행 을지로지점, 제일모직 대구공장 등이 있다(설계프로젝트에 관한 증언자료는 해당 건물 해설에 인용되었으므로 생략함).

- 배선생님은 실무에 밝아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예리하게 파악하는 안목이 뛰어났다. 일례를 들면 아침 일찍 출근하여 직원들의 제도판을 돌아보고 퇴근시에 다시 돌아보면서 각자의 설계 작업량과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곤 하였다.

- 항상 자기일처럼 일을 하면 작업능률이 높아진다고 강조하였으며 그 능력은 3~4 배의 성과가 있다는 것을 실증할 수 있는 체형자이다.

- 그는 다정다감하고 무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매사에 충실했으며 원리원칙을 철저히 지켰고, 순박하고 꾸밈없는 성품이었다.

· 김일진. 현 영남대 교수 - 1959년 남산 국회의사당 현상설계 당시 구조사팀에서 현상응모 안을 계획하면서 배선생의 주장과 지도를 받으면서 체험한 그의 건축관과 건축가상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구조사 현상 응모안은 내부실내공간의 자연채광 등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전체 건물면적이 규정을 초과하였다. 그래서 면적수치를 조정하여 제출하려고 하자 배선생의 양심선언은 단호하였는데 “나는 거짓말 모른다(못한다)” 그대로 제출하였으나 예상에서 낙선되고 말았다. 배선생은 열심히 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재주 부리지를 않고, 거짓말은 못하는 건축가로 단정 지을수 있다.

지금까지 등장한 증인들은 건축가 배기형의 왕성한 건축활동시기인 1960년대까지 전반기에 있었던 일화를 전하여 주므로 그의 건축가상을 생동감있게 알아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드는 후반기에 있었던 그에 대한 일화를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은 다음과 같이 젊은 세대로 바뀌어진다.

· 박행일. 현재 종합건축사사무소 다우 대표 - 1965년 서소문의 중앙일보사옥 건설현장에서 설계 지원에 참가하면서 1971년 여의도 통일회관 현상설계때까지 구조사에 재직하면서 건축가 배선생의 후반기 활동상을 지켜 보았던 증인이다. 그러나 관여했던 설계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메모에 그쳤기에 건축역사자료로 발전될 일화에 관해서는 다음기회에 학계와 연대하여

연구가 깊이있게 계속되기를 바란다. 박소장이 보내온 메모에 기록된 설계프로젝트는 1965년 중앙일보사옥, 1966년 유네스코회관, 전주제지공장, 일관제지공장, 1968년 농어촌 개발공사, 농수산물 유통센터 기본설계, 경향신문사옥(실시설계완료 사업중단), 1970년 성북동 서씨주택, 연희동 이씨주택, 1971년 서울타워 기본설계(철골구조, 현남산타워 건우사 장종을 설계), 1971년 카톨릭 대학, 1971년 통일회관 현상설계 당선(여의도, 사업취소) 등이다.

1960년대 후반, 1970년 이전까지의 기간은 건축가협회 활동으로 대외관계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시기다. 따라서 전반기에 보였던 건축설계작품에 열중하며 직접 작도하던 모습은 보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구조사에 의뢰하는 설계 프로젝트도 저조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1970년대는 윤홍갑에게 운영을 떠맡기고 구조사와 자유로운 관계를 갖고 새로운 건축생활을 꿈꾸다가 건강악화로 쓰러지게 되는 과정을 다음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등배(인하대) 교수, 이문섭(인하대)교수 - 군복무 예편후(1966.7년) 구조사에 입사했으며 당시는 설계 프로젝트가 많지 않아 사무소 운영에 활기를 잃을 때였다고 한다.

명성이 높았던 건축가 배기형에 대한 옛날의 참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 조건영, 현 건축사사무소 기산 소장 - 배선생은 늦게 출근하여 자기와 자주 바둑을 상대하였다고 한다. 건축가 배선생은 젊은 건축 후배를 이해하고 좋아하였으나, 대우가 박하여서 2, 3년만에 자주 떠나는 분위기였다고 말한다. 구조사를 거쳐간 수많은 건축인은 김영철, 손 식, 민중식, 손학식, 장응재, 박형삼, 궤은영 등 헤아릴 수 없다.

1976년에 구조사를 윤홍갑 소장에게 물려주고 난 뒤 떠나는 배선생의 행보는 김석철(아키반)소장과 방수일(범일건축)소장의 증언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 김석철, 현재 아키반 소장 - 배선생이 건축가협회 회장일 때 가협회지, 현대건축 창간을 제작하였으며, 이때 배화장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돌연 전화로 배선생의 호출을 받고 술자리를 함께 했다. 가족관계를 따져 보니 배선생과 김소장 부친의 친우와 막역한 관계여서 더욱 배선생의 호감을 질게 하여 김석철설계사무소에 발걸음이 잦아진다. 이때 김진균(현 서울대)교수, 이상해(현 성균관대)교수 등 멤버들과 어울리자 산업은행 지명현상설계 건물 김석철사무소에서 제작하기로 제안하여, 구조사와의 관계를 의식하여 사양하였으나 이미 배선생의 마음은 구조사를 떠나 있었다. 현상설계 진행에 들어가자 매일같이 참견하며, 계획안의 세밀한 문제까지 따지는데 열중하며 생기가 넘치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예를 들면 김종업씨는 계획안의 기둥만 합의하면 실

무진이 제작한데 반해서 배선생은 끝까지 3개월 동안 꼼꼼하게 챙겼다고 한다. 배선생은 "건축의 생명은 디테일에 있다."고 했다. 현상결과는 당선에 실패하였으나, 건축가가 성실하게 몰두하며, 실체의 건축물을 다듬는 듯이 세밀히 분석하면서 계획과 설계를 완성하던 배선생의 모습을 회상한다. 중동건설 붐이 일어나자 벽산그룹 건설연구소가 구성되는데, 여기에 김석철 설계팀을 합류토록 유혹하였으나 방수일과 몇사람이 움직이는 것으로 그쳤다.

· 방수일, 현재 범일건축사사무소 소장 - 김석철설계사무소에서 산업은행 현상설계를 마치고 한국건업의 건설기술연구소가 설립되어 배선생의 주재 아래 한상묵(현 삼우)과 함께 연구원이 되어 프리체브 연구에 열의를 쏟게 된다. 그러나 중동건설에서 타격을 받게 되어 연구소가 위축되어진다. 이때 배선생의 건강도 악화되어 암수술을 받게 되었으나 회복이 양호하였다. 마침 동해필프 사택단지 계획을 맞게 되어 다시 생기를 찾고 울산 현장을 답사하는 등 계획에 열중하다 과로를 자초하여 더욱 병세가 악화되고, 영원히 건축계를 떠나게 됐다. 돌이켜보면 선생은 엔지니어가 뛰어난 분이며 매사에 앞서가는 분이였다.

건축가 배기형의 글을 마치면서

건축사지의 특별시리즈 기획에 의해서 방치되었던 한국근대건축역사의 참모습을 바로 찾고, 세우는 목적에 따라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배선생의 업적과 우리에게 남겨준 건축적 유산을 올바르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던 죄책감에눌려 있던 때 타의에 떠밀려 배선생을 다시 찾았으나 이미 사라진 흔적이 되어버린 채 아무리 둘러 보아도 그의 진가를 밝히기에는 불가능한 과거로 묻혀 버렸다. 다행히 증언들의 내용을 모아 배선생을 추모하는 뜻을 담은 시도였으나 건축가 배기형의 진가를 기록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그에 관한 글을 매듭지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 본다. 구조의 무관심과 소홀한 기초위에서 건축의 형태와 공간을 꿈꾸는 사상누각의 건축이 남무하는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르네상스의 완성은 논리적인 분석과 해부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예술의 꽃이 피었다. 한국적 상황을 직시하며 우리의 건축을 밝히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해 본다. 한국근대건축역사 연구의 조명을 보다 폭넓게 살피면서 시대상과 깊은 관련을 관찰하는 연구 시야를 가지면서 보다 밀도를 가져야 한다. 철골구조의 정체를 보다 비중있게 건축계에서 연구 개발하여 미래건축에 대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누구보다 깊이있게 열정을 태우며 건축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던 건축가 배기형 선생의 자취를 되새겨 본다.

건축직 공무원 - 그들의 생각과 오늘날의 위치

Architecture Bureaucracy Its Current Stance and Status

윤혁경 / 서울시 주택국 건축사무관

by Youn Hyuk-Kyeong

글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대략 60만 명쯤 된다. 이는 군인과 경찰, 교육 공무원을 제외한 순수 행정공무원만을 말한다. 서울시 공무원은 55,161명이다. 그 중 건축직 공무원은 1.7%인 936명에 불과하다.

행정은 서비스 산업이다. 공무원의 수가 많아야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 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들에게는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여론도 있다.

1960년대를 거치면서 공무원들의 선도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오늘날의 경제 성장이 있었겠느냐는 주장과 함께 오늘날 성장의 걸림돌이 된 정경유착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 냈다는 비난의 소리도 있다.

그만큼 공무원의 비중이 높았다는 이야기도 되겠는데 과연 오늘날에도 그 정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느냐 또는 기대할 필요성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제적인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기구를 감축하고 공무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한다. 민간 기구에 업무를 이양하여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은 기획력만 갖고 집행은 민간 기구가 대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공무원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영 기업체의 80% 수준, 일반 기업체의 60%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국가의 봉사자라는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경제 논리로 매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행정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탓한다. 친절할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 다 타당성 있는 주장이다.

이런 문제는 논외로 하고 오늘날 건축직 공무원들 자신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식구조가 바로 일선 행정에 그대로 투영되어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이고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 행정의 영향은 다른 무엇 보다도 크게 나타난다. 또 건축사와 시공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직 공무원의 성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1997. 7) 서울시 건축직 공무원 9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728명이 응답한 자료를 정리하여 '건축직 공무원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를 기초하여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서울시 건축직 공무원이 우리나라 건축직 공무원 전체를 대변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지표로서의 가치는 있으리라 본다.

어떤 인력들로 구성되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936명의 서울시의 건축직 공무원은 서울시의 본청에 68명, 지하철이나 건설안전본부, 사업소 등 시공 분야에 110명, 25개 일선 구청과 동사무소에 75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직접 건축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본청, 구청,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826명으로 전체의 88%에 해당한다.

직급별로는 2급이 1명, 3급이 2명, 4급이 22명, 5급이 45명, 6급이 172명, 7급이 231명, 8급이 227명, 9급이 236명으로서 실무를 전담하는 6급이하 공무원은 전체의 92.5%를 차지하고 있다(97. 9월 현재). 학력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고졸이 전체의 12.3%, 전문대졸이 25.7%, 대졸이 56.8%, 대학원졸이 5.2%로 분포하고 있다. 그들이 소유한 자격은 건축사가 28명, 건축기사 1급이 284명, 건축기사 2급이 104명 이었으며, 기타 자격 소유자가 83명이다. 물론 이 중에는 중복 소지자가 포함

되어 있다.

이들 중 설문에 응답한 728명(전체의 83%)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연령별로 30대가 52.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24.6%, 40대가 19.8%, 50대 이상이 2.7%를 차지하고 있다.

경력면에서는 6년에서 10년의 범위가 29.3%로서 가장 많다. 건축 신고 업무를 동사무소에 이양하면서부터 최근 9급 공무원이 많이 들어와 2년 이하의 근무자가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경력자가 43.8%를 점유하고 있어 행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비전공자도 1995년 초에는 약 9%였으나 현재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표 1. 설문 응답자 구성

구 분	사 례 수	백 분 율
• 직급별		
9급	172	23.6
8급	198	27.2
7급	187	25.7
6급	134	18.4
5급	37	5.1
• 연령별		
20~30세	179	24.6
31~40세	385	52.9
41~50세	144	19.8
50세 이상	20	2.7
• 근무 경력별		
2년 이하	175	24.0
2~5년	144	19.8
6~10년	213	29.3
11~15년	76	10.4
16년 이상	120	16.5
• 현 근무 부서별		
동 사무소	45	6.2
구청	560	77.1
사업소	22	3.0
건설본부	67	9.2
시청	32	4.4
• 학력별		
고졸	88	12.3
전문대졸	184	25.7
대졸	407	56.8
대학원 졸	37	5.2

자신의 업무에 얼마나 긍지를 가지고 있는가?

자신의 업무를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건축직도 그 중의 한 부류에 속하는 직종이다. 과연 그들은 자

신의 업무에 얼마나 만족하며 또 긍지를 갖고 있을까?

송파구청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동사무소에 발령된 9급 공무원 한 사람이 자신은 건축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포부를 갖고 건축직으로 들어왔는데 건축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업무만 시킨다면서 건축 관련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인사 고충 상담을 받았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결혼하기도 어렵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건축직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업무에 대한 만족 여부를 물었더니 52.9%가 보통이라고 답하였다.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는 경우는 27.9%이며 반대로 불만족한 경우도 16.8%나 되었다. 9급과 5급의 만족도가 40%가 넘었으며, 불만족도는 9급, 8급, 7급, 5급, 6급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서별로 건설본부, 시청, 동사무소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사업소와 구청은 상대적으로 불만족도가 높았다.

불만족에 대한 이유도 다양하다. 건축직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가 공통적으로 많았으며 청탁, 민원 폭주, 진정과 시달림, 열악한 근무 환경, 인사 불공정, 법규의 복잡성, 불필요한 업무, 업무량 과다, 일의 성취도 미흡, 보수 문제 등이 불만족의 이유였다.

주요 애로사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건축 진정이다. 건축 진정은 구청 행정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많다. 진정을 해결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따진다면 아마 행정력의 70%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응답자의 42.6%가 진정해결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대부분의 건축직들은 진정 해결사 노릇을 한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서 중재를 하면서 항상 갈등을 느낀다. 해결사로 전락한 자신의 모습에 비애감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각종 감사나 검찰 등 자료 요구에 대한 불만도 25.3%나 된다. 감사원이나 서울시, 자체 감사기관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의회, 언론 등 보고해야 할 부서는 수없이 많다. 다른 부서의 감사나 조사시에도 건축과는 악방의 감초처럼 빠지는 법이 없다. 세무, 위생, 도로 관리, 형질 변경, 주차 관리 등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 1년 내내 피감사기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 외에도 위법 건축물의 단속(18.1%)이나 건축 인허가 업무(2.5%) 등의 애로 사항을 들기도 하였다.

표 2. 건축 업무 수행 시의 애로사항 단위 : %

구 분	건축진정	자료 요구	위법건축물 단속	건축 인허가업무
계	42.6	25.3	18.1	2.5
동사무소	26.7	8.9	35.6	13.3
구 청	45.7	26.1	16.3	2.1
사 업 소	31.8	40.9	27.3	0
건설본부	35.8	25.4	17.9	0
시 청	31.3	25.0	18.8	0

근무 부서별로 보면 동사무소에서는 위법 건축물의 단속을, 구청과 시청의 경우는 건축 진정을, 사업소에 서는 각종 자료 요구에 대해 애로사항 1순위를 꼽고 있었다.

건축법은 정말 어려운 법이다.

일반인들이나 건축사에게 있어서도 건축법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건축직 공무원에게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응답자의 63.5%가 어렵다고 한 반면 30.4%만 보통이라고 하였다. 쉽고 답한 사람은 겨우 6명에 불과했다.

구청의 실무 계장들과 근무 경력이 높을수록 어렵다고 답하고 있다. 15년 이상이 70.8%, 10년 이상이 64.5%, 5년 이상이 62.4%, 2년 이상이 61.8% 이지만 2년 이하의 경력자는 60.6%만 어렵다고 답하였다.

해석을 하기에 난해한 규정은 '대지와 도로 관계(28.0%)'를 가장 높게 꼽고 있으며, '건축물의 높이 제한(21.4%)' '건축물의 용도 분류(18.0%)' '용도 제한(17.7%)' 기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건축 법규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모호한 표현도 간결하게 표현되기를 원했다.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물었고 필요하다면 단순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축물의 높이와 바닥 면적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사용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많았다. 그 외에도 주거용 건축물의 외관을 고려하여 모임 지붕이나 박공 지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건축 허가권과 건축사 행정처분 권한의 건축사협회 이양, 일조권 기준의 남쪽 방향으로의 전환, 건축허가 도면의 전산화 허용, 소방관계 부분은 건축법과 분리하여 소방법으로 다루는 등 반짝이는 제안이 많았다.

표 3. 건축법 중 가장 난이한 조항

단위 : %

구 분	대지와 도로관계	건축물 높이제한	건축물 용도분류	피난시설 용도제한	기타
계	28.0	21.4	18.0	17.7	4.3
9급	29.7	16.9	16.3	20.3	2.9
8급	31.3	19.7	21.2	15.2	3.0
7급	25.7	24.1	16.0	18.2	6.4
6급	26.9	26.1	17.2	17.9	3.7
5급	18.9	21.6	21.6	16.2	8.1

건축사 업무 대행은 정말 잘되고 있는가?

1983년 강동구청에서 처음 실시한 설계 감리 구분 업무가 그 해 10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되고 11월에는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처음과 달리 의도가 퇴색

하는 바람에 많은 건축사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1994년 1월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동 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설계자가 감리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규모 건축물의 대부분이 시공자가 건축주로부터 일괄도금을 받아 건축사를 선정하는 현실 여건에서 과연 당당하게 감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고 보는가? 고객인 시공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도감독할 수 있겠는가 하는 논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감리가 단순히 위법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감리의 필요 성마저 검토해야 할 단계가 아니겠는가? 어찌 되었던 설계 감리 구분 제도가 폐지된 지금 건축법 제 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 대행이 소기의 성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외로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민원이 증가(23.8%)한다던가 위법사항이 늘었다(21.3%)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반면 잘 되고 있다는 답을 한 경우는 26.9%, 민원이 줄었다고 답한 경우는 9.3%에 불과했다.

6급과 5급 공무원들의 약 50%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위법이 늘어나니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강력한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설계 감리 업무의 구분 폐지 후 감리비를 제대로 받는 건축사가 없다고 한다. 감리는 실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실질 경비인 감리비를 받지 않는 것은 결국 감리를 하지 않는다는 말로 귀결된다. 충분한 직원을 확보해서 성실한 감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감리비를 받아야 한다.

1996년도에는 1,238명의 건축사가 위법 건축사로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3명의 등록 취소와 600명의 업무 정지에 이어 635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1997년 2/4분기 현재 595명의 건축사가 처분을 받았는데 4명의 등록 취소와 283명의 업무 정지, 308명의 경고 처분이 있었다.

18개월 동안 징계 받은 건축사가 등록된 2500여 서울 건축사의 73%에 해당함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 경우 한 건축사가 여러 번의 징계를 중복 받은 사례를 감안 한다 하더라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님은 분명하다.

그 외에도 현장 조사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기록할 수 있도록 양식을 보완하고 상설 점검 시기를 착공 즉시 하여 위법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감리단의 구성, 공무원의 사용 승인 점검 제도 부활, 현장 관리인에 대한 제재 강화, 위법 시정 비용의 감리자 분담 방안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상설 점검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1996년 건축사 대행분의 상설 점검 대상이 30,474건이었다. 그 중 30%인 11,149건을 점검하여 위법은 11.7%인 1,310건이 적출되었다. 1997년 1/4분기 통계를 보면 2,376건을 점검하여 12.4%인 295동의 위법이 적출되었다. 구청에서 실제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300명이라 할 때 1인 당 년 37건을 점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형 건축물과 대형 건축물까지 합한다면 50~60건에 이른다. 물론 전정이나 인허가시 또는 다른 사유로의 조사는 이보다 몇 십 배는 더 많다.

현재 자치구에서 실시 중인 건축사 업무 대행분에 대한 상설 점검은 건축사 조사분은 분기 1회, 중형 건축물과 대형 건축물은 년 1회, 안전 점검은 분기 1회, 미준공 건축물의 점검을 위해 년 1회 등 중복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상설 점검의 회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26.4%나 되었다. 물론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른 의견으로 주거용은 현행대로 하되 비주거용은 전수 조사하자는 안도 16.3%나 되었다.

과장(5급)은 전수 조사를(27.0%), 계장급인 6급은 현행대로 하되 비주거용은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상설 점검을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들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9급 22.1%, 8급 30.8%, 7급 34.2%) 직급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 상설 점검에 대한 의견

단위 : %

의견 직급	줄여야 한다	현행대로	주거용 현행 나머지 전수	전수 조사
9급	22.1	26.7	16.3	13.4
8급	30.8	24.7	16.2	15.2
7급	34.2	27.8	11.2	13.4
6급	16.4	26.1	25.4	20.9
5급 이상	18.9	24.3	10.8	27.0

위법 건축물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사용 승인하자

건축직 공무원들은 위법 건축물을 단속하고 처리하는 일에 큰 부담감을 갖고 있다.

위법 건축물을 적발하는 일과 시정 지시와 촉구 지시 등 계속적인 현장확인 해야 하는 일과 이 강제금의 부과 징수, 위반 건축주의 고발과 이에 따른 경찰 검찰의 출동, 위반 건축사의 행정 조치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기피하고 싶은 업무 중에 속한다.

더구나 위법은 시정이 용이하지가 않기 때문에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담당자로서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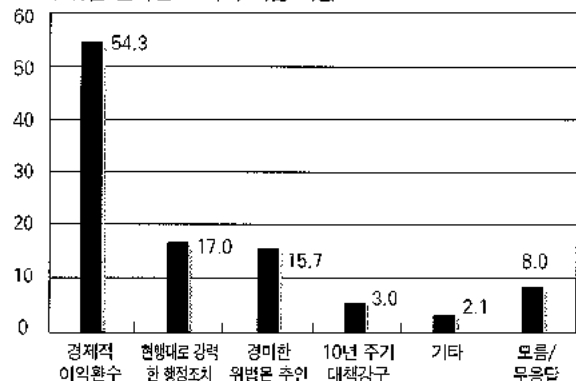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벌금이 약하기 때문에(34.1%) 설령 고발하더라도 처벌이 경미하게(33.5%) 되어 시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정 효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5급 (75.6%), 50세 이상의 고 연령층 (85.0%), 사업소(90.9%)와 시청 근무자(75.0%) 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위법 건축물은 사실상 철거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할 바에야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사용 승인하자는 의견이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현행대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자는 의견(17.0%)이 있는가 하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미한 위법 사항은 추인하자는 의견(15.7%)도 적지 않게 있었다. 10년 주기로 위법 건축물을 사용 승인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주장한 사람도 있었으나 이는 건축법의 존립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그동안 두 번에 걸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미준공 건축물을 정리한 바가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선거공약으로 다시 위법 건축물을 처리해 주리라 기대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특별법의 제정 보다는 위법에 대한 불이익을 주면서 사용승인 처리를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직급별, 연령별, 근무 경력별, 근무 부서별로 공히 50%를 상회하고 있어 건축법 개정 등의 경우에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표 5. 위법 건축물 조치에 대한 의견



건축허가 관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통일할 수 없을까?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서류가 각 구청별로 달라서 건축사의 불만이 의외로 크다. 많은 공무원들도 (33.4%) 간소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과반수가 넘는 59.6%는 현행대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하고 있어

건축사와 공무원의 시각이 다소 차이를 알 수 있다.

현행대로 하자는 주장은 6급(70.9%)과 5급(62.2%), 10년 이상 경력자(65.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간소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건축 착공시 제출되는 실시 도면과 감리 중간보고서의 제출 제도의 폐지를 원했다. 착공시 제출되는 도서를 보관할 공간도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감리 중간 보고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도 설비 도면 첨부를 폐지하고, 도면의 크기를 A4 크기로 축소하자는 안과 허가 및 사용 승인은 건축사의 검토 의견서만을 제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각 자치구별로 상이한 첨부 서류의 통일에 대해서는 2/3이상(69.9%)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6급(74.9%), 50세 이상의 고연령층(90.0%), 15년 이상의 경력직(74.2%)에서 특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공동주택의 사업 승인시 제출하는 서류가 각 구마다 달라 특히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토지대장, 주변 현황 사진, 정확도 사진, 상수도 공사비 영수증, 건축선 후퇴시의 인감증명, 사용 승인 관련 사진 등을 아직도 장구하는 사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다

초임 공무원을 일선 행정기관에 배치하기 전에 최소한의 전문교육을 거친 후에 배치할 것을 제언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선 민원 담당부서에 배치함은 사막에 홀로 버려두는 것과 같다. 살아 남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가 충분한 경험을 쌓기까지에는 숱한 시행착오를 겪을 것인데 결국 그 시험 대상은 일반 민원인이 아니겠는가? 현실이 그렇다. 더구나 비전공자들이 건축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늘어남에도 사전교육 없이 그냥 배치하는 것은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설문에 응한 9급 공무원의 17.9%만이 건축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으며 83.1%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답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동사무소 근무자(대개 9급 공무원으로 45명 응답)의 66.7%와 일선 구청 공무원(560명 응답)의 38%가 전문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공무원의 86.1%가 스스로 초임발령 전의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건축적 공무원들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업무 처리 능력은 과반수가 넘는 56.7%가 보통이라 평가하고 20.1%는 우수, 1.6%는 매우 우수하다고 한 반면 13.7%가 미흡하다고 답하였다. 직급과 연령이 높을수록 우수하다고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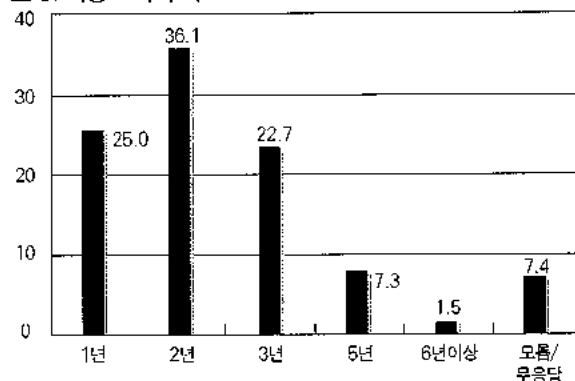
가하였으며, 시청(34.4%), 사업소(31.8%), 건설본부(28.4%)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9급 공무원의 경우 36%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한 기술도입이 필요하다는 사람(39.7%)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50.5%)이 90.2%였다. 연수교육의 주기는 평균 3.88년이 적합하다고 했는데, 8급 이하는 2내지 3년마다, 7급 이상은 4년마다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육내용은 건축법규와 건축관련 법령(59.2%), 건축 일반 행정(32.7%), 건축 시공(11.0%), 영선 업무(6.2%), 품질관리(5.3%), 건축구조(4.5%), 전산 CAD(3.7%), 민원처리 요령, 인허가 업무, 공문서 작성, 건축 설계, 건축 계획, 도면 해석 등 여러 분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교육전문기관으로는 건설교통부(40.3%), 서울시(22.1%), 대한건축사협회(1.3%)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적정 교육 주기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했던가?

구 소련의 그로미코 외상은 대통령이 몇 번 바뀌어도 외상직을 계속했다. 북경시의 외교담당과장은 20년을 그 직에 있었다. 일본의 공무원도 한 곳에 오래 몸담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장관은 파리 목숨이다. 평균 1년을 넘지 못한다. 일반 직원들도 한 곳에 오래 근무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보다 나은 조건의 부서를 선호하는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한 곳에 오래 두면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순환 보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인사 정책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생각해 보자. 보통 사람이 보사행정도 다루고 청소행정도 다루고 교통행정을 다룬다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분야의 행정을 파악하는 데에만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고 익숙해져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0년은 넘게 근무해

아 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업무에 익숙해질 때쯤이면 다른 부서로 옮겨 가버린다. 두루 넓게는 알지 모르지만 깊이가 없다. 현재의 인사제도로서는 결국 전문가를 양성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건축직 공무원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한가지 직종이므로 꾸준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은 도달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동안 부조리 해소 차원에서 2년 주기로 인사 이동이 있었다. 그러다가 지방자치제의 도입으로 순환인사가 불가능해졌다. 주기적인 순환인사에 익숙해 있던 상황이 변함에 따라 많은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현부서 근무년수를 조사해 보면 1년 이하가 40.1%, 1~2년이 21.4%, 2~3년이 29.3%이며 3년 이상인 경우도 9%나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신규 발령된 9급을 제외하면 11.7%(65명)가 3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건설본부가 장기 근무자(3년 이상 37.3%)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건축직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희망사항은 일정한 원칙에 따라 순환 보직할 것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를 바라고 있다. 순환기간은 2~3년이 적당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88.8%로 가장 많으며, 희망사항을 반영하고 발령 대상을 사전에 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39.7%)와 주거지 주변으로 발령되기를 원하는 경우(28.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건축직이라 하더라도 건축행정에 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계나 시공 분야에 능한 사람이 있다. 건축사와 시공 기술사가 다 같이 건축을 전공했지만 접근하는 방향은 전혀 다르다. 이를 무시한 교체 발령으로 행정의 혼란을 가중시킨 우(遇)를 저지르고 말았다.

행정분야의 공무원이 시공분야에서 겪은 혼란이라던가 시공분야의 공무원들이 행정분야에서 겪은 혼란은 서울시의 건축행정과 시공기술을 한참 후퇴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노하우(Know how)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기술분야의 노하우는 더욱 그렇다.

표 7. 인사 발령시 희망 사항

단위 : %

구 분	희망부서반영 / 발령대상 선 공개	주거지 주변 발령	전문성 고려 발령
계	39.7	29	25.0
동 사무소	28.9	11.1	53.3
구 청	39.6	31.6	22.7
사 업 소	50.0	18.2	22.7
건설본부	38.8	29.9	25.4
시 정	53.1	9.4	28.1

사족(蛇足)을 단다면

건축직 공무원은 고달프다.

건축사들에게는 경원의 대상이고 건축주들에게는 기피의 대상이고 수사나 감사기관에서는 감시의 대상인 게 오늘날의 건축직 공무원들이다.

더구나 일반인들에게는 부조리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낙인 찍혀 있는 상태에서 자존심도 금지도 지킬 수도 없는 게 솔직한 오늘의 현실이다.

그들 스스로 만든 문제가 많았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들만이 책임질 문제이던가? 건축주는 책임이 없었는가? 시공자는 책임이 없었는가? 설계자는 책임이 없었는가? 감리자는 책임이 없었는가?

이를 탈피하는 길은 스스로 변하는 수밖에 없다. 개인은 결심 여하에 따라 변할 수는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조직 전체가 변한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법률과 제도, 관행이라는 굴레에서도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여간해서 쉽지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언젠가 한 번 돈키호테 같은 짓(?)을 해본 적이 있었다. 관행적으로 주고 받는 행태를 벗어나려고 하였다. 안 받고 안 주기 운동을 펼친 것이다. 결과는 너무나 빨리 다가왔다. 조직 내부에서부터 조직적인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인사 부서에서는 불시 출석 점검을 하고, 감사 부서에서는 자잘한 진정까지 직접 조사를 하여 경미한 잘못을 들추어 책임을 물기도 하였다. 문서 처리 부서에서는 그동안 눈감아 주던 부분까지 밝혀서 지연 처리했다고 경고장을 발부했다. 금단 현상이 여기 저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바람에 직원들이 겪은 수모는 말로 다할 수가 없었다.

다른 곳에서는 건축민원실을 만들면서 건축 행정용 구청장 직인을 만들려 했다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못들을 말도 들었다. 그것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인 양 불쾌하게 받아들인 것이었다.

법률과 제도, 관행을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 했던 사건들이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변하고 말 것이다.

주한 프랑스 대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Dear Mr. Jean-Paul REAU, Ambassador

안상범 / 건축사사무소 미당

by Ahn Sahng-Beom

This letter is concerning the recent event, "The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 The French Touch". Which took place last 25 november at shilla hotel dynasty Hall. This is only to express my thoughts and views concerning the event. (이 편지는 지난 1997년 11월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있었던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 The French Touch" 를 참여하고 느꼈던 평가이자 개인소신입니다.)

예전 언제쯤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프랑스 문화(역사)조사단이 우리 천년문화유산인 석굴암을 연구하러 온다하여, 우리 문화부가 갑자기 청소하고 묵은 때를 빼고 손님맞을 준비로 법석을 떠 한 후, 수일 뒤 프랑스 조사단이 와서 말끔해진 석굴암을 보았다 합니다.

대사님께서도 우리의 석굴암이나 다른나라 고적들을 가 보셨을 것입니다만, 그들 조사단의 느낌이 어떠했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천년의 숨결이 깃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것을 지킬줄 모르는... 이것이 우리의 우리 것에 대한 문화인식도 였습니다. 이것과 연결되어 프랑스 건축가들이 이곳에서 건축활동 하는 것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 수십년전 일본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유산이란 것이 조선총독부였고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는데는 50년이나 걸렸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지배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고속전철이라는 과제를 놓고 경제적 · 문화적 지배가 되지 않을까 하여 고심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그것보다 우리 사회에 과연 그것이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예전에 저는 EURO STAR도 타 보았습니다만 과연 그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배낭여행을 했던

저를 편하게 해줬다고 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기껏해야 400km정도인 우리나라 남한땅 위아래를, 뽀뽀뽀뽀 중소도시를 다거쳐서 440km노선을 TGV로 다니게 될 것입니다.

전차의 사속이 200km이상이면 될합니까? 역 시간 평균거리라야 50km정도 밖에는 되질 않을텐데 말입니다.

만일 당신네 건축가들이 문화의 사절로 와서 우리네 도시와 농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건축활동할 의지가 있었다면 "당신네(한국) 나라는 이런 고속전철 따위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조용히 가는 기차(전차든 아니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빠른 전차는 바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바람이 너무 세면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농작물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잘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고하십시오."라고 권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Jean Nouvel, Portzamparc등의 많은 건축가들이 국내에 들어와 많은 빌딩을 설계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고 아니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정자들이 서민들에게 "고속전철은 빠른 것입니다. 여러분을 편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라며 당신네 정권과 짜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정부나 당신네 정부나 매우 빠르다는 것을 강력히 부각시키고 나섰습니다. 거기에서 당신네 건축가들은 "전철지니가는 곳을 이렇게 판자로 막고 물감을 칠하면 빠른 것 때문에 어지럽게 느껴지지도 않고 주위 자연과도 조화하고 새로운 문화가 탄생할 것입니다. 당신네 나라는 5천년의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프랑스)도 2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200년입니다. 역사가 깊은 나라는 역사가 깊은 나라끼리만이 문화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데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며 업지를 물을 닭기에 바꿨습니다.

존경하는 Jean Paul, REAU 대사님!

미안하지만 우리 역사의 문화, 우리만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건축문화가 어떤건지 아십니까?

우리 건축은 석굴암에 끼어 있던 때, 쌓인 먼지외도 같은 어머님의 꾀죄죄한 때문은 저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말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감히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한다거나 고속전철역사와 선로변 차음벽을 디자인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 하십시오.

Jean Nouvel의 전위적인 유리벽도 좋고

Portzamparc의 진하게 화장한 신부얼굴도 좋습니다만, 먼훗날 그 건물들이 쏘모(유행)를 다하고 Jean Nouvel이나 Portzamparc이 설계한 건물에 그들의 유품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변경될까 하여 걱정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런 건물 양식이 무작위로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식의 Jean Nouvel나 Portzamparc의 유품은 프랑스에나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유리벽에는 때가 낄 수 없습니다. 우리 문화속에 있는 자연조화의 역사들을 유리벽을 통해 유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숨막히는 유리문과 켜켜한 된장냄새마저 통하게 하는 창호지는 더럽습니다. 당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우리의 적지심체오절도 창호지에 씌여 있습니다.

당신들과 우리사이엔 Jean Nouvel의 유리벽이 있습니다. 서로 볼 수는 있으나 만지고 느낄 수는 없습니다. 서로 숨결이 통하려면 유리벽을 허물고 오십시오.

우리에게 창호지로 만든, 병풍이 있습니다. 병풍은 오래 묵으면 때가 끼는 것이며 필요할 땐 막을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습니다. 병풍은 L' Arche de la Défense에 바람을 막아 놓은 유리벽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감히 청컨대 바람이 통하지 않는 유리벽으로 더 이상 우리문화를 가두려 하거나 고속전철의 빠른 바람으로 쌓인 먼지를 날려 보내려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우리 때(먼지)를 보여 주지 못한 것(석굴암 등)이 원인이지요.

때는 감추고 싶은 것이니까요.

이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씩씩진 유리벽을 깨고 우리의 때를 과감히 보여줄 때가 말입니다. 금은 흙속에 있어도 금이고, 진주는 조개안에 있을 때도 진주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숨어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특히 캐나다의 퀘벡에서 프랑스 후예들이 그들 문화를 유지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땅에서 우리문화유산을 누리고 성장시키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건데 우리 문화를 보존하도록 지켜주는 것이 진정 당신네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문화에 대하여 갖고있던 느낌이며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럼 못다한 말씀 다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만 그칩니다. 감사합니다.

협회소식 / 107
건축계소식 / 111
현상설계경기 / 115
해외잡지동향 / 123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30
신입회원 / 132
게시판 / 133

협회소식 KIRA news

이사회 개최

98년도 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안) 승인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정기이사회가 구랍 9일(제17회)과
29일(제18회)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
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
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이사회 광경

■ 제17회

〈부의사항〉

- 제1호의안 : 98년도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안) 승인의 건
- 각 위원회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를 위해 현 19개 위원회(분과위 포
함) 가운데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해
14개로 축소하고 전체 위원수도 줄
여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한
원안을 승인.
- 단, 담당이사 및 위원선임, 업무분장
등 세부적인 사항은 회장에게 위임커
로 함.

〈주요 개편내용〉

구분	개정 내용	비 고
폐지	- 연금정산위원회 - WTO대책위원회	- 연금정산 완료 - 각 위원회 공통 고려사항
통합	- 공제조합설립추진위원회 + 회관재건추진위원회 → 특별사업추진위원회 - 홍보위원회 + 편찬위원회 → 홍보·편찬위원회	- 유사 위원회 통폐합

- 제2호의안 : 직제/사무분장규정 및 인
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시·도건축사회의 직제를 자체실정
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
록 하고 본회와 시·도건축사회간의
직급차 등을 폐지토록 한 원안을 승
인.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개정 내용
제13조 (직제 및 직급)	- 직제:시·도 건축사회의 직제가 회원수를 기준으로 구분 → 폐지 - 직급:본회와 시·도건축사회간 직급차등 → 폐지

- 제3호의안 : 강원건축사회 직원정원
조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현행 1급을 1명, 3급
갑 1명, 4급갑 1명, 6급갑 1명, 7급
갑 6명으로 되어있는 직원정원(총
10명)을 1급을 1명, 2급을 1명, 3
급을 1명, 5급을 1명, 6급갑 3명, 6
급을 3명으로 조정)
- 제4호의안 :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
의 건
- 원안대로 승인(강사설외 및 업무활
성화를 위해 회원과 대외인사의 시간
당 강사료를 동일하게 지급 / 회원 5
만원, 대외인사 10만원→ 회원 10만
원, 대외인사 10만원)
- 제5호의안 : 임의적립금 차입기간 연
장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11회
이사회(97. 7. 29)에서 일시 차입한

378,400,000원 중 미 반환금 178,400,000원에 대하여 연회비 성격의 인력관리비 납부실적이 부진하고, 연내 전액징수, 세입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98년도에 반환토록 함)

- 제6호의안 : 건축연구소 연구원 채용 승인의 건
 - 책임연구원 1인과 연구원 1인을 채용키로 함. 단,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위원회에 위임키로 함
- 제7호의안 : 인사위원회 구성(안) 승인의 건
 - 회장에 위임키로 함
- 제8호의안 : 사무기구 개편(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단 추가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회장과 김무언부회장에 위임키로 함.
 - 협회 업무영역 확대 및 시장개방 등 대내외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사무조직으로의 개편을 위해 기업형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현 1실1처4부12과 기구를 본부장제를 도입해 2본부(기획운영·행정관리), 4실(기획조정·회원지원·경력관리·정보관리), 1연구소(건축) 체제로 전환
- 제9호의안 : 징계위원회 결정사항 승인의 건
 - 97년도 하반기 정기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조치로 아래 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대로 징계함

징계대상자	직 위	징계결정사항
조병은	건축사시험처장·기획실장	직위해제
윤동석	기획부장	직위해제
권오성	총무부장	감봉 2개월
김용경	건축부장	감봉 1개월
양원석	사안부장	감봉 1개월
한강일	회원부장(직무대리)	경고
고한상	총무부 경리과 대리	경고
김진배	서울건축사회 총무부 대리	견책

〈건설기술자 경력증명 발급수수료 조정(안)〉

구 분	현 행	조 정 (안)	조 정 금 액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3,500원/부	3,000원/부	↓ 500원/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0,000원/인 (10명 초과시부터 1인당 1,000원 추가)	7,000원/부 (10명 초과시부터 1인당 500원 추가; 상한금액 30만원)	↓ 3,000원/부 (초과시 ↓ 500원 및 상한금액 신설)
참여기술자(P.P, P.Q) 확인서 발급	3,500원/인	3,000원/인	↓ 500원/부
건설기술경력증 갱신 또는 재발급	8,000원/건	(지동)	(변동없음)

■ 제18회

(부의사항)

- 제1호의안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 발급수수료 조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 발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결의함(상단 표 참조)
- 제2호의안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결의문 채택 승인의 건
 - IMF 경제위기에 따른 협회의 입장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한 후 재협의키로 함
- 제3호의안 : 건축연구소 연구계획(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건축연구소 연구계획(안)〉

연구과제	연구기간
건축법 및 관련법령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97년 12월~ 98년 2월 (2.5개월)
- 소규모 건축물의 활성화를 중심으로(1) - 건축사제도 및 업무개선에 관한 연구(1)	"
- OECD가입 29개국을 중심으로 -	"

- 제4호의안 : 98년도 직원중식비 지급 유보의 건
 - 98년도 직원중식비 지급을 3월 임시총회시까지 유보키로 함.

98년도 시무식 거행

본부, 서울건축사회, 서울건축사신평협동

우리 협회는 지난 1월 3일(토) 오전 10시 협회 중회의실에서 98년도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에 들어갔다. 본부와 서울건축사회, 서울건축사신평협동조합 임·직원들이 참석한 이날 합동시무식에서 김영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IMF한파로 올 한 해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각오를 새롭게 해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임직원 모두가 결속해 새로운 외지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이세훈 서울건축사회 회장은 「모든 일들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니 만큼 어떤 마음과 자세를 견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본부와 서울건축사회, 신평 직원들이 서로 협력해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더욱 힘써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임직원들은 시무식후 서로 덕담을 나누며 새해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였다.



시무식 광경

서울 지역건축사회장단 「건축사 결의문」 채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5개 실천강령 결의

서울건축사회 지역건축사회장단은 구랍 1일 IMF구제금융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근검절약을 행동지침으로 한 「건축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내용중에는 국산품 애용하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승용차 10부제 운행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회원 가정에 사장 돼 있는 외화모으기, 회원자녀의 조기유학과 어학연수 등 외화반출행위 자제, 송년회 등 연말연시 소비성 행사 지양 등 5가지의 구체적인 실천강령이 들어있다. 한편 서울 지역회장단은 이 결의문을 회원들에게도 홍보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불러일으킬 방침이다.



협회 임직원, 경제살리기 동참결의

98년도 봉급 인상분 반납 및
근검절약 생활화 다짐

온 국민이 현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협회 임직원들도 이에 동참하는 결의를 다졌다. 지난 12월 10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열

린 시·도건축사회 사무국장 회의에서는 최근 IMF한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시도건축사회 직원들의 이같은 뜻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도건축사회별로 전 임직원의 동참의 뜻을 밝히는 서명작업을 벌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본부와 16개 시·도건축사회 임직원들은 현 우리경제가 처한 심각한 어려움으로 회원사들의 경영압박이 예상됨에 따라 98년도 봉급 인상분 3%를 반납키로 하고 능동적인 업무자세로 내실 있는 협회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결의서에 서명하였다. 한편 본부의 경우, 사무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직원 모두가 점심시간 등 근무시간 외의 불필요한 전동 및 전열기구 사용을 자양하고 사무용품 절약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업무목적외의 불필요한 전화사용 금지 등 근검절약운동을 생활화하기로 하였다.

김영수 회장, 러시아국립산업대학 명예박사학위 수여받아

국제 건축교류 증진과
민간외교 활동 공로로



우리 협회 김영수 회장이 구랍 22일 모스크바 러시아국립산업대학으로부터 명예 건축공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이번 학위수여는 김영수 회장이 한국 건축계를 대표해 그간 아시아 각국과의 교

류를 통해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가 높이 평가되었고, 이는 또 러시아 연방정부와 러시아국립산업대학이 모스크바 탄생 850주년을 기념해 국제적으로 건축·건설분야 유력인사와의 교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큰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김회장은 이 대학의 명예교수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한·러 양국간 활발한 건축문화 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러시아 교육부 인사 및 학계 종진들과 많은 교민들이 함께 자리해 김회장의 학위수여를 축하했다.

이세훈 서울건축사회장, 대통령표창 수상

시민건축대학을 통해
「에너지절약 건축」 홍보 공로



이세훈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이 구랍 4일 한국전력강당에서 열린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에너지관리공단(주)이 주관하고 통상산업부가 후원한 이날 포상수여식에서 이세훈 회장은 그간 시민건축대학을 통해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축」을 적극 홍보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전북건축사회관 개관

연면적 1천5백여평에
지하2층, 지상7층 규모

전북건축사회(회장 이상돈)는 구랍 12일 「전북건축사회관」을 신축하고 개관기념식을 가졌다. 전북건축사회의 새보금자리가 된 이 건물은 연면적 1천5백7평에 지하2층 지상7층 규모로 업무용사무실을 비롯해 전시실과 대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 건물 안에는 대한건축학회 전북지부 사무실이 함께 입주해 있어 지역건축 발전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건축사회는 회관개관을 기념해 구랍 5일부터 14일까지 「전북건축사회원작품전 및 학생작품 공모전」 전시회를 가졌다.

우리협회, 건설기술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돼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

우리 협회가 건설기술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구랍 9일 우리 협회와 대한측량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등 모두 11개 기관을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 고시하고 대한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은 일부 교육프로그램 보완후 올해중 추가 지정키로 하였다.

건교부는 건설기술자 교육기관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전문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해 이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에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우리협회와 한국토지공사, 대한측량협

회, 한국냉동공조기술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건설경영연구소, 한국건설방식기술연구소,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 등이다.

이에따라 교육대상자중 최초 입사일이 95년 8월 5일 이전인 건설기술자의 경우는 2000년 8월 4일까지 최초교육인 2주간의 종합교육을 받아야 하며 95년 8월 5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교육을 이들 전문교육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자는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전문교육기관에서 40시간의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금년말까지 최초교육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교육후 5년 이내에 재교육을, 그 이후 최초교육 이수자는 3년주기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내년도 이후에 종합교육을 받는 건설기술자는 3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회 울산광역시건축대전

심사결과 발표

최우수상에 홍간건축
김화곤 작 「KJ빌딩」

건축관련분야 종사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쾌적한 도시발전과 미관증진을 위해 울산광역시건축사회(회장 노진달)와 울산광역시가 공동개최한 제2회 울산광역시건축대전에서 홍간건축 김화곤 회원이 설계한 「KJ빌딩」이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번 공모전의 우수상은 「김씨주택」(구성건축사사무소 이종대 설계), 「동남빌딩」(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 윤승문 설계) 두 작품에 돌아갔으며, 「백씨주택」(건축사사무소 상징 김동관 설계), 「우진비치빌라」(수영종합건축 박재현 설계), 「태화종합법률사무소」(우성건축 최광식 설계) 등 세 작품이佳作에 뽑혔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KJ빌딩」은 연면적 994.95㎡,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주택)로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에 위치해 있다.

이번 공모전은 95년~97년 기간중 완공된 울산광역시 소재 완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33개 응모작(단독주택 9점, 공동주택 6점, 일반건축물 3점) 가운데 건축계획 및 기능, 건축물외장, 환경시설(조경) 등을 종합 평가, 이중 6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각 수상작품의 설계자와 건축주에게는 상금과 상패(건물부착용 동판)가 수여되었다.

'97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집 발간

수상작품 사진 및 도면,
심사평 등 수록

'97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작품집이 발간됐다.

비매품으로 발간된 이 책자에는 지난해 우리 협회와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한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준공건축물부문 대상을 수상한 「LG화학 대덕연구소」를 비롯해 계획건축물부문 금상 수상작 「호」 등 각 부문별 수상작품의 컬러사진과 작품설명 글, 건축(설계) 개요, 심사평 등이 143쪽에 걸쳐 수록되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

용도변경시 허가대상 건축물 명문화

구랍 13일 건축법 개정법률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 구랍 2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3월경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법은 지난해 5월말 위헌판결이 내려진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법 제14조의 규정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허가를 받도록 이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벌칙규정을 명시하는 한편, 현재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건축법 제 26조 및 제72조의 규정도 적용범위와 위임내용 등을 명시해 보완했다.

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도시 주거지역에서 60평(2백㎡) 이상의 공장을 지으려면 도로와 인근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를 떼어 짓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50평(500㎡) 이상에 대해서만 이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용도변경시 바닥면적이 1백㎡ 이하이거나 종전용도로 재변경할 경우엔 허가절차 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음은 개정된 건축법의 주요내용이다.

-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건축물을 명문화하고 이 경우 준용해야 할 법률의 규정을 명시함(법 제14조).
- 건축물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가 지켜야 할

대지의 안전, 구조, 설비 등의 기준을 구체화 함(법 제26조).

- 용벽 등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작물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의 규정을 명시함(법 제72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벌칙 적용규정을 명확히 함(법 제78조 및 제 79조).

건축사도 연간 4차례

부가세신고 의무화

개정 세법 임시국회 통과, 확정후 올해부터 시행 예정

정부는 건축사를 포함해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에 대해 부가세신고 의무화를 방침이다.

최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자금지원 이행 합의에 따른 세수부족 충당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부가세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켜 온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에따라 개정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그동안 매년 한차례 종합소득신고만을 해온 건축사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은 올해부터 4차례 부가세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사의 설계·감리응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98년 2월 개정세법이 임시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시행시기가 미정이며 새로운 세법적용시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일정기간의 경과규정이 두어질 가능성도 있다.

제16회 서울시건축상

작품 공모

96~97년도 市관내 사용승인(예정) 건축물 대상

서울시가 도시미관 증진과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실시하는 「제16회 서울시건축상」의 작품공모 요강이 발표되었다. 경향신문사와 서울방송이 후원하는 이번 서울시건축상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두 부문에 걸쳐 96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사용승인(예정)된 관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작품은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건축지도과에서 접수하며 응모원서와 90cm×90cm패널 2개, 작품사진 20매, 작품설계설명서 20부를 제출하면 된다.

부문별 금상 수상자에게는 각 5백만원, 은상 2점에는 각 3백만원, 동상 3점에 각 2백만원, 장려상 4점에 각 1백만원씩의 상금이 주어지며 또한 서울시조례에 따라 건축사행정처분 경감의 특전이 주어진다. 특히 금상 수상자의 경우는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98 포스코 강구조작품상

공모요강 발표

96~97년 준공 국내 강구조물 대상

한국강구조학회가 주관하고 포항제철이 후원하는 '98강구조작품상의 공모요강이 발표되었다. 강구조기술의 창의력 배양과 우수 강구조물건설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시행되는 이번 작품상 공모는 96년 1월부터 97년 12월 기간중 준공돼 사용중인 강구조물(교량, 철탑, 해양구조물, 고층건물, 주택, 특수건축물, 플랜트

등)작품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설계자나 시공자, 건축주, 발주기관 등이 응모 신청할 수 있다. 금상 1점과 은상 2점, 동상 3점 등 각 수상작에 대해서는 설계자의 경우 상패와 부상(해외여행 특전 등)이, 시공자와 건축주에게는 동판이 수여된다.

응모자는 오는 2월말까지 출품규정에 따른 작품집을 한국강구조학회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 한국강구조학회 사무국(02-569-7636)

인덕전문대 건축과, 심화교육과정 개설

건축분야 산업체경력자 대상 1년 교육과정

인덕전문대 건축과에서는 98년도 1학기부터 산업체경력자를 대상으로 「심화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지원자격은 전문대 건축학과 졸업 또는 대학2년과정 수료후 1년이상 동일분야 산업체에 종사한 경력자로 교육기간은 1년이다. 이번 심화교육과정은 20명 단위의 2개 스튜디오로 운영되는 설계과목을 비롯해 현대건축론, 법규 및 설계실무, 건축표현과 컴퓨터 등 실무위주의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다. 각 과목별 담당교수는 ▶설계 / 정종영(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David Pierre Jalicon(프랑스 Jalicon Associate 대표) ▶현대건축론 / 배대승(프랑스건축사, 인덕전문대 교수) ▶건축표현과 컴퓨터 / 송준동(주. 건캐드 부사장) ▶건물엔지니어링 / 정우택(기술사, 마성건설대표) ▶법규와 설계실무 / 이종정(아름건축 대표) ▶구조특론 / 임용상(기술사, 태성건축사사무소 대표) 등 7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수업을 맡는다.

교육희망자는 전문대 졸업증명서 또는

대학2년 수료증명서, 최근 1년이상 산업체근무 경력증명서, 이력서 각 1부씩을 1월 12일부터 16일사이에 인덕전문대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인덕전문대측은 이번 심화과정을 98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나 교육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의 : 인덕전문대 건축과 (02-901-7590)

한길회, 창립30주년 학술 세미나 및 출판기념회 개최

한양대 동문건축가들 한자리에

한양대학교 동문건축가들의 모임인「한길회」(회장 윤석우)가 창립일을 맞아 구랍 16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창립3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1부 학술세미나에 이어 2부에선 이 모임의 창립 30년 발자취를 담은 「한길30년」이란 제명의 기념책자 발간을 축하하는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이번에 기념책자로 발간된 「한길30년」은 지난 1967년부터 이후 30년간의 한길회 회원 활동상과 건축·문화계의 사건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연대별로 한양대 건축공학부의 연혁과 활동, 사건 등이 정리돼 있다. 이 책자에는 또 회원작품 30여점을 비롯해 좌담과 논문, 칼럼, 기행문 등도 수록돼 있어 건축사료로서의 가치를 함께 지니고 있다.

한편, 이날 「한국건축의 국지성과 총체성」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에서는 건축가 류춘수씨와 김병운, 정진국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건축가 방철린씨 사회로 건축가 유건, 장립중 교수 등이 참여한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류춘수씨는 「나의 건축의 한국성 그리고 세계성」이란 주제발표에서「사머니즘과 유·물·선 그리고 서구의 사

상을 수용하여 공존과 융화가 기능토록 하는 것이 한국성의 본질이며 이것이 곧 자기의 작품세계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밝히면서 「서양적 논리에 의해 세분화된 논리들이 통합될 때 개성과 지역성은 세계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한국적 지역주의 건축의 가능성」에 대해 주제발표한 김병운 교수는 「우리 건축이 지역성을 품기 위해서는 서구건축에 대한 차별과 차용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전통성을 내세워 지역성을 확보하려 하기보다는 총체적으로 이해된 문화가 내재된 내면적 사고를 바탕으로 과거와 미래를 연결지를 점진적 사고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모형으로서의 건축을 위한 기초사고」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정진국 교수는 「지역의 문화에 대한 사고가 편협성의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보편성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건축은 하나의 개관적 문화의 모형(Model)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하며, 구체보다 추상(Abstraction), 현상보다 존재(Ortology), 관념보다는 실재(Realism)를 중시하는 기초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교수는 또 「건축의 조직화로부터 시작해 시각화와 공간화, 형식화로 이어지는 절차를 재편하고 보편성을 확보하면서 국지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작음(Littleness)'을 개념화 하자」고 주장했다.



실로지엄 광경



한길회 창립 30주년 기념책자인 「한길30년」

목원대, 「도시건축연구센터」 건립

건축·도시분야 특성화대학에 선정돼

대전 목원대는 최근 문교부가 건축·도시공학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 최대규모인 「도시건축연구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제20차 UIA총회 학술논문 공모

주제는 '21세기의 건축'

오는 1999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제20차 UIA총회에서 발표될 논문을 공모한다. 응모자격은 세계 각국의 건축가와 교수, 관계전문가로 아래의 제출요건을 갖춰 오는 1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 주 제

"21세기의 건축"

— 부 제

- 건축과 환경 • 건축과 문화
- 건축과 기술 • 건축과 도시
- 건축과 전문직업
- 건축교육과 청년건축가

— 참가대상

세계 각국의 건축가/교수/관계전문가

— 논문 제출요건

구 분	1차	2차
접 수	97. 7. 1~98. 1. 31	98. 4. 1~9. 30
심 사	98. 2. 1~3. 31	98. 10월 (1차 합격자에 한함)
문 량	2,500자 이내	5,000자 이내
작성언어	영어	영어
첨 부 물	도면(A3), 사진(6~12인치 또는 135슬라이드)	도면/사진(선택)

— 특 전

2차 심사에서 통과된 논문 작성자는 동 행사에 초청되며, 일부는 논문발표 예정이다.

— 제출처

Treatise Group

Scientific Committee

The XXth UIA Congress Beijing '99
c/o the ASC(Architectural Society
of China)

9, Sanlihe Road, Beijing 100835,
China

Fax : (0086-10) 68393428

Tel : (0086-10) 68393659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실
(02-581-5711~4)

건축신간 안내

C신문사 평촌사옥 건설자료
건설경영마인드
스타디움
작은 물품 같은 것일지라도
알기 쉬운 생겨지풍수건축여행
요약해설-건축제법규

◇ C신문사 평촌사옥 건설자료(1, 2권)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건축물이 탄생되는 과정을 현장일지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조선일보 평촌사옥의 설계와 시공·감리에 관해 건축월간지에 연재했던 내용들을 필자인 원도시건축의 이한중씨가 사진·도면 등의 자료들을 보충해 단행본으로 펴낸 것이다. 필자는 현장에서 직접 상주감리를 하며 그날 그날의 현장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련자료들을 빠짐없이 정리해 놓고 있다. 특히 본문내용중에는 현장작업지시서, 주간·월간 공사계획, 감리일지 등 각종 문서류와 함께 총 2천5백여컷이 넘는 현장사진과 150여 장세도면 등이 자료로 담겨있

어 총 28개월간의 공사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책에 실린 모든 데이터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생생한 자료들이다. 또 모든 자료들을 코드화해 각 공사내용과 순서를 찾아보기 쉽게 해 놓아 설계 실무자나 감리업무 종사자, 시공 관계자, 건축주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간접체험의 훌륭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중/ 도서출판 좋은건축(02-237-0252~3) 펴냄 / 5×7배판 / 1권-300쪽, 2권-350쪽 / 1권 : 3만원, 2권 : 3만3천원

◇ 건설경영마인드

제조나 금융분야의 경영이론에 관한 책은 범람하고 있지만 건설업을 경영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체



계와 전략이 빈약한 실정에서, 날로 전문화 대형화 첨단화되어가는 건설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에 초안을 던져주는 건설경영 개론서가 출간됐다.

국내최초의 건설경영학 박사인 김인호씨가 쓴 이 책은 건설경영의 출발점, 건설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CM과 건설경영, 건설경영인의 미래전략 등 총4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마지막 제4부에서는 21세기 건설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갖춰야 할 건설경영인의 자질과 역할을 조명하고, 앞에 언급된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는 학문적 틀을 제시함으로써 건설경영을 위한 노력과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경험이 토대가 된 만큼 알기 쉽게 기술되어 있어 설득력을 더해 줄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도 한국건설업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근원과 대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김인호/ 도서출판 기문당(02-295-6171~5) 펴냄 / 신국판, 반양장 / 306쪽 / 1만원

◇ 스타디움

이 책은 현대인의 생활속에 친숙한 시설로 자리한 스타디움, 즉 대규모 운동경기장에 대한 설



계 및 개발지침서로 UIA스포츠/레저분과(IAKS)위원장인 저자가 스타디움 전문건축가와 함께 공동 저술한 것이다. 특히 이 책은 스타디움의 개념이 스포츠 행사를 위한 단일목적의 시설에서 점차 각종 행사와 레저, 생활체육 등을 통해 복합화되고 활용도를 극대한 도시시설로 그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그에 적합한 설계조건 등 실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이책에는 스타디움에 관한 조사·연구기록에서부터 시설물설계의 상세한 지점사항 그리고 입지/교통/외부공간 조성, 구조/재료, 관중통제/시아조건, 관람좌석 등 단지 마스터플랜, 화장실을 포함한 각종 지원시설물의 계획조건과 방송 및 설비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 및 자원확보,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스포츠시설 전반의 각종 자료와 설계조건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스타디움을 비롯한 스포츠시설 전반의 설계실무 지침서로 뿐만 아니라 이분야 학술서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제랄트 존, 로드 웨어드著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 譯 / 대우출판사퍼냄 / 255쪽 / 3만원

◇ 한독현 시집 『작은 들꽃 같은 것일지라도』

지난 95년 「시문학」으로 등단해 시인으로 활동중인 건축가 한독현씨의 시집이 나왔다. '사막에서 아내에게 쓰는 편지', '여뀌꽃' 등 이 시집에 실린 60여편의 생활시들은 시인으로서, 건축가로서의 예술적 감성과 따뜻한 인간미를 느끼

게 해준다.

특히, 설화적 소재들은 시집표제가 말해주듯 사랑의 눈으로 감싸 안고 보면 들꽃들도 꽃으로 보인다

는 저자의 인간적 감성과 본질적으로 인위를 싫어하는 예술가적 태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수채화처럼 배어든 삶의 원동력이 사랑임을 말하는 시어들은 어느새가 독자의 삶을 파고든다.

저자 한독현씨는 51년 전북 진안 태생으로 머물령 문학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해 오다 지난 95년 「시문학」을 통해 등단한 늦깎이 시인으로 현재 충남 당진에서 한성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독현출 / 시문학사(02-323-2227~8) 펴냄 / 120쪽 / 4천5백원

◇ 알기 쉬운 생거지풍수건축여행

풍수지리는 양택(陽宅)과 음택(陰宅)으로 나누어진다. 이 책 제목 '생거지(生居地)'는 살아 활동하는 인간이 거주



하는 공간을 말하며 이는 곧 양택을 의미한다. 이 책은 풍수지리중 양택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주택과 아파트 같은 주거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 뿐만 아니라 사무용건물, 상업용도의 건물, 공장용도의 건물 등 모든 인간이 활동하는 공간을 그 범위에 두고 있다. 특히 이책에는 풍수지리학상으로 대지를 구하는 방법에서부터 주택설계를 하는 과정과 시공하는 과정 등이 순서대로 정리돼 있는 것은 물론, 어렵고 난해한 풍수지리상의

전문용어들을 일상용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전체 5부중 1부는 풍수지리의 이론적인 설명과 기본적인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풍수로 본 주택설계에 관해, 3부는 아파트와 전원주택, 4부는 빌딩과 공장에 관해, 5부는 세간에 잘못 알려져 있는 풍수설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정리해 놓았다.

박상근출 / 도서출판 기문당(02-295-6171~5) 펴냄 / 신국판 / 272쪽 / 1만원

◇ 요약해설-건축제법규

건축법 외에 125개의 관계법규를 대폭 정보 수록한 98년도 개정판 법규해설집이 출간됐다. 이 해설집에는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건축사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15개 건축관련법들의 전문을 비롯, 국토이용관리법, 지적법 등 모두 125개 주요 관련법규를 자세한 해설과 함께 일목요연하게 요약 수록해 놓아 독자들이 법의 취지와 근본정신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방대한 건축법령의 내용과 관계 법령간에 관계되는 조항을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바로 법의 내용이 파악되도록 연계 해설해 놓은 것은 물론, 요약내용마다 관련법령의 조항을 표시해 법령의 본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개정판은 실무자들을 위해 관련법규를 충분히 수록하여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외에 주요 질의·회신란을 두어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동찬출 / 도서출판 기문당(02-295-6171~5) 펴냄 / 1,998쪽 / 5만원

■ 고칩니다

지난호(97년 12월호/통권 344호) 「협회소식」란에 게재된 전북건축사회 총회관련 기사 내용중 오자가 있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칩니다.

〈P.98〉

간사: 고기성 → 감사: 고기성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고속철도 경주통합역사

홍성청소년수련관

거제시 옥포종합복지화관

고속철도 경주통합역사

Kyungju Hige Speed Rail Station

말랐던 경주고속철도역사가 건천역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은 역사 공모전을 실시 총 8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최우수작에 포스에이씨(심인보)안, 우수작에 남산건축(이항섭)안, 가작에 동우건축(김태인)안과 (주)원도시건축(변용)안, 입선작에 (주)공간건축(이상림)안과 (주)아키텐(김우성)건축안을 선정, 그 결과를 지난 97년 11월 22일에 발표했다.

이 공모전심사에는 김경환(경상대), 김동현(국립문화재연구소), 김문한(서울대), 김상균(철도청 건축과),

김영수((주)건축국), 김성곤(동아대), 김정호(경주시 건설도시국), 박동환(한양대), 신기철(한양대), 이각표((주)엄&이건축), 이명호(중앙대), 이우현(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이용하(신건축), 장경환(한국고속철도 설계건설공단), 정재철(국민대)씨 등이 참여했다. 이날 심사에서 최우수작인 포스에이씨안은 전통 한옥의 기와지붕 골 모양에서 역사의 지붕 이미지를 차용했으며 입면은 석축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구형해 고전적인 요소들을 현대적으로 잘 해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승객동선과 환승동선의 분리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우수작 남산건축안은 환승동선을 승강장 위에 두고 밖에서 역사내부를 보이도록 개방성을 강조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내부동선과 외부동선 체계가 잘 구성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유리로 마감한 지붕 및 외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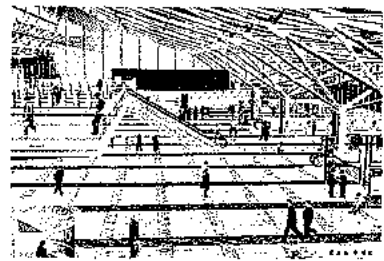
▶ 최우수작 / 포스에이씨(심인보)



조감도



정면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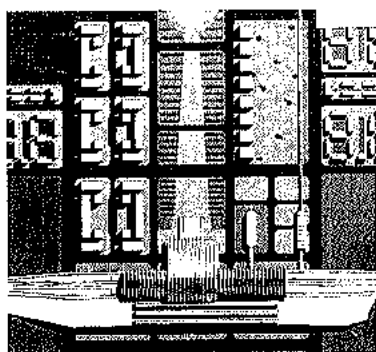
콘코스 투시도

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학천리 일원
부지면적	107,919㎡
건축면적	33,130㎡
연면적	53,225㎡(민자유치면적 제외)
건폐율	30.7%
용적률	50%
구조	철근콘크리트(지하), 철골구조(지상)
주차대수	344대
외장자료	알루미늄 복합페널(지붕), 화강석 버너구이(외벽), THK24 강화유리(Curtain Wall, SPG)

경주역사는 고속철도로서의 기능과 일반 철도, 버스, LRT 등의 각종 교통수단들과의 환승시설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신라의 천년고도이자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적 문화유산으로의 지정이 예상되는 인류문명의 보고인 경주의 관문으로서의 랜드마크적 역할을 그 형태와 기능면에서 만족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단순히 이용객들이 스쳐지나가는 기계적 통로로서의 기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이거나 머무름의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하는 정서까지도 고려한 장소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계획하였다. 경주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불국사의 전통 지붕곡선 형태에서 차용한 곡선을 응용하여 역사적 상징성을 부여하고 차세대의 쾌적한 교통수단인 고속철도의 이미지를 살린 첨단 하이테크 기술을 이용하여 재료의 모듈화, 전면 지상층 구축에 의한 토공량의 최소화 등을 통해 경제적인 사공이 되는 건축을 추구하였다. 전체 대지에 건물군(역사+환승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주차장, 광장 등을 역사 전후면에 하나의 축으로 배치하면서 언더 패스를 통한 전면과 배후도시의 연계에 의한 성장촉진 및 중심부

광장 주위의 교통량을 고려한 일방통행, 시스템 도입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한 외부 순환도로의 양방향 통행시설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교통순환체계에 의한 교통 결절점으로서의 유기적인 연결체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속철도의 선적인 운동을 모티브로 하여 역사 및 환승시설을 처리하고 유기적인 공간구성이 되도록 하면서 콘코스의 전면배치(2층) 및 중앙광장과 램프에 의한 연결처리는 콘코스를 반외부 공간화가 되도록 시각적 연계를 확보하면서 주변의 쾌적한 공기와 채광, 전망 등의 자연요소를 최대한 이용했으며, 주차장 및 기계실(1층)-콘코스(2층)-대합실(3층)-승강장(4층)으로 관통되는 수직 공간은 동선의 단축 및 출발 도착동선의 분리를 통한 교통혼잡을 방지하는데 주력하였다. 소음 및 열차풍 배출 계획은 선로 하부에 진동단파를 설치하여 바닥 충격음이 원충되도록 하면서 승강장 지붕을 요철 형상으로 처리하여 소음이 분산되도록 하였고, 지붕에는 오프닝 공간을 설치하여 일반소음 및 고속 통과 열차의 바람이 자연스럽게 천장으로 배출토록 계획하였다. 첨단 시설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및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절한 환경조건이 유지되도록 하였고 콘코스에는 자연광이 최대한 도입되도록 하면서 플랫폼 및 대합실에는 지붕의 조형성과 아메니티(Amenity) 고양을 위한 국부조명과 간접조명으로 이용한 상부조명(Uplight)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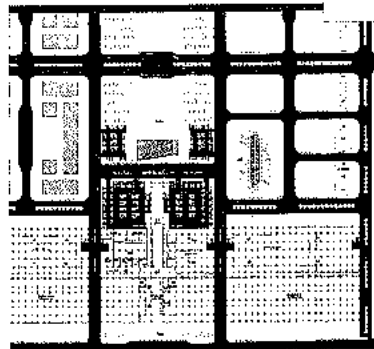
구조방식으로는 전통적인 한옥지붕골의 형상인 물결모양 형태를 차용 양방향 아치 시스템(Two Way a System)에 의한 부재의 경량화 및 공간이 형성되도록 하였고 아치 시타이바(Tie-Bar)로 연결하여 축력이 상쇄되도록 하여 개방된 공간이 가능토록 하였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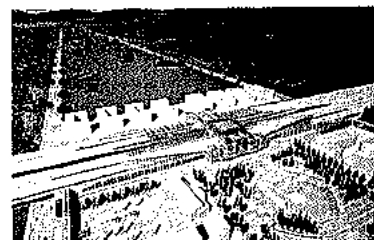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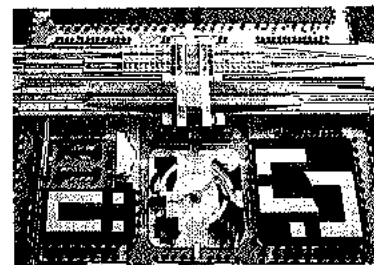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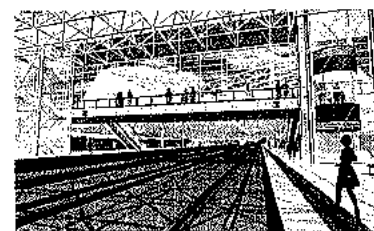
▶ 우수작 / 남산건축(이항섭)



조감도



도형도



내부투시도

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	
대지면적	107,919㎡
연면적	92,369.05㎡
용적률	85.6%
건축면적	38,098.44㎡
건폐율	35.3%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주차대수 442대(직원용 : 90, 장애인용 : 16) 장애인주차 : 528대
 주요외장 투명복층 유리+알루미늄 패널
 주요구조 메가트러스(승강장)+스페이스 프레임(역우공간)

계획의 개념

오늘날 여행과 운송은 일상생활의 기본 요소이자 필수 불가결한 생활수단으로 변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학창시절에 가슴 설레이며 기다리던 수학여행이 먼저 떠오르고, 천년 신라의 고도임을 생각하게 하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관광도시로 기억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고속철도 경주통합역사는 여러가지 형태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계획개념으로 하여 추억과 함께 영원히 기억속에 남기고자 하였다. 세계속에 비상하는 경주, 관광도시의 관문으로서의 상징성을 하이테크 기법으로 현대적으로 계획하였으며,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이며 친근감 있는 역사가 되도록 하였다.

<상징성>

1. 역사, 전통, 지역의 상징성
 - 불국사 : 전면 이미지
 - 천마총 금제 날개모양 금관장식 : 양날개
 - 석가탑의 적층 이미지 : 전면 수직매스에 부착된 수평살
 - 향교의 문 : 경주의 관문
 - 신라의 탄생 '난생설화' : 전면광장에 도입
2. 고속철도의 상징성
 - 쾌속의 이미지와 방향성 : 수평날개로 표현
 - 고속철도의 첨단성 : 하이테크적인 경쾌한 이미지로 구현

배치계획

- 통합역사로서의 기능
 - 단계별 구분공사를 고려한 매스계획→고속철도와 일반국철을 15m 이격하여 단계마다 기능과 외관의 완결성 부여
 - 여객수송의 신속화, 대량화에 대응하여 연계시설들의 동선 단축
 - 향후 일반철도, 시외버스 터미널, 경전

철 운행을 고려한 배치구성

- 철로로 양분된 전후면 광장을 강한 2개의 매스축으로 연결하여 연속성을 부여
- 광장계획
 - 역이용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교류기회 제공
 -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이미지 → 난생설화의 이미지화로 경주의 역사성, 지역성 부각
 - 고속철도 역세권 시설 이용자들에게 접근성을 높여 쾌적하고 친근감있는 장소 제공
 - 만남, 휴식, 집회 등의 다양한 광장기능의 충족과 군중의 집분산 유도
 - 수중조명, 바닥조명, 가로등의 효과적인 계획으로 야간의 조명경관 연출
 - 전면광장과 후면광장의 녹도축 형성
 - 역사로 진입하는 전이공간으로 역세권과 역사와의 완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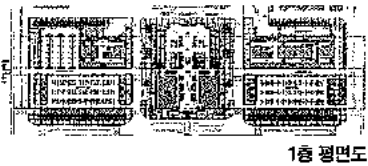
평면계획

- 고속·일반철도의 분리
 - 역사 내부에 적극적인 자연채광과 환기
 - 구조를 하부 주차장의 지하화 방지
 - 단계별 확장공사시 공사의 편리 도모
 - 고속철도와 국철, 승강장 상부의 구조 분리
- 환경을 고려한 역무시설의 배치
 - 역내시설과 직결된 최상부에 위치
 - 조망, 채광, 통풍에 유리
- 대합실의 보행동선
 - 콘코스에서의 연결동선 분산
 - 콘코스에서의 동선을 입체적 처리
 - 연계 교통수단과의 편리한 여객동선 구성
 - 체류공간과 유동공간의 명확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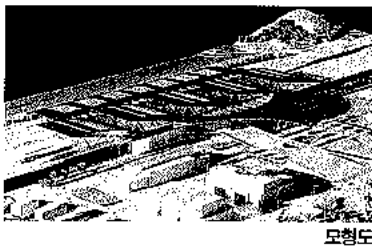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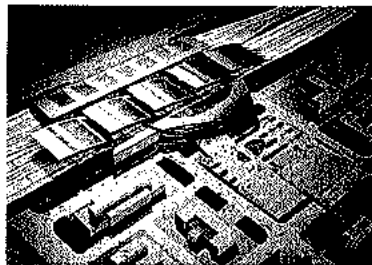
단면계획

- 내부공간의 수직적 연속성
 - 콘코스(GL+0.5m)→대합실레벨(GL+6.5m)→승강장(GL+12.5m)→환승(GL+20.5m) 순으로 진행하면서 보행목적의 구체화
 - 1층전면 홀 상부 오픈 외부공간의 인입 및 전이공간, 전후면 연결
 - 지상층에 상부 오픈된 콘코스를 둠으로써 외부의 축을 연장, 역사 전후면의 단절 극복

- 출입홀 상부를 오픈시켜 역사내부와 외부사이의 전이공간 형성
- 일반철도와와의 환승동선은 승강장 상부에 설치하여 비환승동선과 분리
- 환승통로의 시각화
 - 계층적 공간구성으로 자연스런 동선유도
 - 환승통로를 승강장 상부에 설치하여 인지성을 높임
 - 진출입승객과 동선분리
 - 전후면 연결축의 시각화
- 콘코스의 입체적인 확장
 - 전면광장과 후면광장을 연결하는 옥내광장의 성격 부여
 - 층간 개방으로 콘코스와 인접공간과의 시각적인 연결, 쾌적함 확보, 방향성 부여
- 자연채광, 환기
 - 대합실, 콘코스, 실내정원에 자연채광 및 환기
 - 승강장에서 자연채광, 환기



▶ 가작 I / 동우건축(김태인)



위치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
총부지면적 107,919㎡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62,125㎡
건폐율	57.6%
연면적	88,810㎡ - 고속철도 55,010㎡ - 일반철도 33,800㎡
용적률	69.0%
주요구조	철골조 트러스,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시설	총 546대(고속철도 370대·일반철도 276대)

토지이용계획 및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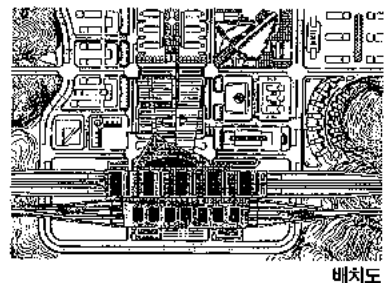
- 설계 대상구역에는 역사설, 민자시설(추후시설), 주차장 등의 교통시설, 광장을 설치하고 설계대상외의 구역에는 유치시설(버스환승시설,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배치
- 지역사회를 위한 공원화 계획: 전면에 대규모 집회가능한 광장 확보, 후면에 휴식광장 계획
- 시외버스 환승체계와 탑승공간의 수평적인 구성체계
- 전통건축의 진입공간 재해석에 따른 공간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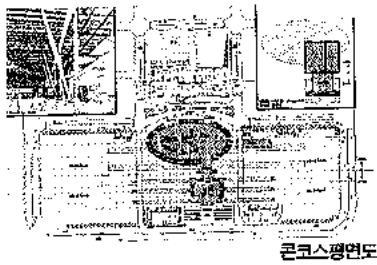
형태및 입면계획

- 고속철도 이미지에 상응하는 첨단 하이트크 건축의 표현
- 경주시의 역사성과 고속철도의 상징성을 이원적으로 표현
- 미래지향적인 동적 표현

공간구성 및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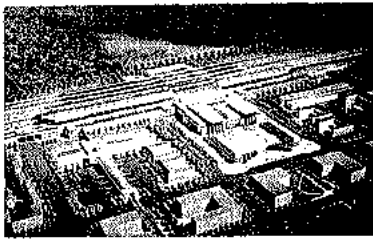
-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공간계획
- 고속철도의 콘코스 공간에 개방감 확보 및 적극적인 자연채광 유도
- 실기능에 적합한 층고계획
- 역무시설의 별도처리로 독립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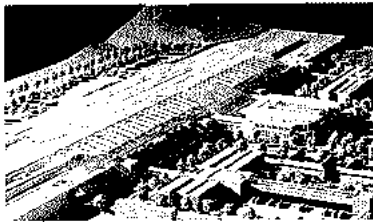


콘코스평면도

▶ 가작 II / (주)원도시건축(변 용)



조감도



모형도

토지이용계획

- 역사전면 상업용지에 시외·관광버스터미널과 경전철을 연결하여 환승시스템 구축
- 상업시설, 호텔 등을 역사와 연계개발
- 역사권 중심축과 광장축의 연속성 유지

배치계획

- 철도역사의 '도시속의 초점(Focal Point)' 추구
- 역사 Zone과 상업시설(민자) Zone의 구분으로 외부 및 내부동선 혼란 방지
- 교통동선과 인간의 만남, 집회를 위한 광장설치
- 진입의 다양화로 여객분산 및 Quick Service 유도

평면계획

- 출발, 도착의 동선분리→일반철도도 동일 시스템 적용
- 출발, 도착동선 주위에 적절한 여객편의시설 배치 → 체류, 거주 의미 부각
- 여객공간과 역무공간의 분리

- 내부공간의 위계설정 → 흥미로운 공간 체험
- 통제(Control)의 효율성 → 범죄예방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 경제성 고려 → 선로하부 상업시설(민자) 최대 확보 및 역사시설 부분 최적화

단면계획

- 투명성(Transparency)에 의한 공간 인지 및 안전 확보
- 광장과 콘코스 레벨 동일처리 → 역사의 도시성 강조
- 경제성 고려 → 콘코스 : 약 16m의 천정고로 공간성 및 경제성 추구
→ 승강장 하부에 콘코스, 연결통로, 옥외주차장 확보(지하개발 억제)
- 내부 벽면을 멀티비전 Screen으로 활용
- 실내조경 도입으로 쾌적성 확보

입면계획

- 마감처리 차별화 → Low Tech의 웅장함(저층부)과 High Tech의 경쾌함(상층부) 추구
- 역사좌우 상업시설(민자) 입면은 유리로 경쾌한 처리
- 전통 이미지의 추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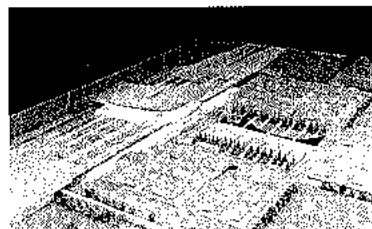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입선 I / (주)아키텐(김우성)



조감도



모형도

대지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

지역지구 상업지역 적용

대지면적 107,919㎡

건물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35,828㎡

연면적 52,341㎡

건폐율 33.2%

용적률 44.6%

구조 철근콘크리트+스페이스 프레임

외부마감 컬러복층유리, 알미늄 복합패널, 안전접합유리

주차대수 고속철도 역사이용객용 : 257면
역직원용 : 97면

토지이용계획 및 역사 배치계획

- 승강장의 중심부에 놓인 역사의 지붕이 기능적 목적에 부합
-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한 지하공간의 최소화
- 합리적인 상업시설의 배치
- 토목구조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2단계 시설에 제안하여 통합역사 기능과 복합적으로 활용
- 광장과 연계성 강조
- 도심공원 녹지계획으로 전면 광장 중심에 녹지축 형성 및 향후 도심 개발축과 연계
- 환승 교통시설의 집약
- 경전철 승강장 및 시외버스 환승 터미널을 집중시켜 짧고 명쾌한 환승 동선 구축
- 1단계 건설후 2단계 건설까지의 여유지 활용
- 1단계시설(고속철도역사)을 지원하는 여유주차공간 및 녹지공간 조성

내부공간 계획

- 평면계획
- 콘코스, 매표, 대합, 개찰, 승차공간에 이르는 동선을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구성
- 대공간의 콘코스가 원활한 여객동선의 중심공간을 이루고 부출입구에서 콘코스 중심까지 연결되는 동선상에 여객편의시설을 적절히 분산 배치
- 역무시설과 여객시설의 분리된 여객편의 확보

- 상업유치시설과 역사와의 연계동선을 편리하게 고려

• 단면계획

- 승강장 하부의 12m 높이의 층고를 활용함에 있어서 중층을 최소화하여 대공간의 큰코스를 계획함으로써 최대한의 쾌적한 공간 형성

- 부출입구를 필요한 위치에 배치하여 주차장 및 버스환승시설, 경전철과의 환승 동선 최단화

- 콘코스까지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승강장 바닥에 유리블럭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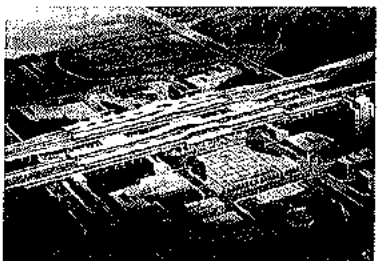
입면계획 및 재료마감표

-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는 재료의 선택
- 유리의 효율적 사용으로 내부 구조를 드러내어 경쾌하고 현대적 역사의 이미지 창출
- Mass의 볼륨들의 다양한 변화를 절제하는 파사드면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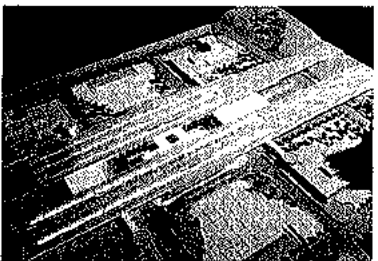


배치도

▶ 입선 II / (주)공간건축(이상립)



조감도



모형도

대지위치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

지역지구 상업지역

대지면적 107,894㎡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23,035㎡

연면적 52,627㎡

건폐율 21.34%

용적률 48%

주요마감 유리 + 노출콘크리트, 패브릭 (Fabric)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지붕)

주차대수 지하152대, 지상 497대

계획개념

• 경주를 존중하는 역사

- 경주의 옛 도시계획, 즉 방리(坊里)의 모듈(140m×160m)을 역사 및 주변 도시개발에 적극 도입하여 계획의 기본 모듈로 활용

- 경주시의 스케일에 적합한 구조물로서 주위경관을 압도하지 않는 미관

- 한국 고유 건축물의 공법을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

• 자연을 존중하는 역사

- 부드러운 중첩의 마을 가진 경주의 산세와 역사 지붕디자인과의 조화

- 역사부지 주변의 지형지세와 역사와의 결합

• 경제적인 역사

- 최소한의 구성요소로서 역사기능 소화 (지붕)

- 경제적인 재료와 공법 채용(철근콘크리트조, 모듈화된 자방재)

배치계획

• 도시 및 역사 Block의 모듈

- 경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 방리(坊里)의 모듈(160m×140m)을 도시개발 및 역사의 모듈로 적용

• 도시발전축

- 도시축을 주축으로 단지개발을 부축으로 설정하여 역사를 중심으로 한 단지 개발

축의 활성화 도모(상업시설, 숙박시설, 스포츠시설)

• 보행자 중심의 도시구조

- 도시발전축을 따라 도심의 중심축은 전면, 후면광장과 문화공간 및 자연녹지

가 수공간과 연계하여 막힘없는 역사로의 진입을 유도

• 스카이라인

- 주변 지세와의 조화를 꾀한 도시계획으로 부드러운 스카이라인의 형성

평면계획

- 경주 고유 방리(坊里)의 모듈 적용

- 역사로인한 역사후면 도시와의 분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사를 관통하는 통로의 차량 및 보행자동선의 전후면 광장과 연결과 시각성의 확보

- 여객, 역무동선의 기능적 분리 및 유기적 연계

- 여객동선의 승하차분리 및 환승터미널과의 내부 연결

- 역사 Platform 하부공간의 상업 및 스포츠시설 등 최대한 이용

- 역무시설을 철도의 진동을 느낄 수 없는 철도 하부구조물에서 분리된 곳에 배치

입면계획

- 중첩된 자연경관의 미와 조화를 꾀한 리드미컬한 지붕의 형태

- 고속철도의 역동적인 이미지에 부합되는 속도감과 방향성의 표현

단면계획

- 고속철도와 입만철도의 플랫폼 (Platform)을 분리하여 자연광과 외기의 적극적이며 자연스런 유입을 도모

- 공사계획에 따른 단계별 시공의 용이

-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전면 콘코스 부분에 대공간을 구성하며 시각적인 흐름을 유도



배치도

홍성청소년수련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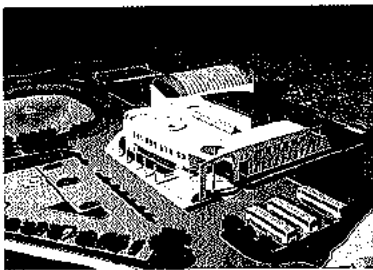
HongSung Youth Training Center

홍성군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홍성청소년수련관의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12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지난 97년 11월 19일의 심사를 거쳐 당선작에 우리종합건축(고영우+박승수)안, 우수작에 산건축(정종태)안, 가작에 S.F건축(이중연)안과 한예건축(김은철)안을 선정, 20일에 발표했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오덕성(충남대), 강인호(한남대), 이왕기(목원대), 송용호(충남대), 이재훈(단국대), 김성호(대전산업대), 이정희(대전산업대), 조영국(충남산업대), 고광성(홍성YMCA)

▶ 당선작 / 우리종합건축(고영우+박승수)



조감도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690-1번지와 4필지
지역지구	근린공원지역
대지면적	전체대지 - 34,852㎡ 계획대지 - 4,640㎡
면적	4,152.93㎡
건축면적	2,747.05㎡
건폐율	7.88%
용적률	10.29%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트러스
외부 마감	외벽 - 외벽단열 시스템 창호 - 파스텔 북유럽리
조경면적	5,288㎡
기계설비	열원, 공조, 위생, 냉·난방, 자

동제어, 소화설비

전기설비 수변전, 중앙감시제어, 전력, 동력, 방송, CCTV설비

계획의 방향

현대의 청소년들은 각종 미디어의 홍수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왔다. TV, 비디오, 영화와 같은 다양한 영상매체들이 청소년들의 감성을 좌우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그들의 시각적 감수성은 예전보다 놀라울 정도로 민감하면서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21세기의 새로운 미디어적 감성을 지닌 청소년과 역사적으로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홍성의 지역적 특성을 결합하는 작업이 바로 본 계획의 주요 테마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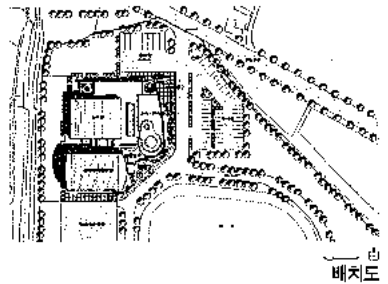
진행과정

건축적 방법으로 요란하지는 않지만 내실이 있는 공간형태와 시각적 감성을 고려한 회화적 파시드를 제시함으로써 두가지 상반된 이미지를 결합시키고자 의도했다. 주출입구는 이미 확정된 주차계획과 도로, 진출입을 고려하여 파사드 전면 부각시키고자 했으며, 출입구 주위에는 소광장을 마련해 주고 보행공간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주변환경에 대한 배려를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상 주출입구를 어디로 정하느냐는 처음부터 논란의 여지가 많았으며, 외부공간 계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출입구의 설정은 이미 어느정도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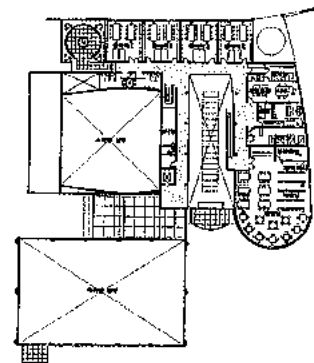
또한 부출입구와의 위계성 문제도 계속 부딪치는 딜레마였다. 결국 주출입구를 진입공간에 근접하게 두므로써 기능적으로나 상징적으로 무리가 없는 해결방법을 유도했으며, 전망이 좋은 방향으로 부출입구를 두어 옥외공간에 대한 활용을 의도했다.

로비공간은 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로서 기능적이고 단조로운 실배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무미건조하고 지루한 느낌을 탈피할 수 있게 해주고자 의도했다. 즉, 로비공간속에서는 천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 2층 높이의 공간에서 울리는 소리, 그리고 직통계단의 움직임 등의 활기를 부여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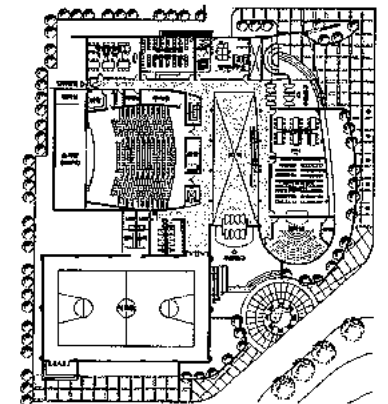
이 단조로운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이것은 다양한 전시공간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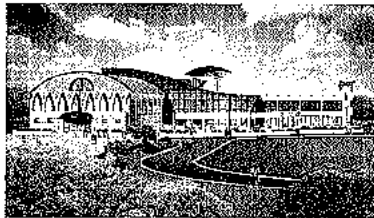
동측면도

▶ 우수작 / (주)신건축(정종태+이규환+김영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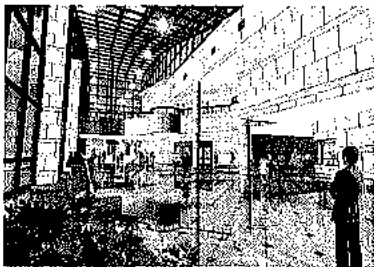
위치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690-1번지의 4필지
지역	근린공원지역



조감도



투시도1



투시도2

대지면적	34,852.0㎡
건축면적	2,830.8㎡
연면적	4,443.67㎡
건폐율	8.12%
용적률	11.10%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최고높이	15.8m
주차대수	55대

배치계획

- 건축 가능지역의 적극적 수용검토
- 부지의 특성과 자연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함
- 기능에 의한 동선의 입체적 분리
- 자연환경 및 기능에 의한 동선의 분리 및 유기적 연결
- 단지의 시설계획 및 연계성 유도
- 공간별 위계존중(정적, 동적구분)을 위한 분리배치
- 자연스런 Approach 유도

평면계획

- 계획시 Space Program에 완벽을 기하고 향후 발생할 상황까지 계획에 반영

- 상호 동선의 연결이 용이해야 하며 비슷한 기능끼리 근접 배치로 원활한 조작을 구성
- 수평동선과 수직동선의 합리적 체계확립
- 시설간 동선연결 용이성
- 관리동선의 효율성 제고
- 관리동 옥상에 로울러 스케이트장 설치로 이용자의 면적을 극대화시킴

입면계획

- 향토적 디자인 요소 축출 및 형상화
- 자연의 일부로서 기능과 조화되는 입면계획
- 인지도, 상징도, 공공성, 환경조형물의 다원적인 형태요구의 충족
- 형태분절을 통한 위압적 파괴감 축소
- 지형, 지세의 흐름에 순응하는 Sky Line형성
- 지역의 랜드마크적 이상형인 성격 부여

구조계획

R.C구조의 Space Frame 및 Steel 구조를 혼용하여 실의 사용과 구조의 안전성, 조형미를 고려하여 계획하였음

- 기초구조 : 추후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직접지내력기초, Pile기초 등 적절한 기초구조 형식을 채택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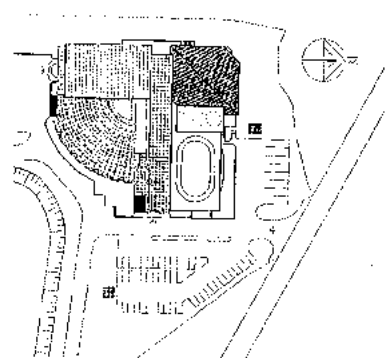
상부구조

- 형식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지붕 : 평슬라브, 경사지붕(Space Frame, Steel 구조)
- 계단실은 내력벽식을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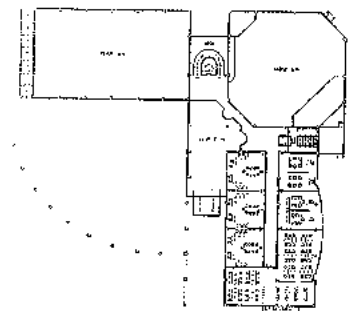
조경계획

- 청소년 수련관 단지 내숙한 외부 공간에 그 장소적 의미와 특성에 부합되도록 계획하므로써 외부공간의 성격과 상호 연관성을 더욱 명확히 함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부담없는 접근성 부여를 목적으로 하였음
- 주변공간과의 유기적이고 자연스런 통선 연결
- 홍성군의 상징나무와 꽃이 주종을 이루도록 하며 잔디를 식재하여 시각적인 피로감을 감소시킨다.
- 정형적인 식재로 관람객에게 방향성을 제시한다.
- 옥외 놀이공간의 바닥조장을 동선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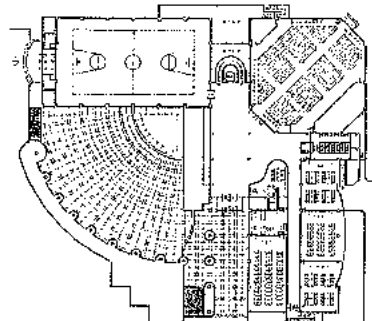
를 위한 그래픽수법의 패턴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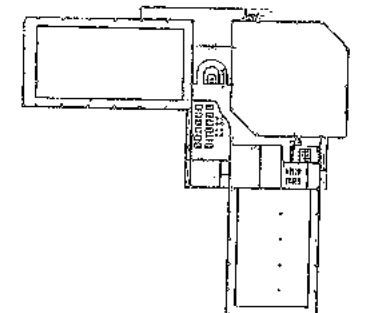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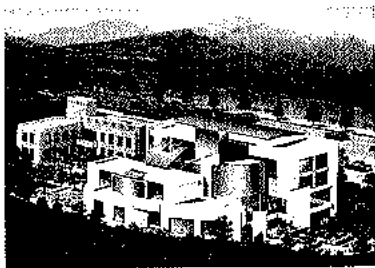
좌측면도

거제시 옥포종합복지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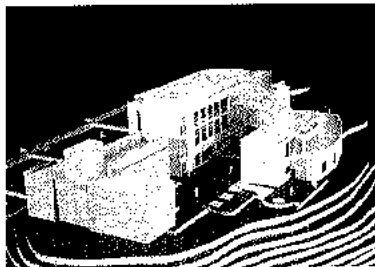
Okpo Welfare Center

거제시는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거제시 옥포종합복지회관 현상설계 경기를 실시, 경남대 이광태 교수 및 건축사 2명, 시공무원 1명의 2차례 심사를 통해 당선작으로 세모건축사사무소(이학권)안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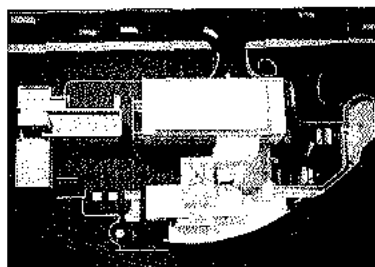
▶ 당선작 / 세모건축(이학권)



조감도



모형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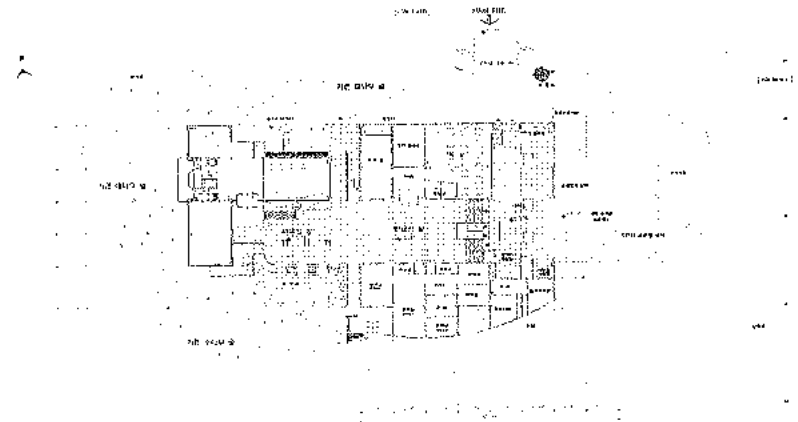
모형도2

대지위치 거제시 옥포동 산 660-3번지
대지면적 7,00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용도 공공시설(복지회관)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836.29㎡
연면적 2,50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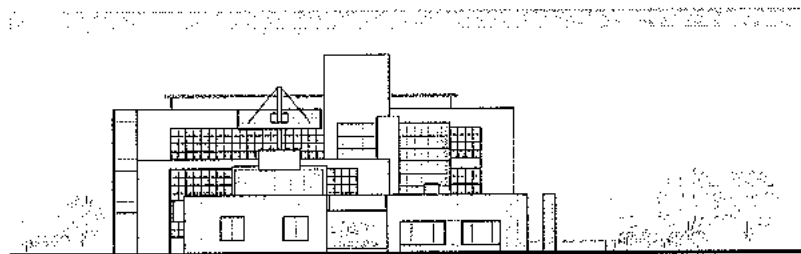
건폐율 11.94%
용적률 30.73%
설계참여자 김재덕, 김기좌, 최홍호, 이정숙, 강현미

배치계획
도시축과 직교하는 축으로 상징축을 설정하여 진입광장→매개공간→사색공간으로 공간진입의 위계성을 잡았다. 상징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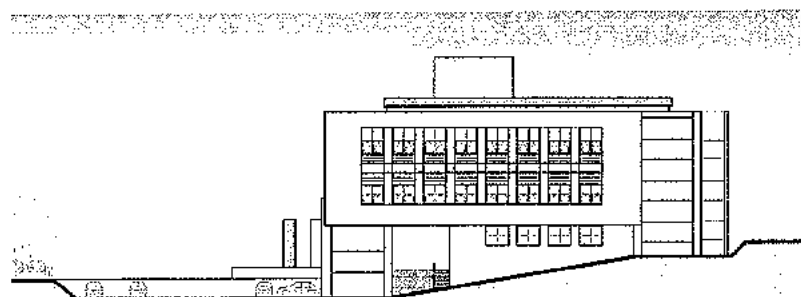
중점개념의 광장을 중심으로 세가지 매스가 각자 다른 형태를 지니며 조화롭게 어우러진 형상을 계획하였다. 안마당은 외부시선으로부터 차단되어 하나의 구심점이 되는 실의 개념으로 승화하였다. 매개공간에서 사색 및 창조의 공간에 이르는 주공간의 연출은 어두움에 밝고 활력을 주어 전통적 공간연출을 자연스럽게 중점에 유입해 현재와 미래를 접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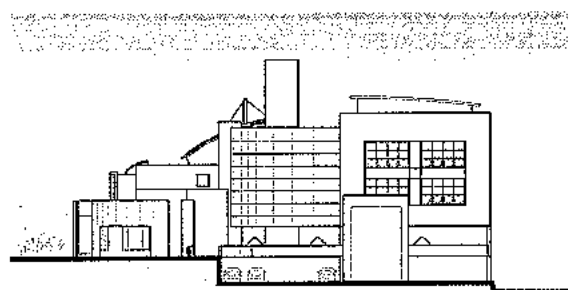
배치 및 1층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E

domus

World ARCHITECTURE

l'ARCA

l'architecture d'aujourd'hui

建築文化

a+u

新建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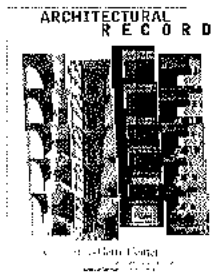
NIKKEI ARCHITECTURE

ARCHITECTURAL RECORD

97년 11월호

본 호는 일반 공개를 눈앞에 두고 있는 Richard Meier의 대규모 프로젝트 Getty

Center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건축기능별 근황을 살펴보는 연속기획에서는 주택재개발에 대해 다루고 있다.



■ Richard Meier의 Getty Center



디자인에서 시공까지 약 15년이 소요되고 있는 Getty Center가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세기의 프로젝트"라고 불리우는 Meier의 근작에 대하여, 자세한 사진들과 도면, 그리고 그것이 완공되기까지 관여했던 재단, 건축, 박물관, 예술계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게재하였다.

■ 기능별 건축 연구 - 주택재개발

한 조사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 자신의 주택을 재개발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주택 소유자의 40%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에 있어 실제로 작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건축가가 아니

라 재개발업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토건업자들이다. 건축가들에 의해 수행된 주택재개발의 모범적인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 건축계의 설계경기에 대하여

지방의 소규모 설계경기는 젊은 건축가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지만, 국제적인 규모의 설계경기는 정치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진정한 건축은 건축주와의 지속적인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설계경기는 적합한 건축수단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설계경기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일반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건축가들에게 설계경기의 참여 목적은 애초부터 당선에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건축주의 간섭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건축가로서는 매우 드문 기회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다.

■ 기타

▶건축계, 건축교육계의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 현황, ▶Robert A.M. Stern의 디즈니 Flying Fish 카페 등 건축조명의 독창적인 사용에 등이 게재되어 있다.

ARCHITECTURE

97년 11월호

본 호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층건축 전문으로 알려져 있는 KPF의 현황과 운영 방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 KPF의 근황

80년대에 등장해 고층건축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50, 60년대 SOM의 신화를 재현했던 Kohn Pedersen Fox Associates(KPF)는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많은 내부 수정을 가해야 했다. 고층건축을 시장이 감소함에 따라 고층건축을 전문 설계사무소라는 이미지는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아시아에서의 활동과 더불어 공공기관, 교육시설 건축 중심으로 주 업종을 전환한 KPF의 근황과 작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완공된 작품들로 ▶미국 워싱턴 D.C.의 월드뱅크,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의 First Hawaiian Center, ▶미국 뉴욕 Armonk의 IBM 본부, ▶미국 오레곤주 법원이 소개되어 있고, 진행중인 프로젝트로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 의학부, ▶미국 뉴욕 Baruch대학 교육관 등의 교육시설과 한국에서 진행중인 ▶서울 삼양 복합빌딩, ▶서울 데이콤 본사,



뉴욕 Armonk의 IBM 본부



미국 오레곤주 법원

▶부산 대우타워, ▶서울 패션센터. 그 외에 중국, 싱가포르, 대만에서의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다.

■ 기타

▶“건축계의 Michael Jackson” Michael Graves와의 인터뷰, ▶미국 워싱턴 D.C.의 재활성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건축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디자이너 Charles와 Ray Eames 작품전 소식 등을 다루고 있다.

domus

97년 10월호

건축에 있어 예술적 의의와 표준화, 공업화 사이의 대립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본 호에 서는 공업화, 조립식 건축의 모범적인 예들을 살펴보고 있다.



■ 예술과 규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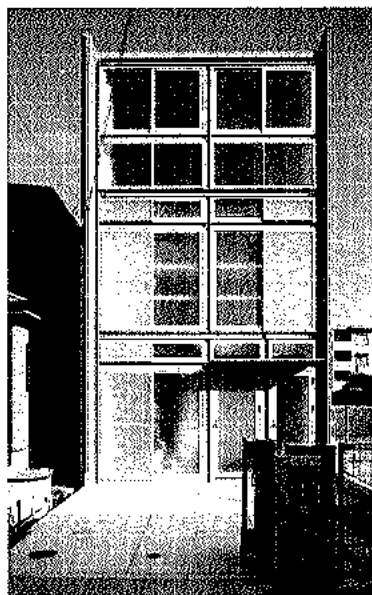
수많은 응용 예술분야들 중에서 근현대의 기술적 상황에 가장 느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건축이다. 건축에는 아직도 기술의 지배, 즉 공업화, 규격화와 같은 방식의 도입에 대해 도덕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건축은 기본적인 속성상 이러한 기술적 적용이 불가피하다. 또한 그것이 건축가의 창작성을 감소시킨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독단적이다. 건축의 예술성과 기술적 합리성의 대립은 근대의 Henry van de Velde와 Hermann Muthesius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14년 당시 그들의 쟁점을 있는 그대로 다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공업화 건축

공업화, 표준화, 규격화된 재료와 시공 방식을 통해서 건축가 자신의 독창성을 주입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다양한 실험적인 주택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Nobuaki Ishimaru의 일본 고베 주택, ▶Gerhard Merz의 Dresden 사무 연구동, ▶Patrick Berger와 Jacques Anziutti의 Dijon Bourgogne 대학교 부교회당, ▶Geuze와 Koen van Velsen의 Rotterdam Schouwburgplein Path Multicinema 재개발 등이 소개되어 있다.



실험적 주택 프로젝트의 한 예



Nobuaki Ishimaru의 일본 고베 주택

■기타

▶실험적인 형태들이 시도되고 있는 Clino Trini Castelli의 일본 Hitachi 제품 디자인, ▶기술 위주의 사고 영역을 벗어난 Marco Susani, Mario Trimarchi의 디자인 세계, ▶최대한의 융통성을 목적으로 이동식 사무가구들이 배치된 Dante Bonuccelli의 IBM 사무실 디자인,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들의 이야기, ▶베니스 비엔날레와 Kassel 도큐멘타 X에 대한 평가, ▶근대성을 바탕으로 새롭고 엄숙한 재평가를 내리고 있는 그리스의 신예 건축가 Christos Papoulias의 작품 세계, ▶이탈리아 Milano에 있는 BBPR의 작품들과 그 위치도 등이 소개되어 있다.

World ARCHITECTURE

97년 11월호

본 호의 국가 특집으로는 경제상황 변화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한 일본건축을 다루고 있으며, 설계

사무소 연구로는 TSA를 선정하여 각종 작품, 프로젝트들과 성공적인 운영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 일본 현대건축

10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성장으로 일본은 세계에서 제일가는 건축시장이었다.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의 초고층 건축붐으로 그 스카이라인이 재형성되었으며, 각종 공연장, 시청 건축이 그 뒤를 이었다. 90년대에 거품경제가 걷히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급격히 줄었으나, 고베 지진 등이 여전히 건축작업을 요하고 있으며, 건축가들은 감소한 작업량에 대해 디자

인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적응하고 있다. "상업적"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금기시되고 있는 "문화적"인 일본 건축계를 살펴해보았다.

▶일본 건축계의 대표적인 건축설계사무소들과 그 작품들, ▶일본에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진출을 한 Cesar Pelli & Associates의 경영 전략, ▶Hiroshi Hara의 JR West 교토역, ▶Tadasu Ohe/PLANTEC의 교토 나라 Santen 연구개발원, ▶MIKAN의 나가노 NHK 방송국, ▶COELACANTH Architects의 치바 Utase 초등학교, ▶Kumamoto Artpolis를 중심으로 본 일본 도시계획의 특성 등이 소개되어 있다.



Hiroshi Hara의 JR West 교토역

■ 건축설계사무소 특집 - The Stubbins Associates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요코하마 Landmark Tower를 비롯하여 고층 건물, 대사관, 호텔, 교육시설 분야에서 많은 작품을 생산하고 있는 The Stubbins Associates(TS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TSA는 또한 사무소 대표의 교체

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인테리어 부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요코하마 Landmark Tower

미국 캘리포니아주 Simi Valley Ronald Reagan 도서관 등이 소개되어 있다.

■ 건축설계사무소의 임금

북미,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홍콩/일본, 스칸디나비아 반도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설계사무소의 직위별 임금, 직원들에 대한 혜택, 신규 사원모집 방식 등이 비교 분석되어 있다.

l'ARCA

97년 11월호

빠르게 변화해가는 테크놀로지의 영역 속에서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화두로 제시한 본 호에서



는 John M. Johansen, Christian de Portzamparc, Frank O. Gehry 등의 작품들이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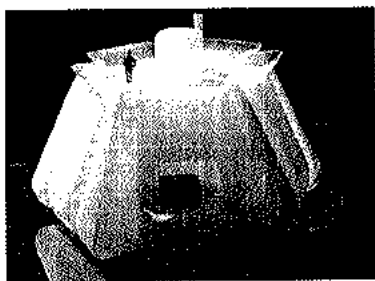
■ 시스템과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는 건축에 있어 현대적 풍토 속에서 파생되어 나온 학문 분야의 적용을 실험하는 장을 제공하였다. 건축가들은 구조적 힘의 균형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응축된 복잡한 디테일들이 건축 전반의 가치를 대치해가고 있다. 구축과 관련된 지식들을 분할하고, 형태, 대상, 진위성 사이의 관계를 파괴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은 건축가의 권위를 제거해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재료와 아방가르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다는 취지 아래 만들어지는 건축물들은, 오히려 급속히 발달하는 재료와 테크놀로지의 속도에

의해 무용화되어 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기능적일 수가 없는 것들을 재빨리 대체하고 재활용하는 "관리, 유지" 사이클을 만들어냄으로써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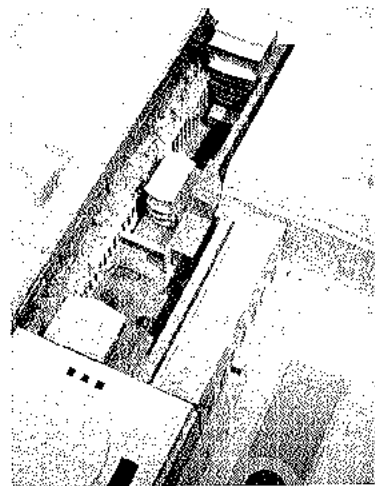
■ 근작 소개

▶John M. Johansen의 프로젝트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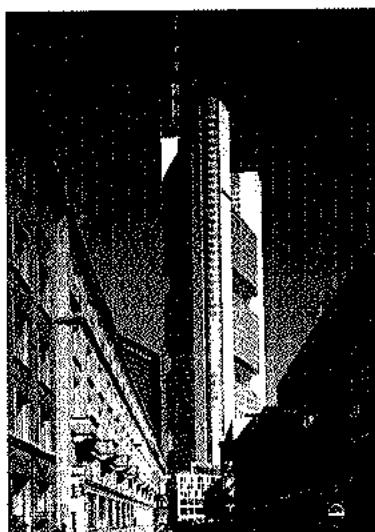


조선, 특히 계란 껍질과 같은 새로운 유리 섬유 선박의 건조에서 사용되었던 건설 기법을 차용한 이 프로젝트에는 구조적 자립성과 강한 저항력이 돋보인다. 건축에 있어서 합리주의의 위기를 직접 경험하였고, 건축언어를 인식론적으로 연구해온 Johansen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 ▶Dominique Perrault의 독일 베를린 Velodrome, ▶Christian de Portzamparc의 독일 베를린 프랑스 대사관, ▶Walter Zbinden의 프랑스 베르사이유 La Bruyère 고등학교, ▶Pascale Seurin의 프랑스 Longjumeau Jean Perrin 고등학교, ▶Foster and Partners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Christian de Portzamparc의 독일 베를린 프랑스 대사관



Foster and Partners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Commerzbank 본부

Commerzbank 본부, ▶Ingenhoven Overdiek Kahlen und Partner의 독일 엡센 RWE AG 본부, ▶Frank O. Gehry & Associates의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과 체코 프라하 Nationale Nederlanden 빌딩, ▶Ernst Giselsbrecht의 오스트리아 Schwarzsach Medienhaus, ▶Bentham Crouwel Architekten BV bna의 체코 헤이그 Malientoren 빌딩, ▶Stephen K. Chung의 미국 메서추세츠주 링컨주택 등이 소개되어 있다.

l'architecture d'aujourd'hui

97년 10월호

본 호는 최근 건축계의 화제가 되고 있는 Frank O. Gehry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에 대하여 그 건립 배경부터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l'architecture d'aujourd'hui



■ Frank O. Gehry의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미술관 원경



1992년의 초기안

스페인의 Basque 지역 수도인 빌바오는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실업률이 폭등함에 따라 퇴락하는 시로 여겨졌다. 여기에 정부와 지방 책임자들은 과감하게 새로운 기관을 도입하여 시를 재활성화시키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미국 구겐하임 미술관의 신관을 건립하는 것이었다. 정치적 배경과 필요성, 건축가 Gehry의 개인적 능력이 하나의 기회를 통해 표출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에 대한 비평, 사진 에세이, Gehry와의 인터뷰 등이 소개되어 있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Basques 정부에 의해 예산이 지원되고 관리되지만 그 상표는 미국의 것이며 그 이름으로 대표되고 있다. 문화적 제국주의의 예로도 평가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이중 관리 체계가 미술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수도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곡선의 건축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컴퓨터 모델링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체적으로 놀라운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1992년의 초기안에서부터 1994년의 설계경기 제출안,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모델링과 철골 구조 계산 절차 등이 소개되어 있다.

■ 브라질리아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나뉘어진 국가를 통합한다는 이상적인 꿈을 갖고 완전히 새롭게 건설된 브라질의 새로운 수도 브라질리아를 약 40년만에 다시 찾아가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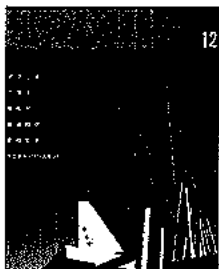
■ 기타

▶지난 9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탈리아 건축가 Aldo Rossi에 대한 Jean-Claude Garcias와 Jacques Herzog의 회고, ▶근대 건축과 미술의 효시로 새롭게 평가받고 있는 Friedrich Froebel의 기하학 교육, ▶네덜란드 로테르담 건축회관에서 올 가을 개최중인 Daniel Libeskind의 작품 전시회, ▶프랑스 Lille 미술관의 기계식 전시장 장치, ▶프랑스 건축가 Sylvain Dubuisson의 인테리어 작품들 등이 소개되어 있다.

建築文化

97년 12월호

이번 호에서는「건축과 음악」이란 주제로 특집이 다뤄 졌다. 이 특집에서는 이가라시 타



로우 등에 의한 12편의 에세이가 소개되고 있다. 작품 소개로는 주로 일본 작가들의 주택작품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아웃사이드 라인'이라는 작품의 소개도 함께 이루어 졌다.

■특집 - 「건축과 음악」

본 특집은 '건축과 음악, 이 둘은 어디서 만나는가'라는 물음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물음에 대하여 콘서트 홀-음악이 그곳에서 연주되는 공간(건축)-은 누구나 용이하게 상기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수준에서 머무르려는 것은 아니다. 유럽의 고딕시기에 건축과 음악이 어떤 종류의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지적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슈타하우스젠과 같은 현대음악에 있어서는 공간=場을 추구하는 사고와 시행은 결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 특집에서는 건축 혹은 공간과 음악의 관계 착안을 추구함과 동시에, 건축과 음악, 이 양자가 다양한 레벨, 국면에 있어서 연결되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하고 있다(예를 들어 벨러리-『에우파리노스』로 언급되는 「건축이 노래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통상과는 다른 눈으로 건축과 음악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다.

■작품

▶요마우리 미디어 미아게 게스트 하우스 (야베 히토시 아틀리에 설계)



서측 외관

산림속에 위치한 이 게스트 하우스의 목적은 건축주가 경영하는 광고 대리점의 회의나 세미나, 접대 등과, 건축주의 취미였던 산책 채집과 산행을 위한 기지가 되는 것이다. 이 상반된 두 가지 기능의 수용을 위해 설계자는 커다란 오픈스페이스를 두었으며, 특히 대지의 기후가 한랭지인 것을 고려해 오픈스페이스에서의 냉난방의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난방비의 절감과 오픈스페이스 상·하부 간 온도의 균형을 위해 상부의 공기를 강제로 바닥면까지 순환시키는 설비를 채택하고 있다.

▶아타고야마의 집 (요네다 아키라/ 아키텍톤 설계)



이 주택은 주인 부부와 성인이 된 독신의 자녀를 위한 것이다. 경사진 대지로 인해 전면의 도로는 지하층의 레벨로 차고로 사용되며, 1층은 주인 부부, 2층은 자녀를 위한 공간이 되고 있다. 건물의 입구는 하나이나 천창이 설치된 반 외부 공간 안에 각층에 이르는 현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2세대 주거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Out Side Line(다니엘 리베스킨트 설계)



아웃사이드라인은 우오조시를 내려다 볼 수 타테야마(立山)에 세워진 전망대에 이르는 길에 세워진 구조물이다. 전망대에 이르는 계단과 좁은 폭의 길로 이루어진 경로는 language line이라 이름 지워졌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수직으로의 굴곡을 지닌 선형 구조물이 out side line이다. 아웃사이드라인의 붉은 색은 하늘의 청색과 숲의 녹색과 강한 대조를 이루도록 계획되어졌다.

a+u

97년 12월호

이번 호에서
작품이 소개된
작가로는
Carl-Viggo
Hølmbeck,
Sergison
B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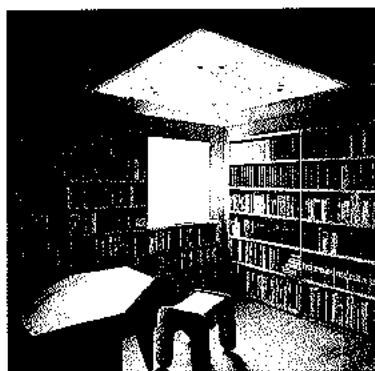


Architects, Marie-Claude Bétrix & Eraldo Consolascio with Eric Maier, RFR 등이며, 연재로는 30년대의 영국 근대 주택-Part 3: House on the Nweton Road(와타나베 겐지)이 게재되었다.

■작품

▶Carl-Viggo Hølmb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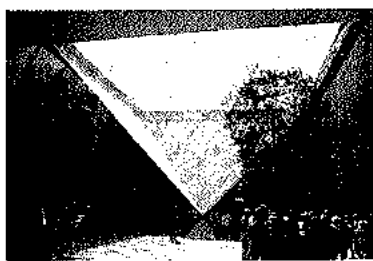
노르웨이의 작가 칼 비고 홀름벡의 5개의 작품과 Wilfried Wang의 홀름벡에 관한 에세이가 소개되었다. 소개된 작품으로는 3000권의 서적을 보관하기 위한 개인 도서관, 그 옆에 계획된 원통형의 창고와 작업실, 두 개의 계단이 있는 주택, 노르웨이의 광활한 산들을 배경으로 한 전망대인 'Viewpoint Platform', 그리고 Summer House이다. Wang의 에세이 'Dream and Transfiguration of the Elementry'에서는 그의 작품이 베르 펜(Sverre Fehn)과 루이스 칸의 작품에서 영향받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개인도서관 내부

▶구조기술자 그룹 RFR

구조기술자들의 사무소 RFR의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RFR은故 피터 라이스에 의해 설립된 구조 디자인의 집단으로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멤버인 장 프랑소아 블라셀은 자신들의 작업이 결코 디자인의 과정과 다르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0년간 각 분야로 전문화된 건설 혹은 건축의 프로세스에 대하여, 각 전문가간의 원활한 의견교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또한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작업은 과학적 합리주의와 발명이라는 두 가지 흐름의 배경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소개된 작품으로는 루브르 박물관의 역 피라미드, 플레즈(Falaise)城的인장 천막 지붕(tensile fabric roof), 프랑스 릴의 TGV역사, 찰스 드 골 공항 터미널 2층, 프랑스 릴의 노트르담 사원의 서측 파사드 개축, Frank Stella의 조형물의 설치 등이다.



루브르박물관의 역 피라미드

■연재 -1930년대의 영국 모던 주택

19세기 말에 발생한 근대건축은 1930년대에 이르러 그 발생지인 영국에 다시 들어서게 된다. 즉 1910년대의 초까지만 해도 앞서나가고 있던 영국은 이들의 건축이 유럽의 아방가르드에게 흡수되어 발전되는 동안 뒤쳐져 있었던 것이다. 1차 대전을 거치면서 유럽은 영국식 자본주의의 위기를 느끼고 근대화의 박차를 가했으며, 근대건축은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30년대에 다시 영국으로 소개되게 되었다. 영국은 이러한 뒤쳐짐에 대하여 재빨리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대처하기 시작했다. 근대건축의 비평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30년대의 영국 근대건축은 젊은 건축가

들에 의해 유럽의 근대건축이 실험되면서도 사회적 비판 의식이 그 배경에 남아 있게 된다. 소개된 주택의 작가인 Denys Lasdum도 예술성 강한 그의 작품세계의 배경에는 강한 사회적 의식이 남아있다.



영국 모던주택의 한 예인 Denys Lasdum의 주택

新建築

97년 12월호

이번 호의 작품 소개에는 이케하라 건축설계사무소의 사카타 미술관이 많은 지면에 걸쳐 소개되었다.



다. 이 외에 루리시市立 타마시타 기타 중학교(조토무 시게무라와 공동설계), 에콜 드 하야마(카지마 디자인 설계) 등이 소개되었다. 특징으로는 '고령 사회를 위한 디자인'이란 주제로 각종 노인시설들이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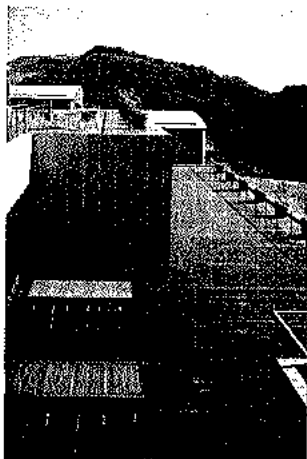
■작품

▶ 사카타시 미술관(이케하라 건축설계 사무소 설계)



사카타시 미술관은 넓은 대지를 이용한 구성이 돋보인다. 전체 건물은 하나의 긴 벽이 자연의 대지를 끌어안듯이 자리잡고 이러한 에워싸임에 또다른 벽의 구성이 첨가되고 있는 형상이다. 따라서 전체 건물의 공간은 이 두 가지 벽에 의해 특징 지워지고 있다. 두 개의 상설 전시실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배치되어 독립성이 강조되고 주위의 식재들과 어우러져 각자의 개성을 지닌 공간이 되고 있다. 설계자는 이곳이 예술을 감상하는 공간으로서의 성격 뿐만 아니라 예술에 감싸여진 공간에 방문자가 심취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의도하고 있다.

▶ 에콜 드 하야마(ECOLE DE HAYAMA)
(카지마 디자인 설계)



에콜 드 하야마는 시세이도(資生堂)의 연

구소이다. 대·소 연구실과 숙소, 식당 등을 갖춘 시설로서 건물 전체는 콘크리트와 목재 두 재료의 대비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숙소동은 natural 컬러와 vivid 컬러 두 가지의 분위기로 계획되었으며, 해변을 배경으로한 대지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많은 테크와 테라스가 마련되었다.

■건설 현장 - 다이들러 벤츠 포츠담 광장 계획

1989년 동서의 벽이 붕괴된 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베를린, 그 중에서도 1991년에 시작되어 비중 있는 컴페티션에 의해 계획된 다이들러 벤츠 포츠담 광장지구의 건설이 진행중이다. 실시설계는 1993년에 렌조 피아노와 크리스토퍼 울베커의 안이 마스터 플랜으로 채택되어 6조의 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해 1998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아리타 이소자키가 참여한 ब्ल록 C2, C3棟이 소개되었다.



C2/C3동 동측 외관

NIKKEI ARCHITECTURE

97년 11월 24일자

97년 12월 1일자

11월 24일자는 '환경 디자인 97'이란 주제로 다루어졌다. '녹화의 실천 테크닉'이란 제목이 붙은 이 특집은 5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되었다. 또한 렌조 피아노의



우시부카 하야마 大橋와 미호 미술관의 미술관교각과 터널이 자세히 소개되었으며 신작 소개도 공원설계 작품이 다루어졌다.

■특집 - 緑化의 실천 테크닉

에콜로지에의 사회적 관심의 상승을 배경으로 건축에 녹지를 첨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Biotope나 옥상녹화, 환경보전이라는 녹화수법도 적극적으로 설계에 도입되게 되었다.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식물의 생태를 시작으로 하는 건축의 세계에서 그리 다루어지지 않았던 생물학상의 지식도 필요하게 된다. 건물과 식재의 위임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적 공법도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개의 케이스를 통하여 그 실천 테크닉을 알아보았다. 소개된 케이스는 기린맥주 코요베 공장, 五洋건설 나슈연구소, 오모타區立 이케가미홀, 카지마 교토 야마시나 기숙사, 미에縣立 간호대학 등이다.

12월 1일자의 특집은 '여기까지도 쓸 수 있는 免震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내진설계 기법에 대해 다루었다. 이 외에 주택의 케이스 스터디로서 '2인을 위한 스몰 하우스 연출법'이 다루어져 3가지의 케이스가 소개되었다.



■특집 - 여기까지도 쓸 수 있는 免震기술

대지진을 경험한 후 일본 설계자들의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비전문가들인 일반인의 이해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내진설계의 원리를 건축주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설계자의 몫으로, 이를 위해 이번 특집에서는 건축주에게 내진설계의 원리를 쉽게 전달하는 방법을 각 설계사무소의 예를 통해 소개하고, 내진설계 기술의 다양한 방법을 6개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설계도서신고현황

97년도 11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1월분 1천6십3만8천2백53㎡ 보다 5.5%(5십8만4천8백58㎡) 감소한 1천5만3천3백95㎡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1월 누계 1억9백5만5천2백77㎡ 보다 1.3%(1백3십9만8천2백59㎡) 증가한 1억1천4십5만3천5백36㎡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10월분 1천8십8만41㎡보다 7.6%(8십2만6천6백46㎡) 감소한 1천5만3천3백95㎡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6년도	1997년도	증 감	비율(%)
중가지역				
서 울	4,928,909	4,972,141	43,232	0.9%
부 산	753,075	947,149	194,074	25.8%
인 천	402,728	474,008	71,280	17.7%
광 주	443,259	568,066	124,807	28.2%
울 산	0	63,703	63,703	-
경 기	748,843	899,350	150,507	20.1%
경 북	160,873	221,284	60,411	37.6%
제 주	36,302	51,390	15,088	41.6%
감소지역				
대 구	1,028,559	448,187	(580,372)	-56.4%
대 전	268,964	66,202	(202,762)	-75.4%
강 원	160,270	80,740	(79,530)	-49.6%
충 북	434,620	331,881	(102,739)	-23.6%
충 남	224,674	121,891	(102,783)	-45.7%
전 북	303,695	175,133	(128,562)	-42.3%
전 남	103,422	71,291	(32,131)	-31.1%
경 남	640,060	560,979	(79,081)	-12.4%
합 계	10,638,253	10,053,395	(584,858)	-5.5%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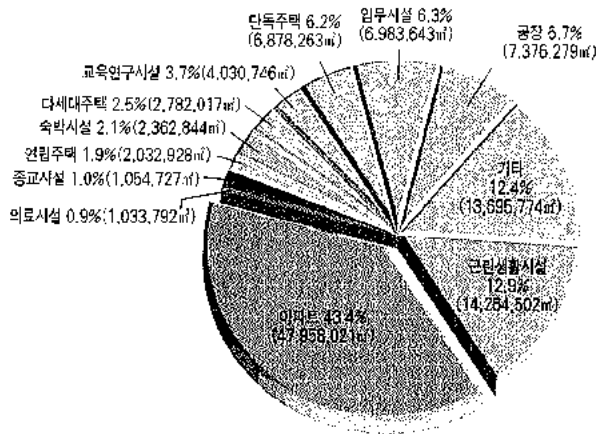
(용도)

단 독 주 택	532,148 (-31.5%)	364,766
다 세 대 주 택	191,236 (18.4%)	226,435
연 립 주 택	135,662 (17.7%)	159,689
아 파 트	5,015,318 (5.0%)	5,264,819
근린생활시설	1,297,357 (-24.3%)	981,600
종 교 시 설	73,954 (27.3%)	94,139
의 료 시 설	27,282 (146.8%)	67,319
교육연구시설	353,140 (5.4%)	372,270
업 무 시 설	619,319 (43.8%)	890,519
숙 박 시 설	192,959 (-25.8%)	143,143
공 장	994,728 (-50.0%)	497,053
기 타	1,446,938 (-31.5%)	991,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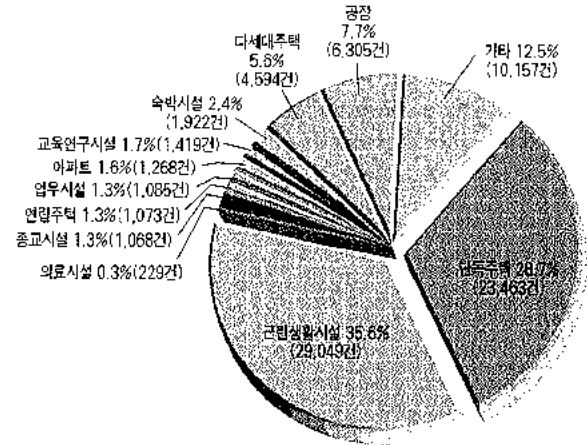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1월분)

구 분	1996년			1997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1,603	1,684	454,030	1,246	1,317	364,766	(357)	(367)	(89,264)	-19.7	
다 세 대 주 택	411	443	226,637	290	307	226,435	(121)	(136)	(202)	-0.1	
연 립 주 택	85	93	115,983	86	111	159,689	1	18	43,706	37.7	
아 파 트	115	257	5,148,670	115	384	5,264,819	0	127	116,149	2.3	
근린생활시설	2,338	2,482	1,107,297	1,995	2,087	981,600	(343)	(395)	(125,697)	-11.4	
종 교 시 설	88	97	58,353	86	98	94,139	(2)	(1)	35,786	61.3	
의 료 시 설	22	24	165,842	14	15	67,319	(8)	(9)	(98,523)	-59.4	
교육연구시설	144	163	270,011	152	163	372,270	8	0	102,259	37.9	
업 무 시 설	97	98	636,850	103	116	890,519	6	18	253,669	39.8	
숙 박 시 설	171	188	176,350	118	123	143,143	(53)	(65)	(33,207)	-18.8	
공 장	654	867	899,914	486	635	497,053	(168)	(232)	(402,861)	-44.8	
기 타	1,030	1,184	1,378,316	911	1,085	991,643	(119)	(99)	(386,673)	-28.1	
합 계	6,758	7,580	10,638,253	5,602	6,439	10,053,395	(1,156)	(1,141)	(584,858)	-5.5	()=미이너스

용도별 구성비(1997년 11월 누계)



면적 (총 110,453,536㎡)



건수 (총 81,632건)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1월분)

구분	1996년			1997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면적	건 수	동 수	면적	건 수	동 수	면적		
서울	1,230	1,237	4,928,909	948	961	4,972,141	(282)	(276)	43,232	0.9	
부산	587	800	753,075	524	776	947,149	(63)	(24)	194,074	25.8	
대구	356	356	1,028,559	289	289	448,187	(67)	(67)	(580,372)	-56.4	
인천	219	224	402,728	219	224	474,008	0	0	71,280	17.7	
광주	416	496	443,259	276	412	568,066	(140)	(84)	124,807	28.2	
대전	212	213	268,964	141	141	66,202	(71)	(72)	(202,762)	-75.4	
울산	0	0	0	59	59	63,703		59	63,703	-	
경기	1,168	1,335	748,843	1,183	1,409	899,350	15	74	150,507	20.1	
강원	306	348	160,270	247	282	80,740	(59)	(66)	(79,530)	-49.6	
충북	341	435	434,620	308	364	331,881	(33)	(71)	(102,739)	-23.6	
충남	317	272	224,674	257	195	121,891	(60)	(77)	(102,783)	-45.7	
전북	216	216	303,695	80	80	175,133	(136)	(136)	(128,562)	-42.3	
전남	232	261	103,422	163	174	71,291	(69)	(87)	(32,131)	-31.1	
경북	361	464	160,873	336	369	221,284	(25)	(95)	60,411	37.6	
경남	690	808	640,060	467	585	560,979	(223)	(223)	(79,081)	-12.4	
제주	107	115	36,302	105	119	51,390	(2)	4	15,088	41.6	
합계	6,758	7,580	10,638,253	5,602	6,439	10,053,395	(1,156)	(1,141)	(584,858)	-5.5	()=미야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1월 누계)

구분	1996년			1997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면적	건 수	동 수	면적	건 수	동 수	면적		
서울	24,490	24,551	52,262,971	13,971	14,033	49,859,272	(10,519)	(10,518)	(2,403,699)	-4.6	
부산	7,289	9,797	9,234,430	5,032	7,705	11,700,758	(2,257)	(2,092)	2,466,328	26.7	
대구	7,640	7,684	7,864,157	4,824	4,829	6,348,349	(2,816)	(2,855)	(1,515,808)	-19.3	
인천	3,628	3,709	4,244,628	3,001	3,056	5,184,025	(627)	(653)	939,397	22.1	
광주	3,265	3,871	2,617,665	3,446	4,005	2,598,569	181	134	(19,096)	-0.7	
대전	3,019	3,067	1,848,573	2,671	2,702	1,809,068	(348)	(366)	(39,505)	-2.1	
울산	0	0	0	864	901	562,993		864	562,993	-	
경기	18,064	19,883	11,241,103	15,878	17,968	11,218,405	(2,186)	(1,915)	(22,698)	-0.2	
강원	4,597	5,023	1,850,860	4,632	5,061	1,942,221	35	38	91,361	4.9	
충북	4,074	4,699	2,905,975	4,417	5,218	3,319,540	343	519	413,565	14.2	
충남	3,362	2,930	2,006,106	3,630	2,928	2,355,110	268	(2)	349,004	17.4	
전북	2,393	2,395	1,823,753	2,746	2,746	2,100,462	353	351	276,709	15.2	
전남	3,211	3,552	1,482,669	3,054	3,292	1,650,557	(157)	(260)	167,888	11.3	
경북	4,603	5,673	2,536,573	4,200	4,641	2,733,089	(403)	(1,032)	196,516	7.7	
경남	9,716	11,164	6,420,514	7,644	8,948	6,361,259	(2,072)	(2,216)	(59,255)	-0.9	
제주	1,556	1,709	715,300	1,622	1,798	709,859	66	89	(5,441)	-0.8	
합계	100,907	109,707	109,055,277	81,632	89,831	110,453,536	(19,275)	(19,876)	1,398,259	1.3	()=미야니스